

KOREAN

ARCHITECT

월간 건축사 1996년 8월호 통권 328호(매월 6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03-55 등록 : 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 : (사)라 - 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 8월호 통권 328호

건축사 연수의 미래상
단기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9)
원작을 본뜬 현대 미술문화관
위아와 음악당
뉴욕의 프라자
미국 시애틀의 실내체육관
작품노트
기획연재
건축사 연수의 미래상
단기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9)
원작을 본뜬 현대 미술문화관
위아와 음악당
뉴욕의 프라자
미국 시애틀의 실내체육관
작품노트
기획연재

96 8
August

박길홍(2)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공고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6년 7월 2일

대한건축사협회장

구 분	건 축 사 자 격 시 험	건 축 사 자 격 특 별 전 형 시 험
1. 응 시 자 격	건축사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건축사법 부칙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4918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건축사법 부칙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 법률 324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시간	시험일자 : '96. 9. 22 시험장소 : '96. 9. 12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시험시간 : '96. 9. 12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건축사자격시험과 동시 시행
3. 시험과목 시험방법	건축법규 - 객관식 선택형 건축설계 - 실기 (건축설계 과제명은 당일 제시)	건축계획, 건축구조 - 객관식 선택형
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6. 7. 22 ~ 7. 27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 ○ 서울건축사회 : (02) 581-5715~8 ○ 대구건축사회 : (053) 753-8980~5 ○ 광주건축사회 : (062) 521-0025~6 ○ 경기건축사회 : (0331) 47-6129~30 ○ 충북건축사회 : (0431) 56-2752 ○ 전북건축사회 : (0652) 87-6007~8 ○ 경북건축사회 : (053) 744-7800~2 ○ 제주건축사회 : (064) 22-3248 ○ 부산건축사회 : (051) 633-6677 ○ 인천건축사회 : (032) 437-3381~4 ○ 대전건축사회 : (042) 255-9350~4 ○ 강원건축사회 : (0361) 54-2442 ○ 충남건축사회 : (042) 256-4088 ○ 전남건축사회 : (062) 364-7567 ○ 경남건축사회 : (0551) 46-4530~1	
5. 제출서류	가. 출원서 제출서류 ○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 부 ○ 컬러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 : 2 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34,000원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① 응시표사본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호적초본 1부 ④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1급 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또는 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또는 2급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⑤ 학력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컬러사진 2매 (뒷면에 응시번호, 성명 기재) ⑧ 우편봉투 1매 (수취인 주소 기재) ※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6. 응시자 지참물	1) 공 통 : 응시표, 신분증 2) 필기시험 : 컴퓨터용 수정용인펜 (객관식 선택형 답안용), 흑색연필 (건축설계용), 3) 설계시험 : 600mm×900mm 규격 제도판 필히 지참 (경사각도 조절장치 부착된 제도판 사용 가능), T형자 또는 제도판 부착 평행자, 삼각자, 스캐일자, 소형전자계산기, 지우개, 기타 제도용품 (단, 기계식 제도기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2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설계시험을 실시함.	
7. 합격예정자 발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96. 10. 31 11:00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 '96. 11. 4 ~ 11. 9 (단, 토요일은 13:00까지)	
8. 응시자 준수사항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제출자의 경력인정 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 ('96. 9. 21)까지로 하며, 만 18세 이후의 경력만 인정합니다. ○ 응시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본 협회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건축설계용지(깔판용지 포함)는 본 협회에서 배부하며 책상, 깔판용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경력신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각종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라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제출서류의 오기, 미비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시험답안지를 열람,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 또는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3년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내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처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로 문의 바랍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처 (02) 581-5711~4, 건설교통부 건축과 (02) 504-9139	

'96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후원하는 「'96한국건축문화대賞」은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현대적 정서 및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국내 최고권위의 건축공모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행사의 최고영예인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에 따른 국민주거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본상 6점중 3점을 주거건축물에 배정하여 주택분야를 독려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계획건축물부문은 종래의 신인·학생 구분을 개방하여 신인, 학생뿐만 아니라 건축문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성건축인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을 배우는 후진과 일반인들에게는 야심찬 도전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맥을 충실히 이어나갈 「'96한국건축문화대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 준공건축물 부문 (95년 1월 ~ 96년 8월 기간중 준공된 국내건축물에 한함)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 계획건축물 부문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에 한함)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면허 소지자 제외)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 전문대 및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 준공건축물부문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 첨부)
 - 패널제출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며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에 한해 별도 통보
- ▶ 계획건축물 부문
 - 작품주제 : ※ 아래의 두가지 주제중 택일
 - 주제1)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
 〈설계조건〉 6만명이상을 수용하여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전용경기장으로서 대치위치, 시설물규모는 작가가 임의설정하여 계획할 것
 - 주제2) 북촌마을 다시 그리기**
 〈설계조건〉
 - 설계내용 : 공동주택(10~15세대)
 - 대 지 : 북촌마을 구역내 몇 개의 필지를 임의선택(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계동지역)
 - 세대수 및 평형 : 임의, 단 현실성(현행법규, 지가, 임대료 혹은 분양가 등)이 있는 구성이어야 함
 - 기타시설 : 법정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60cm×60cm×50cm) 1점
 - 작품설명서(200자 원고지 기준 3~4매 분량) 1부 제출

□ 작품접수

- ▶ 준공건축물부문
 - 접수기간 : '96. 8. 12(월) ~ 8. 20(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4층 / 전화 581-5711~4)
- ▶ 계획건축물 부문
 - 접수기간 : '96. 9. 9(월) 09: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전화 736-2025~7)
 - 별도의 참가비(출품료)는 없으며 출품원서는 작품접수자에 한해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함

작품공모

□ 수상작발표 및 전시

- 수상작 발표 : 1996년 9월 16일자 서울경제신문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 1996. 9. 16(월) ~ 9. 24(화)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 기타 출품규정

- 계획건축물부문에 있어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널 및 모형의 보수·보강작업을 일체 금함
- 패널 및 모형은 반드시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준공건축물의 제출 사진첨증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이상의 패널은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작품반출(계획건축물)

- 일시 및 장소 : '96. 9. 13 09:00~17:00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단, 입선이상의 수상작은 작품전시 후 반출)
- 1차심사에 탈락한 작품 중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주최측에서 임의 폐기 처리하게 되니 유의 바람

□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건 축 시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1점)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동판	대통령상 (설계지나 시공자중 선정)
본상(6점)	"	"	"	주거3점, 비주거3점
우수상(1~2점)	해당자에 한해 트로피, 해외시찰		-	설계 또는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
입선작(다수)	상패		-	
공로상	트로피		-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 계획건축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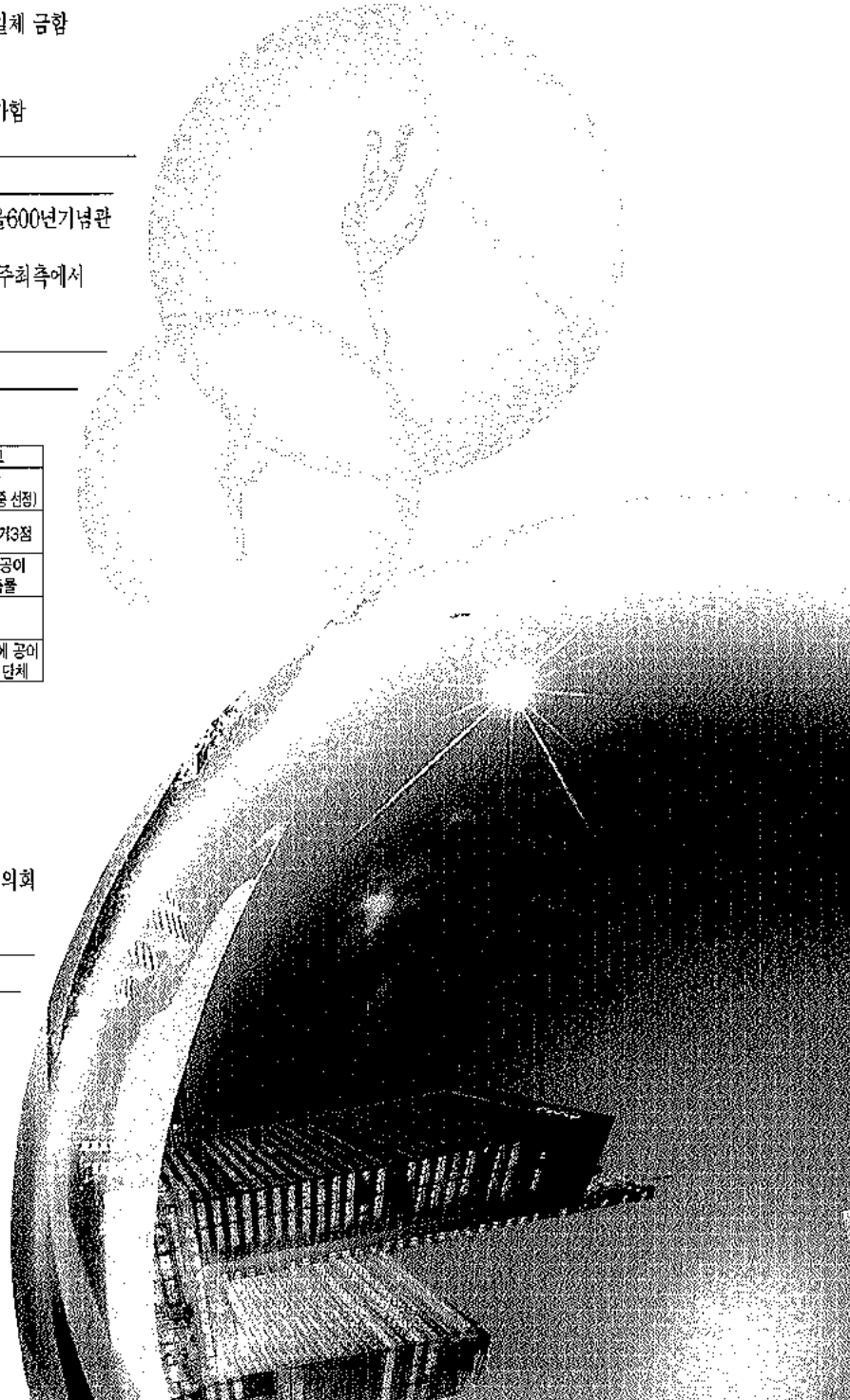
- 최우수상 (1 점) : 상금 700만원 및 상장
- 우 수 상 (2 점) : 상금 각 300만원 및 상장
- 장 려 상 (7 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 선 (다수) : 상장

* 수상자중 대학개학생에 한해 최고 성적자 2명은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학생챔버리 파견 특전

□ 문 의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Tel. 581-5711~4)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
후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建築士



표지사진 / 건정사옥(성계/노형래)

발행인: 김규태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조정상
위원: 방철린, 송호상, 심영섭, 원대연
편집·취재: 양원석, 정호상,
조한국, 윤대일, 김광미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부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등록번호: 서울 라-26(을간)
등록: 1967년 3월23일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Gyu-Tae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Cho Jeong-Sang
Member: Bang Cheol-Rin, Seung Hchich-Sang,
Shim Young-Seop, Won Dai-Yun
Assistant Editor: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23,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2)266-4555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1996년 8월호 통권 328호

칼럼	
건축사 연수의 미래상 / 원정수	22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9) / 최찬환	24
회원작품	
동국대 학술문화관 / 지 순+김자호	32
수원아외음악당 / 조주환+한종률	40
오금스포츠포라자 / 김창수+박 승+한상록	46
건정사옥 / 노형래	50
구리시 실내체육관 / 주영정	54
만나교회 / 임급주	58
계획작품	
인정빌딩 / 문성운	62
회원갤러리	
회색도시의 상념 / 강성익	64
물에 잠긴 달 / 한득현	65
작품노트	
원산업 천안공장 / 최승원	66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박길룡(2) / 윤인석	72
건축기행	
중국 고건축기행(2) / 김도경	78
전통건축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완) / 김지민	87
연구	
노인주거의 설계기준(6) / 강병근	96
현상설계경기	
관문점 자유의 집	102
거제 문화예술회관	108
태백 종합문화예술회관	112
과천동 다목적회관	116
통계	
96년도 6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18
협회·건축계 소식	120

CONTENTS

VOL. 328 AUGUST 199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강남구건축사회/484-6840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동대문구건축사회/823-6213 · 종로구건축사회/735-0305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동작구건축사회/815-9026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양천구건축사회/855-2892 · 홍성구건축사회/437-7356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5-9350~4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3-6862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8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8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8-0458 · 송탄지역건축사회/(033)666-6153 · 고양지역건축사회/(034)63-8902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명건축사회/(02)684-5345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8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30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철원지역건축사회/2-3307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3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3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보령지역건축사회/(0459)34-3367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6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9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5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8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80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968 · 청송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8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51)745-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80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신평지역건축사회/(0563)39-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82-2233

COLUMN

The Future of Architect's Study and Training / Won Chung-Soo 22

PLATFORM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9) / Choi Chan-Hwan 24

WORKS

Dongkook Univ. Athenaeum Building / Chi Soon & Kim Ja-Ho 32

Outdoor Music Pavilion in Suwon / Cho Ju-Hwan & Hahn Jong-Ruhl 40

Ogum Sports Plaza / Kim Chang-Soo, Park Seung & Han Sang-Mook 46

Kunjung Atelier / Ro Heoung-Rae 50

Kuri-shi Gymnasium / Joo Young-Jeong 54

Manna Methodist Church / Lim Gup-Joo 58

PROCESS WORK

Injeng Building / Moon Sung-Un 62

GALLERY

Notions of the Gray City / Kang Seong-Ik 64

The Moon Falls on the Water / Han Deuk-Hyun 65

WORK NOTE

Ele-Port Hill / Choi Seung-Won 66

SERIAL

Korean Architects / Park Gil-Ryong(2) / Yoon In-Suk 72

ARCHITECTURE TRAVEL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2) / Kim Do-Kyoung 78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E) / Kim Chi-Min 87

STUDY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6) / Kang Byoung-Keun 96

COMPETITION

The P'anmunjŏm 'House of Freedom' 102

Keoje Culture & Art Center 108

Taeback Culture & Art Center 112

Kwachon Multi-Purpose Hall 116

STATISTICS

118

NEWS

120



1996년도 건축사 연수가 지난 4월 22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전국 5천7백여명의 건축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15회에 나누어 치루어졌다.

이에 참가한 건축사 회원은, 사회계층으로 보아, 건축분야의 선도적 지도층이며, 특히 건축설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누구도 대역을 할 수 없는 사회의 주인공이다.

여기에 연수교육이 제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축사 연수의 미래상

The Future of Architect's Study and Training

원정수 / 인하대 건축과 교수
by Won Chung-Soo

건축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회원 모두에게 실시되도록 규정상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축사 자격이란 건축설계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국가에서 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므로 그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단순한 전문적 전공문제의 함량 미달을 보충하기 위한 교육이 되기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건축사 스스로 성장·발전되어지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방법과 형식은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회원 상호간의 활동상과 자료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거나, 또는 건축과 관련지어지는 여러상황의 변화에 따라 건축적 대응을 위한 정보전달을 위해 모이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대생활의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성인 교육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서, 각종 기업 또는 사회단체, 조직의 협동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계획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되는 군사적 훈련 방식도 있다.

이번 연수교육에 참석하는 방식은 의무조건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부실공사로 발생되는 건물 붕괴사건, 건설 부조리에 관한 사건들로 인해서 건축계를 보는 사회 시각들의 불신풃조의 골이 깊어진대 대한 영향으로 오는 화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한다.

본래 교육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보는 가치는 보람찬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으로 보는 가치는 밝은 희망을 보장받는 미래를 위해서 온 국민이 협력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교육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교육이 있다.

즉,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벌을 받는 방법의 하나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강제로 강요를 받는 형식의 교육도 있다.

따라서 평소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에서도 심리적 해석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피교육자 개개인의 상황과 심리적 시각차이에서 상반되는 교육성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훌륭한 교육과 만족한 교육성과를 위해서 연구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본 연수교육을 통해서 일어나 모든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회원 모두가 이를 정리하여 다음 기회가 되는 연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생각하여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제도의 사회는 다양한 전문분야가 능동적인 역할과 책임을 자치 분담하는 유기적 종합으로 최대의 장점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정치제도에서도 민선으로 위임받는 지방 자치제도가 시민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선진국의 한 사례에서 보면 건축행정의 모든 사항을 건축계가 담당하여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건축계가 가야할 미래의 방향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느꼈다.

국토개발, 도시발전계획 수립으로부터 건축허가, 심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건축사 스스로 도맡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하여 본다.

지금 상황에서 건축행정의 역할을 건축사 자치능력으로 수행하겠다면 마치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으로 생각할 것이 뻔하다.

미국 시카고의 초고층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평가와 판단을 우선하여 기존 법규 또는 시행, 규정 등이 새롭게 보완되며 발전된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의 건축계에서 그대로 적용시행한다면 공명하고 올바르게 건축계 자치력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까 생각하여 본다. 언젠가는!

이러한 목표와 주제를 중심으로하여 회원간의 의견교류와 토론이 쌓이면 우리의 잠재력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상호인식하는 행위와 과정이 연수교육의 기회와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축사 처벌 규정이 가혹하게 강화되어간다고 한다.

건축주, 시공자의 고질적 의식구조와 경제적 사회구조의 병폐로 발생하는 원인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에는 손댈 엄두도 않고 손쉬운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건축사가 도맡아 처벌을 받는 것은, 마치 주차장 절대 부족의 전국적 현실에서 주차장 건설대책을 펴하고 주차단속만을 강화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이 기회에 건축사 스스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 행정내용과 건축기술 발전 홍보를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일반시민, 건축주들에게 계몽교육을 펼치면서 건축사 보호 자구책을 갖도록 생각하여 본다.

이 기회에 건축사협회를 주축으로한 건축정보통신망을 계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정보고속화가 촉진되면, 설계공통정보자료는 모두가 공유하여 편의를 도모하여, 물리적 생산에 소모하는 시간을 창작적 차원에 몰두하는 시간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하여 높은 차원의 건축문화를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에서도 선도적 국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창작과정의 경험정보를 공개하는 모임을 갖고 서로 대화를 갖는 것이 다음의 연수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앞으로 연수교육장은 서로 참여하고 기다려지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1. 서론

의(衣)·식(食)·주(住)의 3대 기본생활요소 중에서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고도경제성장과 더불어 거의 해결되었으나 주(住)는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 양적 부족에 얹매여서 질적 주거수준의 향상은 아직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9)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주택이란 상품은 워낙 큰 돈이 소요되므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국민 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민간주택시장의 자율기능에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으므로 국가 공공

복지정책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19만호를 포함한 주택 200만호 건설 및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은 물론 국민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층은 국가정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제공해야 하지만 정책을 시행한 지도 몇 년 되지않았고 그 공급물량도 적어서 대다수의 도시영세민들은 국민층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수혜대상도 되지 못하며, 일반주택시장에 자력으로 참여할 경제적 능력도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영세민들의 노후불량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법이 시행되어 왔다.

특히, 1983년 이후 합동재개발방식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물리적 개량이나 도시미관의 개선,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이용 측면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나, 사업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도시영세민들의 재 정착률은 10~20%정도에 불과하여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9년 4월에 제정되어 1999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령 확정과 함께, 서울의 79개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총 502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추진된지 6여년이 경과되어 서울지역의 경우 대상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구나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도 다수 있다.

이는 현행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향후 임시조치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배경과 내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배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합동재개발은 1980년대의 대표적인 재개발 방식이었다. 또한 합동재개발방식은 재개발대상지구 주민이 시행주체가 되어 참여사업자, 즉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현대식주택을 건설하는 주민과 건설회사의 합동적 노력에 의한 주민주도의 재개발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었으나 합동재개발은 해당지역의 저소득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산층 외지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점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가옥주와 지주와는 달리 합동재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을 주지않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정책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타지역으로 주거이동을 강제로 강요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입자들의 철거반대투쟁과 합동재개발지구의 분양권전매행위, 국공유지매각, 재개발조합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합동재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1989년 4월 제정되어 1999년 12월31일까지의 시한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합동재개발방식은 대부분 철거재개발이 대부분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거주자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물갈이로 일컬어지는 주거의 계층이동이 이루어져 대다수의 세입자는 재정착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현지개량사업의 하나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

주거환경개선법 제 1조에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바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말하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정책과 사회정책, 그리고 도시정책 등 세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진다고 하겠다. 주거환경개선법은 지금까지 재개발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시정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정책적 목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도시재개발정책의 발전된 모습이라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도시재개발법과 주거환경개선법의 중요한 차이를 요점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법 제정이래 1993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502개 대상구역중 254개가 지구로

<표1> 도시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의 차이점

구 분	도 시 재 개 발 법	주 거 환 경 개 선 법
목 적	재개발사업촉진, 도시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복리증진 (제1조)	저소득층주민의 복리증진, 도시환경개선(제1조)
기 본 계 획	인구100만명이상인 시의 시장은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 계획작성(3조)	관계규정 없음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제9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제10조), 제3개발자의 시행(제11조)	시장등의 시행(제7조), 제6조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업은 주민이 시행가능
가수용시설	주택이 철거되는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임시 수용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 새항불가(제34조)	준용
공 공 사 업	관계규정없음	사업시행자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우선적 추진, 이 경우 국가가 소요경비의 일부 보조(제13조)
재개발기금	인구100만명이상 시의 시자은 일정이상 재개발기금의 미년 적립(제63조)	관계규정 없음
지 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 또는 융자알선 할 수 있음(제60조)	재개발비용의 일부를 국고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 혹은 융자할 수 있음(제13조)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업무지침24조)	주민의 범위에 세입자 포함(제4조2항),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 명문화
주 민 참 여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소유자의2/3이상의 동의 (제2조, 14조)	계획의 수립, 변경시 주민의견청취, 반영(제3조2항)
규 제 완 화 또는 특 례 조 치	거의 없음	건축법 및 주차장법등 규제완화 및 특례조항이 적용.
세 제	면제 혜택 있음.	면제 혜택 없음.

지정되었고 서울시의 경우 87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가 있다. 서울시 87개의 대상구역중 63개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이중 사업이 시행중인 곳은 41개로 알려져 있다. 사업계획이 고시된 지구를 개발방식별로 나누어 보면,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의한 것이 총 12지구 그리고 현지개발방식에 의한 것이 총 51개 지구 이다. <표2>

<표2> 서울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1993.3)

(단위:개, 천㎡, 동, 세대, 동)

구 분	지 구 지 정			개선계획고시	사업시행중
	개	현지개발	공동주택		
지 구 수	63	51	12	42	41
면 적	1,350	1,200	150	969	956
주 택 수	15,208	12,144	3,064	11,766	11,685
세 대 수	31,652	25,906	5,746	24,600	24,440
사 업 량	17,820	12,193	5,627	14,867	14,786

자료:서울시, 주택개발과, 199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현지개발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방식을 어떤 지구에 적용하느냐의 판단은 엄격한 기준이나 판단근거가 마련되어있지 못하지만, 서울시는 조례7조에서 토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이 공동주택사업을 원하는 지구이거나 또는 국공유지가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전면철거가 필요한 지구에서 공동주택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황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는 95년 1월에 502개 지구, 대상주택수 163천호, 기지정지구327개 지

<표3> 지역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황

(1995년 1월)

구분	대 상 지 구		지 정 지 구		사업시행지구	
	지구수	주택수	지구수	주택수	지구수	주택수
서울	77	23,000	75	16,700	42	7,500
부산	101	46,000	50	24,100	22	21,800
대구	46	20,000	40	16,200	36	15,400
인천	40	11,000	27	8,500	20	6,100
광주	22	5,000	13	3,300	6	400
대전	17	5,000	6	1,700	5	300
경기	36	12,000	24	7,400	16	11,000
강원	22	7,000	6	1,100	6	500
충북	17	5,000	10	2,100	10	800
충남	2	500	2	400	2	100
전북	21	4,000	15	2,500	11	700
전남	42	12,000	28	8,300	24	1,200
경북	20	2,000	10	800	4	100
경남	38	10,000	20	5,800	18	1,600
제주	1	100	1	100	1	100
총계	502	163,000	327	9,9000	223	68,000

구에 주택수 99천호 그리고 사업시행지구는 223개 지구에 68천호이다. 지역별로 보면 사업 대상지구수는 부산이 101개 지구로 전국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구,인천,경기,전남,경남지역에 대상지구가 많다. 사업시행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가 비교적 사업추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사업지구지정은 대상지구의 97.4%, 사업시행지구는 대상지구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표3> 기사업지정지구를 기준으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특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91년현재)서울,부산등 대도시지역이 지구내 주택당 거주가구수가 많은 반면 주택면적, 가구당 주거면적은 부산이 85,976㎡로서 서울의 24,677㎡(전국 43,144㎡)의 3.5배로 나타나 지구면적이 비교적 크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1)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측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임대주택공급 등과 같은 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취지만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합동재개발과 같은 기존의 불량주거지 재개발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공동주택건설방식에 제한될 뿐 현지개발방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개발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세입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거를 해야하며 주택개발 및 재건축 이후 임대료 역시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그 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업후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입자는 사업지구 밖의 또다른 불량주거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입자 대책이 없는 현지개발 방식은 궁극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재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재개발 목표

재개발사업은 도시관리적 관점, 주택정책적 관점 그리고 사회정책적 관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주로 도시의 물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노후 불량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주거환경개선법은 저소득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불량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인 면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불량주거지역의 재개발은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경제적인 수준, 상황, 공동체의 특성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

료가 필요하며, 도시 재개발의 목표는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재개발목표의 재설정 없이 불량주택의 개량방식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아무리 논의해보아도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미 도시불량주거지역 재개발의 경험이 많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주택 혹은 주거환경이라는 물리적 도시재개발이 아닌 사회재개발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불량주거지재개발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해당도시의 고용구조, 산업구조, 인구구조, 그리고 가구특성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대상지 저소득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연계하여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택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특성과 경제 - 사회적인 조건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개발목표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종전의 재개발법에 비하여 주거환경개선법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으나 시행상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재개발방식의 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현지개량방식과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방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건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크게 완화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현지개량방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건설방식에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주거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방식

- ① 주민들이 원할 경우.
- ② 국공유지비율이 높은 곳.
- ③ 경사도 10%이상.
- ④ 가로가 불규칙적인 미로형이며 도로폭이 협소.
- ⑤ 지반이 분할되지 않는 필지비율 높은 지역 즉, 면적이 큰 필지가 많은 지역

현지개발 방식

- ① 주민들이 원할 경우
- ② 사유지비율이 높은 곳
- ③ 평지, 경사도 10% 미만
- ④ 격자형 도로망이 갖춰지고,
- ⑤ 도로폭이 2M이상인곳, 15평이상 필지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합동재개발방식을 채택한 재개발지구의 대부분이 위에서 언급된 공동주택방식 5가지 요건을 지닌 지역들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방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 비율이 낮은 곳은 자연적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사유지비율이 낮은 곳은 공동주택방식을 하고 있다.

4) 구역지정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은 임시조치법과 시행령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주택의 물리적상태나 주거환경 그리고 주민특성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와 거의 유사하다. 단지 재개발지구중 주민이 재개발을 원치않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존 가옥소유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뿐 불량주거지의 특성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재개발법에서는 도심지 재개발구역과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이 구분없이 시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라 이를 분리해서 정의하고 있으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불량주택과 불량주거지역이라 할 때 “불량”에 대한 법적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법 역시 지구지정에 있어 분명하지 못한점은 마찬가지다. 주거환경개선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보면 “철거민을 50세대 이상 수용하거나 인구밀도가 1,000㎡ 당 300인 이상인 지역”의 경우 “철거민”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한계가 나와 있다. 그리고 “대상지역의 면적이 2,000㎡이상인 지역”의 경우도 면적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해당 사항이 없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구역지정과 불량주택 및 불량주거지역을 판정할 수 없는 기준의 모호성 및 비합리성과 함께 해당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 무상양여 국공유지 처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는 개선계획 고시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준칙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방식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6) 주민참여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은 동법 제4조2항과 제6조에 근거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이 현재 당해 지역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각 2/3이상의 동의와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주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당해 지역안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당해 지역안의 세입자 세대주 총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1/2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장 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관계서류 및 도면을 당해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공고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시장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공급 대상은 당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 제10조 제5항) 원칙적으로는 당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세대수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사업지구의 여건에 따라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사업비가 증가되어 주민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8)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세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된다. 또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특별시·직할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내 주민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토지·건물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러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조례가 없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용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양도세가 50%과세되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 도시계획적 측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이전의 재개발사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폐율, 용적률, 인동거리, 도로폭 등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의 주택건설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건설기준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현지개발방식으로 행해지는 사업지구의 경우 지구내 도로확충 등 일부 기반시설의 정비만 이루어질뿐 법규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탁아소, 노인정, 녹지 및 공원, 기타 공공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사업지구내 기존 주택의 경우 대지의 최소규모한도를 지역별로는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나치게 적은 규모의 필지상에 건폐율, 용적률을 허용한대로 건축할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주거환경의 악화도 멀지 않은 장래에 사업지구가 또 다시 새로운 모습의 불량주거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4. 주거환경개선제도의 발전방향

1)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집단 노후불량주택지역은 낮은 임대료로 인하여 대체로 세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세입자의 의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가능한 한 사업지구내에서 가족주의 주거개선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제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택공급규정을 보완하여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을 건설하되, 당해지구내 주민에게 공급하고 공급여분이 발생할 경우 타주거환경사업지구내 건설된 여분의 주택을 시가로 일반에게 분양하고 수익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2) 지구지정의 차별화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상이하고 향후에도 두 개의 제도가 병존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 기준은 소득수준 등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택의 물리적 노후도나 결함, 그리고 주거환경 및 주거지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구

지정의 기준상 재개발지구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업방식결정의 개선

공동주택건설방식과 현지개발방식은 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양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지구지정요건인 대상지구에 대한 사전조사시 사업방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이를 시행사업자와 연계하여 차후 개선계획수립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무상양여 국공유지처분에 대한 명문화

현지개발방식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무상양여되는 토지를 연고자에게 불하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공동주택건설방식에서는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국공유지를 지구내 공공복리시설 설치자금 등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사업방식별 관련법령 적용의 차별화

장기적으로는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과 주택개발재개발제도의 개선 통합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방식별로 완화된 사업관련 규정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운영상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6)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발재개발사업과 같이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하여 재개발지구보다 더욱 노후화되고 불량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사업이므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개발재개발사업과 같이 개발부담금 및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도시계획과의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외에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유도하도록 한다.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사업지구 규모를 가능한 한 확대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개발이익의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재개발자문단의 구성

불량주거지 개발은 다양한 이해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 조합과 주민, 건설회사와 주민, 조합과 지방정부 사이에는 이해와 협조 보다는 불신과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해결하는 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가칭 재개발자문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자문단은 전문가, 주민대표, 정부의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일정한 법적권한도 부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어, 사업대행자 선정에 따르는 비용절감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부조리와 비리가 많은 조합에 대해서 회계감사 등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전체 도시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의 성격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시행된 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보다는 도시환경정비 측면에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상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도시정비 지향적인 기존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재개발방향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필지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로 토지이용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로 또 다시 불량주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바로 소득의 보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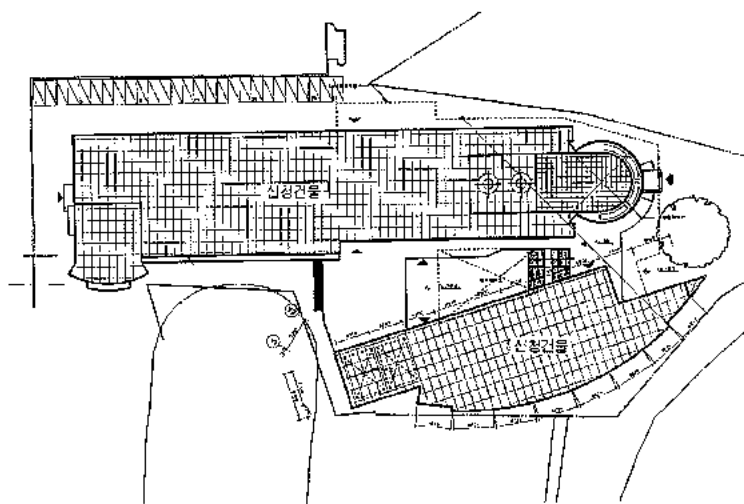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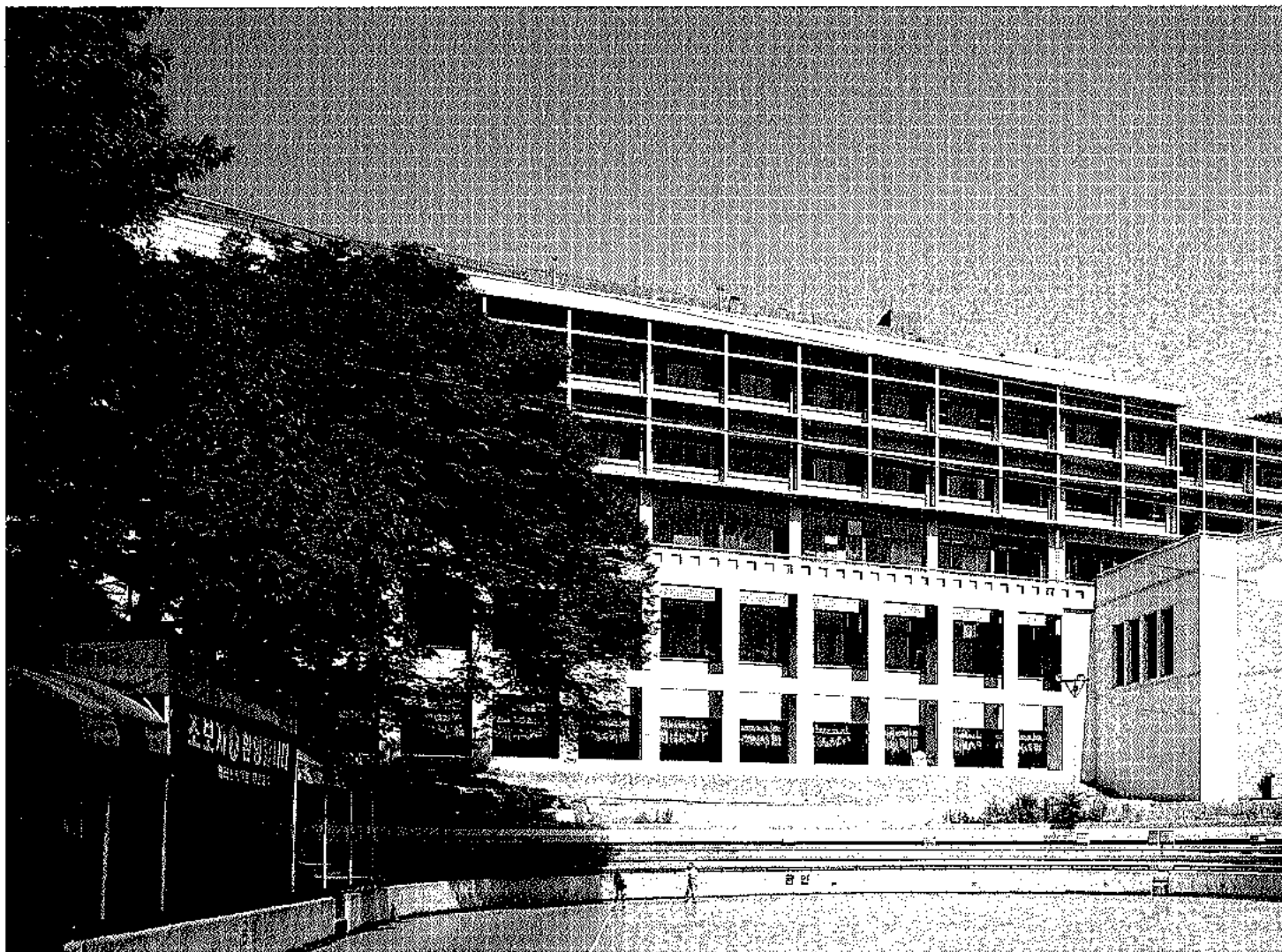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직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저소득층주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주택 자체만을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불량주택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고 본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주민들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거나 가난의 책임을 사회로 돌릴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저소득 주민의 주택정책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학술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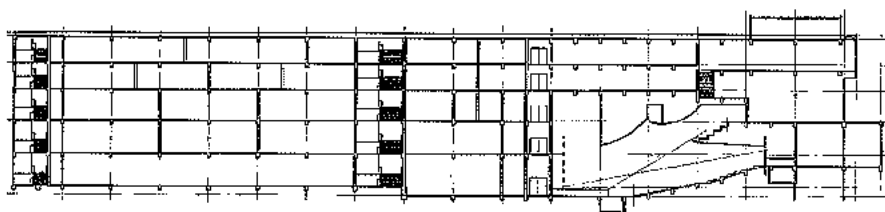
Dongkook Univ. Athenaeum Building

지 순 + 김자호 / (주)간심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i Soon & Kim Ja-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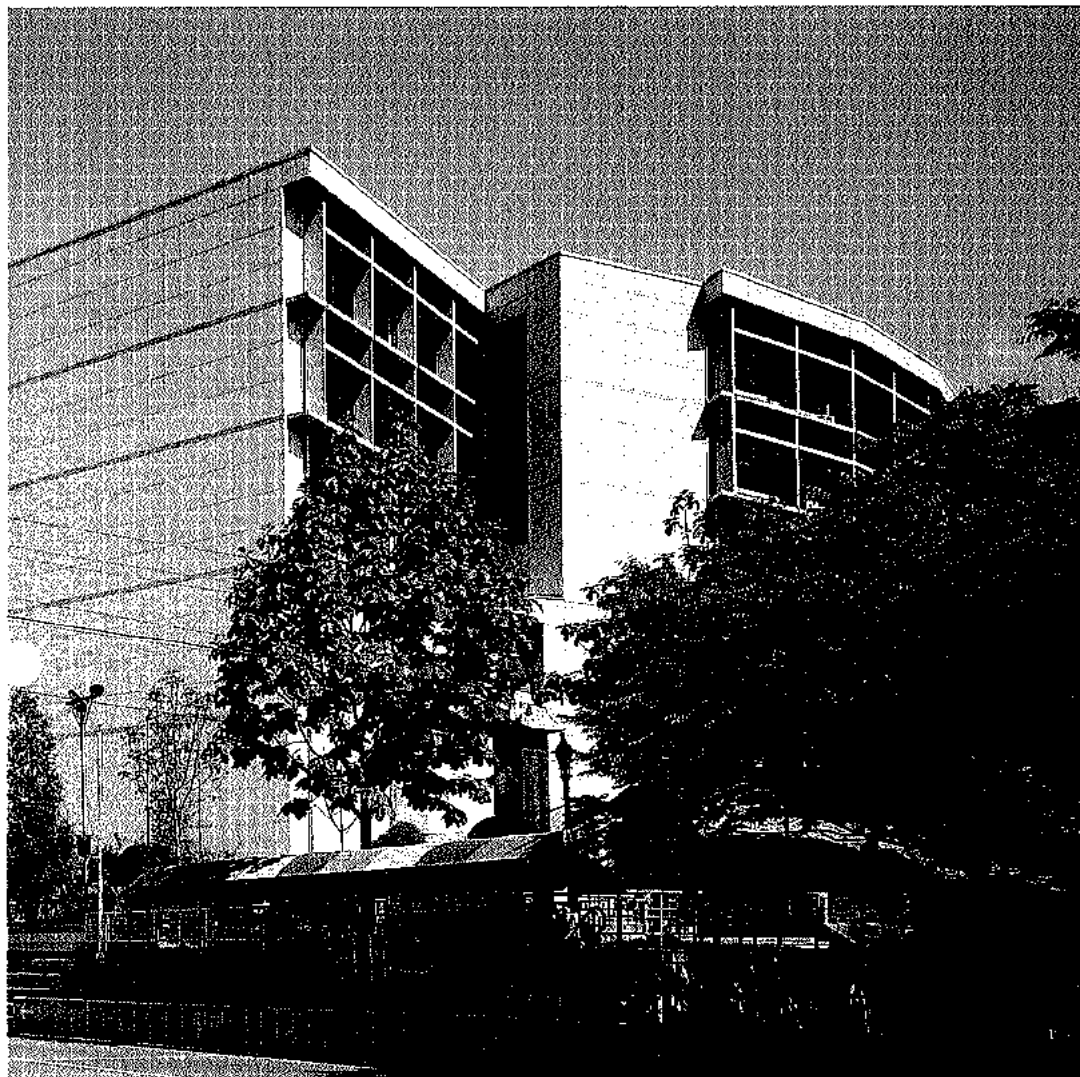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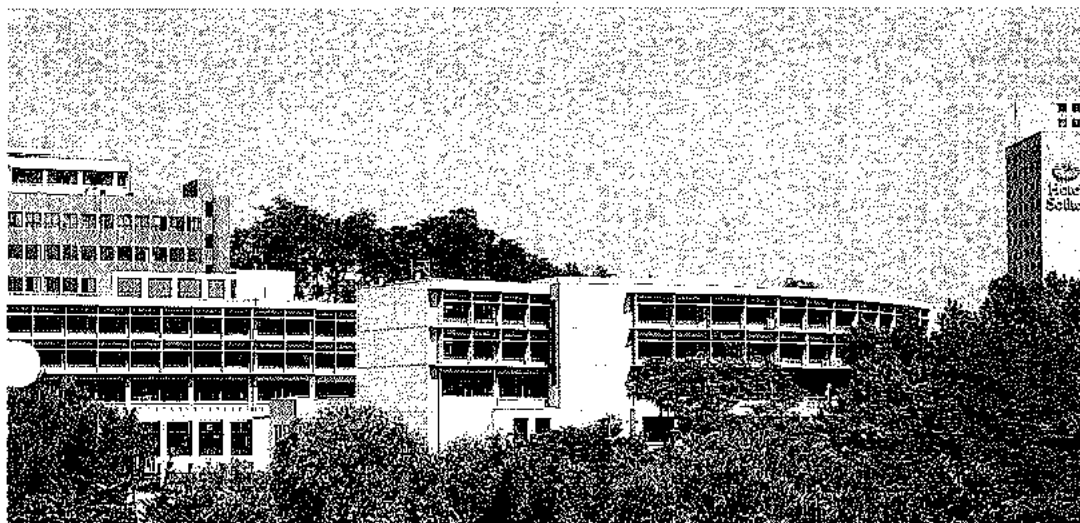
중단면도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97-7외 9필지
 대지면적 / 118,705.3㎡
 지역 · 지구 / 일반주거, 풍채, 2종미관지구
 건축면적 / 3,620.64㎡
 연면적 / 17,772.83㎡
 건폐율 / 23.88%
 용적률 / 85.66%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설계담당 / 홍종우, 안기돈, 윤정옥, 송재현, 강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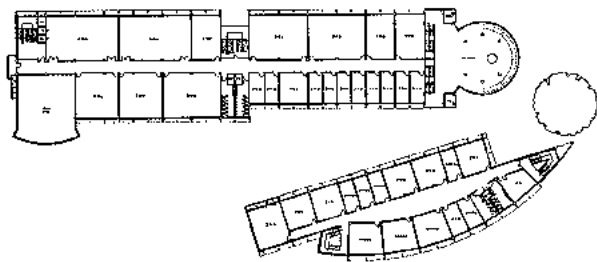
Location / 197-7, Changchung-dong 2ga,
 Chung-gu, Seoul
 Site Area / 118,705.3㎡
 District / Houses
 Bldg. Area / 3,620.64㎡
 Gross Floor Area / 17,772.83㎡
 Bldg. Coverage Ratio / 23.88%
 Gross Floor Ratio / 85.66%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Project Team / Hong Chong-Woo, Ahn Ki-
 Don, Yoon Cheong-Ok,
 Song Jae-Heon & Kang
 Sang-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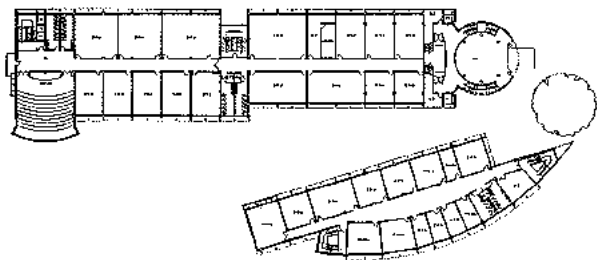
남측 플러스케이트장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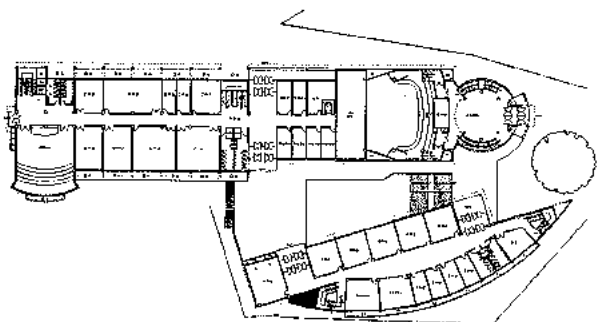
동측 신리호텔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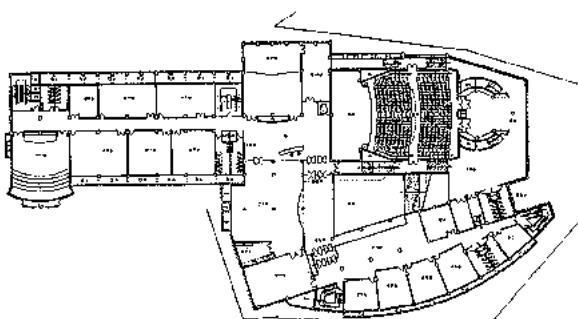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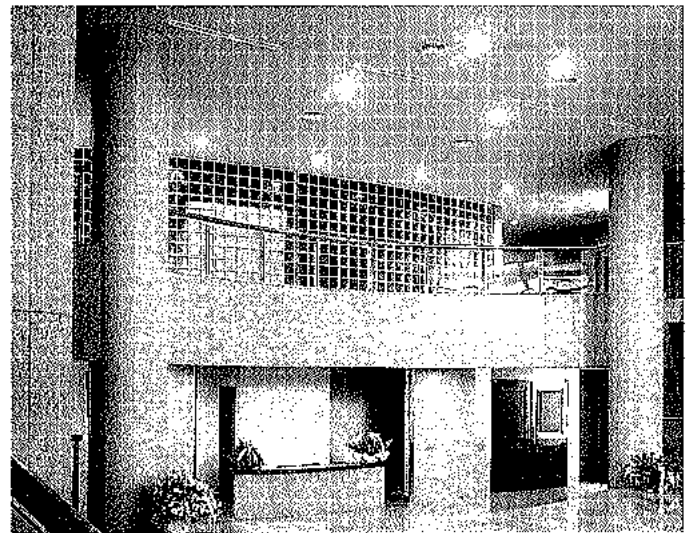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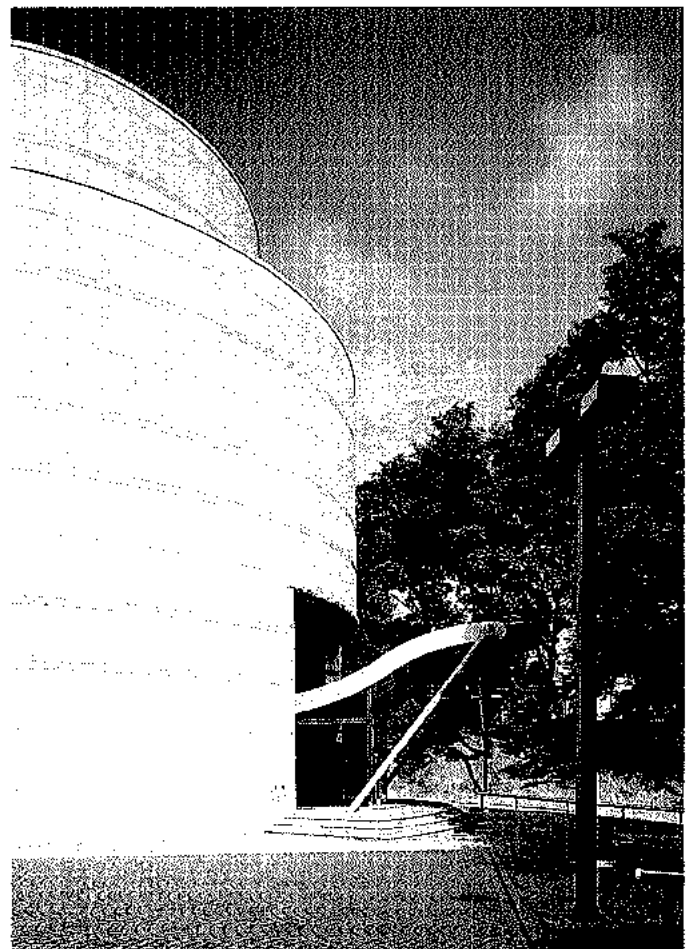


© 2000 K.O.S.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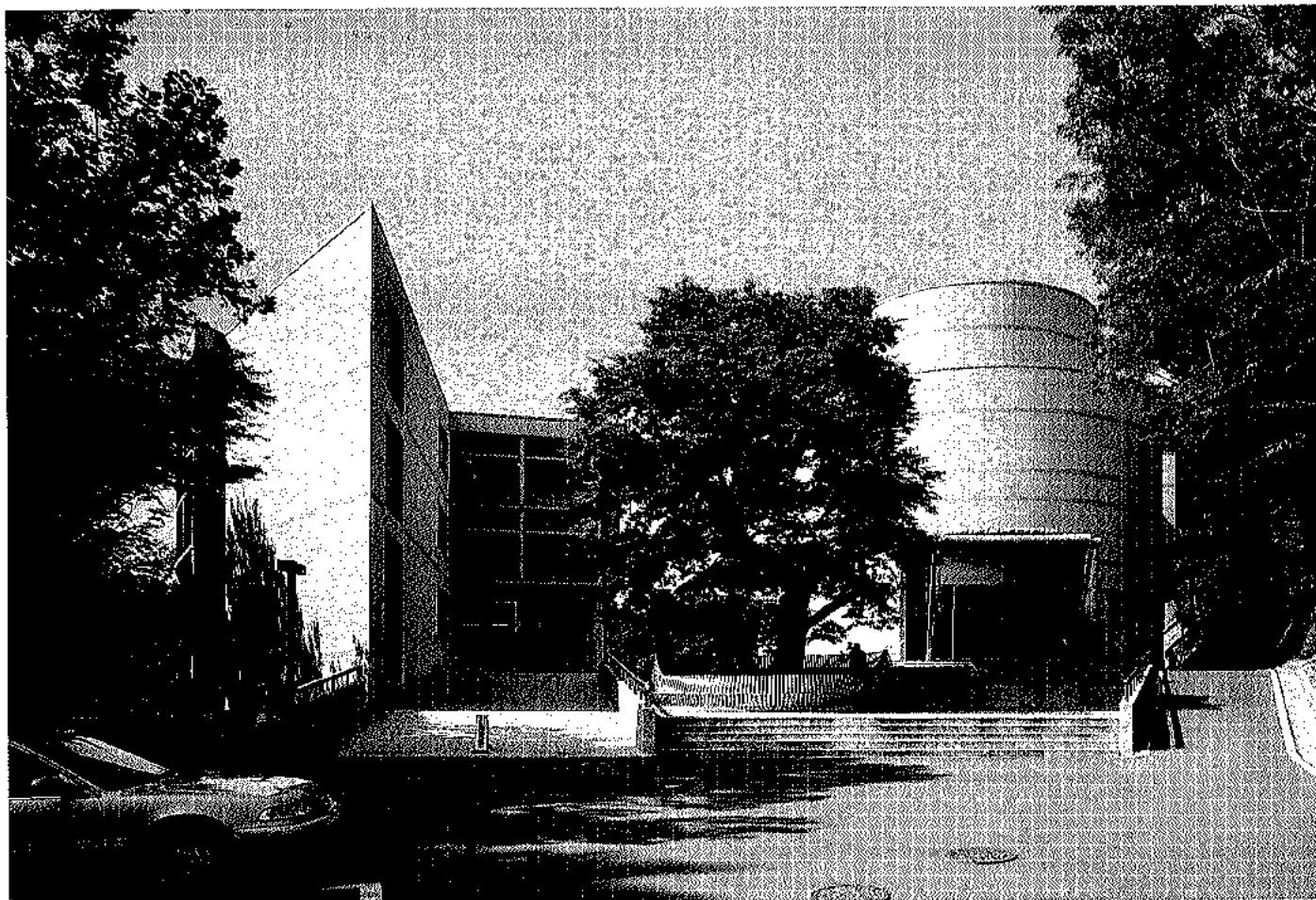
강당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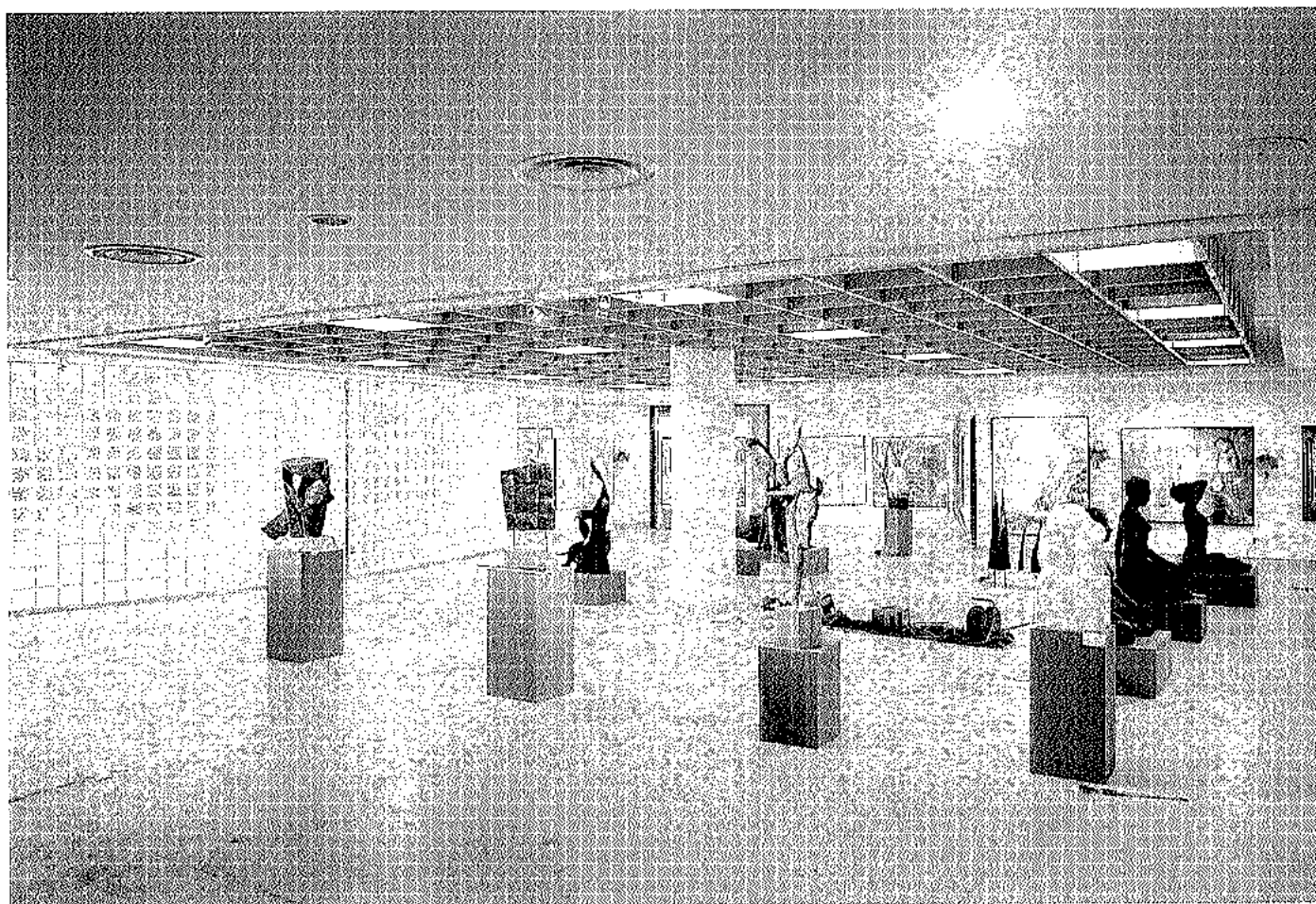
강당홀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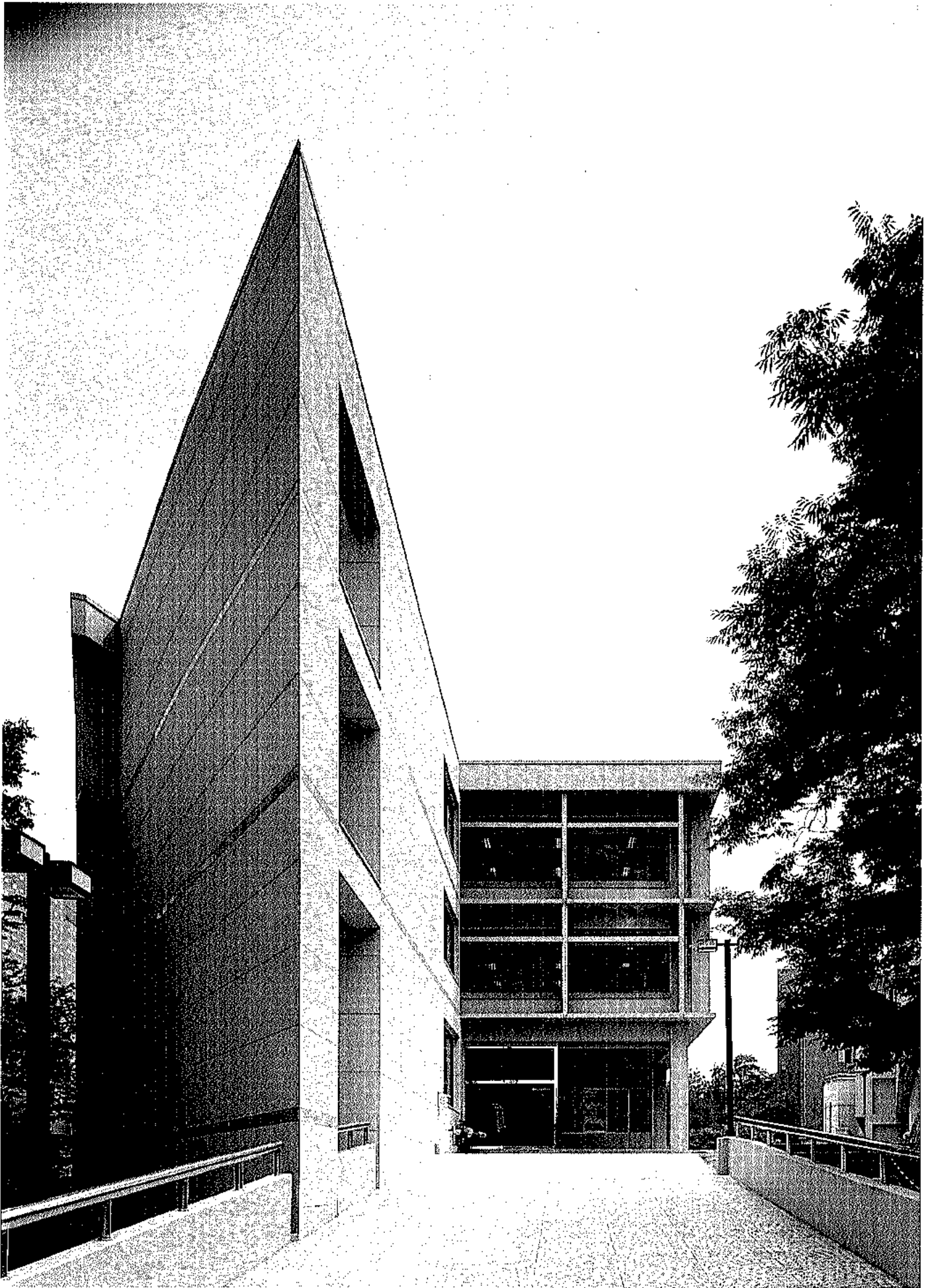
대학원 강의동 상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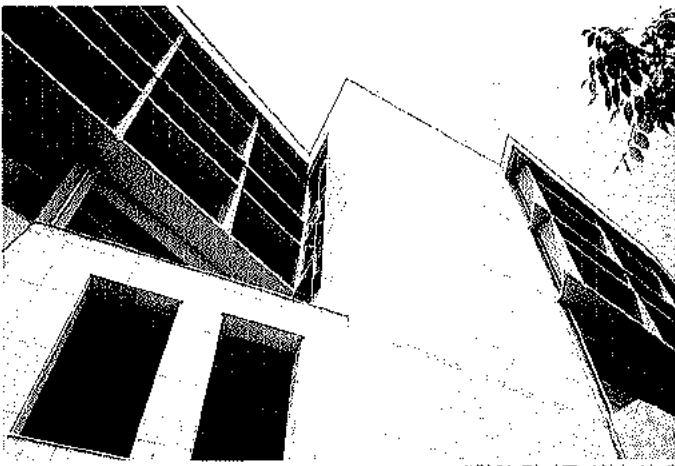
북측 주 진입로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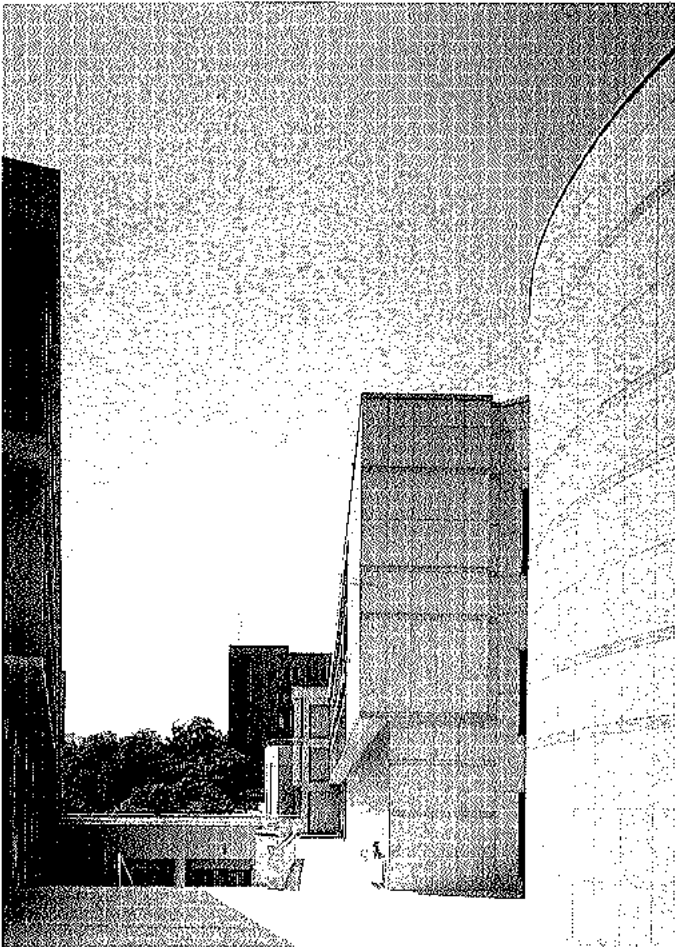
전시실



대학원 강의동 주진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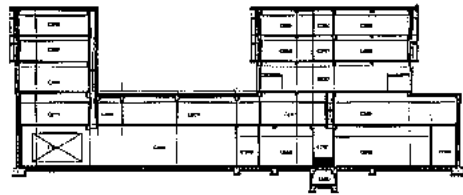
대학원 강의동 상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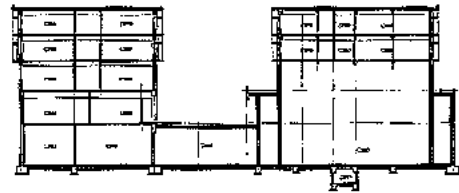
중정



강당객석 전경



종단면도-1



종단면도-2



횡단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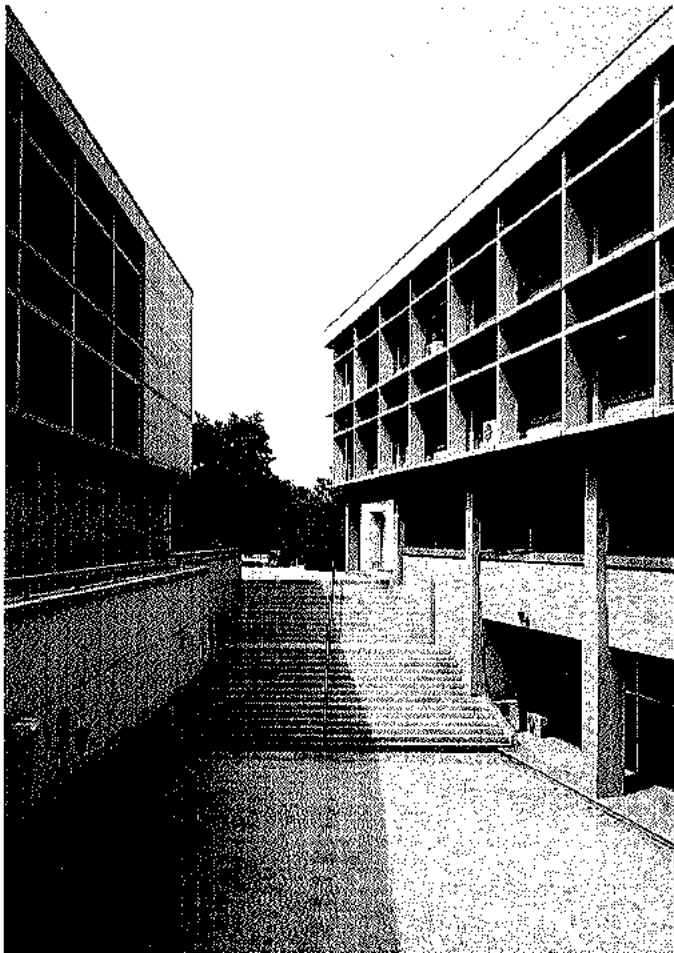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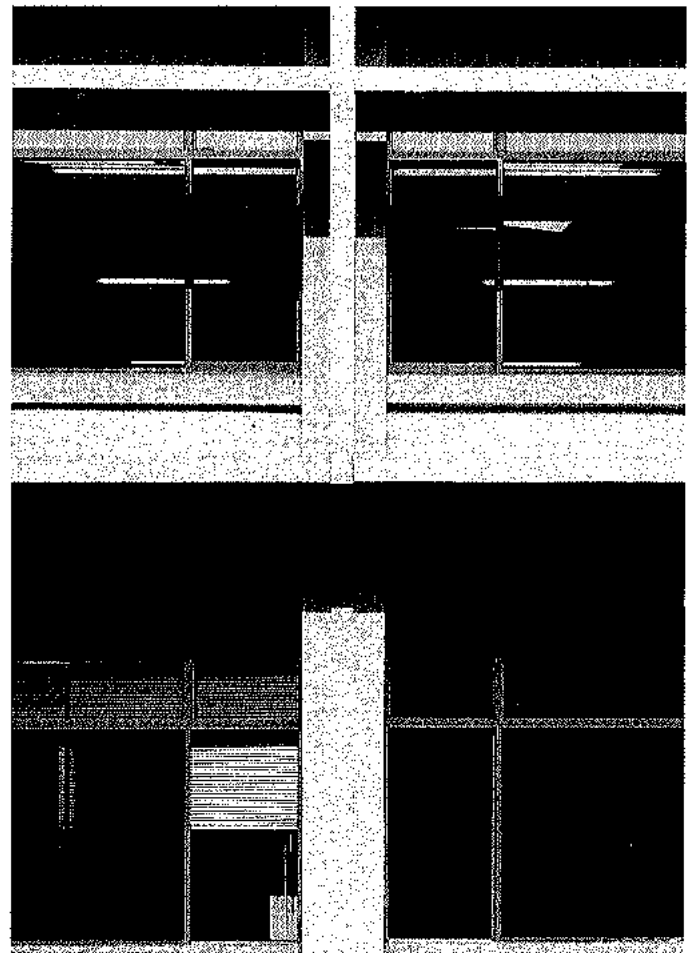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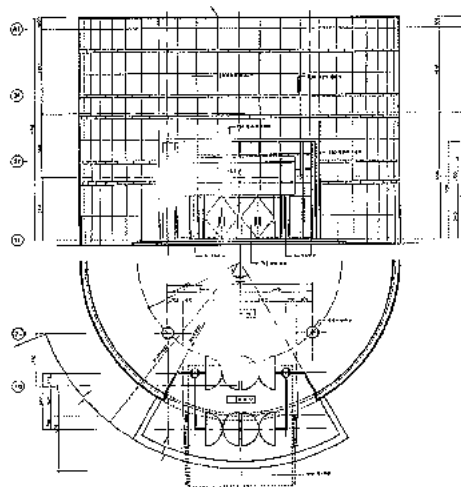
대학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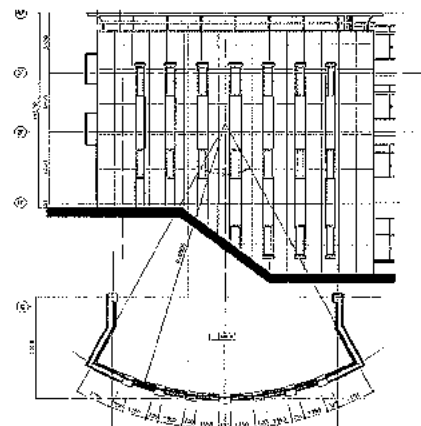
중정에서 입구쪽을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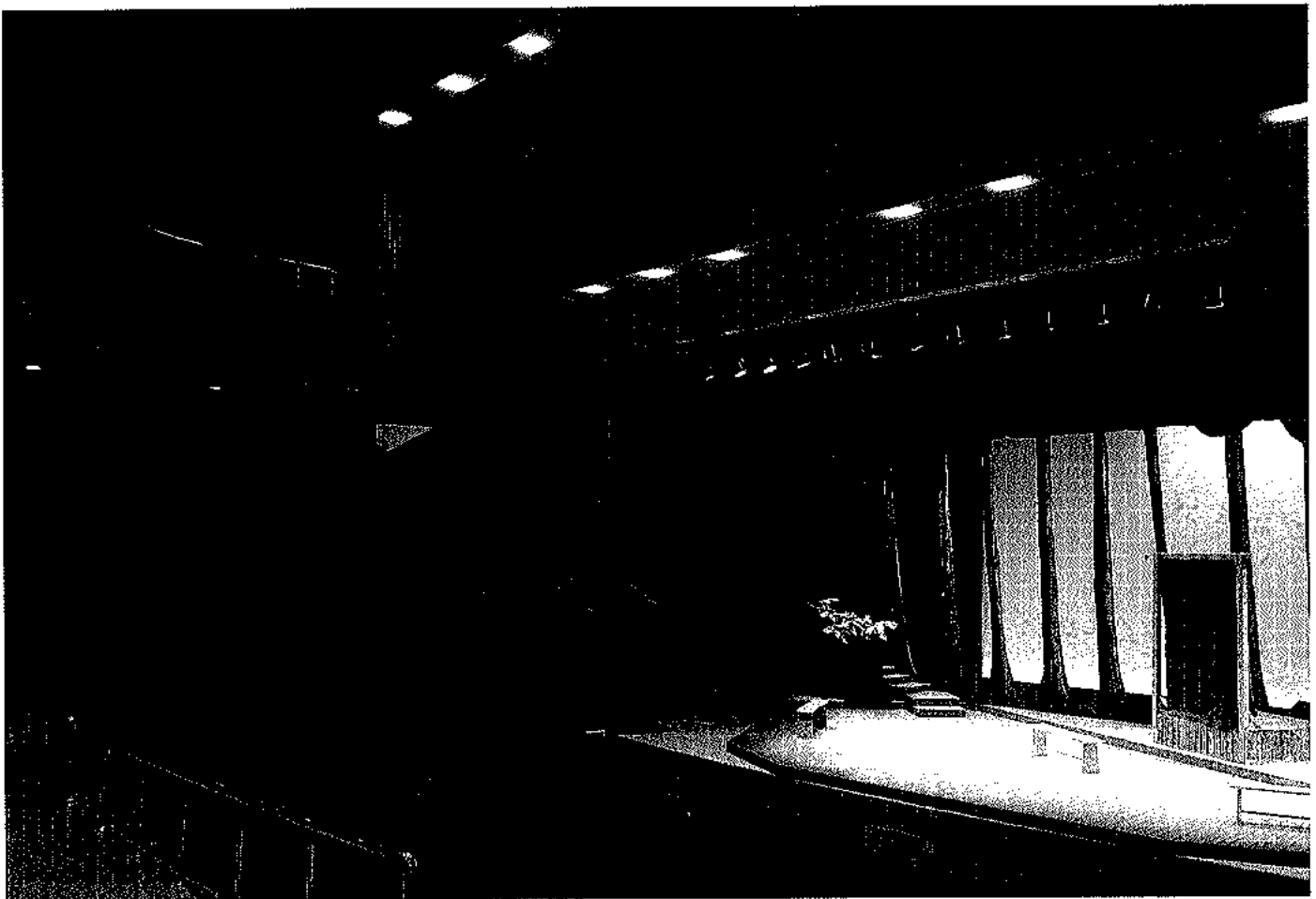
강의실 루버 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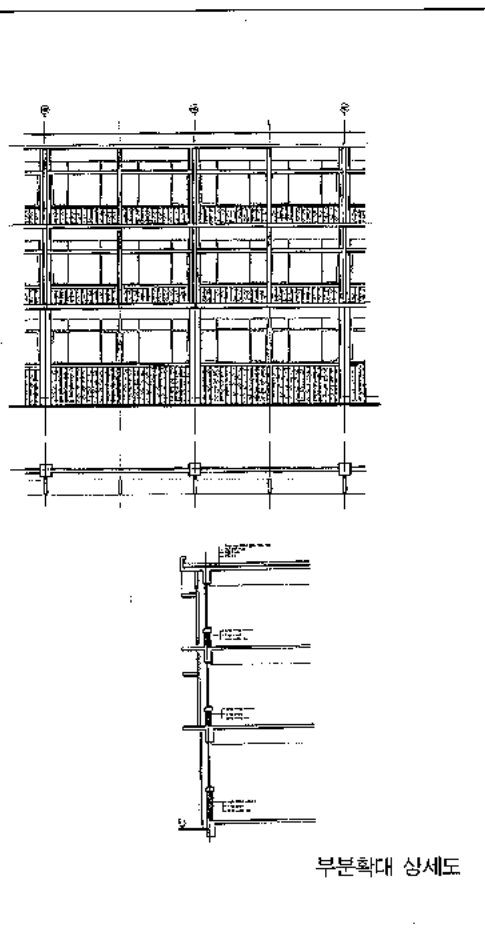
외벽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1



외벽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2



연극무대 전경



부분확대 상세도

92년 가을 지명 현상설계를 거쳐 당선되어진 동국학술문화 회관은 곧 100주년을 맞게되는 동국대학교의 교육시설 확충과 주변환경 개선, 국제화시대의 적응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어 1996년 2월 준공되었다.

초기 현상설계를 발전시켜 심의를 받고 별 문제없이 통과 되었으나 허가 과정의 대관업무 진행중 남산 주변 미관지구 층고(3층)및 높이 (12m) 규정에 저촉 받게되어 부득이 3층으로 기존 설계안보다 2개층 더 낮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변경안의 기본적 요구사항은 설계시의 면적을 충족시켜 주는 것과 기본안의 개념을 살려주는 것이었다.

면적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하를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층고가 높은 미술 실습실 등이 지하1층에 위치하게 되었고 가급적 지상에 있어야 할 중국장 및 전시실 등의 주요 기능 역시 지하화 할 수 밖에 없었다.

주된 강의실은 거의 모두 지상에 위치하게 하여 원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였고 특히 대학원 관련시설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곡면의 대학원동에 적절히 배치시킬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개 공간인 전시실을 중정부분에 배치하여 공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였다.

중정은 초기 계획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열림과 닫힘이 적절하게 조화되며 극적인 시각효과를 자연스럽게 연출하였다.

현재의 중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집회행사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활력있는 공간이 되어 원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게 되었다.

중국장은 초기 계획 의도대로 연극관람이 가능한 좌석의 단면을 갖고 있으며 부대시설도 충분한 공간을 두어 각종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본 대학의 연극영화과 학생 및 교수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중국장 로비의 원형 Mass는 대학원동의 날카로움과 극한 대비를 이루며 병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보호수가 원충의 역할을 하도록 배치되어있고 상부의 다목적 강의실을 추후 경주의 석굴암 형태를 가진 예불실로 쓸 예정이므로 매우 다이내믹한 공간을 연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동국학술 문화관은 다른 어느 설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여와 곡절끝에 난산된 실체 이므로 더 많은 동국인들에게 오래도록 사랑 받으며 기억에 남게되는 건축으로 존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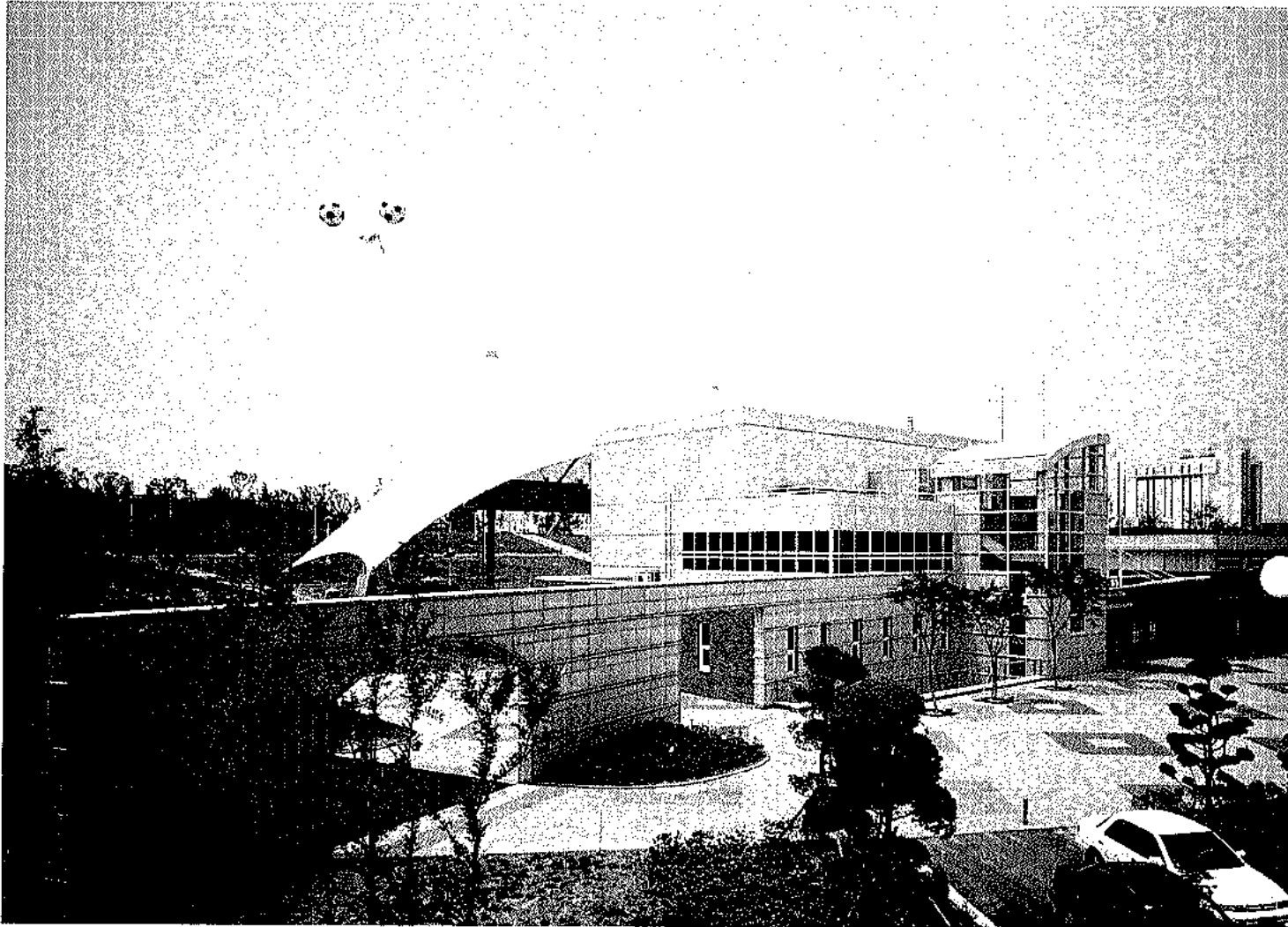
회원작품

수원 야외음악당

Outdoor Music Pavilion in Suwon

조주환+한종률 / (주) 심우설계

Designed by Cho Ju-Hwan & Hahn Jong-Ruhl



남서측 전경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공원시설지구

대지면적 / 86,307.99㎡

건축면적 / 2,309.93㎡

연면적 / 2,878.71㎡

건폐율 / 4.49%(부지내 기존건축물 포함)

용적률 / 4.52%(부지내 기존건축물 포함)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외부 마감 / 벽 - 화강석 물갈기 배너구이, 적벽돌 차장쌓기, 드라이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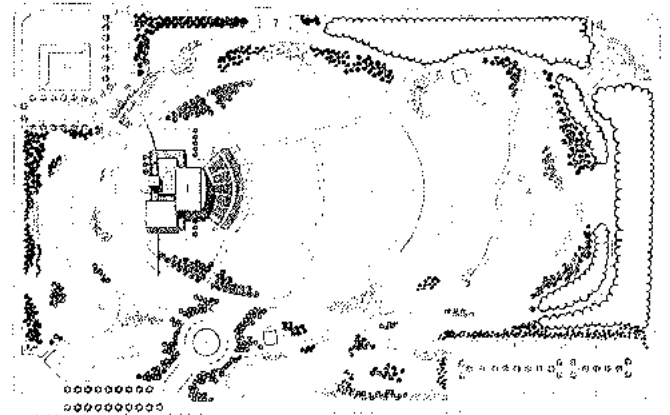
지붕 - 콘크리트 슬라브, 슈퍼데크판넬

주차대수 / 옥외 21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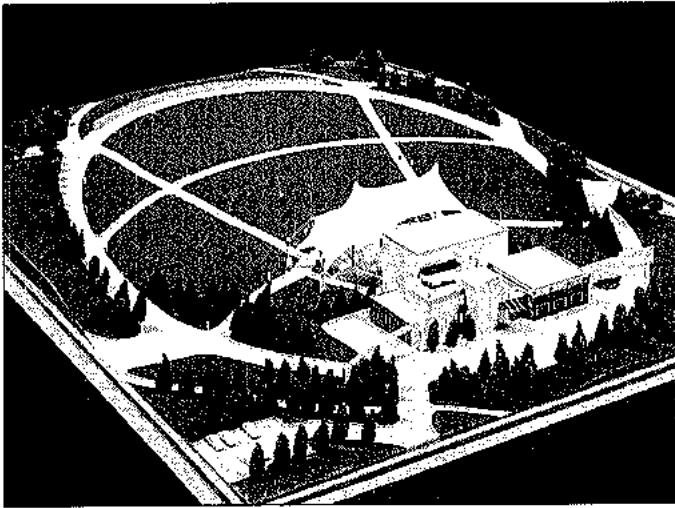
조경면적 / 34,123.12㎡(10,322.24평)

설계담당 / 한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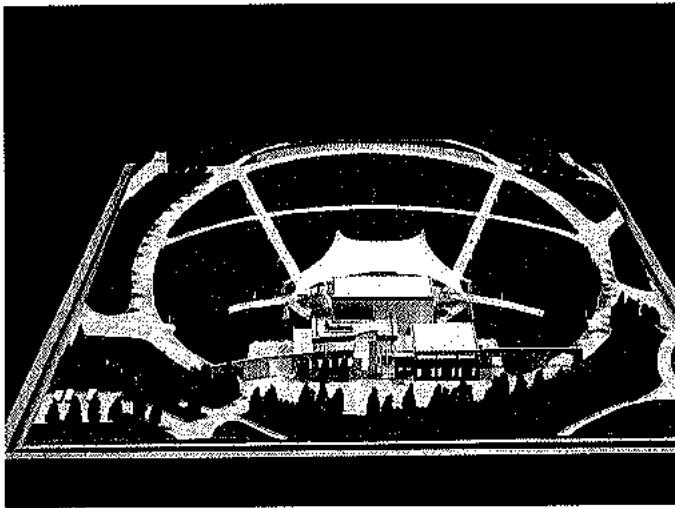
설 계 팀 / 나우천, 상재현, 김한태, 김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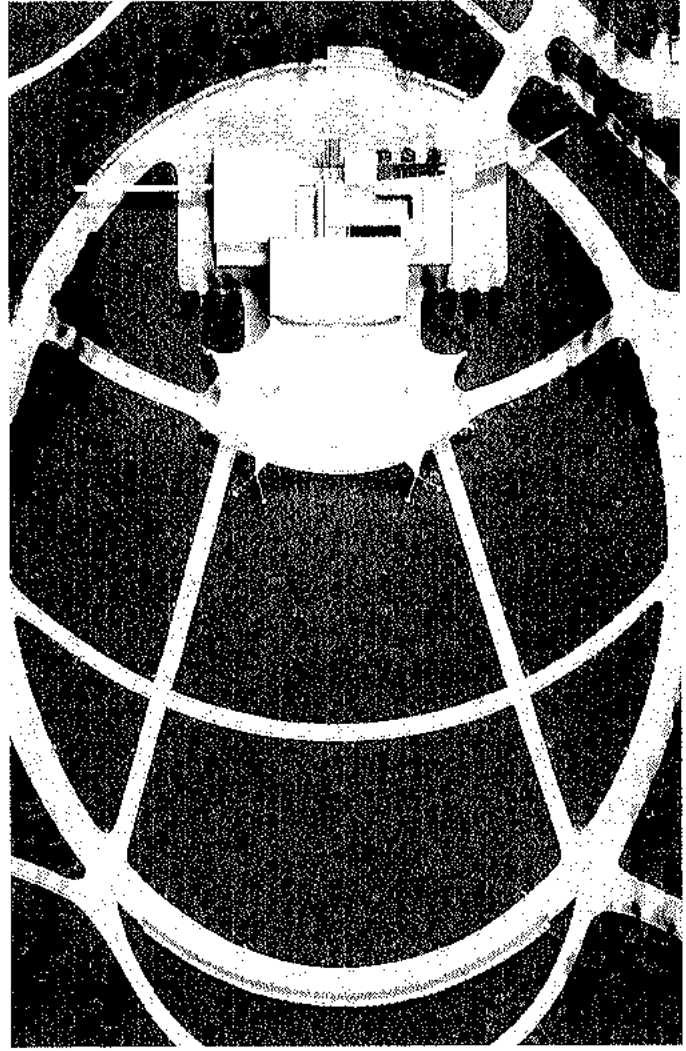
배치도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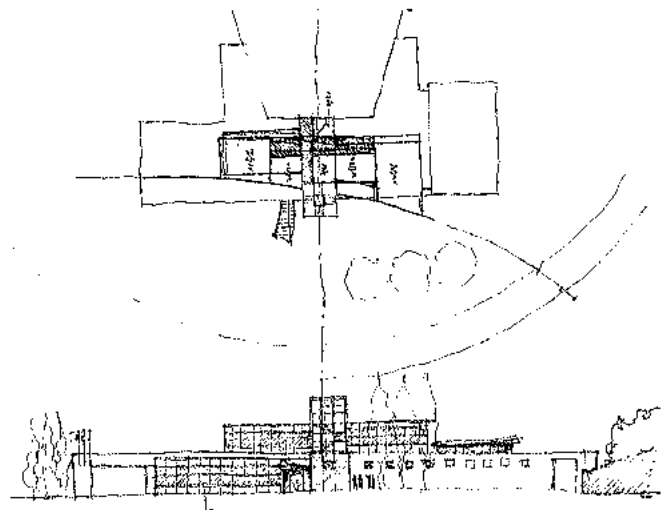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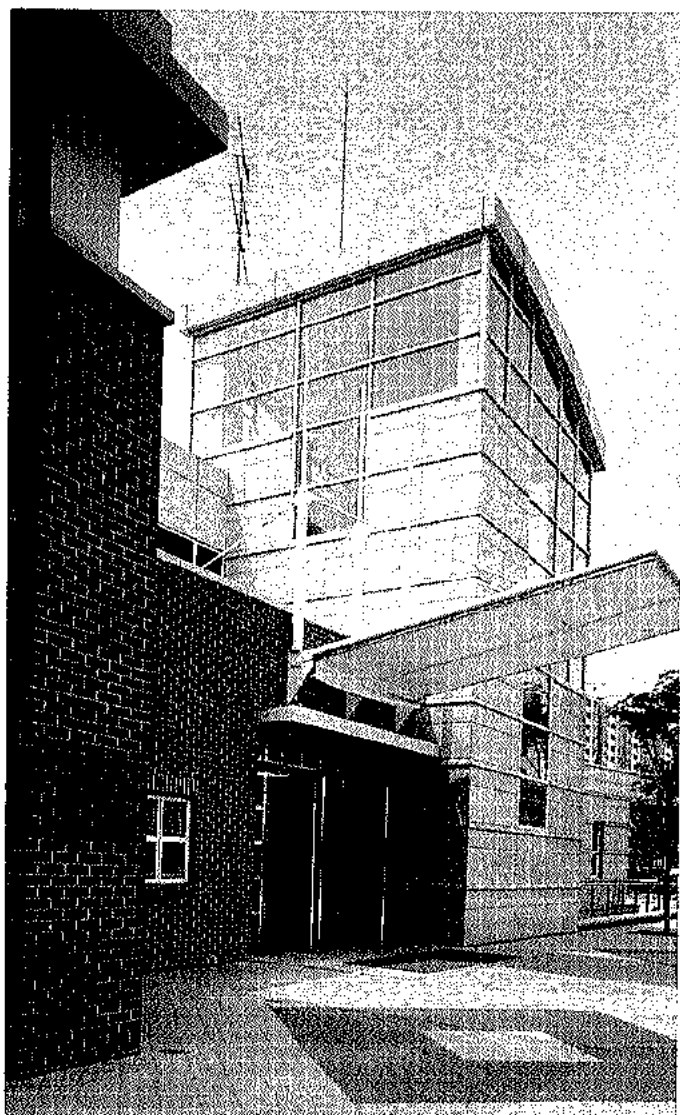


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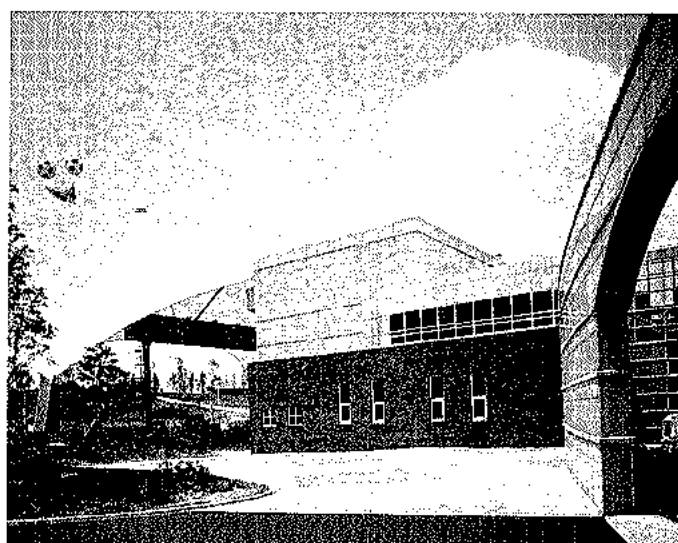
Location / 1128, In-gye-dong, Paldal-gu, Suwon-shi, Kyeonggi-do
 District / Green
 Site Area / 85,307.99㎡
 Bldg. Area / 2,309.93㎡
 Gross Floor Area / 2,878.71㎡
 Bldg. Coverage Ratio / 4.49%
 Gross Floor Ratio / 4.52%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 Steel
 Exterior Finish / Wall - Granite
 Roof - Concrete Slab
 Parking / 212 Cars
 Landscaping Area / 34,123.12㎡
 Designer / Hahn Jong-Ruhl
 Project Team / Na Uh-Cheon, Shim Chae-Hyeon, Kim Heon-Tae & Kim Hyo-C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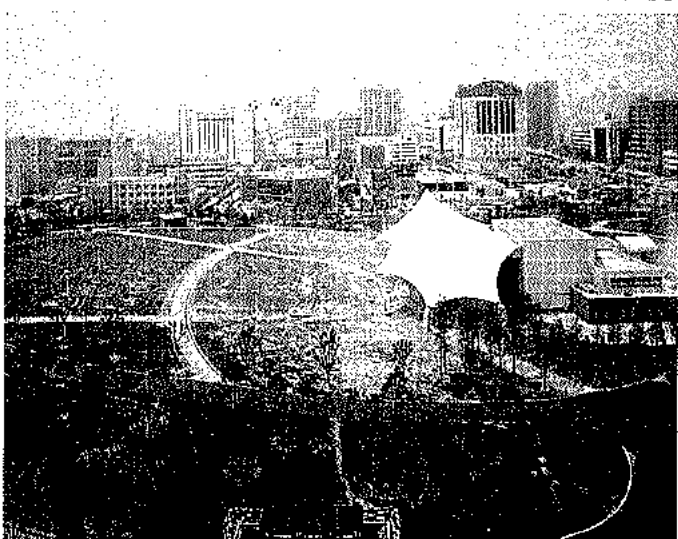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주출입구 전경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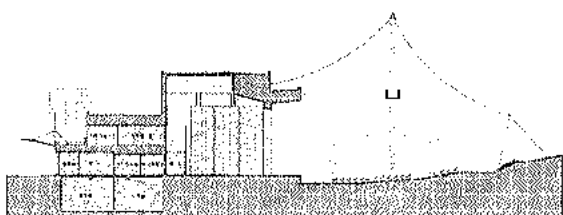
북서측 원경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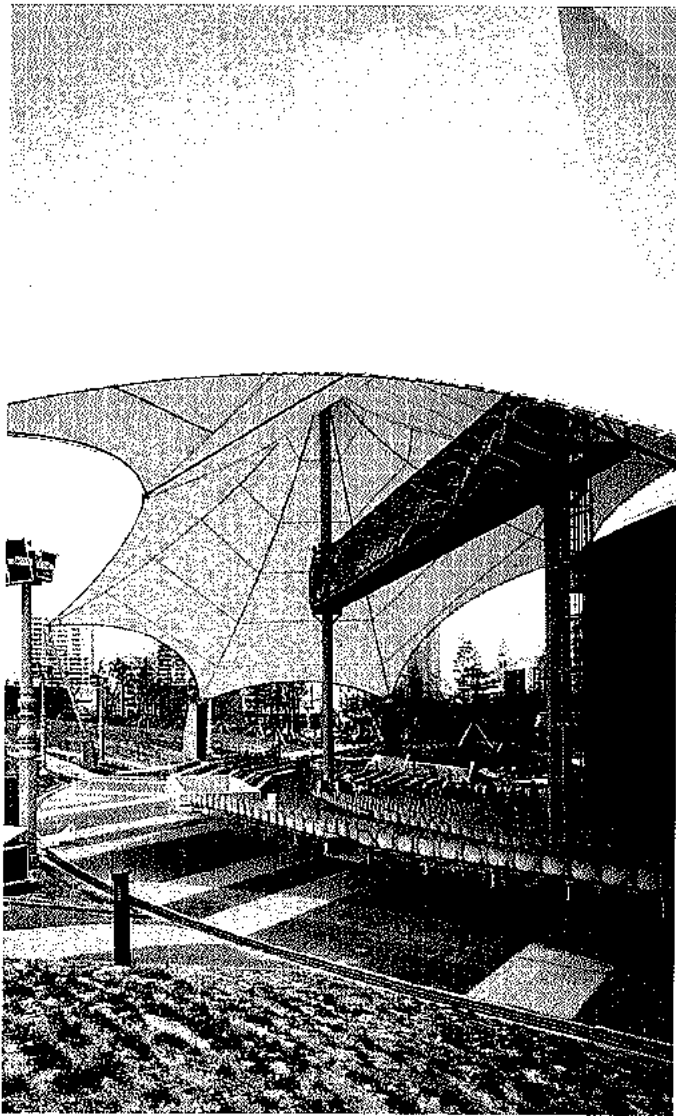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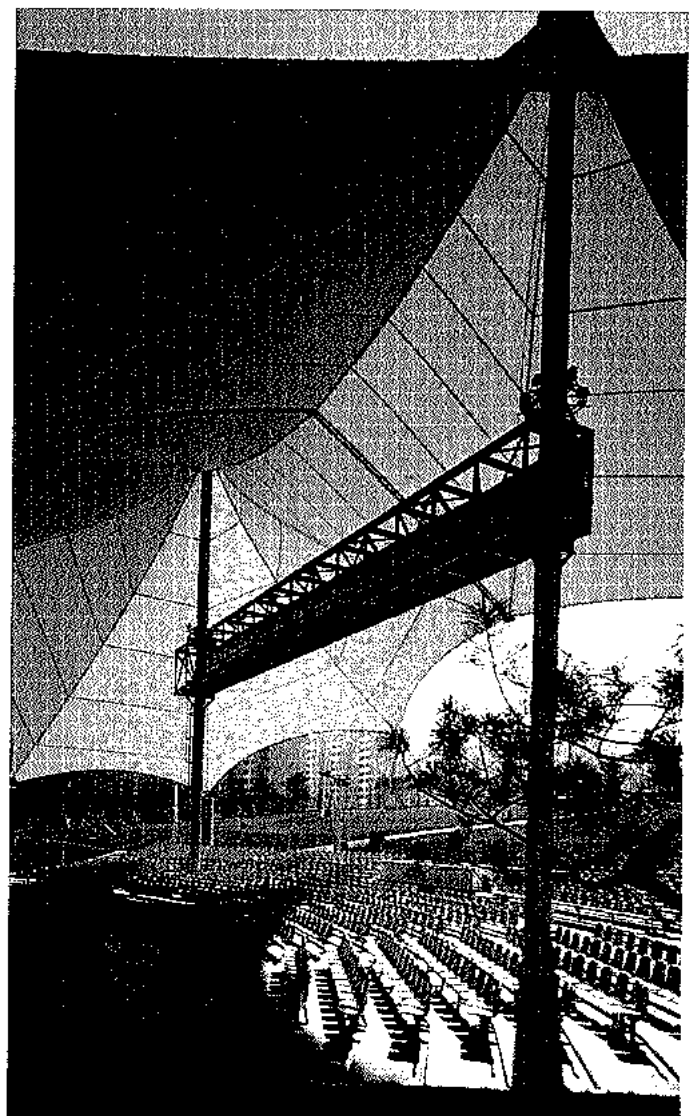
주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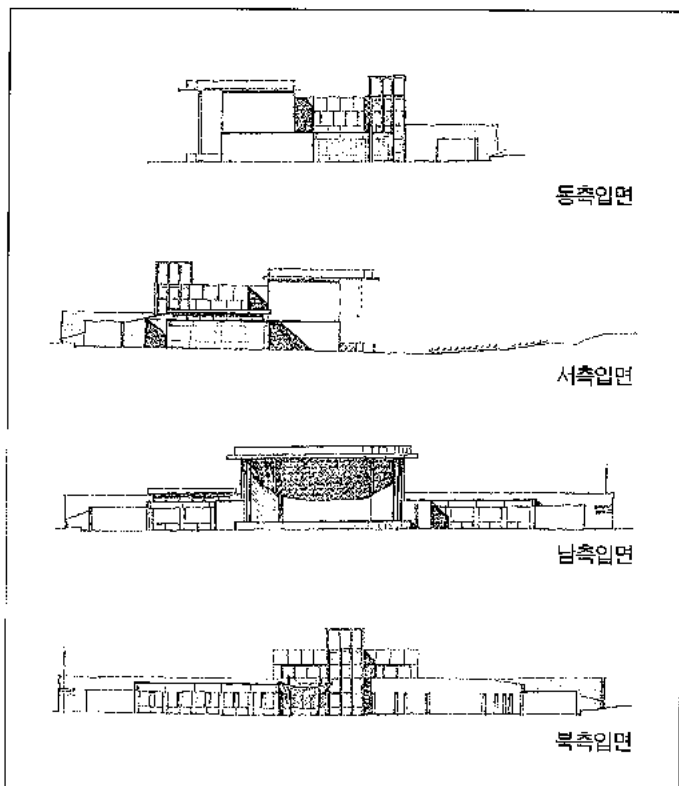
주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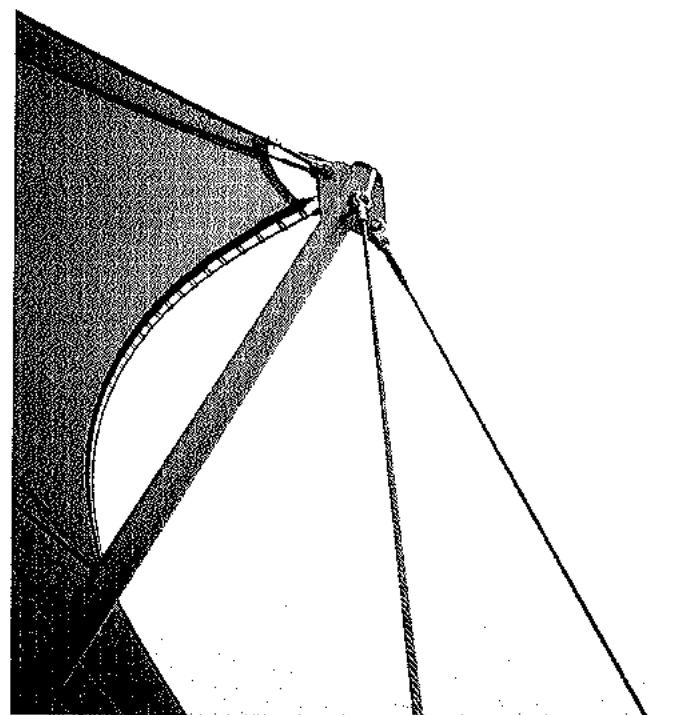
북서측에서 본 객석 및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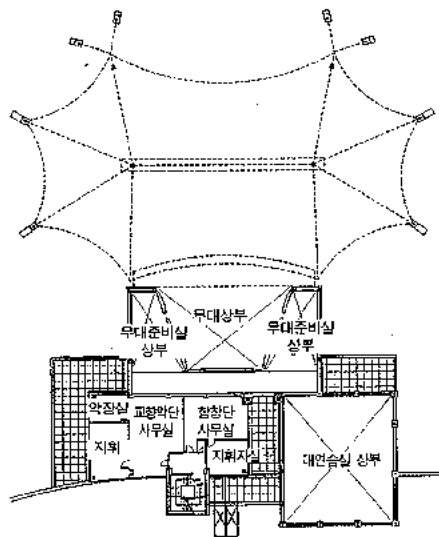
남동측에서 본 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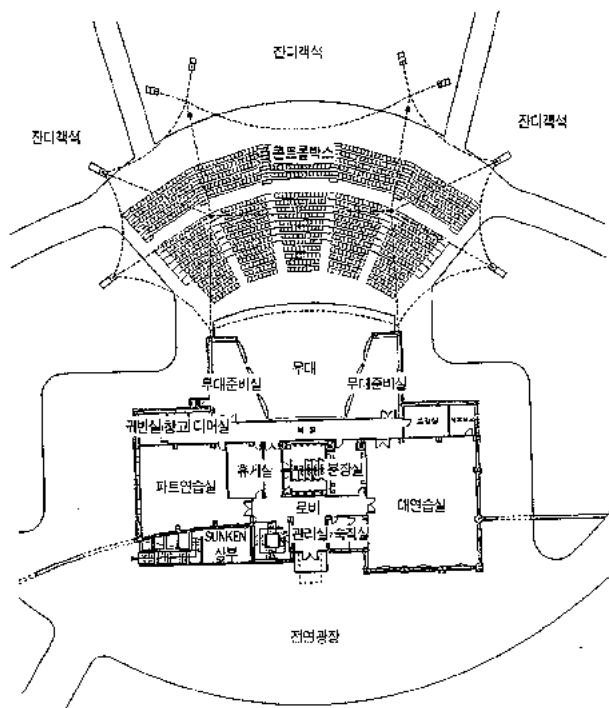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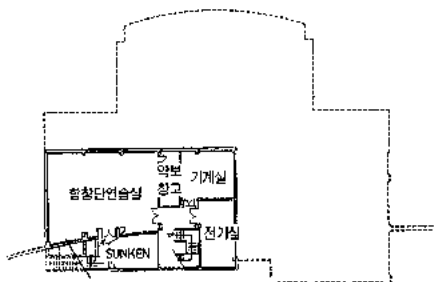
막구조물 부분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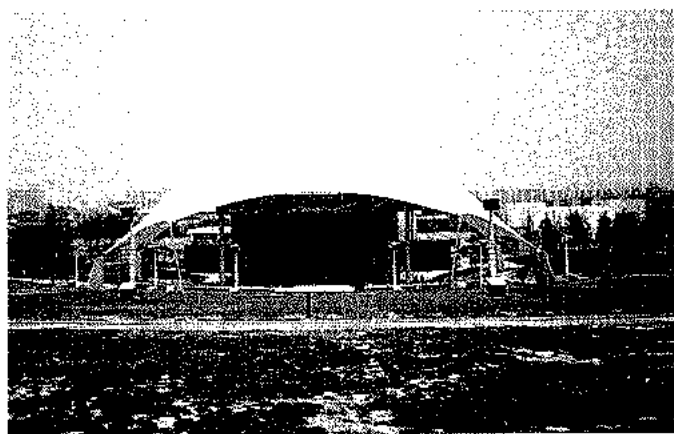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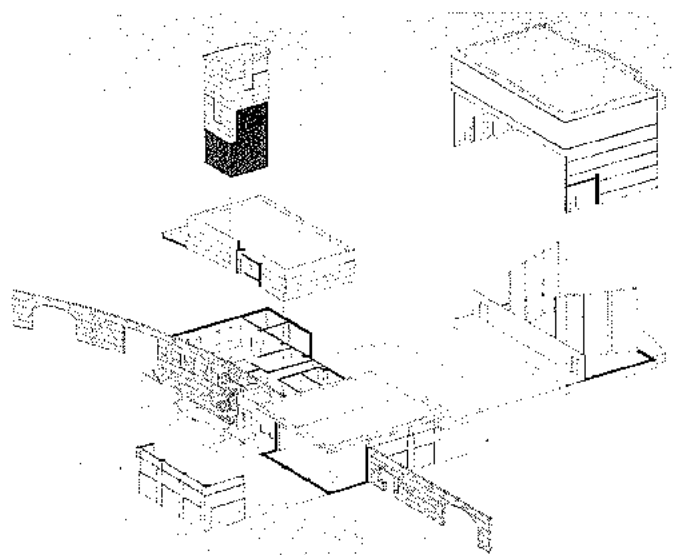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전디객석에서 본 무대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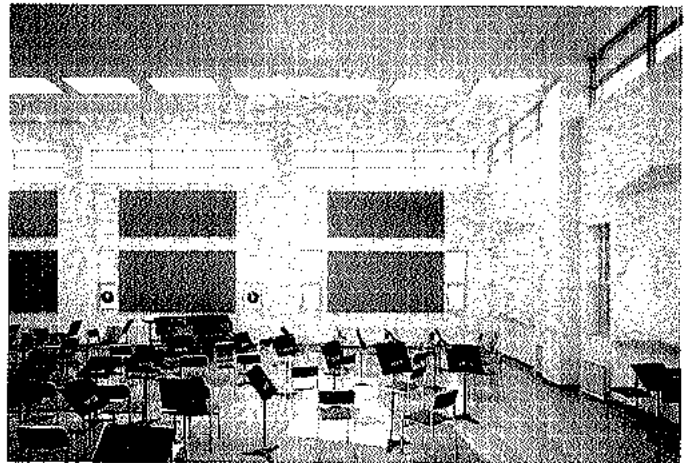
계단실



투상도



복도



파트연습실



대연습실

“한 여름밤의 꿈”

처음 Project를 맡으며 떠올렸던 연상이었다. 난 파가 활동하였던 음악의 고향, 정조의 웅대한 꿈이 담겼던 수원성 등의 Identity를 간직한채 야외에서도 실내에 못지않은 Classic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의 창조.

수원시가 제시한 Program은 건물에 두개의 얼굴을 요구하였다. 하나는 수원시향이 주어진 각종 Performance가 벌어질 무대 및 야외 객석공간, 다른 하나의 얼굴은 수원시향과 합창단이 상주하며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과 사무실로 구성되는 업무공간.

그 구분의 한 획을 곡선의 돌벽으로 그려보았다. 수원성벽의 안과 밖처럼...

한 종 료

수원 야외음악당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삼성전지에서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증한 것이다. 위치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및 효원공원에 연계된 곳으로, 야외음악당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대규모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어 예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야외 휴식공간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

이 야외음악당은 국내 초유의 교향악단을 위한 본격 야외공연장으로 수원시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형태의 막구조와 수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설계한 본 건물의 다양한 형태의 조합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동적이고 풍부한 경관을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음악·무용·연극·강연 등 다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무대와 연습실·악기실·사무실·조정실 등의 부속시설이 있으며, 1,100석의 고정객석과 10,00~15,000명의 관람이 가능한 잔디객석이 마련되어 있다. 고정객석 부분에는 막구조를 설치하여 빛이 투과되는 반외부공간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 뒤로 넓게 펼쳐진 잔디객석까지 확장되는 쾌적한 관람공간을 조성하였다.

오금 스포츠 프라자

Ogum Sports Plaza

김창수+박 승+한상묵 / (주)삼우설계

Designed by Kim Chang-Soo, Park Seung & Han Sang-M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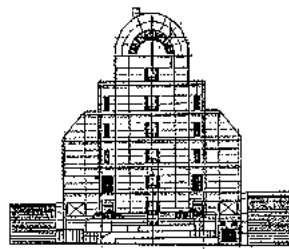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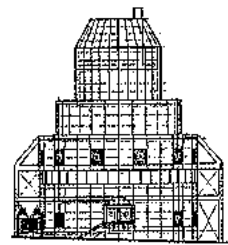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송파구 오금동 28,28-1,28-2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형비지구
대지면적 / 3,934.80㎡
건축면적 / 1,962.26㎡
건폐율 / 49.87%
연면적 / 20,893.80㎡
용적률 / 229.63%
층수 / 지하 4층, 지상 7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매탈페인트,
24mm 패아글라스, 유리블럭
조경면적 / 846.02㎡
설계담당 / 한상묵
설계팀 / 김유범, 박유빈, 최덕용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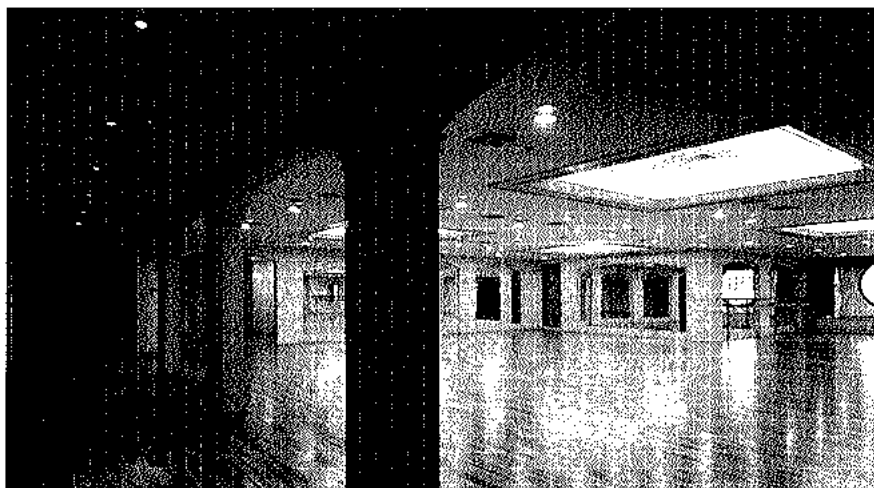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5층 헬스클럽



2층 다목적 채련장

Location / 28, 28-1, 28-2, Ogeum-dong, Song pan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3,934.80㎡
 Bldg. Area / 1,962.26㎡
 Bldg. Coverage Ratio / 49.87%
 Gross Floor Area / 20,893.80㎡
 Gross Floor Ratio / 229.63%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Metal Panel, 24mm Fair Glass, Glass
 Block
 Landscaping Area / 846.02㎡
 Designer / Han Sang-Mook
 Project Team / Kim Yu-Beom, Park Yoon-Bin &
 Choi Duk-Ryong



동측 전경

1991년 봄 우리는 스포츠 콤플렉스 빌딩을 지어보고자 하는 건축주의 방문을 받았다. 일련의 구상안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그는 이미 계획대지와 인접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새로 지어질 스포츠 콤플렉스 빌딩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화된 체육시설의 조성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체육의 장을 제공코자 하였다.

건축주의 구상안을 컨설팅하는 업무로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진행하였다.

첫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는 「최적의 사업성 검토를 통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수용」이었다. 시설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인근 지역의 현황과 각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몇가지 안이 마련되었고 그러한 안들이 실현되어졌다.

다음의 과제는 「세장비(약 350%)가 큰 직사각형의 경사진 대지(최대 교저차 약 7m)에 최대의

연면적 확보가 가능한 매스의 계획 및 각 레벨간 진입동선의 효과적 처리」였다.

시면이 모두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는 법규적 문제의 해결과 건축주의 최대용적을 확보라는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매스를 상승하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계획하였고, 경사지임으로 인해 2개 층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직접진입이 가능한 조건을 장점으로 살려 운동시설로의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로의 출입구로 각각 분리하여 동선에 명확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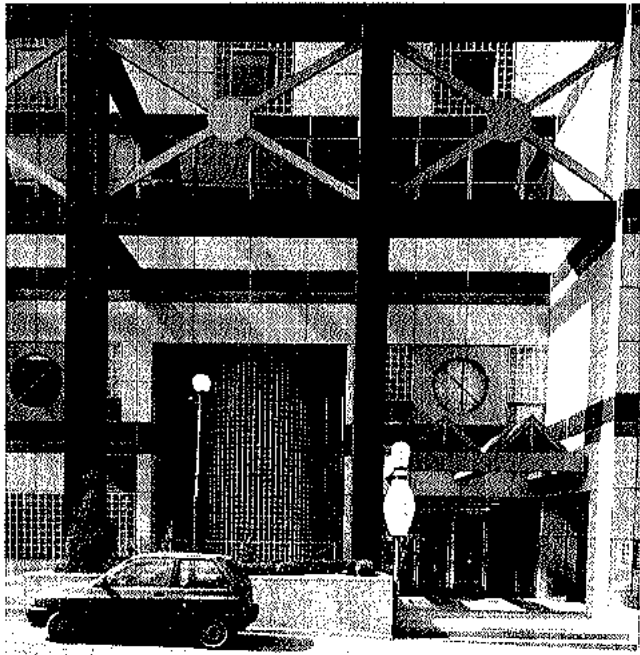
다음으로 「건물이 주변환경에 동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끌어 갈 것인가」하는 문제였다. 인근에는 3층 규모의 낮은 연립주택들과 높지 않은 근린생활시설들 그리고 건축주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전부였다.

따라서 우리는 후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기다란 대지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역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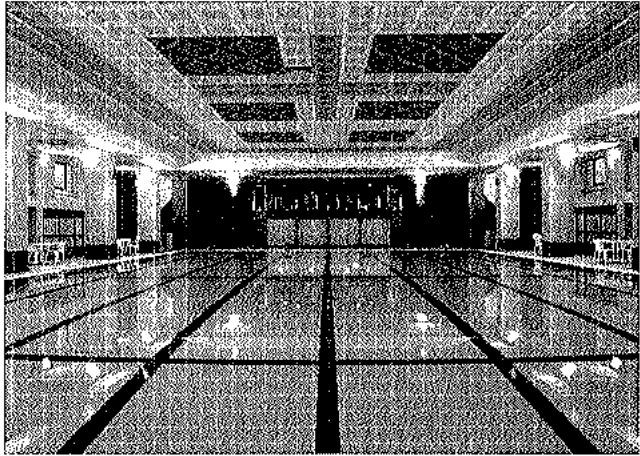
이고 경쾌한 이미지의 형태를 연출하였고 그에 걸맞는 외장재료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내부공간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객의 수준별 Zoning 및 그 동선의 효과적 처리로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의 제공」이었다. 이 부문에 특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초기에 검토하여 구체화되었던 계획이 건축주의 요구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조화롭지 못한 구석을 남기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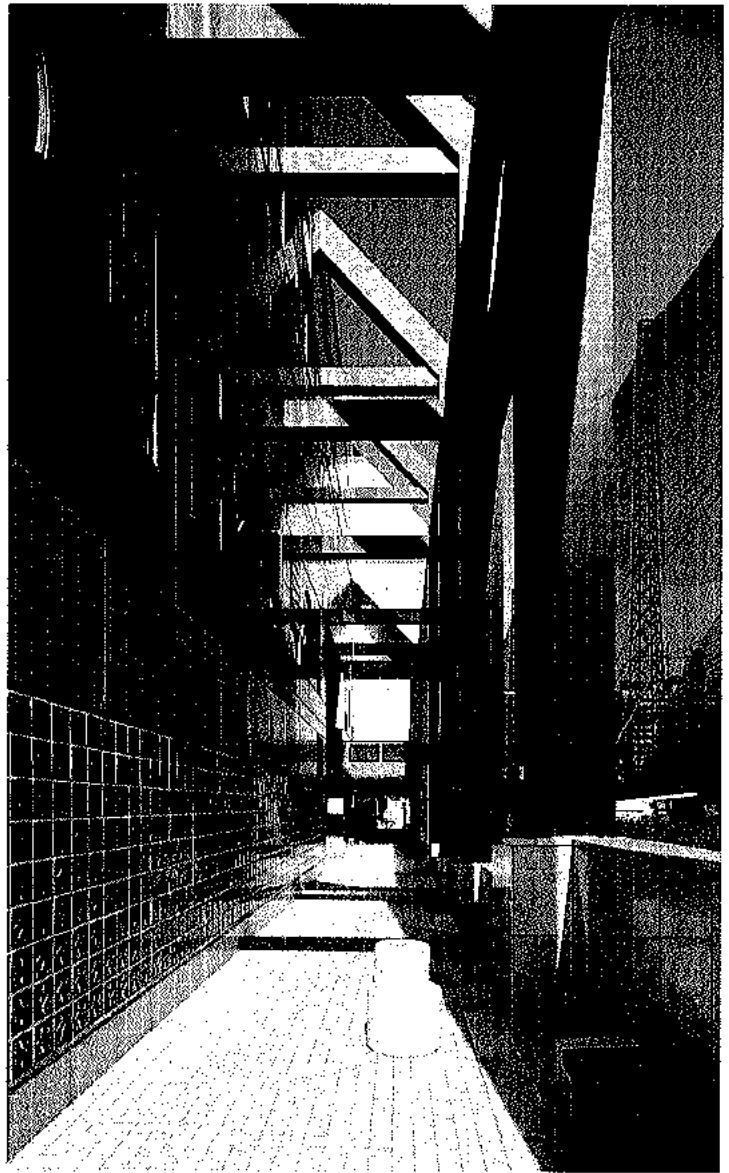
콤플렉스 빌딩이라는 성격만큼이나 설계 및 시공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연유로 「기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하나의 건물로서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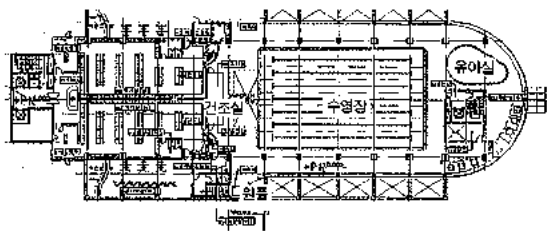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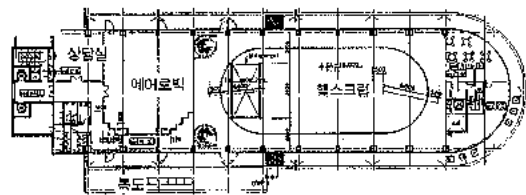
3층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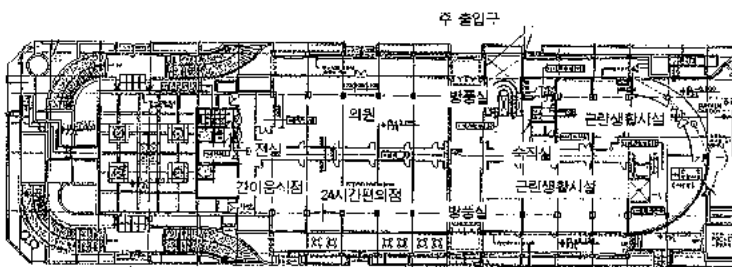
외부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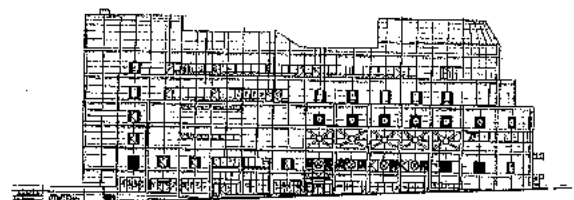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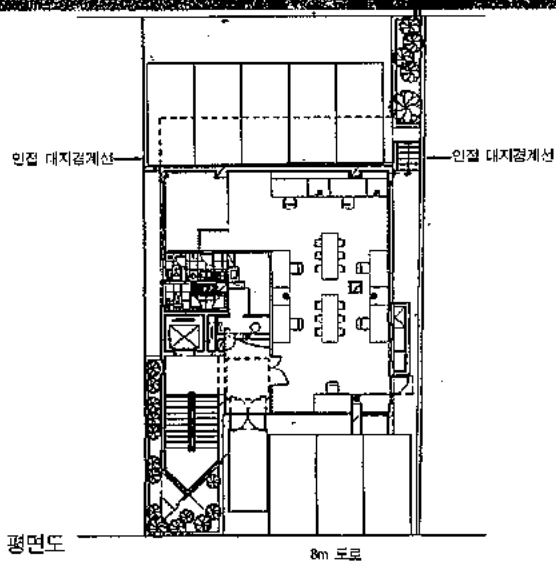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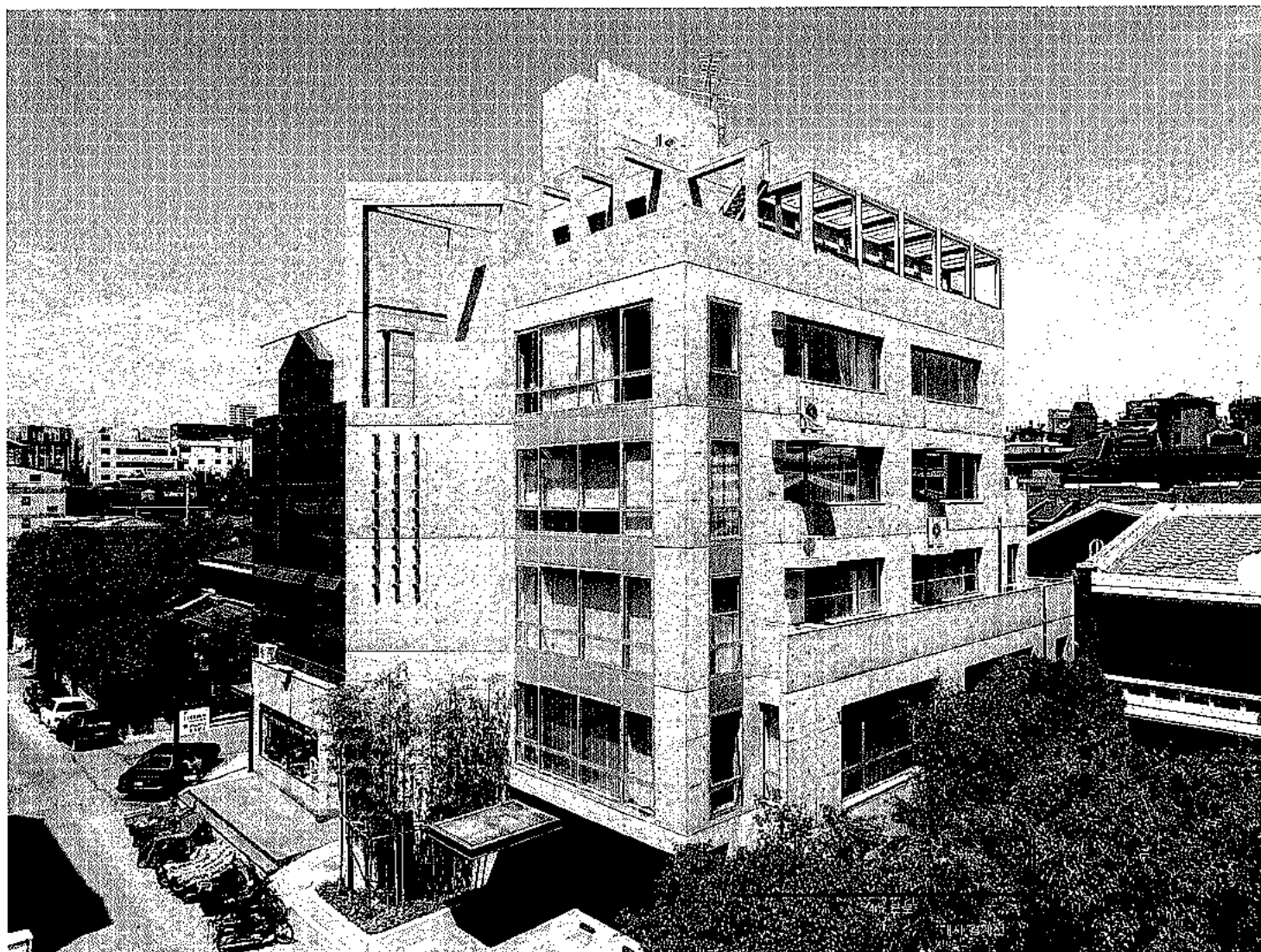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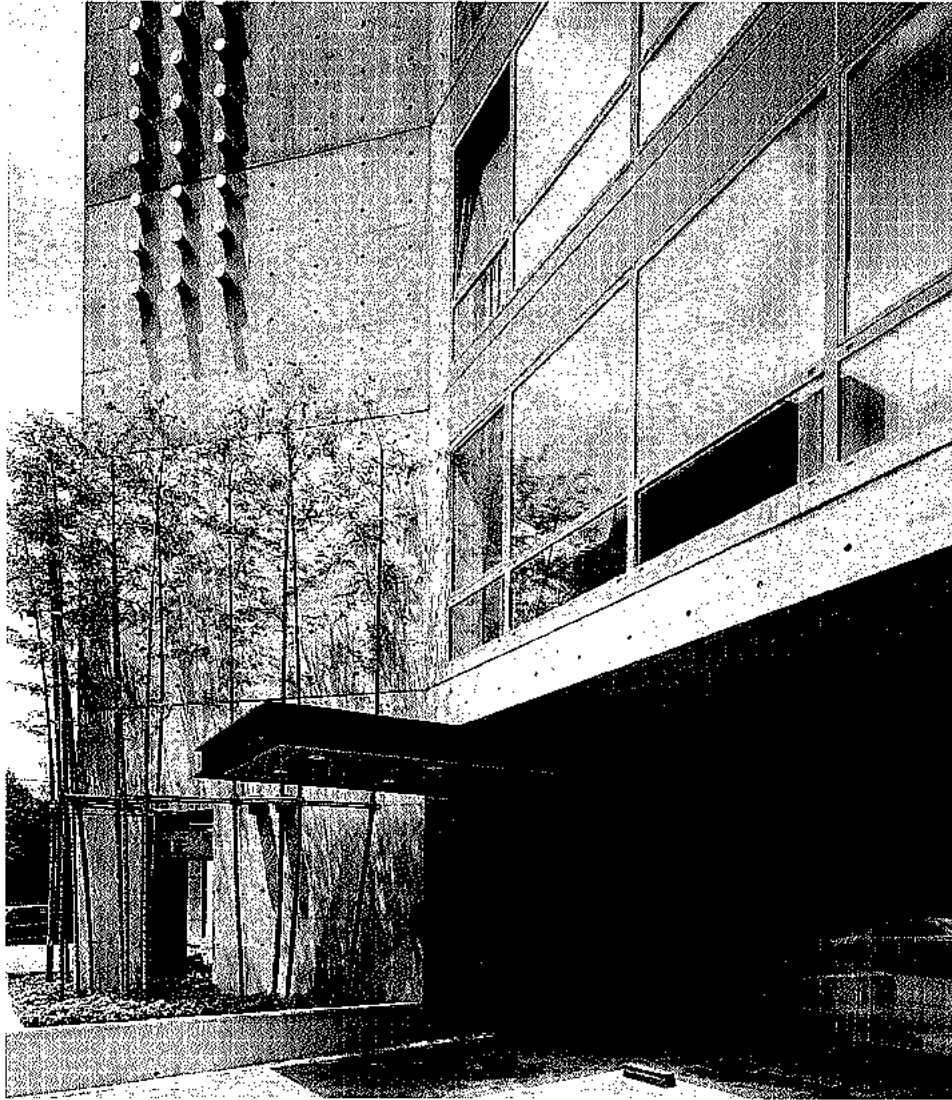
건정 사옥

Kunjung Ate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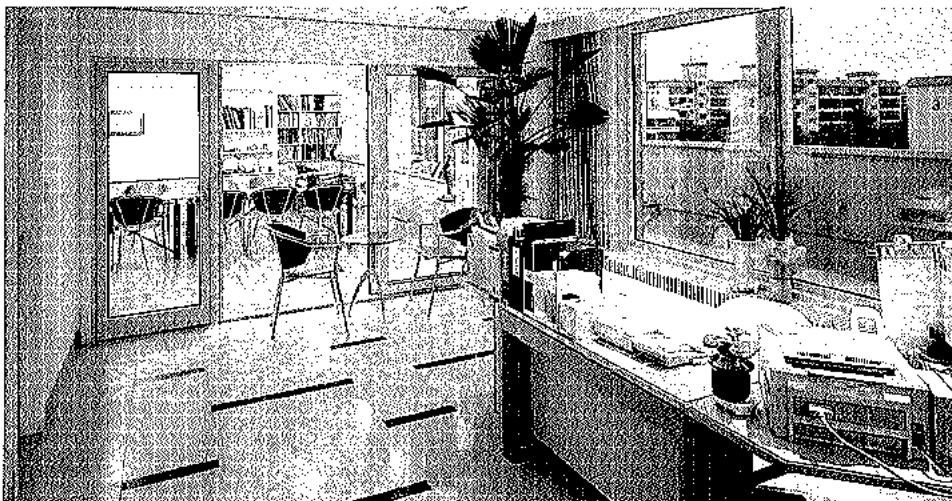
노형래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Ro Heung-Rae



배치 및 1층 평면도



주출입구 및 창호 상세



6층 비서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19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354.80㎡
 건축면적 / 185.62㎡
 건폐율 / 52.32%
 연면적 / 958.77㎡
 용적률 / 253.12%
 조경면적 / 17.74㎡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최고높이 / 23.5m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멘조
 설비방식 / F.C.U 난방, Package 난방
 주요 내장재 / 비록미루널, 석고보드위 페인트
 주요 외장재 / 노출 콘크리트
 시공자 / 김연홍, 조규석
 설계기간 / 1994. 6~1995. 6
 시공기간 / 1995. 8~1996. 4
 계획담당 / 곽종준, 김명식, 김시원, 노태근, 손재용
 구조설계 / 원영술
 기계설비 / 융창살비
 전기설비 / 신우전기
 조경설계 / 장영한
 토목설계 / 세광엔지니어링
 인테리어설계 / 조규석

Location / 41-19, Samsung-dong, Kangnam-gu, Seoul

District / Houses

Site Area / 354.80㎡

Bldg. Area / 185.62㎡

Bldg. Coverage Ratio / 52.32%

Gross Floor Area / 958.77㎡

Gross Floor Ratio / 253.12%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6 Stories Above Ground

Height / 23.5m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Facility System / F.C.U, Package

Construction Term / 1994. 6~1995. 6

Project Team / KooHong-Chun, Kim Myeong-Shik,
Kim Shi-Won, No Tae-Geun &
Son Chae-Yong

Structural Design / Won Young-Sul

Mechanical Service / Yungchang

Electric Installation / Shinwoo

Landscaping Design / Cheong Young-Han

Civic Design / Sekwang

Interior Design / Cho Kyu-Suk

건정사옥 '1996', 이 작품은 그리 혼합하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질주와 무질서한 간판으로 혼합해져가는 봉은사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구역(일반주거지역)에 8m, 4m 도로에 둘러싸여 위치하고 있다.

이에 배치계획에 있어 전·후면도로를 적극활용 주차장을 배치하고 서남측에 Core를 배치하였다.

기본형태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로에 면한 전면을 건축선에서 후퇴(Set Back)시켜 Mass의 변화를 꾀하고 후면 또한 캔틸레버로 처리하여 1층 부분을 Open,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후면 진입도로와 더불어 뒷마당과 같은 아늑함으로 주위 주택과의 완충공간(Buffer Space)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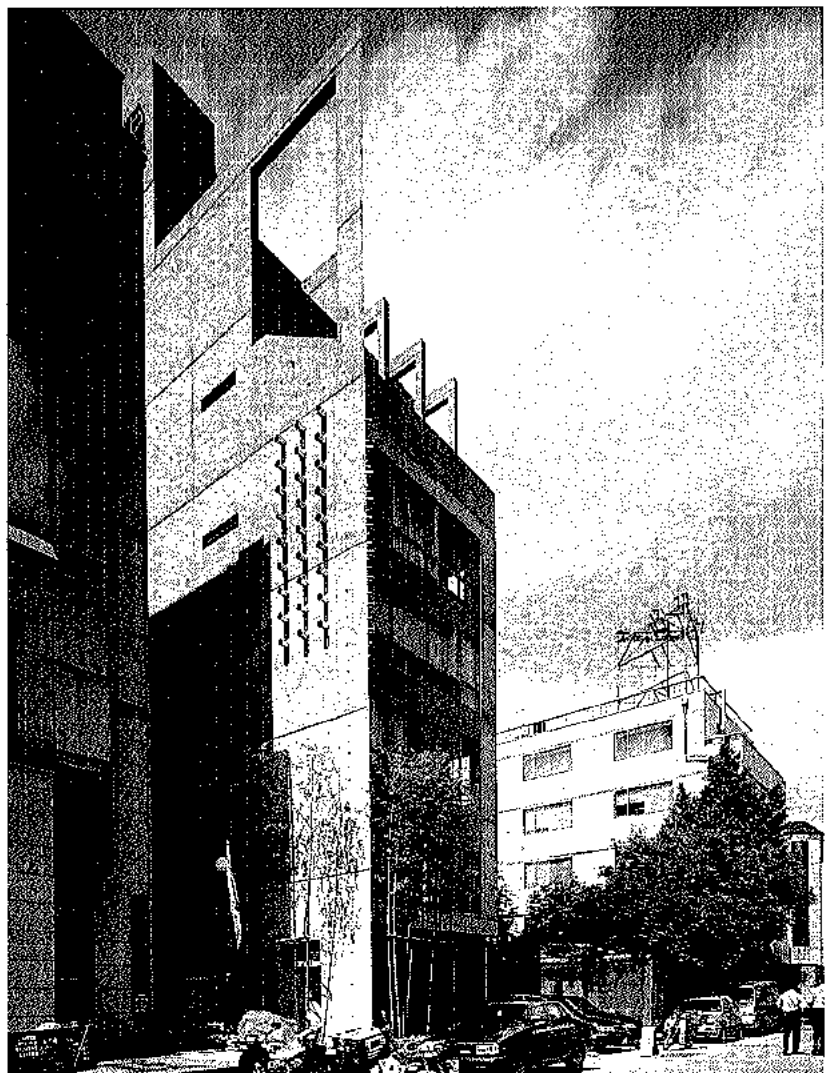
이 건축물의 주사용자는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실, 감리본부, 그외 업무관련 협력업체-인테리어, 설비, 모형제작사무실-들이 사용하게 된다.

이에 평면 계획에 있어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였고 Core를 단순화 삼각형의 형태로 돌출시켜 수직동선을 강조하고 보행자의 시선을 건축물로 이끌어 진입동선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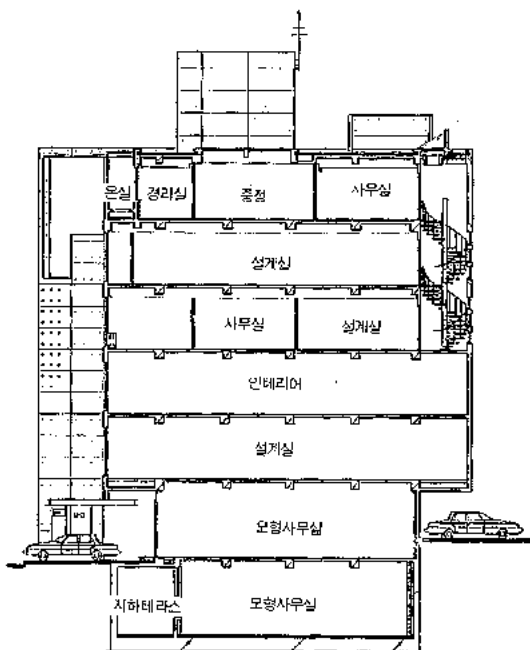
또한 4, 5, 6층 3개층을 원형계단을 이용 연결하여 동선의 최소화를 꾀하였고 최상층에는 중정 및 온실을 계획하여 자연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였다. 전체적인 입면은 노출콘크리트의 솔직함에 Form Tie Hole, 변화있는 창호, 장식흡통, 돌출된 실외기대 등을 이용하여 변화를 꾀하였다.

옥외조경은 대나무, 조목, 수호초 등으로 단순화 처리하여 노출콘크리트의 Mass와 어울리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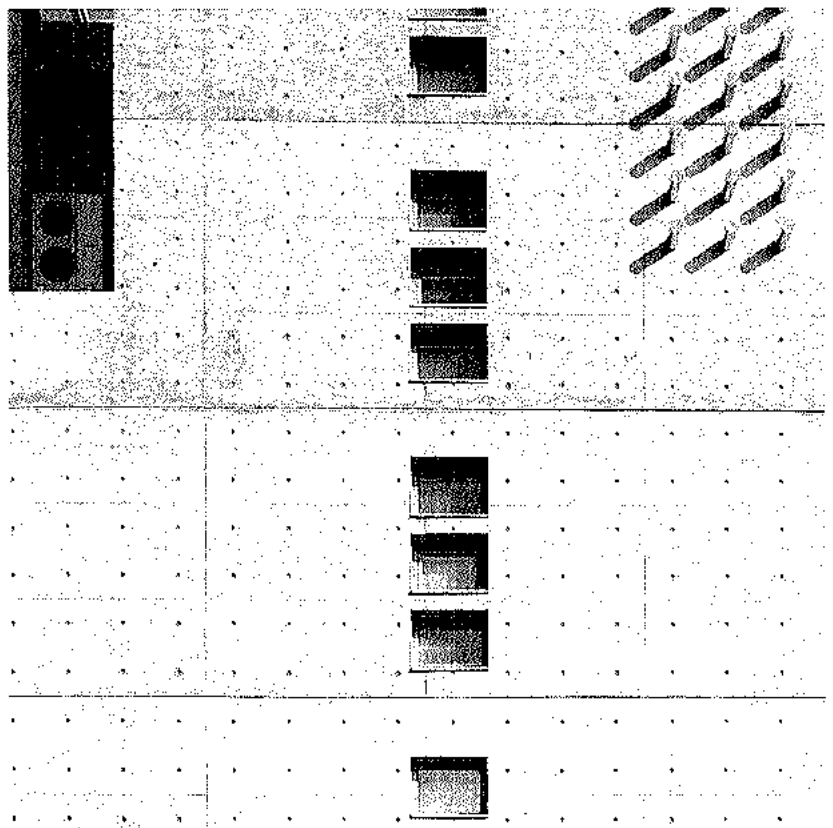
혼잡한 도시의 한켠 지루한 가로의 연속속에 활력 넘치는 가로를 되살리는 신선한 오브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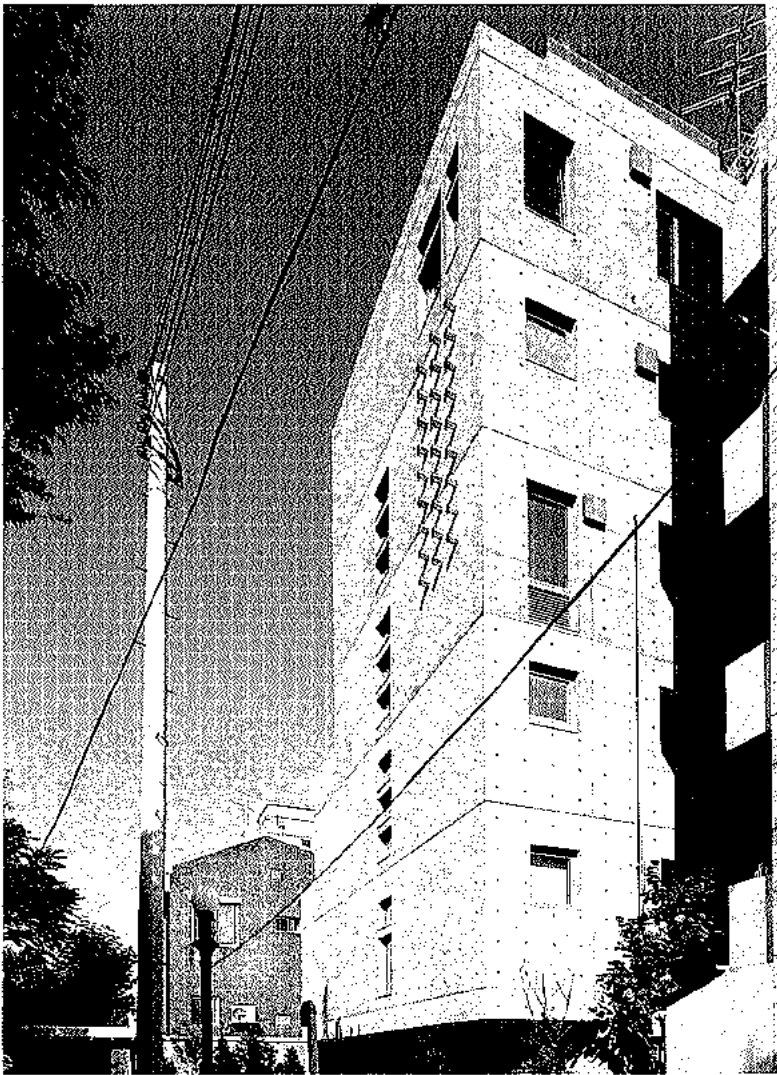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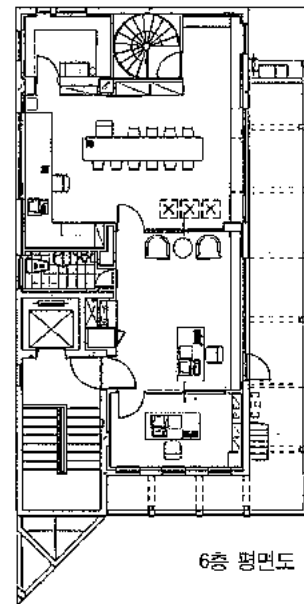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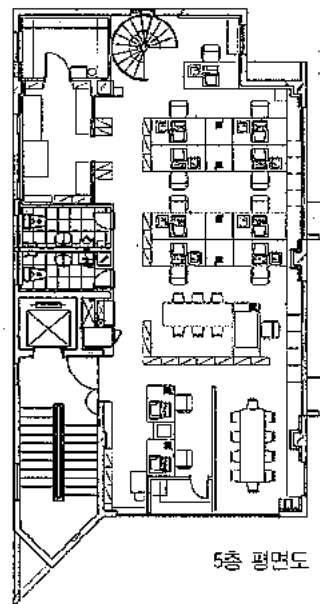
북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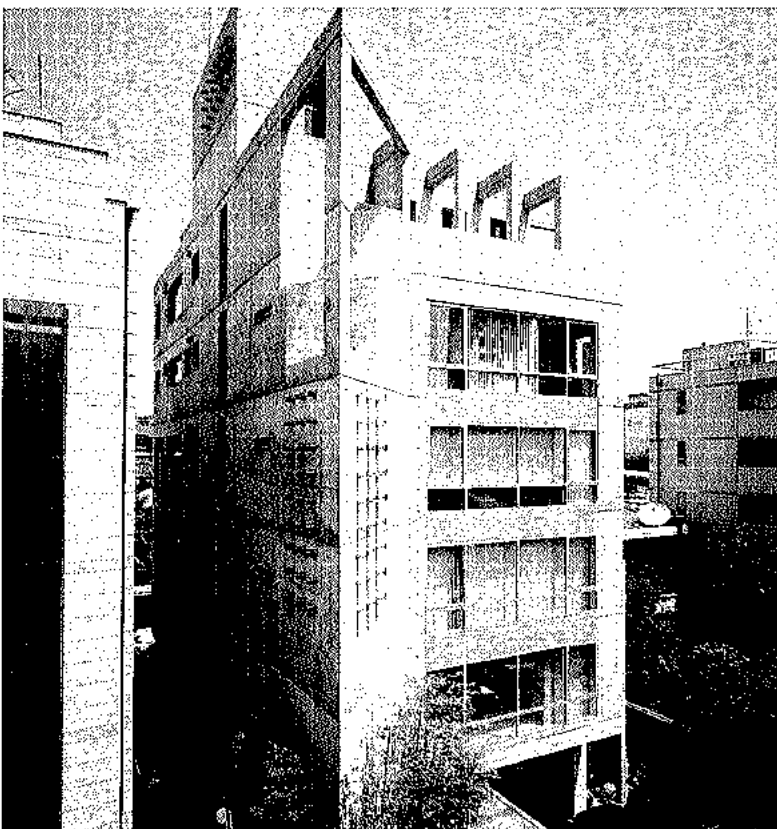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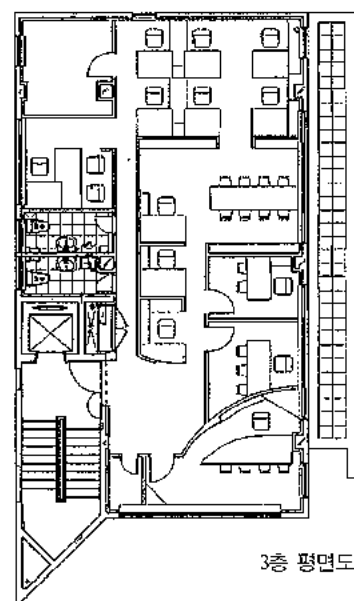
6층 평면도



5층 평면도



남측 전경



3층 평면도

구리시 실내체육관

Kuri-shi Gymnasium

주영정 / 예조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oo Young-Jeong



북동측 전경

위치 / 경기도구리시 교문동 산 60번지

지역 · 지구 / 교문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름

대지면적 / 23,893.00㎡

건축면적 / 2,449.28㎡

연면적 / 3,913.94㎡

건폐율 / 10.25%

용적률 / 14.34%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제 파이프 트러스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화강석 버너구이, 알루미늄 목합재널, 불소수지 페인트

지붕-메탈라이너 샌드위치패널

창호-24mm 칼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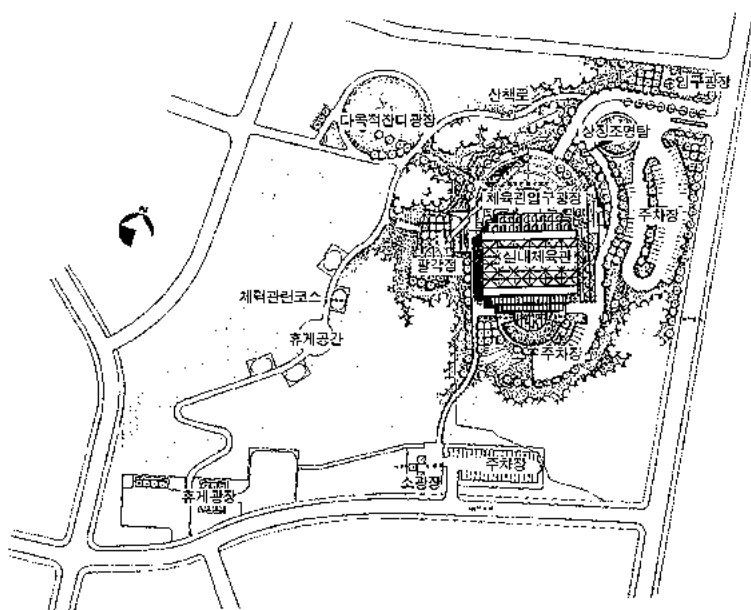
내부마감 / 바닥-오동나무 플로링

벽-1.6mm(유공)철판+정전분체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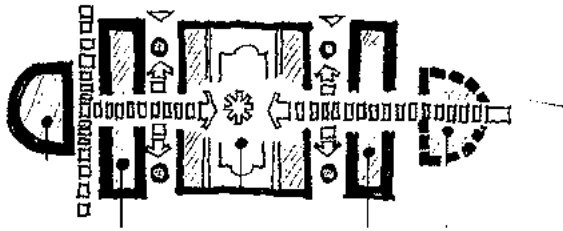
스탠드-시멘트몰탈 위 컬러하드너

주차대수 / 6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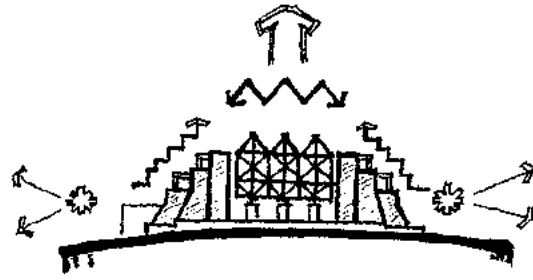
사진제공 / 김철현(외부), 채수욱(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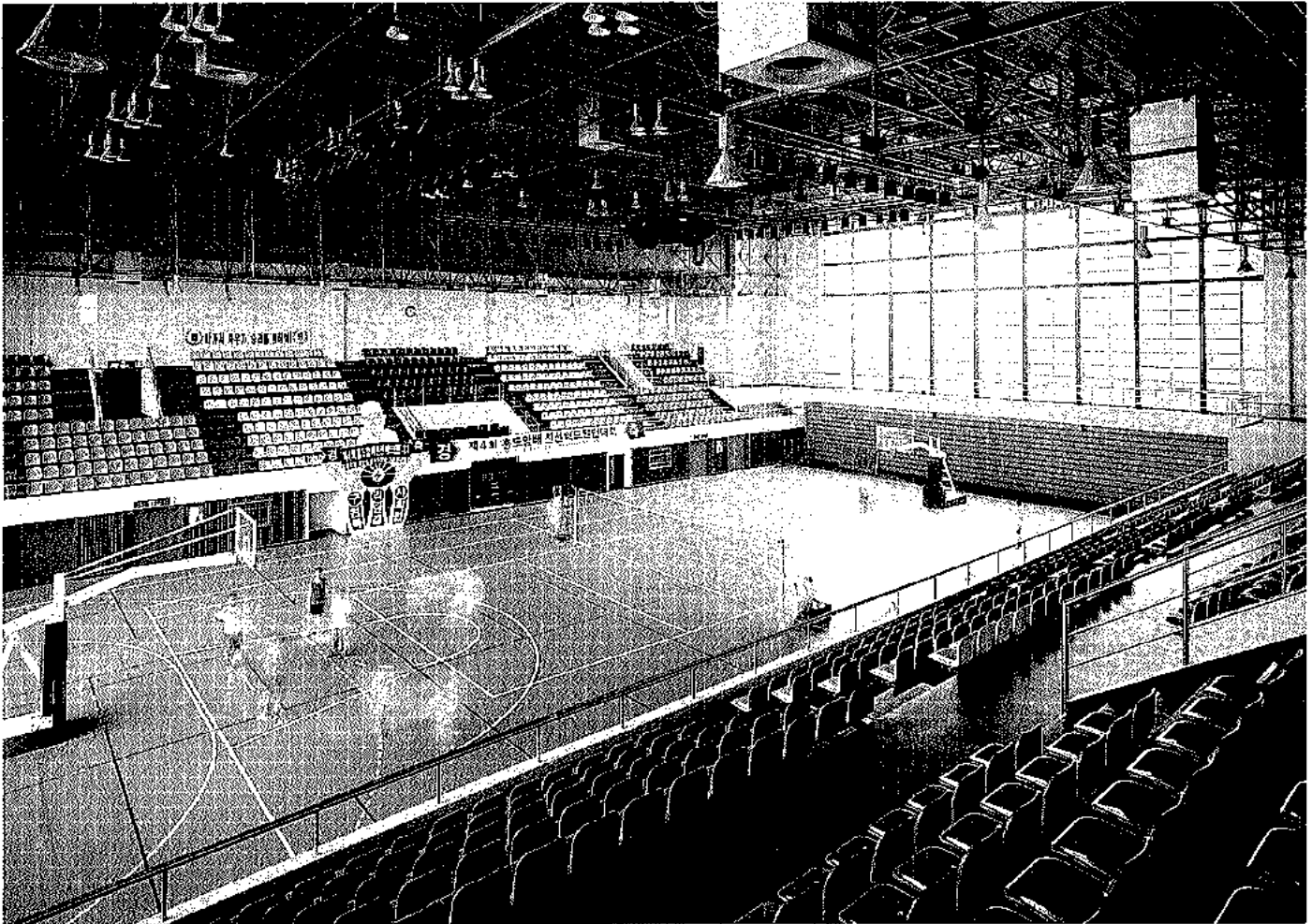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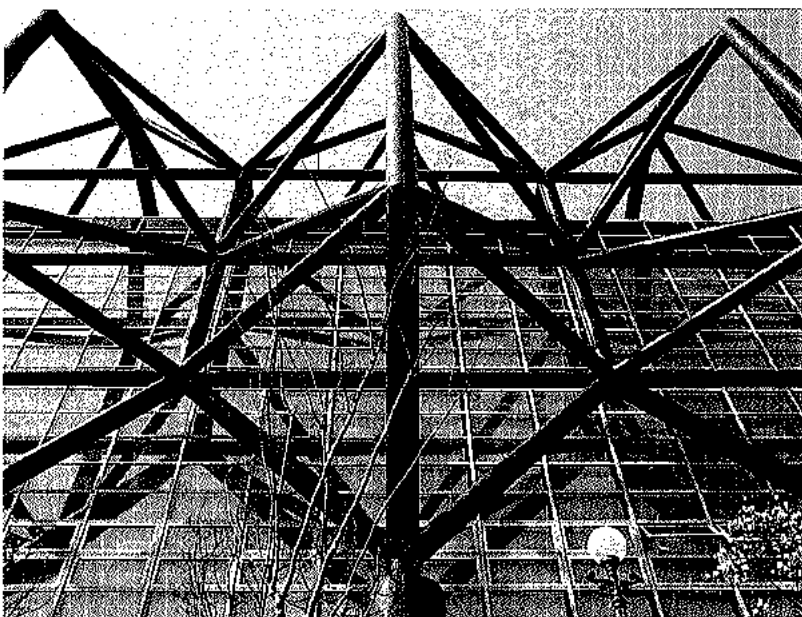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1



이미지 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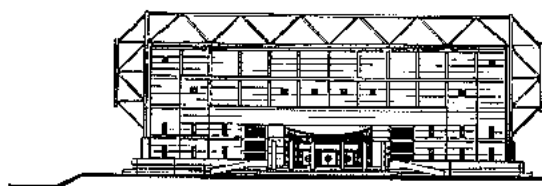


체육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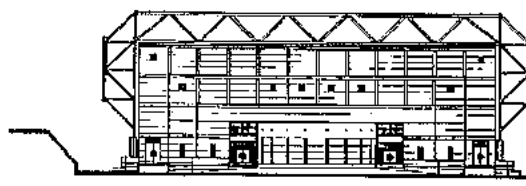


외벽 철구조물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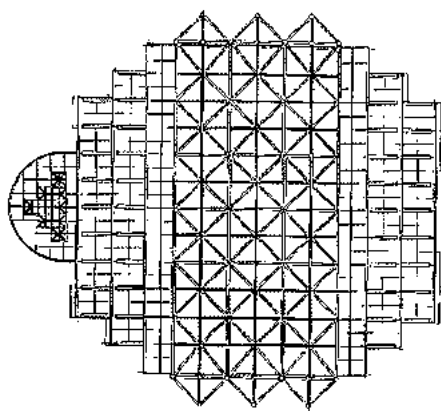
Location / 60, Kyomun-dong, Kuri-shi, Kyeonggi-do
 District / Park
 Site Area / 23,893.00㎡
 Bldg. Area / 2,449.28㎡
 Gross Floor Area / 3,913.94㎡
 Bldg. Coverage Ratio / 10.25%
 Gross Floor Ratio / 14.34%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Truss,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Wall-Granite
 Roof-Metal lath Sandwich Panel
 Windows-24mm Color Double Glazing
 Parking / 63 C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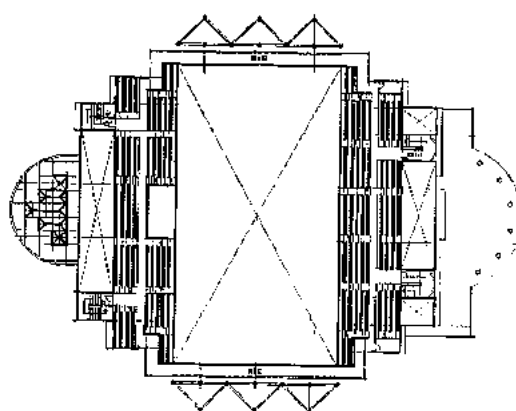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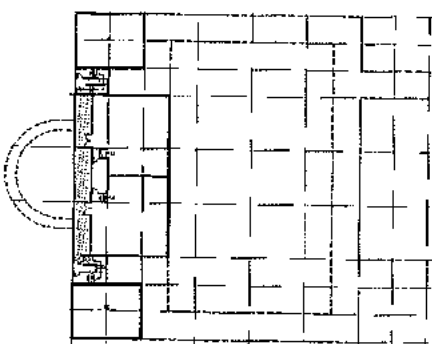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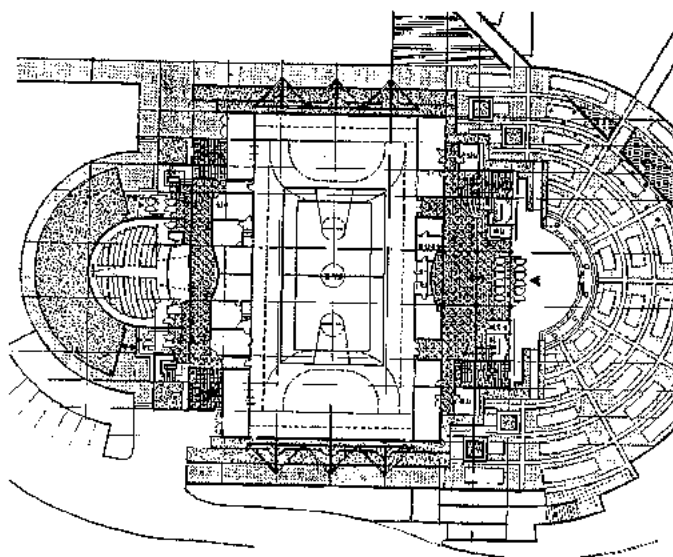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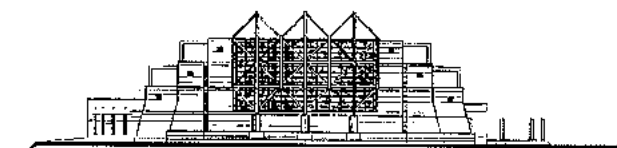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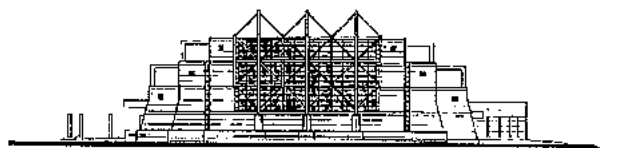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구리시 중심부에 서있는 랜드마크적 건물로 계획하였으며 강렬한 원색의 입체트러스구조로 시공되었다.

콘크리트 플랫폼의 경기장과 특수강관구조에 의한 외피라는 두가지 중요한 구조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건물은 거대한 강관구조로 입체 트러스에 매달린 볼륨으로 구성되었다.

실내는 블라인드를 자동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자연채광과 에너지절약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녹색계열의 버트레스로 계획되었으나 화강석벽면과

같은 색조로 시공되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중량적 느낌의 매스와 트러스 및 버트레스에 의한 긴장감이 공간과 반공간을 이루며 내부 평면도 그러한 원칙에 따른다. 수평적 안정감이 강조되는 일반적인 체육관과는 달리 수직적 측면을 강조하여 발전하는 구리시상을 상징하고자 하였다.

경기장 크기는 24.3m×48.6m로 모든 실내경기기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동서창의 남북향의 건물

이지만 루버처리로 자연채광 및 난방, 조명부하의 감소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입동선을 사선으로 계획하여 건물의 깊이를 강조하였고, 기존공원의 축과 체육관축을 15° 틀어 해체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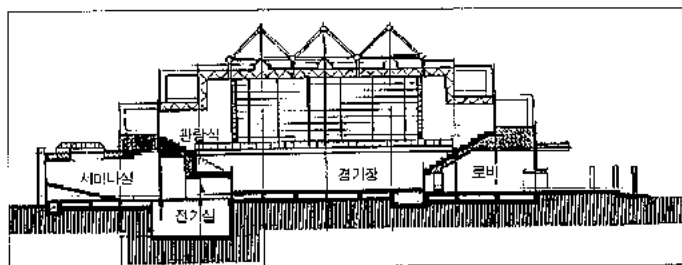
화강석의 외벽면처리와 지붕강관입체트러스구조의 조화로 주변 자연대지와의 조화와 긴장을 표현하고, 자방에 원색 액센트컬러를 사용하여 구리시중심부의 랜드마크적 요소로서의 체육관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남동측 전경



남서측 전경



종단면도



체육관 내부에서 본 창 상세

만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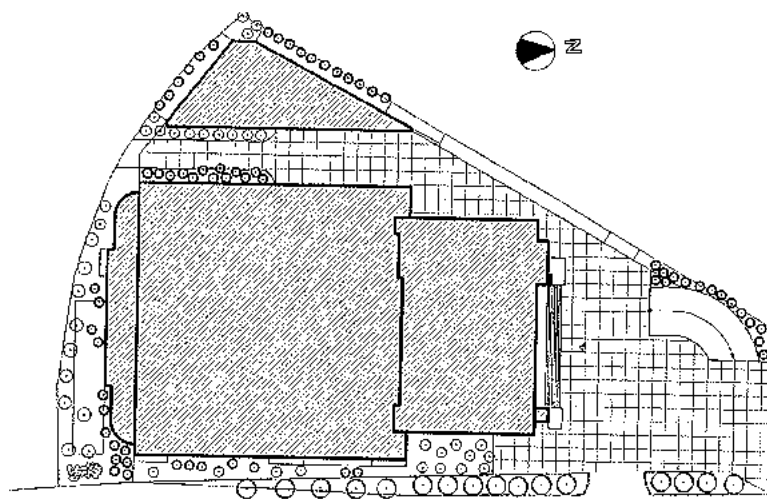
Manna Methodist Church

임급주 / (주)거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Gup-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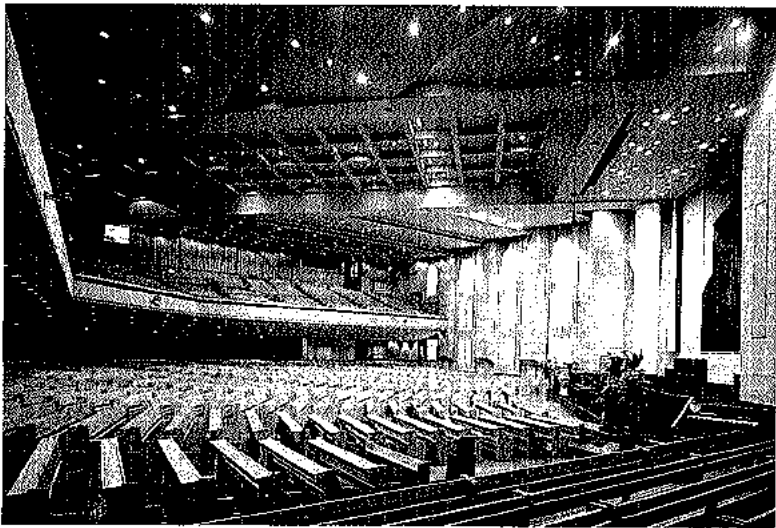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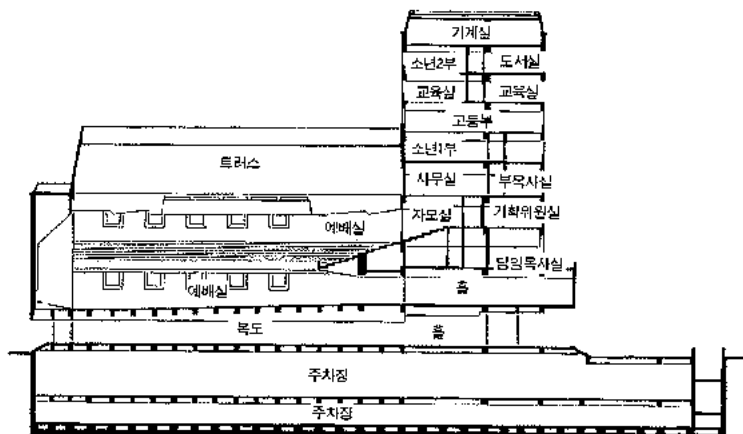
배치도



본당 내부 1



본당 내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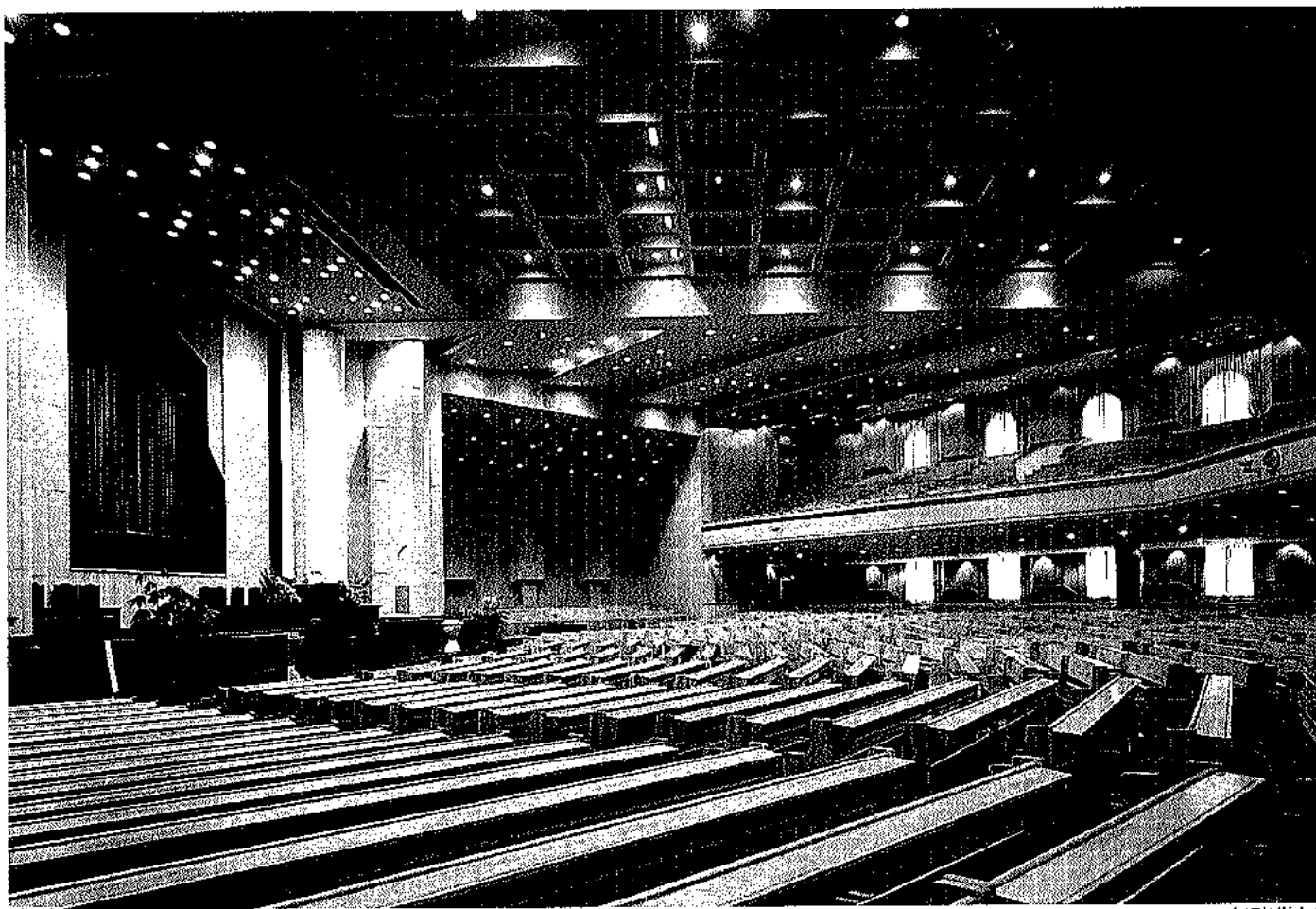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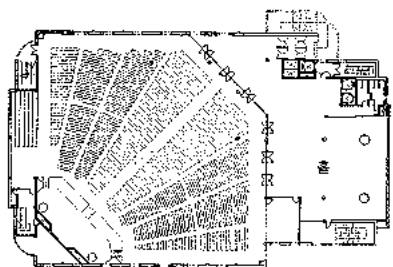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93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 5,160.00㎡
 건축면적 / 2,690.22㎡
 연면적 / 18,322.74㎡
 건폐율 / 52.13%
 용적률 / 196.55%
 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대예비실 5,000석)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Space Frame Truss
 최고높이 / 41.5m
 외부마감 / 화강석 베너구이+18㎜ 컬러 목층 유리
 내부마감 / 바닥 화강석 물갈기, 락스톤, 디렉스타일
 벽·대리석(포도치노), Woven Facing Foam T-3,
 수성페인트, 안코트
 천장·아이톤, 아스칼, 마직

건축설계 / 임희철 외 10인
 구조설계 / 김갑중, 전정권(한국조형)
 설비설계 / 김상권(주·보우설비)
 전기설계 / 김혁문(삼화전기)
 감리담당 / 조지연
 건축주 / 기독교 대한감리회 만나교회
 시공자 / 대항기업(주)
 설계기간 / 1992.5~1994.5
 시공기간 / 1993.8~1996.5
 주차대수 / 21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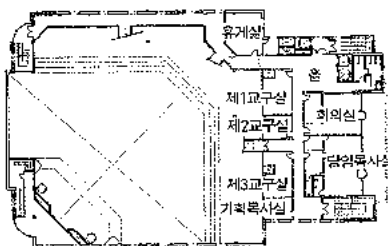
Location / 393, Yatap-dong, Pundang-gu, Seongnam-shi, Kyonggi-do
 District/Houses
 Site Area / 5,160.00 ㎡
 Bldg. Area / 2,690.22 ㎡
 Gross Floor Area / 18,322.74 ㎡
 Bldg. Coverage Ratio / 52.13%
 Gross Floor Ratio / 196.55%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9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Rigid Frame+Space Frame Truss
 Height / 41.5m
 Exterior Finish / Granite+18mm Color Double Grazing
 Interior Finish / Floor-Granite
 Wall-Marble
 Ceiling-Mitone
 Project Team / Lim Hee-Churl etc.
 Structural Design / Kim Kap-Jung, Cheon Cheong-Kun
 Mechanical Service / Kim Sang-Kwon
 Electric Installation / Kim Hee-Moon
 Supervision / Cho Chi-Yeon
 Client / Manna Methodist Church
 Design Term / 1992.5~1994.5
 Construction Term / 1993.8~1996.5
 Parking / 213 C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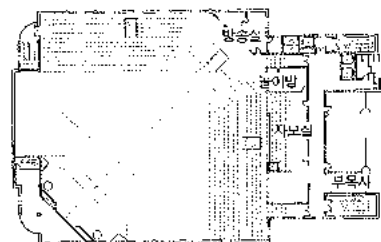
본당내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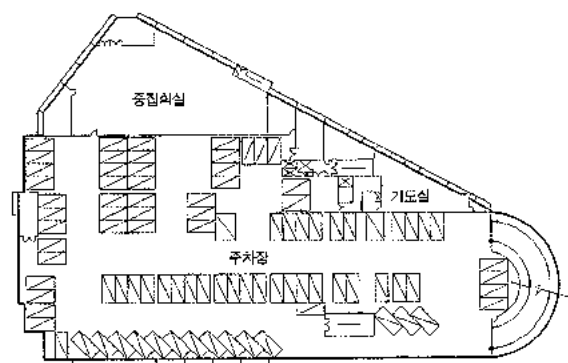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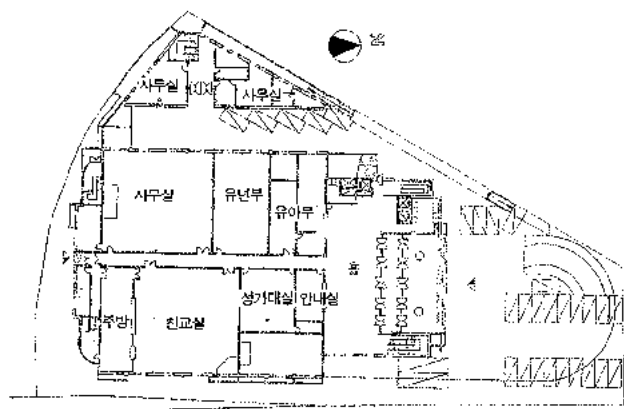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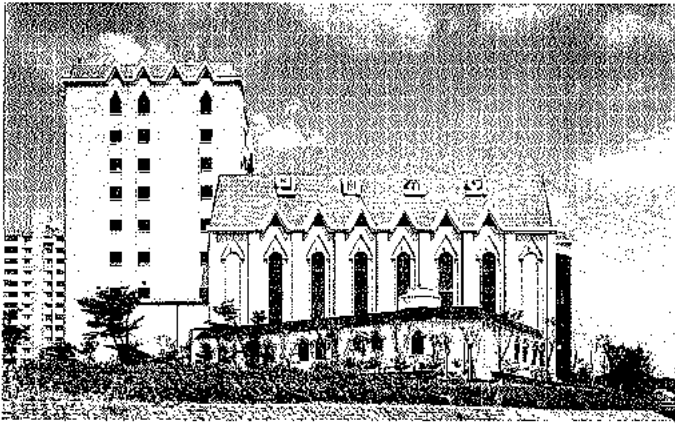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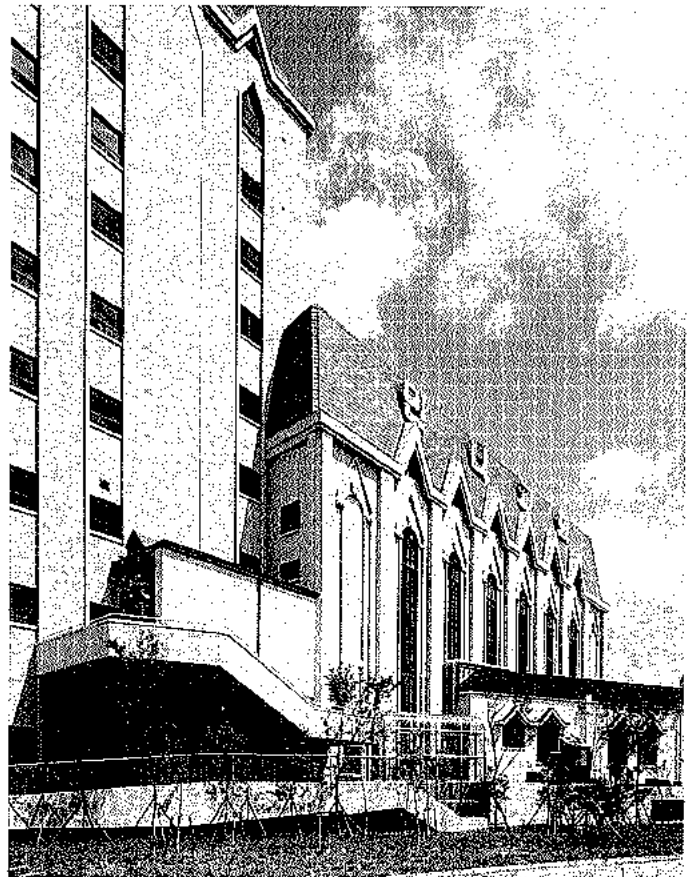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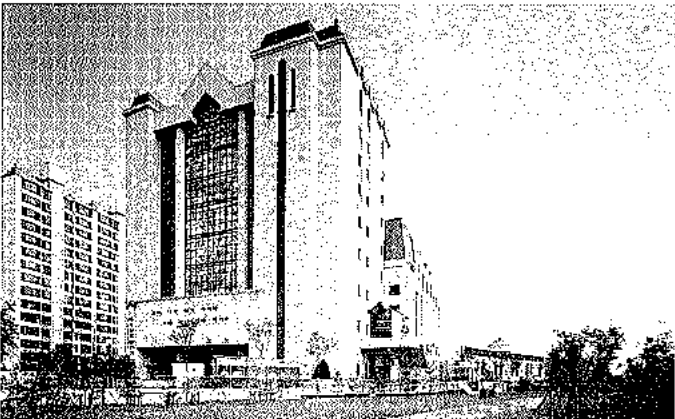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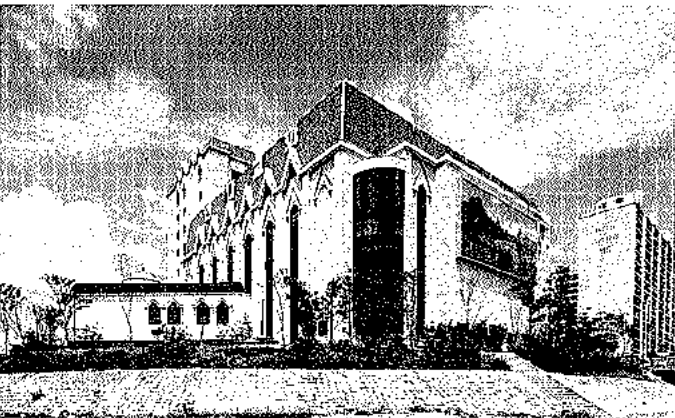
서측 전경



서측 벽면 상세



북서측 전경



남서측 전경



계획안 투시도

기본개념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학적 의미표현
-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성과 경건성 극대화
-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의 장소로서의 유기적인 활용
- 교회당과 주변지역 기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배치 계획

20m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노선축을 단지 배치의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주변의 아파트지구 및 탄전과 적절한 시설녹지와의 연계성을 극대화시켰다.

동선 계획

예배와 교육동선의 효율성 및 기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선의 분리를 꾀하였다.

평면계획

예배공간과 교육, 친교공간의 상호간의 유대성 및 독립을 유지하며, 평면공간의 다변성을 확보하였고, 교인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입면계획

외벽은 화강석 바너구이 마감으로 자연적인 질감을 내고, 외면 형태는 청호와 벽체구성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수직관계를 강조하고, 창에는 원형아치와 첨두아치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현대화하였다. 전면의 2개의 기둥은 성경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뜻을 나타내도록 노력하였다.

준공후 소감

작품은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사회에 내어지고 작가보다 생명이 길다. 그래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시대를 초월한 걸작품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끝나고나면 아쉬움만 남는 것이 작품 활동인가 보다.

계획 당시에는 관계법과 규정 및 관계 기관에 협의하여 건교부 건축기본 계획심의를 거쳤으나 허가 과정에서 건물의 고도 제한으로 (협의 기관 오퍼로) 10층 1개층과 십자가 탑을 처음 계획대로 건축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언젠가는 기본 계획대로 사공증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인정빌딩

Injeong Building

문성운 /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Designed by Moon Sung-Un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69번지와 1필지
대지면적 / 915.00㎡
건축면적 / 548.82㎡
연면적 / 4,921.99㎡
건폐율 / 59.97%
용적률 / 399.4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2층, 지상1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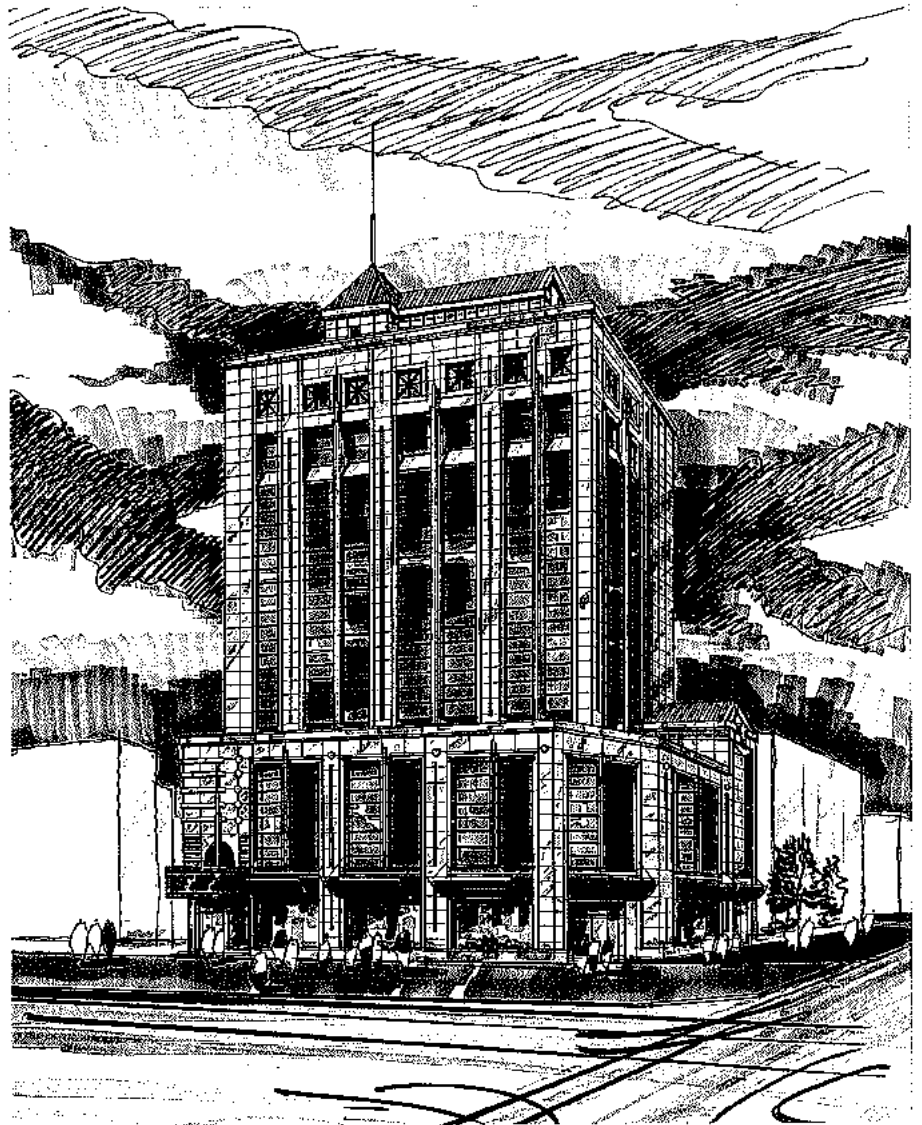
Location / 830-69, Yeoksam-dong,
Kangnam-gu, Seoul
Site Area / 915.00㎡
Bldg. Area / 548.82㎡
Gross Floor Area / 4,921.99㎡
Bldg. Coverage Ratio / 59.97%
Gross Floor Ratio / 399.46%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10 Stories Above Ground

20m도로를 대지 모서리에 양쪽으로 접하고, 후면 부에는 4m도로가 접하고 있는 비교적 주변조건이 양호한 형상으로써 저층 부에는 금융기관 및 임대용 업무시설을 두고 상층부의 3개 층 정도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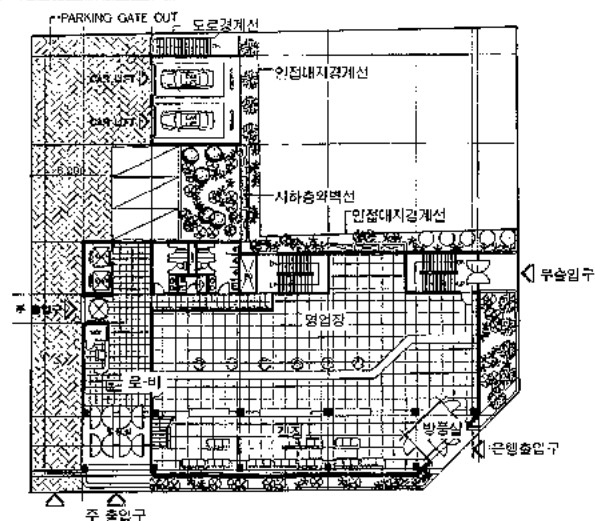
외관의 전체적인 매스계획에 있어 요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는 평할한 외피형태를 갖고 있는 주변건물과의 차별화를 두려고 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주차동선은 전면 20m도로에서 진입하여 대지내를 관통하여 후면부의 4m도로로 나가도록 되어있고, 은행의 주출입구는 횡단보도의 교차점에 설치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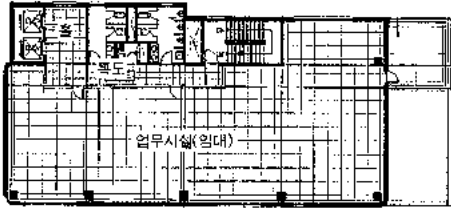
공개 공지를 두지 않기 위해 연면적을 5,000㎡ 미만으로 조절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옥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정도라면 공개 공지를 설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바람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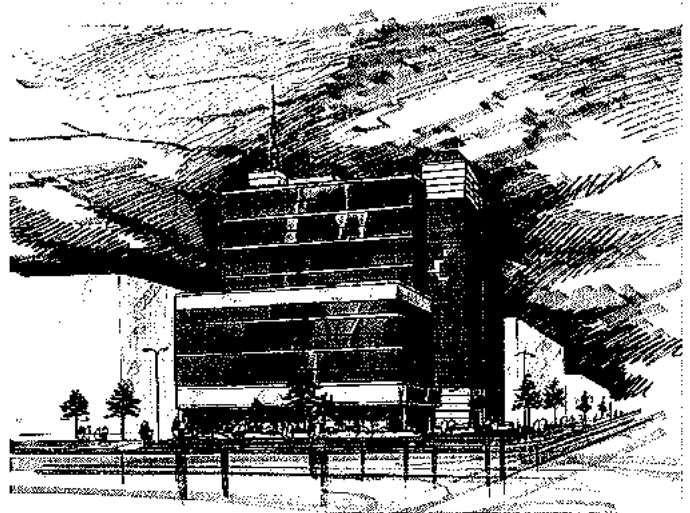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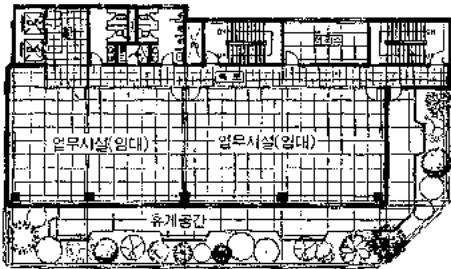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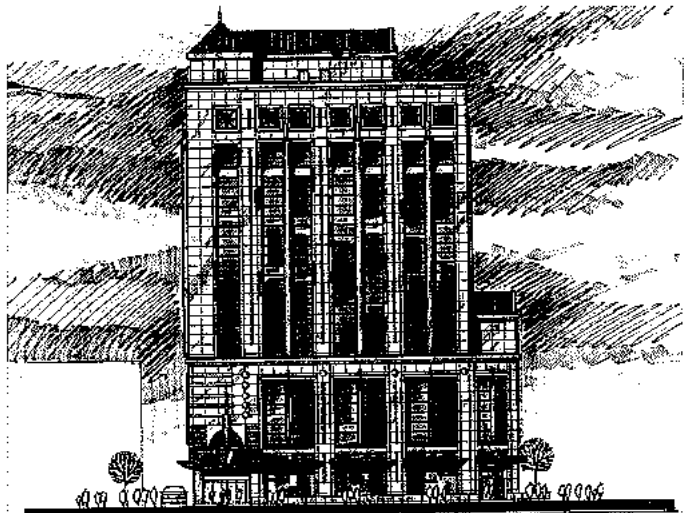
5,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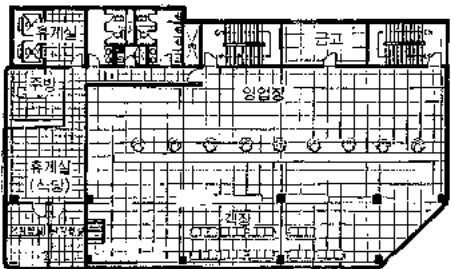
초기안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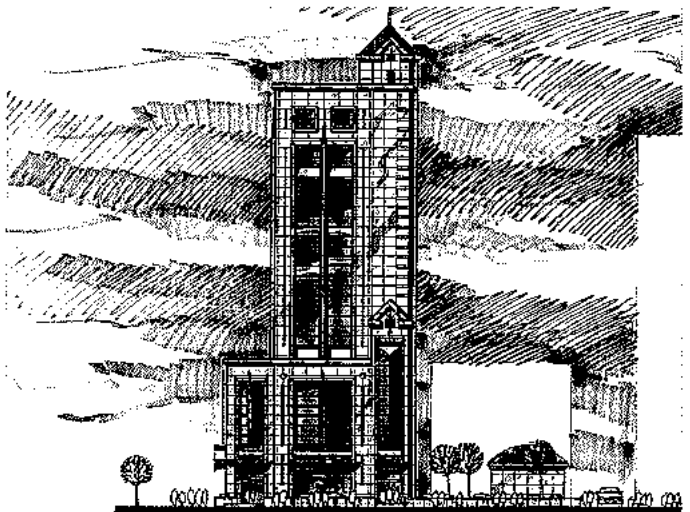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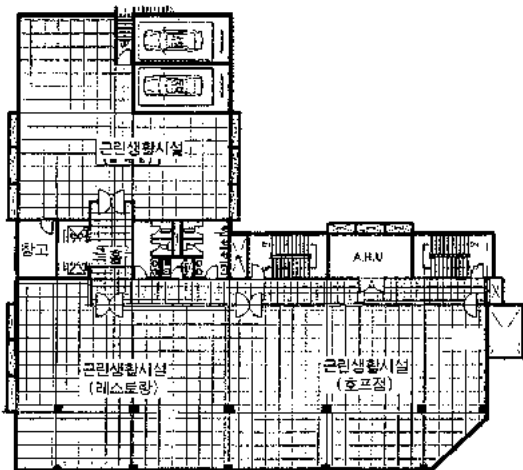
정면 스케치



2층 평면도



우측면 스케치



지하 1층 평면도

92년 11월 여행을 나갈준비를 하던중 상담을 받고 오타와를 경유하여 캐나다 미술의 도시 베쌍폴에 들어가 민박을 하면서 자연과 예술을 접하였는데 숲의 향기가 그들의 예술과 함께 하는 듯 보였다. 자연과 예술의 관계가 잘 드러나 보이는 예술이 이곳의 예술이다. 미술을 키우기 위해 미술관을 새로 짓고 정기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참으로 볼만한 도시이다. 뉴욕으로 나와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The Great Utopia(The Russian and Soviet Avant-Garde 1915~1932)라는 커다란 전시회를 보았다. 건축, 공예, 의상, 광고 등 모든 것이 망라된 작품들을 감명깊게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에 미치는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본 고장에서는 산파역만 하고 실제로 꽃은 다른 나라에서 피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여행과 사색을 한다는 것은 이 작품에 힘을 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위해 훈련과 휴식을 취하다가 게임에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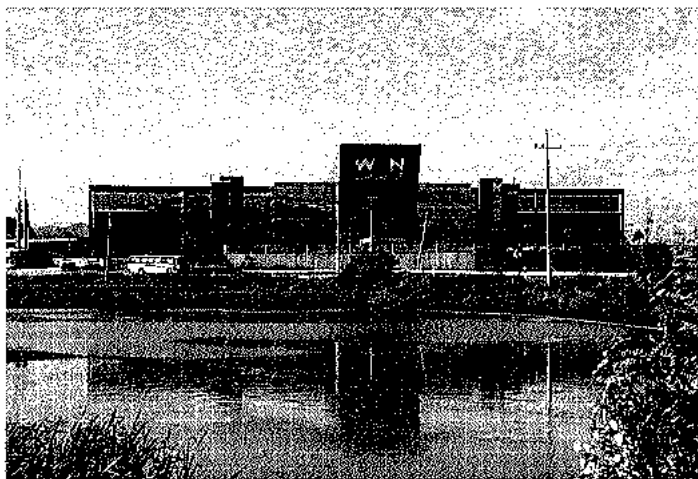
선수들과 비교될만하다.

현장탐사시에는 안성을 지나 천안으로 들어서면서 낮은 야산 주변으로 포도밭이 눈에 많이 보였다. 설레임 속에 동구밖에서 보이는 것은 포도 나무를 엮은 V형의 콘크리트 지지복이었고, 이

원실업 천안공장

Ele-Port hill

최승원 / 왕기주망 건축사사무소
by Choi Seung-Won



1



2

원리는 가는 철선에 인장을 주어서 무거운 포도송이를 매달리게 하는 내용이다. 이 원리를 구조에 응용하는 스케치를 여러번 해보았다.

현장에 다왔을때 우측에는 호수가있고 좌측에는 여러 가지의 과일나무가 있는 과수원길이 있었다. 과수원길을 넘어가는 관리용주택이 보이고 한그루의 밤나무는 지금도 내 인상에 남아있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겨울밤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많은 향수를 느꼈다. 복숭아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날때 매우 즐거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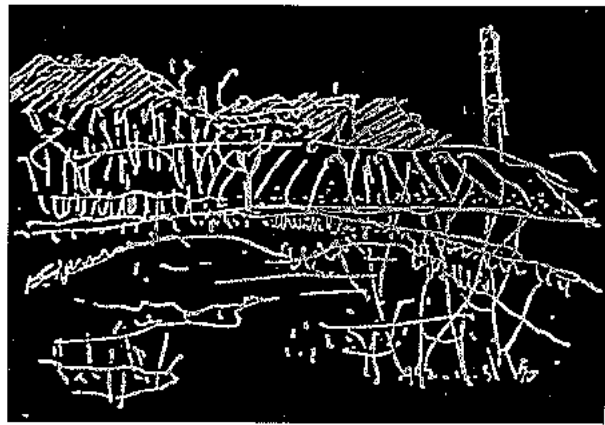
현장에서 볼때 대지 북편에 있는 호수는 과수원 언덕길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방죽건너의 언덕에 매료되어 한장의 스케치를 남기게 되었다.

첫인상을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상사병에 걸린 연인 같이 두문불출 겨울밤을 지새우며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그림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남는 흔적은 매우 소중한 양식이 되는 것이다.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광경을 보았고 이것이 당시 전염병같이 번지는 노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주는 하늘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한마디만을 남겨 매우 인상적이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에세이책 선전에는 '향산종이 향내나고, 똥산종이 똥내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나 붙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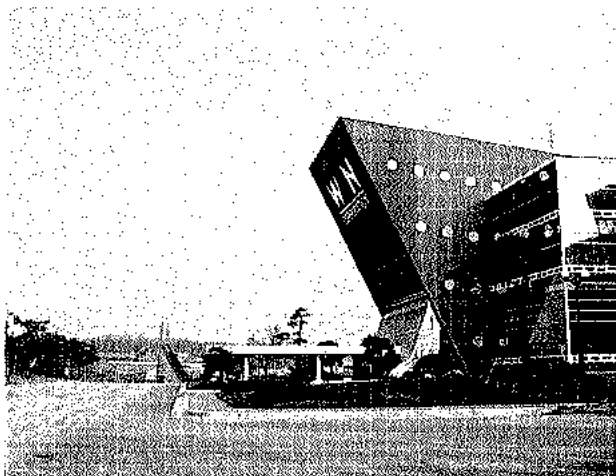
스케치 1

있었다. 향을 쥔 건축으로 바꾸어 말해볼만 하다. 그리고 옥지거리가 있은후 첫날의 상황이 끝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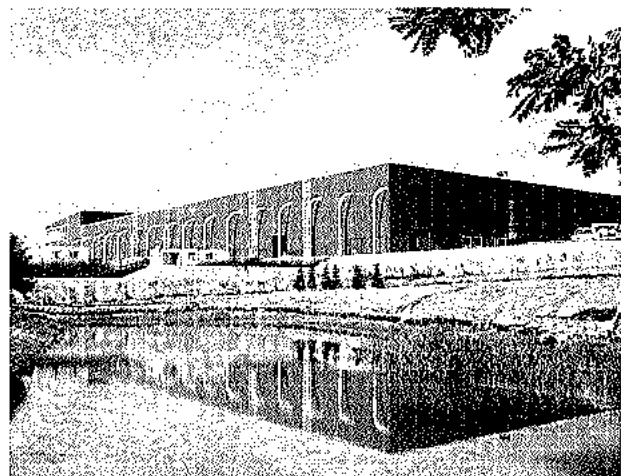
현실적인 접촉은 괴롭지만 일을 이루고 결과는 보이겠다는 신념과, 현장에서 주는 자연과의 즐거움이 일을 지속케 하였다. 똥을 뚫고 향수를 뿌리면 되는 것이다.

특별한 주문도 질문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느꼈던 요소를 생각하며 자유롭게 스케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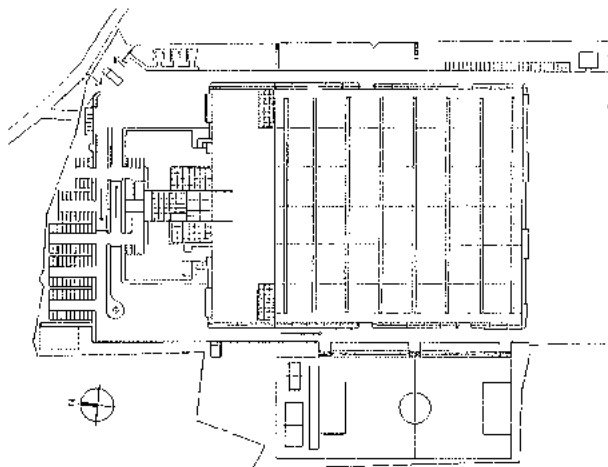
대지는 다룰 때마다 항상 작은 것이 특징이다. 절약해서 쓰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 여백을 남겨야 하는 것이 필요했다. 중요한 생각은 노동의 즐거움을 갖게하고 지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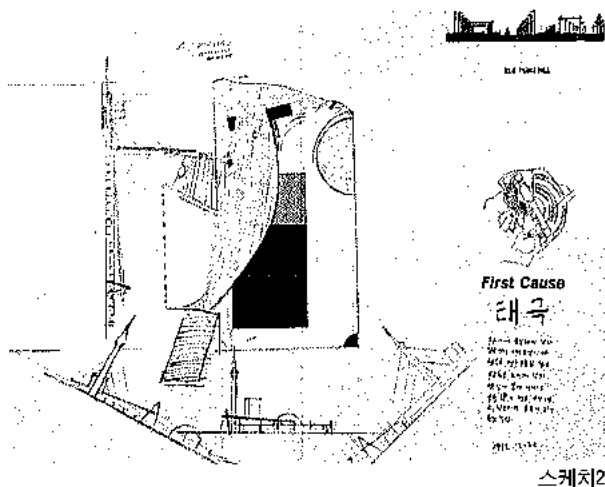
배치도

사진 1. 호수에 비치는 정면도, 현장답사시 이곳에서 스케치를 하였다.

사진 2.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현관과 안뜰 조경은 대나무와 계단을 주제로 함.

사진 3. 정문, 기념탑, 본관이 어우러지는 전면 조경

사진 4. 작은 연못을 유지시키고, 조경을 하기 위해 준비중인 연못 건축은 공사중이다.



스케치2

루한 작업시간을 무릉도원같이 시간 가는줄 모르게 일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무릉도원을 주변에 이야기 해보니 놀다가 도끼썰는 이야기라 별로 안좋은 반응이었다.

주변에 복숭아 밭도 그대로 이용하면서 원예반을 만들어 경작케하는 플랜을 세웠다.

디자인 실천 사항으로 3C를 세웠는데 우선 청결이 기본이되고 청결은 정밀가공과 마무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바닥 마감재와 관계가 깊다.

두번째로 문화를 접목시키고자 하였고, 세번째는 차밍

이다. 문화감각이 있을때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음악·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고려되었다. 회사제품의 역사적 유물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제시되었다.

매력은 청소년들의 일터에 대한 매력이다. 제조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제조업도 매력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지원자가 많기를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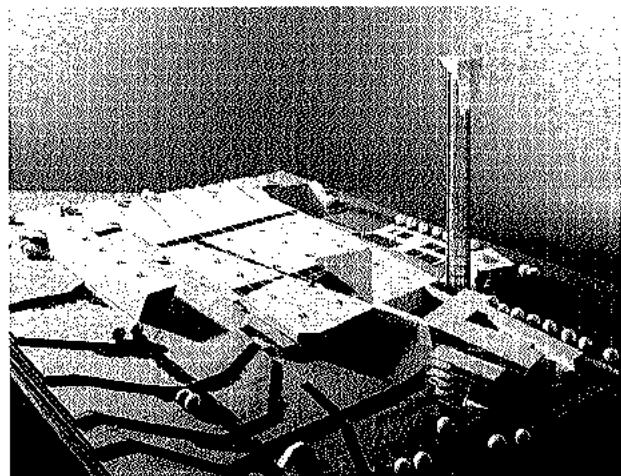
전체적인 구도는 한장의 그림같이 전원속에 동화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작은 야외음악회를 어디에서 할것인가를 여러번 검토하였다.

첫인상은 배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주변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낮은 경사를 오르면 본관이 보이게 하면서 서남쪽의 연못을 보호하기위해 여러번 건의되었다. 확장을 예측하는 증역은 계속 매립을 주장하였지만 결국은 보전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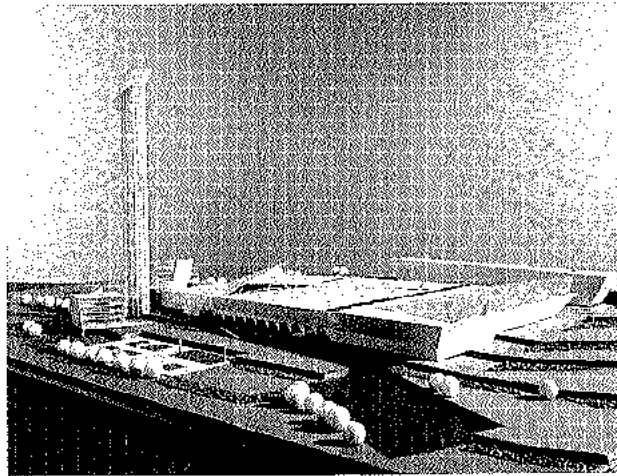
공장동과 업무동의 관계는 서로 보완관계가 있다. 공원은 사원이라는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한덩어리로 되었는데 조명과 소음예방이 중요한 과제이었고, 비밀지역의 보완유지에도 중요사항으로 처리되었다.

식당은 최상층에 두었는데 스카이라운지를 연상하고 주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식사시간 만이라도 즐겁게 휴식적인 배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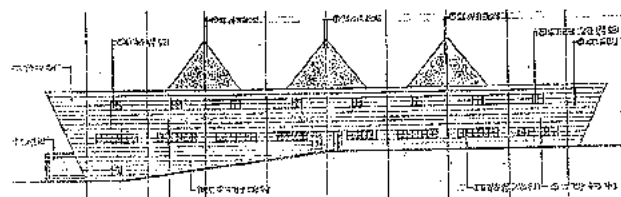
사진 5. 포도밭 V형 밑목과 구조를 응용한 사무동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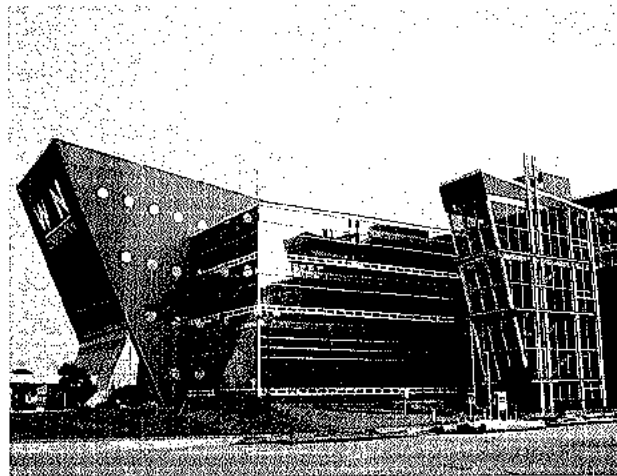
모형도 1



모형도 2



스케치 3



5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생산공장 내부에도 실내조경을 도입하였는데 작업환경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식물이 잘 자랄때 작업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밤나무, 배나무, 연못 등산을 보존하여 출근자는 매일 고향에 가는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환경보존과 이용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자연과의 조화는 개발에 밀려 여러번 부딪혀 보았으나 어려운 환경이었다.

중장비 생산은 주변이 수평이어야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아래 모든 지역을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병행하였다.

컬러는 백조의 향연 같이 발레리나의 분위기 같은 색을 처방하였다. 부차적 컬러는 온백색의 비행물체의 분위기를 가지면서 순결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코자 하였다.

클래식적 잠재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양가주망이 있어야 하고 미래를 향하여야 한다는 것이 생각의 전부이다.

클래식음악에서 인정받는 음악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 우리의 현재이기에 발상도 이 틀에 들어있는 것이 답답하다. 현대음악이 약하듯이 생각도 현대적인 것이 빈약하다고 사료된다.

빛나는 별의 날개같이 상징적이거나 건축의 전체적인 매스를 검토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고 거북선의 노의 맛만 대규모로 연출하였다. 만질 수없는 개방감 있는 처녀성은 매력의 표본이기에 감각적으로 디자인에 받아들였다. 매력이 있어야 관심을 갖게되고, 그렇게되면 일차적인 인장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일차적인 인장적 목적이 달성된다. 조형화된 정문은 엘리베이터가 건축속에서 상승감을 주는 형상으로 날개없는 인간이 위로 오르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건축설계시 직접디자인한 건설기념탑 이름은 '균형'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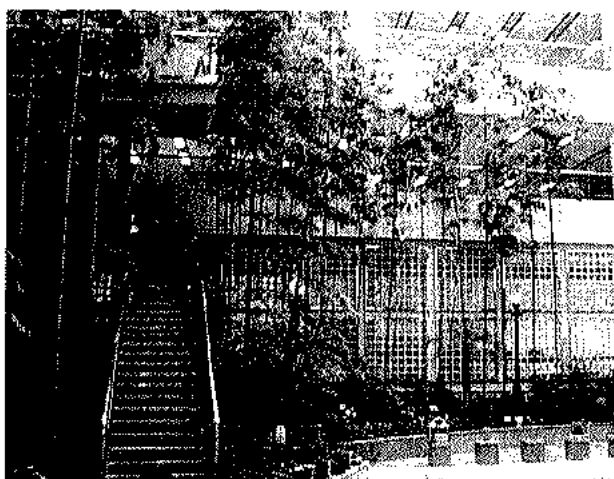
사진 6. 사무실을 통해 본 안뜰. 안뜰 너머에 전시실이 있다.

사진 7. 허파 역할을 하는 안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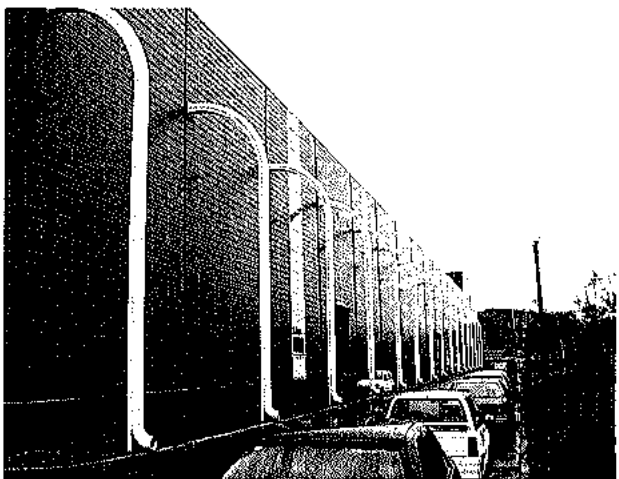
사진 8. 구조적 디자인으로 처리된 몸흔들, 폭우시를 대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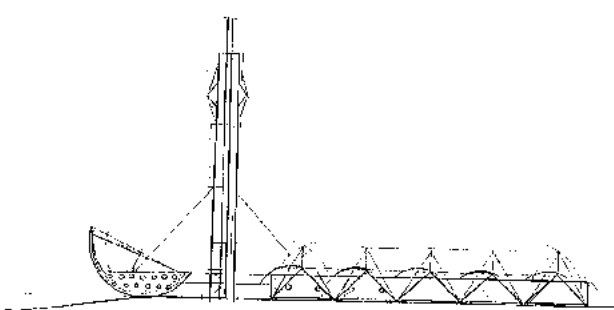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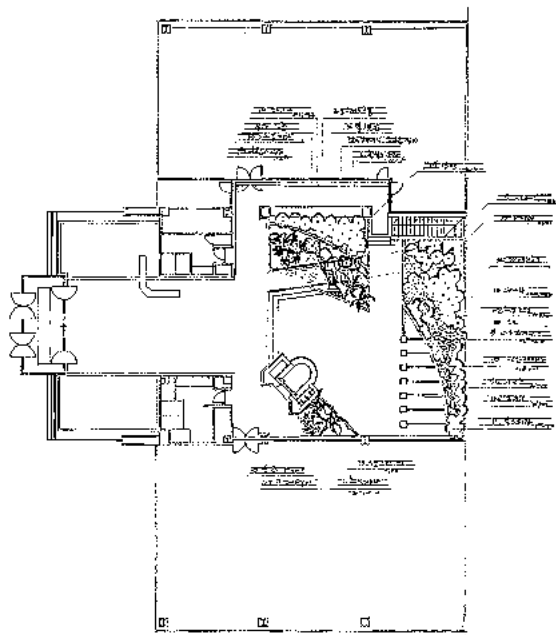
7



8



스케치 4



중정 조경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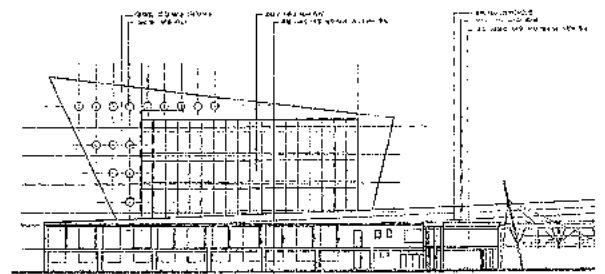
주단면도

으로 약속과 균형 관계를 의미하며 평면은 요철 형으로 음양을 상징하고 음양이 만나면서 에너지가 생성되어 힘의 스타트가 되게하는 원리를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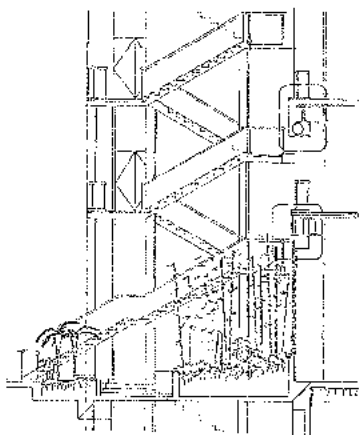
건축중 일본 도시바 자매 회사에서 여러번 답사를 하고 남긴이야기는 아시아건축에서 넓은 지붕에 하나이며 (물매가 별로 없으면서 양쪽으로 처리)대범한 디자인 이라는 것이었다.

건축중 구조감리는 김희구박사가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안전도를 높였으며, 설계자도 매주 방문하여 현장강의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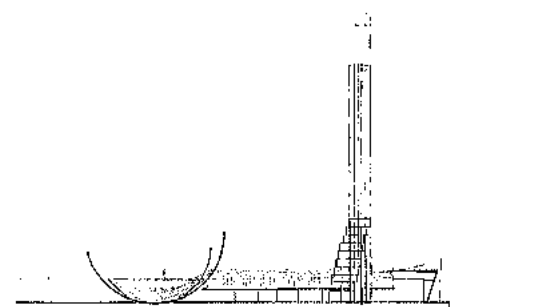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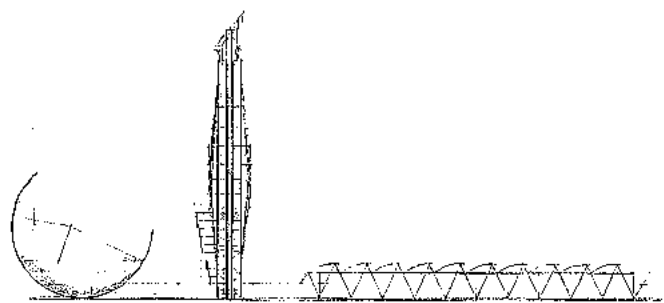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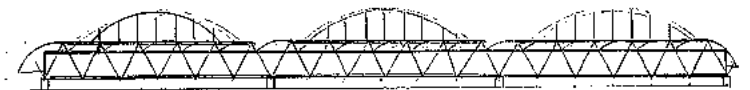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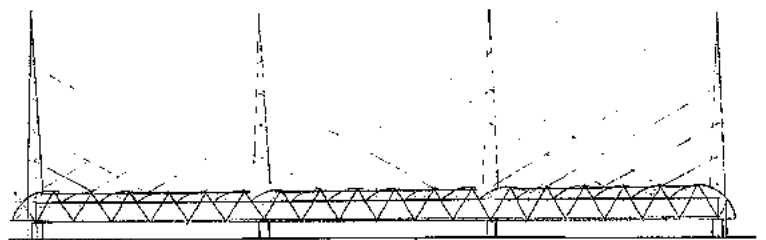
첫인상은 거의 그림으로 끝나지만 이로인해 마음속에 누적되는 디자인은 잠재적인 요소로 매우 소중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적어본다.



스케치 5



개념도



스케치

대지 / 충남 천안군 입장면 신두리 산1번지 외 13필지

면적 / 59,936㎡(18,130.64Py)

건축주 / 주식회사 원설업

건축면적 / 22,342.58㎡

연면적 / 28,694.74㎡(8,680.12Py)

건폐율 / 37.28%

용적률 / 46.83%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

외부미감 / 샌드위치 패널, 알루미늄 쉬트

주차대수 / 130대

조경면적 / 10,345.78㎡(3,129.58)

환경시설면적 / 6,723.75㎡(2,033.9)

면적구분 / 생산시설-12,419.38㎡, 비생산시설-16,275.36㎡, 계-28,694.74㎡

구 분	면 적	경비동	인화물 저장소	계
지하층	628.56			628.56(190.14)
1층	22,159.94	31.74	36.0	22,227.68(6,723.84)
2층	2,359.21			2,359.21(713.66)
3층	3,479.29			3,479.29(1,052.48)
계	28,627	31.74	36.0	28,694.74(8,680.12)

설계기간 / 92년 11월~93년 6월

시공 / 효성 중공업 주식회사

구조 / 김희구 박사

전기 / 한양건설 주식회사

조경 / 그린토피아

Location / Shindu-ri, Ipchang-myeon, Chunang-gun, Chungnam

Site Area / 59,936㎡

Bldg. Area / 22,342.58㎡

Gross Floor Area / 28,694.74㎡

Bldg. Coverage Ratio / 37.28%

Gross Floor Ratio / 46.83%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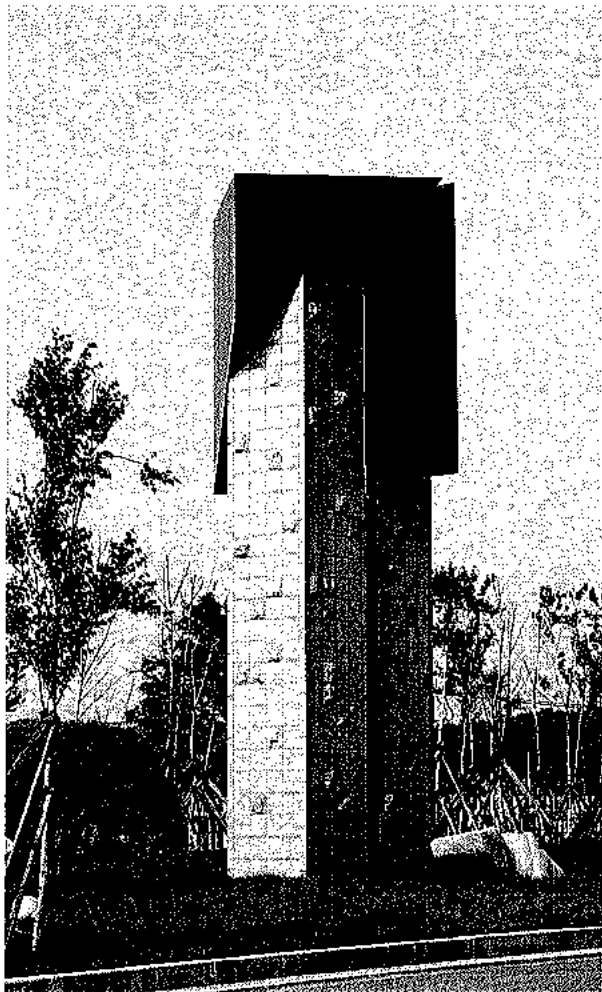
Structure / Steel Skeleton & R. C

Exterior Finishes / Sandwich Panel, Aluminum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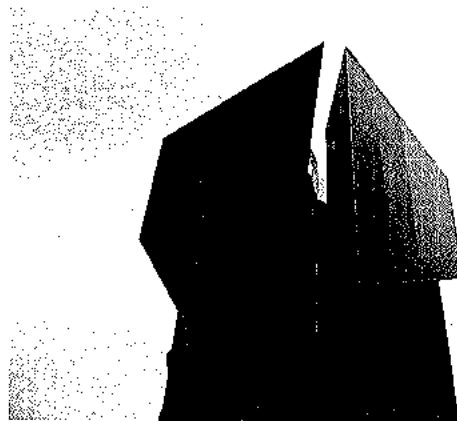
Parking / 130 cars

Landscape Area / 10,345.78㎡

Environment Facility Area / 6,723.7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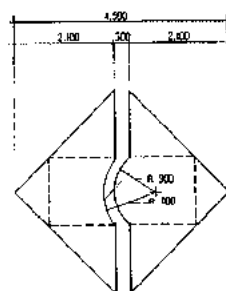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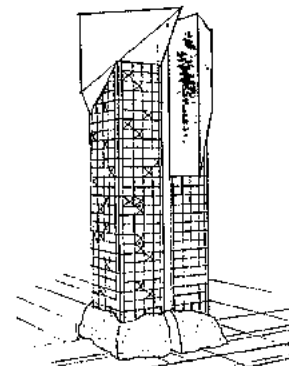
사진 9. "건설기념 조형물"

평면에 음양원리를 내입하고, 조형도 태극같이 만나는 맛을 넣었다.

사진 10. 요철이 만나 균형을 이루는 건설기념탑



조형물 평면



조형물 스케치

이제는 그의 작품과 건축적 사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그가 13년간 몸 담았던 조선총독부시절에 관계하였던 건축물로는, 조선총독부청사가 있었고 퇴임하기 직전에 관여하였던 경성제국대학 본관 (현 문예진흥원/동숭동 소재)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선총독부 영선계라는 조직 안에서 설계에 참여 또는 감독협조 정도였을 것이고 박길룡의 작품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독립 후, 사무실 자영시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자료를 보면 총독부에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시대의 건축적 상황을 살펴보는 데에 아직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朝鮮と建築”을 보면, 조선총독부 재직시절인데도 주택과 소규모 건물들이 너러는 그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설계자가 박길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국의 건축가—박길룡(2)

Korean Architects - Park Gil-Ryong

작품과 건축사상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In-Suk

성북동 김연수씨댁(서울 성북동/
1929년 준공)

대표적인 것이 성북동 김연수씨댁이다. 설계는 1929년 6월 이전에 끝난 듯하고, 공사는 1929년 6월 25일에 기공, 상량은 같은해 9월 17일에, 낙성

은 11월 30일에 본 것으로 되어 있다. 평면을 살펴보면, 서쪽에 현관이 위치하고 그 좌우에 書生室(우리의 문간방에 해당—書生은 남의 집의 일을 도와 주며 거거하는 젊은 사람)과 客室(손님방)이 있으며, 현관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 그리고 계단실 옆에 식당-배선실-주방이 배치되어 있어 안쪽의 內房(안방-일제시대의 도면에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노인실, 가정부방, 욕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사에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1층의 침실들은 모두 온돌로 되어 있다. 그리고 2층에는 서재와 예비실, 3개의 침실을 마련하고, 침실부분에서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을 배려해 놓았다. 1층의 지붕 윗부분을 배란다로 이용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기초를 콘크리트로하고 자상구조부를 주로 벽돌조, 부분적으로 목조를 사용했다. 외관구성은 근세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변색벽돌과 채색벽, 갈색 스크래치 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건축주 김연수씨는 경성방직의 창업주인 김성수의 동생으로 그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었다. 성북동은 당시로써는 서울의 외곽으로 성북리였으며, 교통은 조금 불편하였지만, 시대문안의 기존 주거지역과 비교하여 계곡과 송림이 만들어내는 호젓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부유층의 새로운 주택의 입지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으로 부상하는 곳이었다.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김연수씨 댁

조선생명보험회사(서울 안국동/1930년 10월 31일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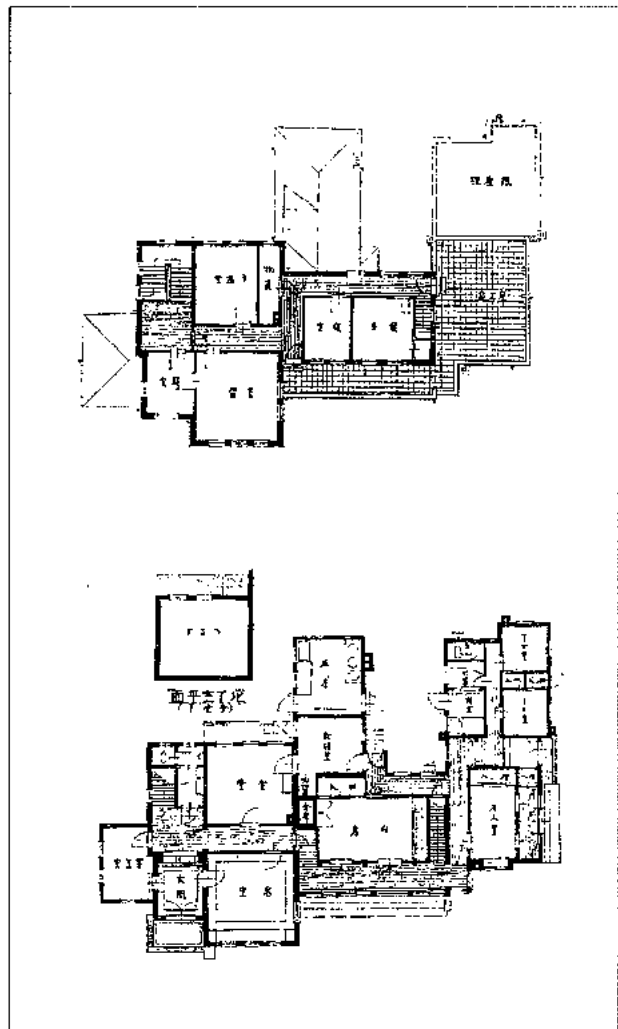
안국동 전차정거장 앞에 세워졌던 이 건물은 1960년대에 김수근의 공간건축연구소에서 한동안 사용하기도 하여 건축가와는 꽤 인연이 깊은 건축물이다. 벽돌조 2층건물로 뒤쪽에 복조 1층의 부속건물을 가지고 있다. 정면의 가운데에 주현관이 있고, 이와 연결되는 복도를 대칭축으로 좌우에 사무실, 회의실, 지부실, 지배인실, 응접실, 금고, 화장실 등이 있으며, 계단은 안쪽에 있다. 뒷편의 단층 부속건물은 식당과 주방, 그밖의 부속시설들이 있다. 본건물의 2층에는 사장실, 사무실, 회의실이 역시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외관은 화강석과 인조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타일로 마감하여, 건물의 무게를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장적으로도 수평선을 강조하여 그 무게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동일은행 남대문지점(서울 남대문로/1931년 9월 준공)

남대문로의 북쪽에 면하고 있는 이 건물은 벽돌조 3층 건물로, 1층에는 영업장과 지배인실, 금고실이 있으며, 안쪽에 식당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2층과 3층에는 사무실이 있으며, 계단참의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소변소가 간이로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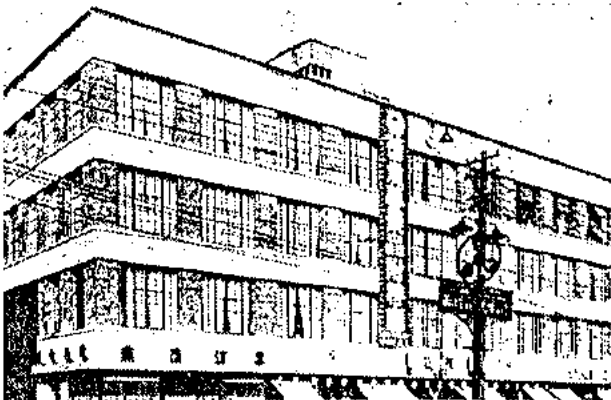
이 건물도 역시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외장적으로는 조선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창주변의 수직선을 강조하여 3층부터 1층까지 개구부의 주변을 하나의 테로 묶어서 띠를 두르고, 각층의 바닥면 언저리에서 만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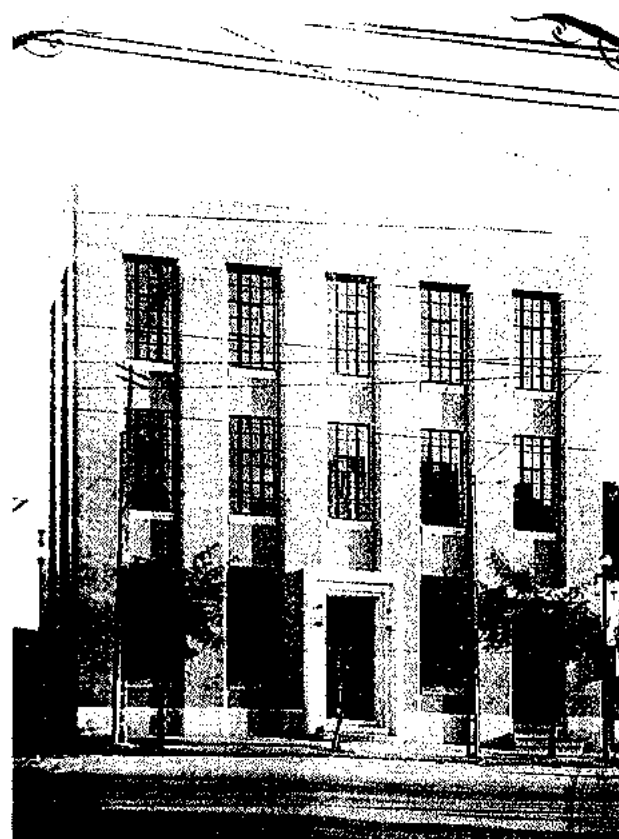
김연수씨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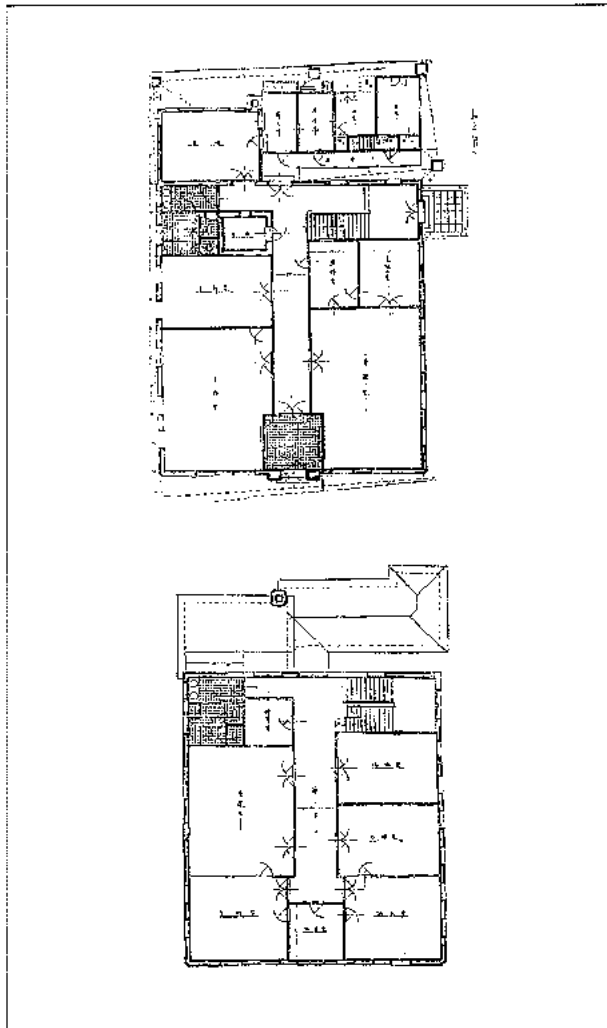
조선생명보험회사



종로백화점 「동아」 1931년 건립당시 모습



동일은행 남대문 지점



조선생명보험회사 평면도

를 하고 있다. 지금도 리노베이션하여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로백화점 '동아' (서울 종로/1931년 준공)

종각 네거리의 동북쪽 모퉁이에 화신백화점이 있었고, 바로 인접한 동쪽 대지에 종로백화점 '동아'가 있었다.

1931년의 이야기이다. 이때의 화신백화점 건물은 박길룡과는 관계가 없는 기존의 건물이었으며, 동쪽 대지에 세워진 종로백화점 '동아'가 박길룡의 작품이다. 이 백화점은 민규식 소유의 건물이었으며 2,3,4층은 임대 백화점이고 1층은 민규식의 연고자들이 시계점,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비슷한 성격의 상업건축물이 종로에 나란히 붙어 있으면서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1932년 동아는 화신에 넘어가게 되고, 네거리 모퉁이의 원래 화신은 '화신 서관'으로, 원래 동아였던 것은 '화신 동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1931년, 박길룡이 백화점 '동아'로 설계한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외벽은 벽돌쌓기로 커튼월 기법을 도입하였다. 지금 보아도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외부 표현을 하였고 계단, 화장실, 서비스 기능을 모두 건물의 안쪽에 배치하여, 외관에 어울리게 명확한 실내구성 및 기능분화를 하고 있다. 또 8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모던한 디자인의 건물도 1935년 1월 화신 서관에 화재가 나면서 불이 옮겨 붙어 3,4층을 태운 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5층으로 증축되고, 9월에 옆의 건물

사진 1. 왼편건물이 화신서관, 오른편이 화신동관(구 '동아'). 1935년 화재후 동관은 5층으로 증축되면서 외관이 많이 바뀌었고, 동관 서관을 연결하는 브리지가 생겼다. 서관은 박길룡작품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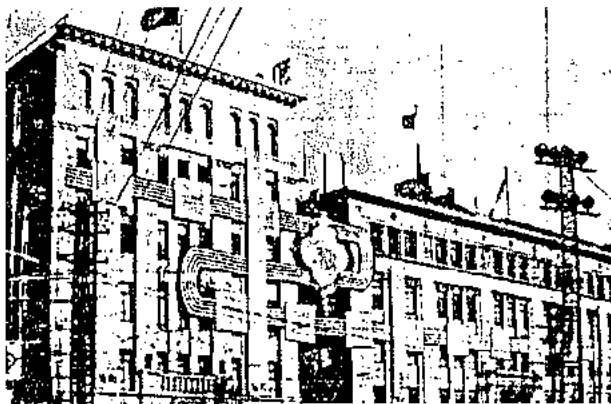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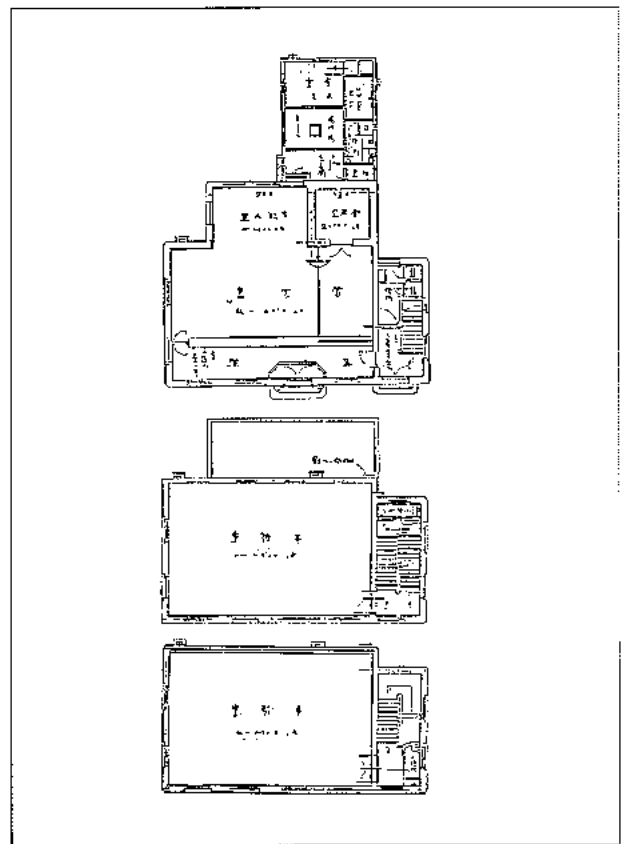


사진 1



1960년대 종로빌딩(구 화신동관)의 모습



동일빌딩 남대문지점 평면도

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개보수 작업도 박길룡의 손을 거친 것이었다.

김명진씨택(서울 관훈동/1931년 4월 기공, 12월 준공)

박길룡의 독립후 처음으로 “설계감독:박길룡건축사무소”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 박길룡의 모든 작품, 특히 주택에서 공통된 사항이지만,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엿볼 수 있다. 1층의 현관 근처를 공적인 부분으로 하고 그 안쪽에 식당, 주방, 욕실, 하녀실을 복도로 연결시켜 놓고 있다. 2층은 서재와 침실로만 이루어져 있고, 1층의 지붕에 해당되는 외부공간을 베란다로 계획하였다.

외부마감은 완전히 벽돌치장쌍기로 하였으며, 창 주변과 파라페트는 하얀 수평띠를 둘러 지루함을 없애고 경쾌함을 주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외벽의 심한 요철을 볼 수가 있는데, 내부의 구성이 복도로 이어져 있어 동선의 연결에 따라 필요한 방을 배치하다 보니 외부에서 심한 요철이 생겨난 것이다.

한청빌딩(서울 종로/1934년-1935년)

1층에는 점포를 임대하고, 2~4층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계단을 가운데의 안쪽에 배치하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벽돌쌓기로 커튼월 기법을 상용하였다. 그리고 내부의 간막이 벽은 목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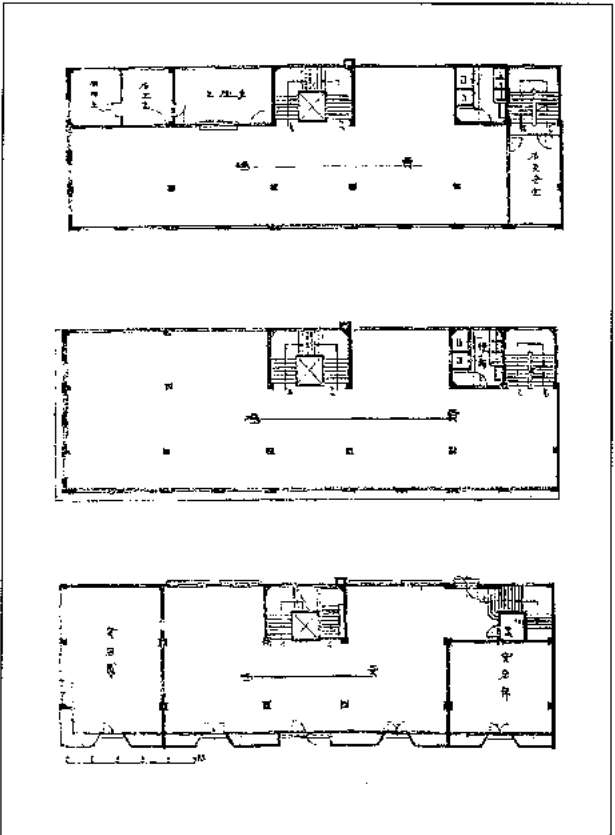
외부마감은 1층만 화강석을 붙였고 나머지는 타일로 하였다. 그리고 외관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모더니즘에

기초한 장식없는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를 3등분하여 창을 냄으로써 리듬감을 부여하여 외관부터 경쾌함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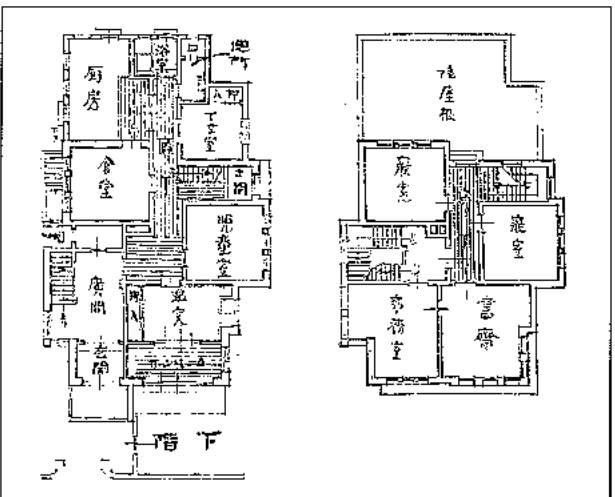
화신백화점(서울 종로/1935-1937/종로 2가)

박길룡의 대표작이다.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로서 이 정도의 작품을 소화해 내어 당당히 종로네거리에 세웠다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식민지시대를 돌이켜 보면서 울적해 있을 때 저으기 안심할 수 있게 해주고, 가슴 뿌듯하게 한다. 고층빌딩(7층~옥상층까지 포함)으로서는 최초의 한국인 설계자에 의한 것으로서 종로 네거리의 가각지대를 이용하여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새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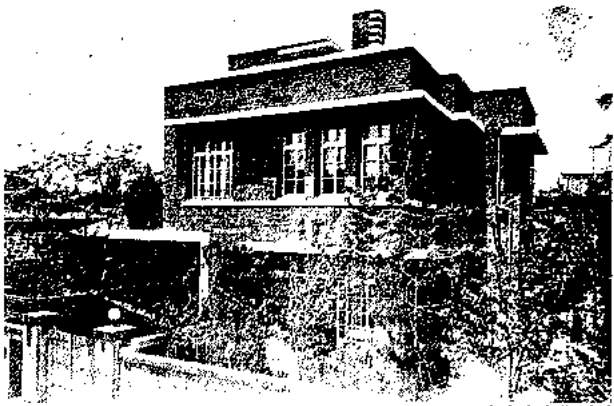
앞의 한청빌딩에서도 보여 주었듯이 외벽의 경우 기둥



종로백화점 「동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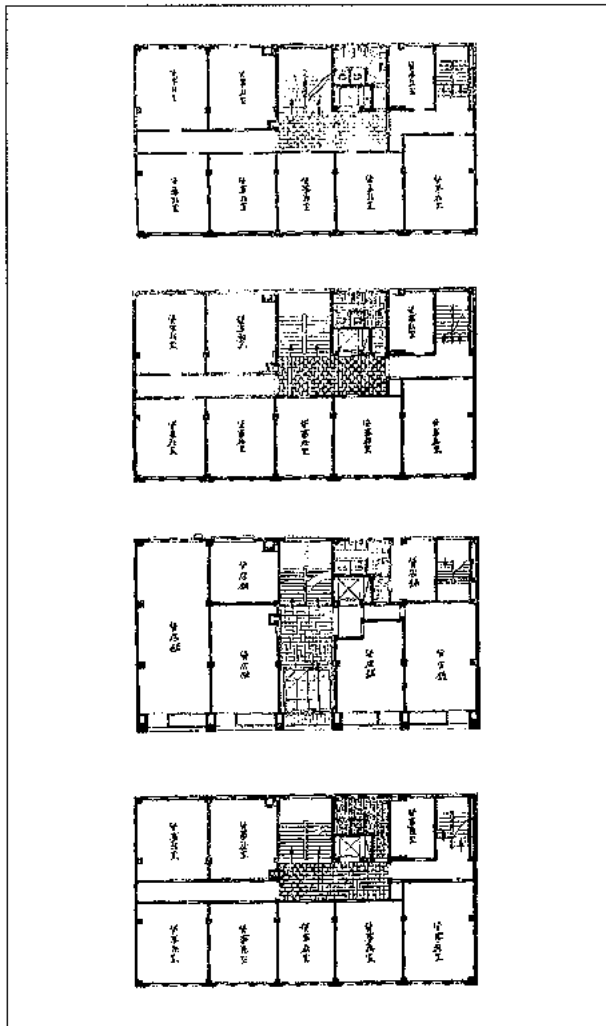
김명진씨택 평면도



김명진씨택 외관



김명진씨택 외관



한정빌딩 평면도

사이를 3등분하여 리듬감을 줌으로써 화강석, 대리석, 타일의 외부마감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덜어 주고 있으며, 건축잡지의 건축개요에서 작가가 밝혔듯이 근세부흥식, 즉 르네상스 양식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여 중후함을 표현하려 했던 것 같다.

1층부터 6층까지는 매장이며, 특히 6층에는 공연장(극장)이 마련되어 있고, 옥상층에는 갤러리도 마련되어 있어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광복 이후 철거될 때까지 계속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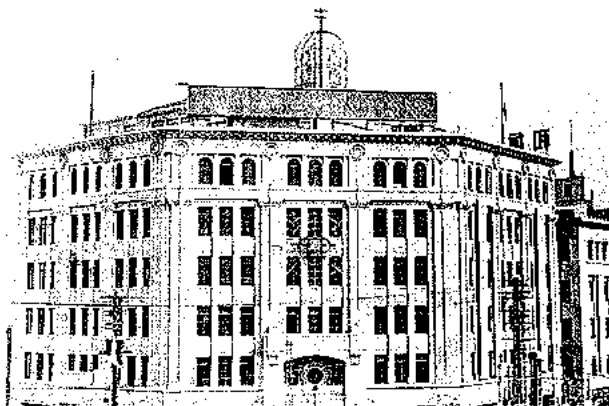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특징

기능의 명확한 분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디자인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자질구래한 기교에 밀려들지 않으면서 선이 굵고 무게를 느끼게하는 수법을 채용하였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 양식주의를 벗어나서 기능주의, 합리주의 사조가 일어나며 국제주의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고 또 그러한 건물이 나타나기도 하던 시기였지만, 그는 명확한 기능을 따르기는 하면서도 마무리 짓기에서는 경박스러움 보다는 중후함을 택하였다. 그는 생전에 라이트를 좋아하였다 한다. 위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선이 굵고 중후함, 특히 화신백화점의 외관은 시카고파의 여러가지 작품과 유사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글에서도 나타나는 바이지만, 주택설계에서는 침실에 온돌을 채용하여 전통생활양식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 시대의 건축계는 일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있었으며, 수적으로도 많았기 때문에 온돌의 장점을 비롯하여 온돌의 설치법에 대해서 일본인



한정빌딩 외관



박길룡의 대표작 화신백화점



한정빌딩 현관 부분

들에게 이해시키는 글들을 많이 두고하였다.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그의 생각

이 연재의 첫 머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박길룡은 상당히 많은 지면에 건축에 관한 글을 실었다. 그 글들의 대부분은 한옥에 대한 것이었는데, 밀집도시화되어 가는 당시의 서울에서 주거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풀어나갈까에 대한 과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전통생활 방식과 동떨어지지 않는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일본인 독자를 위하여 온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조선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면서 도시형 주거로 변해가는 한옥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한옥의 방을 설명하면서 안방을 內房, 건넌방을 越房, 아랫방을 下房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글은 거의가 이렇게 세세하고도 각론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어쩌면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을 우리말 건축용어 정리라든가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대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건축론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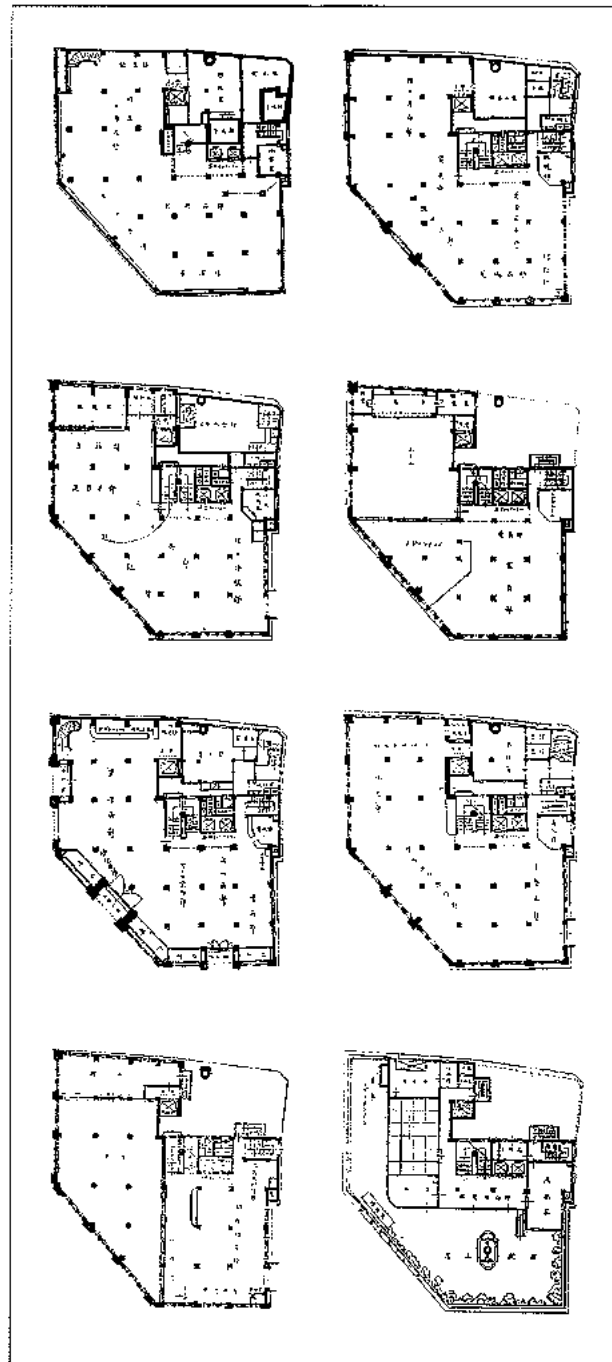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는, 西洋化를 근대화의 본보기로 삼고 오랜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잡았던 일본과 중국에서 최초로 탄생했던 자국민 건축가들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타츠노 킨고(辰野金吾)와 이토추타(伊東忠太), 그리고 중국의 리양치청(梁思成)이 바로 그들이다.

타츠노 킨고는 1879년 동경대학 전신인 工部大學校 造家學科를 졸업(제1회)하고 4년간 영국유학 및 유럽여행을 하였다. 1883년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건축학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일본은행본점이며, 그 축소판이라할 수 있는 건물이 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구관인데 그의 설계로 1910년에 준공되었다. 또 이토추타는 1892년 工部大學校 造家學科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美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고, 건축의 본질에 대하여 몰두하면서, 여러가지 논문을 발표하다가 1902년에는 북경에서 출발하여 3년만 동안 雲崗, 西安, 인도, 터키, 그리스, 이집트, 예루살렘, 소아시아를 순방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법률사에 대한 연구와 여러가지 학설을 내어놓았다.

중국의 리양치청(梁思成)은 칭화대학을 거쳐 1924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유학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아메리카 보자르의 제3세대 영웅 폴 크레를 만나 크게 영향을 받았고, 훗날 귀국하여 1928년 동북대학건축과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최초 건축가의 등장은 너무나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아쉬운 것 투성이 일 뿐이다. 나라 잃은 젊은 건축가의 등장과 사라짐. 인접국가의 초기 건축가들과 비교해보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화신백화점 평면도

가 있다. 우선 시야가 좁은 것이다.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발로 걸으며 해외에서, 그것도 역사적 건축유물을 약 4년간씩 견문을 넓히고 온 그들에 대해서 한정된 지식과 체험으로 참으로 잘도 버티고 고군분투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히 숙연해진다.

이 여름, 우리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고 있다. 한 세기전 우리들 선배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들이 해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출발이 엄청나게 늦은 셈이다.

중국 고건축 기행(2)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산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김도경 /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원전문대 강사
by Kim Do-Kyoung

大同 觀音堂

雲崗石窟에서 大同市로 가는 길은 상당히 넓은 계곡을 끼고 있다. 이 길을 달리다 보면 계곡물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황토 언덕위에 서있는 觀音堂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다(사진 1). 나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분위기이다. 이 곳은 大同市에서 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佛字灣이라고 하는 곳이다. 동쪽 담장에 나있는 쪽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 노승 한 분이 나온다.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곳이 아닌데 관람료를 내라고 한다. 시주하는 셈 차고 그가 요구하는 관람료를 지불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觀音堂은 遼 重熙年間(1032~1054년)¹⁾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창건 이후의 연혁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清代초기에 兵火로 훼손되었으며, 淸 順治8년(1651년)에 중건되었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觀音堂은 중국의 일반적인 사찰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중심축을 설정하고 좌우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도면 1). 이 중심축선상에 남쪽으로부터 戲臺, 三門, 正殿, 三眞殿을 배치하였다. 正殿앞 동서에는 鍾·鼓亭이 있다. 그리고 절

외곽으로는 직사각형 평면의 담장을 쌓았다.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三門에서 三眞殿까지의 영역을 평평한 대지로 만들기 위해 전면에 전돌로 높다란 축대를 쌓았다. 이 축대의 가운데 부분을 전면으로 돌출시키고 그 아래는 홍예를 틀어 통로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홍예 상부에는 경극을 공연하는 戲臺를 만들었다. 山門은 전면 동측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자연지세를 자연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어 이용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절 앞 동쪽으로 치우친 山門앞에는 照壁이 있다. 앞뒷면에 각 세 마리의 용을 새긴 三龍壁이다. 조각수법으로 보아 明代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觀音堂의 건축물들은 건축적으로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正殿은 觀音堂의 중심건물로 그 내부에 봉안되어 있는 造像들만이 遼代의 유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특히 觀音像은 높이가 5.2m에 이르는 커다란 立像이다. 그 주변에 있는 16개의 石彫像들은 모두 채색이 입혀져 있어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사

1). 현재의 안내문에 의하면 遼(重熙6년(1037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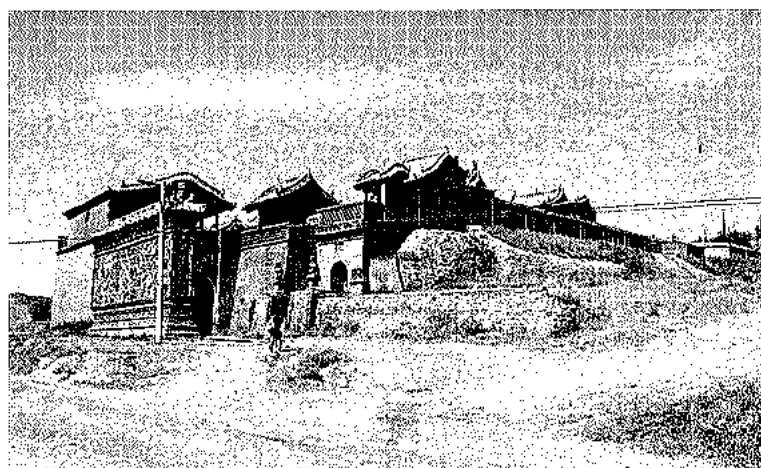


사진 1. 觀音堂 전경 :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분위기의 황토언덕위에 위치한 遼代에 창건된 사찰이다.

진 2).

大同市内로 들어간다. 大同에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랜 도시답게 많은 역사유물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善化寺와 華嚴寺로 중국건축사를 서술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金代 건축의 寶庫—大同 善化寺

唐 開元年間(713-741년)에 창건된 善化寺는 속칭 '南寺'라고도 한다. 현존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遼 保大2년(1122년)의 병화로 훼손된 후 遼代와 金代에 중건된 것들이다.

평지에 위치한 사원으로 남북의 중심축을 설정하여 좌우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중심축선상에는 남쪽으로부터 山門, 三聖殿, 大雄寶殿이 있다. 三聖殿 앞 좌우에는 東·西配殿이 있다. 三聖殿 뒷편 동·서에서는 文殊閣과 普賢閣이 있었는데 동쪽의 文殊閣은 소실되고 터만 남아있다. 大雄寶殿 양측으로는 東·西朵殿이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遼代와 金代의 형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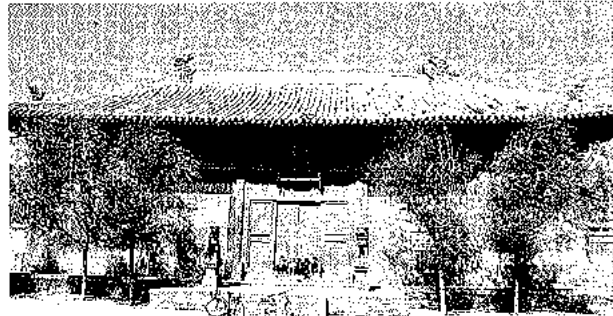
山門(天王殿)은 金 天會6년(1128년)에서 皇統3년(1143년) 사이에 건축되었다. 정면5칸, 측면2칸의 단층 우진각지붕으로 山門으로서는 매우 큰 규모이다(사진 3). 길 건너 山門 맞은편에는 照壁이 있다. 평면상 내부의 모든 칸에는 內陳柱를 세웠다. 전면과 후면의 어간만을 개방하여 통로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칸은 모두 두꺼운 벽체로 처리하였다.

다만 정면의 어간 바로 옆 칸에는 벽체 상부에 살창을 두었다. 내부에는 四天王像이 봉안되어 있다. 外陳柱와 內陳柱의 높이가 동일한 소위 '殿堂型' 구조이며, 기둥상부는 강한 곡선으로 편수깎기를 하였다. 기둥상부의 창방(闌額)과 평방(普拍方)은 '丁'자형 단면을 이루고 있으며, 창방은 단면이 큰 편이다. 창방뿔목은 三盆頭 비슷한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평방뿔목은 직절되어 있다. 공포는 柱間에도 공포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다포계'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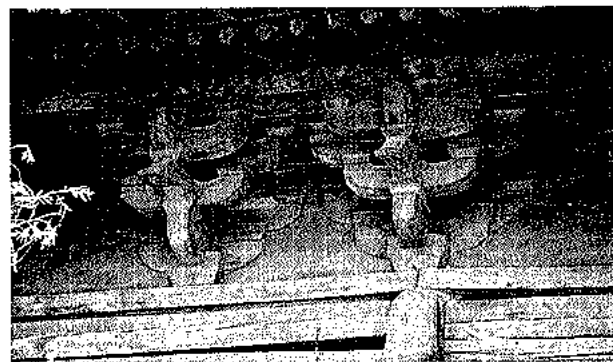
주간포는 전후면의 어간과 그 바로 옆의 협간에 각 두 개, 나머지 칸에는 각 한 구씩을 배열하였다. 공포의 형식은 모두 5鋪作(2출목)으로 강직한 모습을 하고 있다(사진 4). 귀포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주심포와 동일하다(사진 5). 다만 컷기둥 상부의 주두 양 옆으로 다시 주두(附角 料) 하나씩을 두고 여기에 별도의 공포를 형성하여 세 개의 공포가 하나로 합성된 구조로 되어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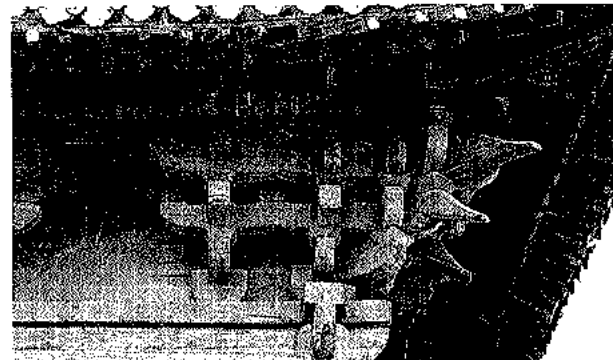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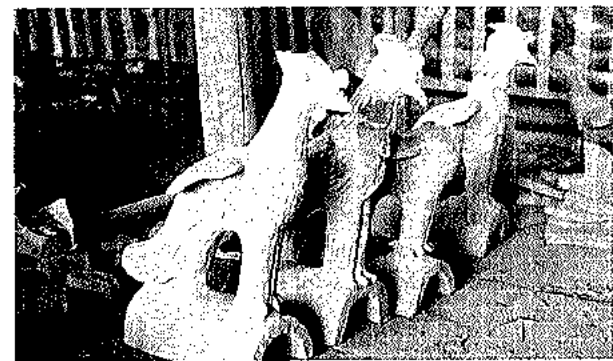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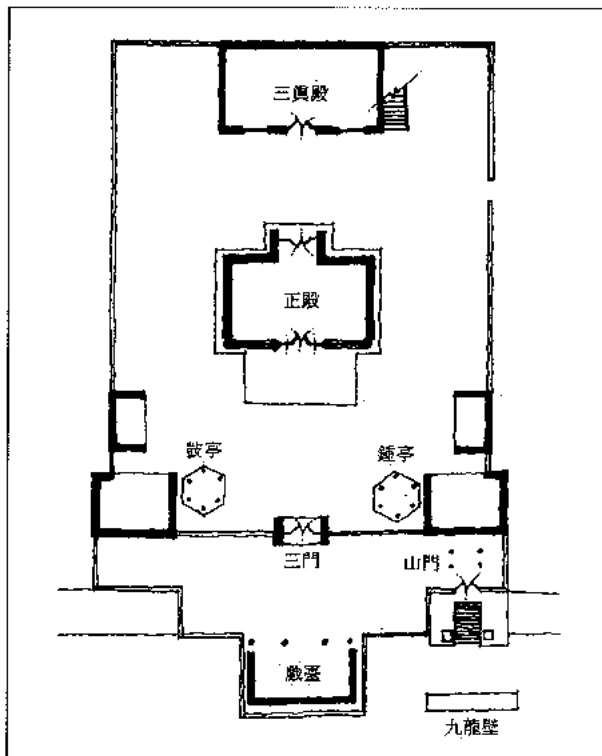
사진 2. 觀音堂 正殿 내부의 塑像 일부 : 遼代에 만들어졌다는 이 石彫像들은 과기스럽고 한편 익살스럽기도 한 이채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사진 3. 善化寺 山門 : 정면5칸으로 山門으로서는 큰 규모이며 내부에는 四天王像이 봉안되어 있다. 天王殿이라고도 한다.

사진 4. 善化寺 山門의 공포 : 주심포와 주간포가 모두 5鋪作(2출목)單昂重 計心造이다.

사진 5. 善化寺 山門의 귀포 : 기본적으로는 주심포와 동일한 구성이다. 컷기둥 상부의 주두 양 옆에 주두 하나씩을 두어 별도의 공포를 만들어 세 개의 공포를 조합한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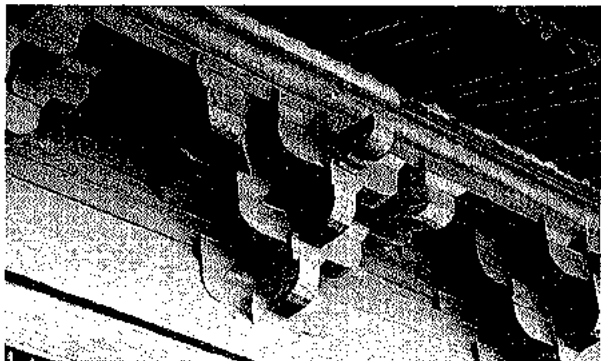
사진 6. 善化寺 大雄寶殿의 지붕에 올려질 장식용재를 양생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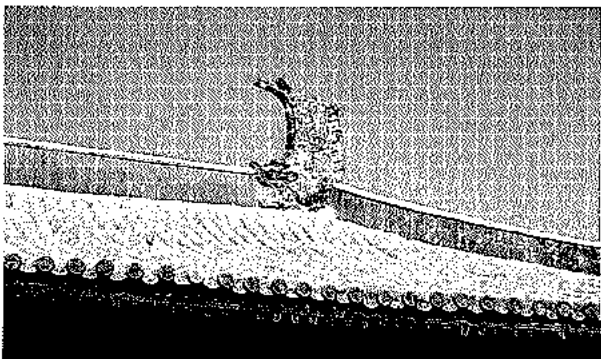
도면 1. 觀音堂 배치도



7



8



9

한 귀포의 45도 방향으로 사용된 부재는 살미(華栱)가 아닌 下昂이다. 전체적으로 山門의 공포는 우리나라 건축에서 下昂이 양서형의 살미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三聖殿은 山門과 같은 시기에 건축되었다. 정면5칸, 측면4칸으로 단층의 우진각지붕이다(사진 6). 나지막한 전축기단위에 세워졌는데, 기단앞으로는 넓은 月臺가 돌출하여 있다. 내부에는 후면에 4개, 전면에 2개의 內陳柱를 배열하였다.

따라서 내부공간은 내진과 외진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렇게 內陳柱의 수를 줄이는 기법을 '減柱法'이라 한다. 이 減柱法은 遼代와 金代에 이루어진 건축적 성취로 상부의 가구도 이에 따라 적당히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사진 7). 內陳柱는 외진주에 비해 높이가 높는데, 이러한 구조를 廳堂型이라고 한다. 기둥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올려놓은 위에 공포를 배열하였다. 창방과 평방의 단면은 '丁'자형이며, 창방을 2층으로 하여 그 단면을 매우 크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공포는 모두 6鋪作, 즉 3출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사진 8). 주간포는 정면과 후면의 여간에 각 두 개, 나머지 간에 모두 한 구씩을 배열하였다. 또한 주간포는 간마다 형식을 달리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전후면 여간 바로 옆의 협간(次間)에는 斜이 사용되었다(사진 9). 斜은 건물에서 직각방향으로 돌출한 살미(華栱) 옆에 45도 혹은 60도로 비스듬히 돌출시킨 부재이다. 斜은 減柱法과 더불어 遼代와 金代에 유행하였다. 唐代의 건축중에는 斜이 사용된 예가 없다.

또한 遼·金代와 동시대인 宋代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斜은 북방민족의 민족적 성향과 관련된 건축적 특성이 아닌가 한다. 斜의 발생은 다각형, 특히 8각형 전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遼代와 金代에는 密檐式이라고 불리는 唐代나 宋代와는 다른 북방민족의 독특한 전담형식이 유행하였다. 전담에는 목조건축을 모방하여 전돌로 공포를 만든다. 이때 모서리에 사용되는 공포에는 8각형 평면으로 인하여 비스듬하게 돌출된 부재가 사용된다. 이것이 斜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한 건물에서 기둥사이의 거리, 즉 간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간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주간포의 배열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사이가 넓은 곳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斜을 사용함으로써 공포사이의 간격차를 시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斜의 발전이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도면 1. 大同觀音堂 배치도 : 축척 없이 대략적으로 스케치한 것이다.

사진 7. 華嚴寺 大殿 전경 : 大殿의 일부를 수리하는 중이었다. 이 사진은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한 것이다.

사진 8. 華嚴寺 大殿 주간포의 한 형식 : 주심포와 동일한 5鋪作(2출목)이지만 주두 아래에 駝峰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심포와 완전히 동일한 형식으로써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사진 9. 華嚴寺 大殿의 용마루 복단에 있는 吻으로 金代에 만들어진 것이다.

다. 어쨌든 斜은 건물에 강한 장식적 요소로서의 시각적 기능을 지닌다. 三聖殿에 사용된 斜은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목조건축에 사용된 斜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크고 복잡하며, 화려한 것에 속한다.

三聖殿 뒤 大雄寶殿 앞쪽의 동·서에는 文殊閣과 普賢閣이 있었다. 釋迦佛을 모신 大雄寶殿이 있으니 그 앞에는 釋迦佛의 협시인 文殊와 普賢菩薩을 모시는 전각이 있어야 격식이 맞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현재 文殊閣은 소실되었고 普賢閣만이 金 貞元2년(1154년) 창건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²⁾ (사진 10). 普賢閣은 樓閣式 건물로 정면3칸, 측면2칸에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1층은 정면 어간에 두짝의 판문을 설치하고 정면 협간과 측면 및 후면은 모두 두꺼운 벽체로 처리하였다. 상층에는 정면 어간과 측면 중앙에 판장문을 두고 나머지 칸은 모두 두꺼운 벽체를 둘렀다.

2층 이상의 다층건물에서는 상층의 기둥을 어떻게 구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北宋代 李詒가 저술한 《營造法式》에서는 상층기둥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叉柱造와 纏柱造의 두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叉柱造는 상층기둥을 하부기둥³⁾의 중심선과 일치시키는 구조법이다. 이에 반하여 纏柱造는 상층기둥을 하부기둥보다 안쪽으로 들여놓아 세우는 방법이다. 普賢閣에서는 叉柱造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층의 평면은 하층에 비하여 그 너비가 좁다. 기둥에 안솔림(側脚)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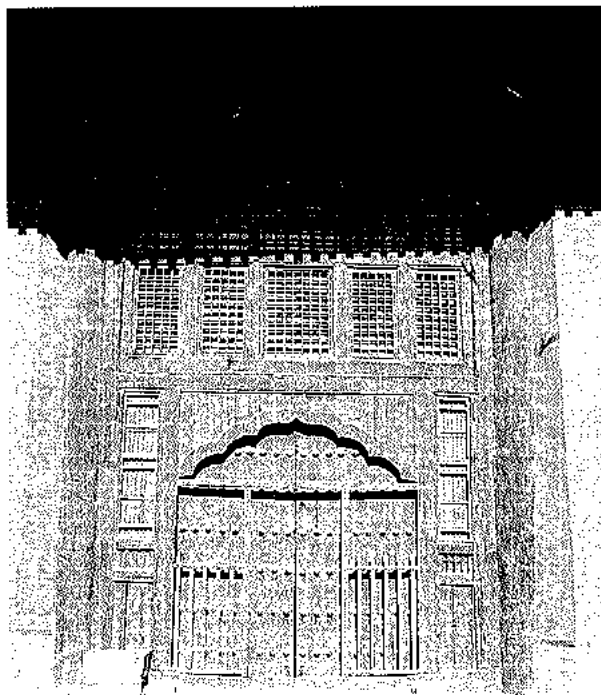
따라서 안솔림은 상부로 올라가면서 건물의 평면을 체감시켜 줌으로써 건물 전체의 구조를 안정시켜 주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사용된 공포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2층 정면과 후면의 어간에는 60도로 돌출한 斜이 사용되었다. 중국의 누각식건물로는 이 普賢閣 외에 河北省 縣 獨樂寺의 觀音閣, 河北省 正定縣 隆興寺 摩尼殿과 慈氏閣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다층건축물들은 우리나라의 다층건축과는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平坐의 유무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다층건축에는 平坐가 사용된 예가 없다.

다만 고려시대의 불화에 平坐를 사용한 樓閣式 건물이 보인다. 혹시 이 普賢閣과 유사한 유형의 건물이 고려시대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상층기둥을 올려놓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층건축에서는 주로 叉柱造의 기법을 사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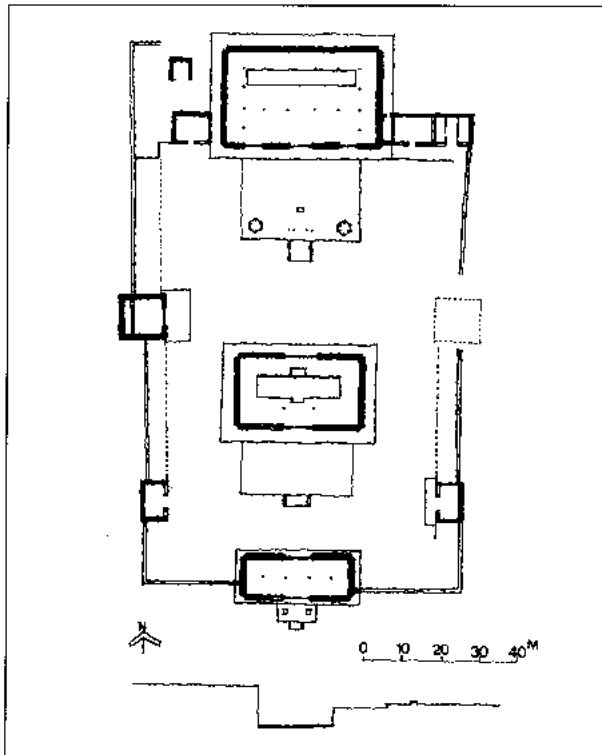
사진 10. 華嚴寺 薄伽教藏殿 정경 :殿 앞 月臺에는 커다란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다. 현지에서 구입한 사진으로 최근에 수리되기 전의 모습이다.

사진 11. 華嚴寺 大殿 정면 창호 : 관문앞에 壺門을 장식한 것은 古式의 창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창건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金代의 창호이다.

사진 12. 華嚴寺 薄伽教藏殿 정면 어간 : 현재 네 짝의 창호가 있으나 수리전에는 6짝이었다. 건물의 규모에 비해 세장한 기둥이 사용되었고, 주심포는 5鋪作이다.

2) 이는 1953년 수리시 “貞元”年--行憲”라고 하는 題詞가 발견되었다.

3) 다층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平坐가 설치된다. 平坐는 상층구조를 올려놓기 위한 바탕이 되는 부분이며, 각층하부를 기준으로 상하층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하부기둥은 일반적으로 平坐를 구성하는 기둥이 된다.



도면 2. 善化寺 배치도



13



14



15

용하고 있다.

물론 繩柱造를 사용한 경우도 있으나 하층기둥에서 후퇴한 거리가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하층기둥보다 훨씬 안쪽으로 후퇴한 위치에 기둥을 올려놓고 있다. 즉 상층기둥을 하층의 보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째서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중기 이전의 건축이 없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大雄寶殿은 遼代중엽(11세기 중엽)의 건물로 金 天會·皇統년간(1128년~1143년)에 건축되었다(사진 11). 정면7칸, 측면5칸의 단층 우진각지붕으로 양측에 朵殿이 있다. 이와같이 건물 양옆에 朵殿이 있는 것은 초기적인 전통으로 후대에는 드문 형식이다. 전면에는 높은 기단이 있고 그 앞쪽으로 매우 넓은 月臺가 있다. 月臺 앞 중앙에는 세 칸의 木造牌坊이 있으며, 그 좌우로 鍾·鼓亭이 있다. 大雄寶殿 내부에는 네 면에 내진주를 두어 내부공간을 내진과 외진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전면의 내진주는 한 칸 뒤쪽으로 후퇴시켰다. 이렇게 內陳柱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移柱法'이라 한다. 移柱法 역시 遼代에 이르러 채용되기 시작한 기법이다.

이는 내부공간에서 예불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공간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기둥을 배열방법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내진주가 외진주에 비하여 높은 廳堂型 구조를 사용하였다.

大雄寶殿은 때마침 수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다. 비계목을 가득히 설치해 놓은 모습은 중국의 건축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철제비계가 거의 보급되지 못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거의 제지 없이 공사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지붕공사를 하는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였다. 그들의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지붕에 보도를 올려놓고 강희다짐을 한 후 완전히 건조될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강희다짐이 완전히 마른 후에 기와를 올려놓아야 건물이 튼튼하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뒤쳐져 있지만 견실하게 문화재를 보수하는 모습은 소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내부에서는 지붕을 장식할 각종 磚이 양생되고 있었다(사진 12).

善化寺에는 이 외에 五龍壁 하나가 있다. 서쪽 담장밖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 五龍壁은 원래 興國寺 山門앞에 있던 照壁으로 1980년에 철거하여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明代에 건축된 것

도면 2. 大同善化寺 배치평면도 : 梁思成, <A Pictorial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에 실린 것을 다시 그린 것이다.

사진 13. 善化寺 三聖殿 정면전경

사진 14. 善化寺 三聖殿 내부가구 : 천장을 가설하지 않고 기구를 노출시킨 '徹上露明造'이다. 減柱法으로 인하여 상부기구는 적당히 변형되어 있다.

사진 15. 善化寺 三聖殿 주심포 : 6鋪作(3층목)單 雙昂重 計心造로 下昂형으로 돌출한 두 단의 부재는 실제로는 살미(蟬拱)이다. 주간포에는 眞昂이 사용되었다.

으로 벽면에는 다섯 마리의 四爪金龍이 부조되어 있다.

遼代 목조건축과 遼·金代 예술의 寶庫 - 大同華嚴寺

현존하는 유구와 배치로 보아 華嚴寺는 遼代에 창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遼代에는 불교를 숭상하였으며, 특히 華嚴宗이 유행하였다. 華嚴寺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遼代 華嚴宗의 중요한 사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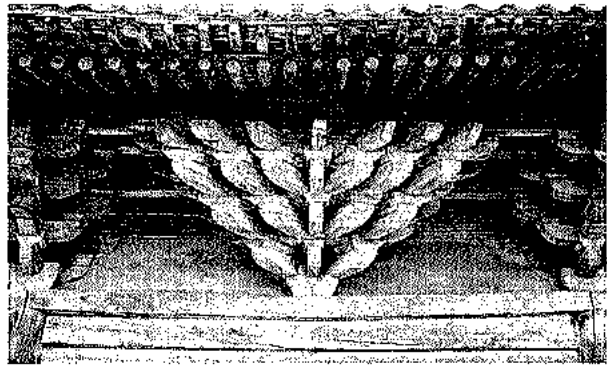
遼 保大2년(1122년) 兵火에 의해 사찰의 일부가 불탄 후 중건하였다. 明代에 들어와서는 宣德(1426~1435년)과 景泰(1450~1456년) 年間に 크게 중수하고 소조불상을 보수하는 등 사찰을 크게 중흥시켰다. 明代 중엽 이후에 上下의 두 사원으로 분리하였다. 清代초기에 姜의 난으로 사찰의 일부 건물이 파괴되었다.

이후 山門을 비롯하여 過殿, 觀音殿, 地藏殿 및 좌우의 廂房 등이 다시 중건되었다. 華嚴寺는 善化寺와 더불어 遼·金代의 사찰배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도면 3). 華嚴寺는 일반적인 중국의 사찰과는 달리 東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남향이 중국인, 즉 漢族의 전통적인 습성임에 반하여 거란족은 태양신을 숭배하여 동쪽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거란족의 특징이 사원의 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上寺는 大雄寶殿을 중심으로 한 영역으로 두 개의 院落을 이루고 있다. 大雄寶殿의 중심축을 上寺의 중심축으로 하여 동쪽으로부터 山門, 過殿, 그리고 大雄寶殿을 배치하였다. 大雄寶殿 앞쪽에는 남·북으로 觀音殿과 地藏殿을 두고 過殿 앞에는 廊을 두었다. 大雄寶殿은 넓고 높은 축대위에 건축되어 있다(사진 13). 大雄寶殿이 그만큼 존귀한 건물이므로 높다란 축대를 쌓아 이와 같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일까.

이와 비슷한 수법이 山西省 五臺山の 佛光寺에서도 보인다. 불화에서 보이는 佛國土를 장엄한 殿閣圖와 유사한 분위기이다. 大雄寶殿의 月臺 앞쪽에는 세 간의 木造牌坊이 있고 그 좌우에 6각형 평면의 鍾·鼓亭이 있다. 善化寺 大雄寶殿 앞의 영역과 비슷한 구성이다. 또한 月臺 중앙에는 철제 향로와 石經幢 등이 있다. 大雄寶殿은 遼 清寧8년(1062년)에 창건되었으나 遼 保大2년(1122년)에 병화로 훼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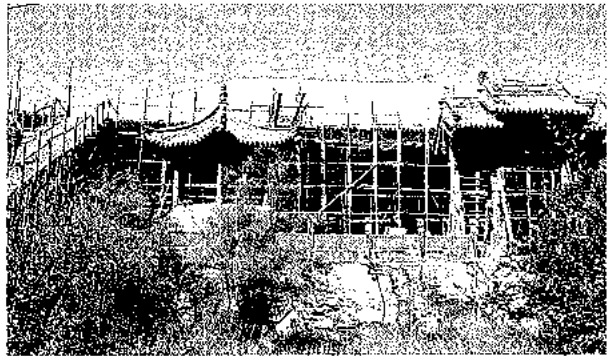
이후 金代 天眷3년(1140년)⁵⁾에 중건된 것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다. 정면9칸, 측면5칸의 단층 우진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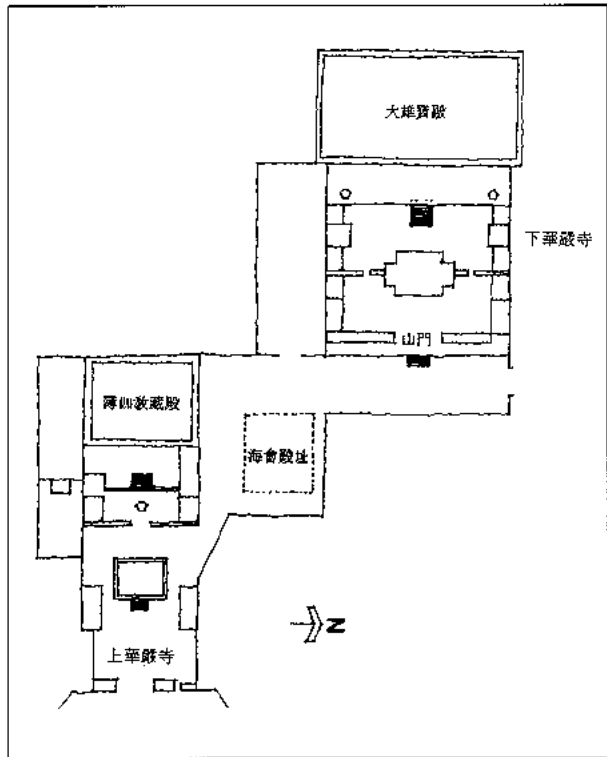
16



17



18



도면 3. 華嚴寺 배치도

사진 16. 善化寺 三聖殿 주간포의 한 유형 : 遼·金代에 유행한 斜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한 것에 속한다.

사진 17. 善化寺 普賢閣 : 文殊閣과 더불어 大雄寶殿 앞 동서에 대칭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나 文殊閣은 소실되고 이 普賢閣만이 남아있다. 중국내에서 그리 많지 않는 平坐를 갖춘 누각식 건축이다.

사진 18. 善化寺 大雄寶殿 전경 : 매미침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다. 지붕을 강화다짐하고 완전히 마를때까지 기와를 얹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의 문화재공사와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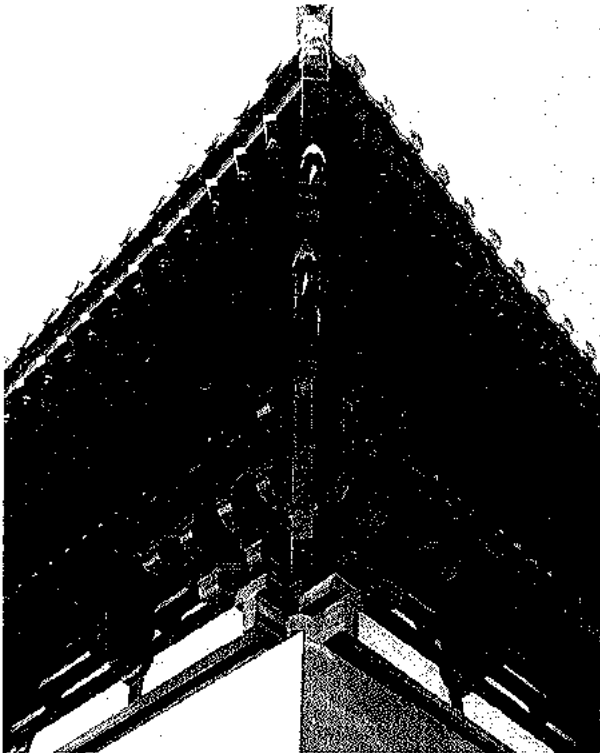
도면 3. 大同華嚴寺 배치도 : 萬世民, <大同>에 실린 것을 다시 그렸다.

4). 중국건축은 배치상 네 면에 건물을 배치하여 가운데에 中庭을 형성하는 것을 공간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이 공간단위를 院落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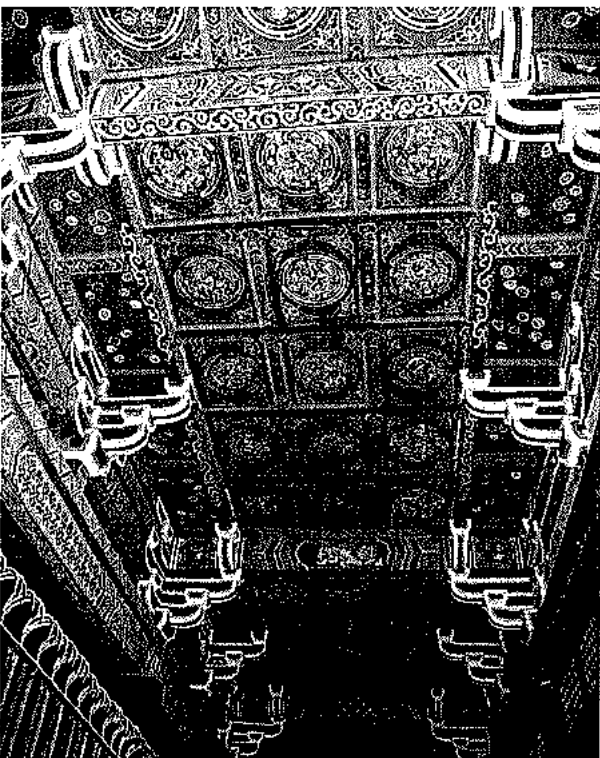
5). 梁思成은 金 天眷3년(1140년)에서 皇統4년(1144년)에 중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A Graphic History of Chinese Architecture).



19



20



21

방으로 현존하는 遼·金代의 목조건축 중 가장 큰 佛殿에 속한다. 내부에는 네 면에 내진주를 배열하여 내부공간을 외진과 내진으로 구획하였다.

전면과 후면의 내진주를 외진주와 동일한 중심선상이 아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곳으로 이동시킨 移柱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善化寺 大雄寶殿이 전면 기둥만을 뒷쪽으로 후퇴시켰음에 비하여 전후면의 내진주를 모두 안쪽으로 옮겨놓아 전후가 대칭이 되도록 하였다. 기구는 내진주를 외진주보다 높게 한 廳堂型이다. 정면의 어간과 그 양옆 세번째 간(梢間)에는 板門 두 짝씩을 설치하였다.

이 판문은 앞에 壺門을 장식한 비교적 古式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사진 14). 기둥은 다소 세장한 편으로 안솔림과 귀솟음이 있으며, 기둥상부는 약한 곡선으로 편수각기되어 있다. 공포는 5鋪作(2출목)으로 건물규모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간단한 편이다. 주간포는 모든 간에 한 구씩 모두 세가지 유형이 사용되었다. 주간포는 모두 주심포와 동일한 5鋪作이지만 주두 아래에 나지막한 駝峰을 사용하고 있음이 주심포와 다른 점이다(사진 15). 또한 일부 주간포에는 斜이 사용되었다. 중국 목조건축에서 초기에는 주심포만 사용되었을 뿐 주간포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점차 주간에도 주심포보다 간단한 형식이기는 하지만 주간포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간단한 형식이었던 주간포는 점차 주심포와 같은 크기와 형식으로 발전하여 소위 '多包系' 건축의 완성을 보게 된다⁶⁾

따라서 이 大雄寶殿의 주간포는 소위 多包系가 거의 완성되는 시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붕 용마루 양끝에는 龍頭形의 吻(尾)이 있다. 북쪽의 것은 건물이 창건되던 시기인 金代의 것이며(사진 16), 남쪽에 있는 것은 25조각을 합성하여 만든 明代의 것이다.

下寺는 上寺의 동남쪽에 역시 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下寺의 主殿은 薄伽教藏殿이다. 下寺는 薄伽教藏殿의 중심축을 그대로 동서중심축으로 하여 좌우대칭으로 전각을 배치하여 두개의 院落을 형성하고 있다. 薄伽教藏殿은 佛教經典을 보관하는 건물로 遼代 重熙7년(1038년)에 건축된 遼代의 대표적인 목조건축이다. 정면5칸, 측면4칸으로 단층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사진 17). 전면에는 역시 높다란 月臺가 있고 그 중앙 앞쪽으로 木造牌坊이 있다. 牌坊 좌우에는 鍾·鼓亭이 있다. 원래는 薄伽教藏殿앞 북쪽에 配殿이 있었으나 철거

사진 19. 華嚴寺 薄伽教藏殿의 주간포 : 주심포와 같은 5鋪作(2출목)이지만 공포 아래에 蜀柱를 사용하고 있는 등 주심포에 비해 간단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공포발전의 한 단계를 보여준다.

사진 20. 華嚴寺 薄伽教藏殿 귀포 : 귀포에 斜栱이 사용된 특수한 예이다.

사진 21. 華嚴寺 薄伽教藏殿 내부의 천장 : 천장은 遼代에 설치된 것이다.

6) 우리나라 興寧寺 佛殿에서 볼 수 있는 覆花椀과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부재이다. 다테의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7) 중국에서는 이러한 목조건축의 발전을 중시하여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주심포거나 다포계라고 하는 식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되어 없어졌다. 내부에는 네 면에 내진주를 두어 내부공간을 내진과 외진으로 구분하였다. 내진주 중 외진기둥의 중심열과 일치하지 않는 8개의 기둥은 후대에 보완된 기둥이다. 내진주와 외진주의 높이가 동일한 殿堂型의 기구법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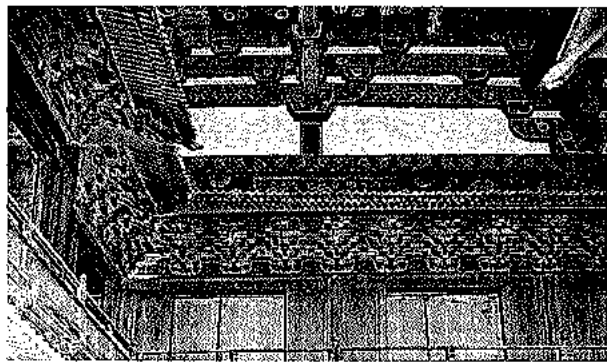
정면 중앙의 세 간과 후면의 여간에 창호를 설치하였다(사진 18). 현재 정면 중앙의 세 간에는 각 간에 네짝씩의 창호가 있으나 옛날의 사진에의하면 6짝의 창호가 있었다. 최근에 변형된 듯 하다. 기둥은 세장한 편으로 거의 직선형에 가깝고, 기둥머리는 강한 곡선으로 편수 깎기 하였다. 공포는 5鋪作(2출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간공포는 주심포가 간략화된 형식으로 주두 아래 짧은 기둥(蜀柱)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19). 귀포의 구성은 45도 방향으로 부재를 추가하여 놓은 점이 매우 특이하다(사진 20). 다각형 전탑의 귀포에서나 볼 수 있는 구성이다.斜 이 귀포에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내부에는 천장(平棊藻井)이 설치되어 있는데, 遼代의 유구이다(사진 21). 薄伽教藏殿 안에는 遼代 小木作의 대표작인 경전을 보관하기 위한 壁藏(사진 22). 이 벽장은 목조건축을 모방한 2층의 樓閣式 구조로 후면 중앙에는 양쪽의 벽장을 연결하는 天宮樓閣이 있다.

특히 벽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공포가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7鋪作(4출목)이다. 遼代의 공포 중 가장 복잡한 것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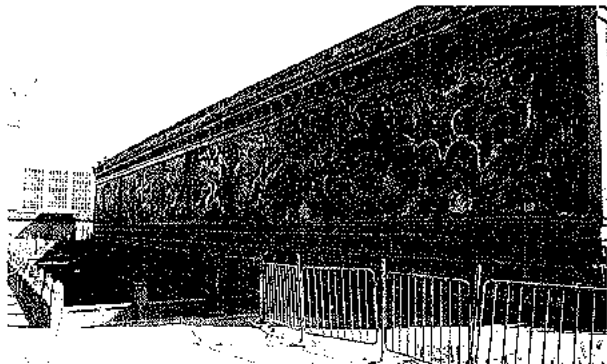
중국건축을 답사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건물 내부의 사진촬영이다. 목조건축에 관심을 지닌 사람에게 건물의 내부는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내부촬영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언감생심이다. 중국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가 보다. 각 건물마다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건물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아예 건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소림권법으로 유명한 少林寺에 부속된 初祖庵이 그 예이다. 初祖庵은 少林寺에서도 한참을 산속으로 올라가서 위치하고 있다. 혼자서 인적없는 산속길을 헤매다 어렵게 初祖庵에 당도했다. 그러나 初祖庵 大殿 근처에는 접근도 못했다. 약 1시간 이상을 설득했으나 겉에서 잠깐 둘러보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서 보고자 하는 건물을 바로 눈앞에 두고 되돌아서야 하는 심정이란. 예전에 한 번 답사했던 華嚴寺나 薙化寺를 방문한 것도 혹시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혹시나가 역시나 되어 되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관광객이 적은 비수기라서 그랬는지 다행히도 薄伽教藏殿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있을 뿐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관광객이 들어오면 의례껏 쫓아들어오던 禪房꾼(?)이 없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래서 薄伽教藏殿의 내부만큼은 사진촬영을 할 수 있었다. 마음을 즐기면서, 단체가 아닌 혼자만의 답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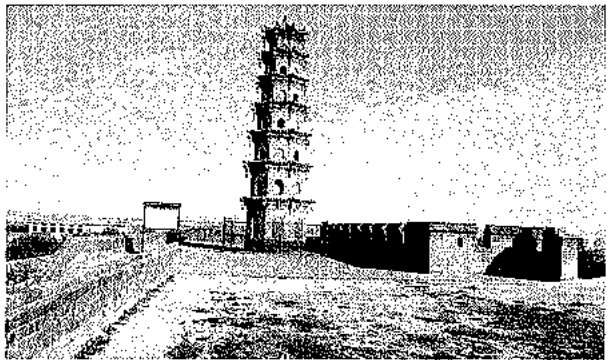
22



23



24



25

사진 22. 華嚴寺 薄伽教藏殿안의 벽장 : 경전을 보관하기 위한 벽장으로 遼代 小木作의 대표작

사진 23. 大同九龍壁 : 원래 代王府앞에 있던 照壁으로 代王府는 소실되고 이 九龍壁만이 남아있다.

사진 24. 大同鼓樓 : 明代에 만들어졌다. 중국의 각 도시에는 이러한 鼓樓가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때 북을 울렸다고 한다.

사진 25. 大同雁塔 : 8각형 7층의 누각식 전탑이다. 주변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일종의 망루이다.

지닌 장점인가보다.

薄伽教藏殿 북쪽에는 원래 海會殿이라고 하는 遼代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1949년 소실되었다. 현재 그 터만 남아있는데, 그 터위에 각종 기념품을 파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중국에서 발행된 몇몇 책에서 이 건물과 관련된 부분적인 도면들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龍壁의 城 大同 - 九龍壁

大同은 龍壁의 城 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龍壁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大同에 존재하고 있는 龍壁은 9개라고 한다. 一龍壁 네 개, 三龍壁 한 개, 五龍壁 세 개, 九龍壁 한 개이다. 전하는 바로는 大同에 七龍壁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하나 일찌감치 없어져서 현재는 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龍壁은 건축물의 照壁으로 사용되며, 皇宮, 王府, 廟宇의 문 앞에 많이 건축된다. 院落건축의 가림벽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고 건축물을 한 층 더 장려하게 꾸미기도 한다. 앞서 觀音堂의 三龍壁을 비롯하여 善化寺에 있는 五龍壁을 살펴보았으나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代王府의 九龍壁이다(사진 23).

大同 九龍壁은 중국에 현존하는 세개의 九龍壁 중에서도 가장 일찍 건축되었고 규모도 가장 크다. 大同 九龍壁 이 외의 九龍壁은 모두 北京에 있다. 하나는 北海公園안에, 다른 하나는 北京 故宮의 皇極門앞에 있다. 이 둘은 모두 清 乾隆時代에 건축되었다.

大同 九龍壁은 원래 明初의 代王인 朱桂의 府邸, 즉 代王府의 端禮門 앞에 있던 照壁이다. 朱桂는 朱元璋의 13번째 아들로 洪武24년(1391년)에 代王에 봉해졌으며, 이듬해 10월에 大同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代王府가 건축되었고, 더불어 照壁, 즉 九龍壁도 건축되었다. 1649년 姜의 亂 이후 清軍에 의해 代王府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九龍壁만은 다행히 파괴되지 않았다.

大同의 九龍壁은 南坐北向한 單面의 五彩琉璃照壁이다. 일반적인 龍壁과 마찬가지로 基座와 壁身, 그리고 壁頂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壁身에는 아홉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고, 壁頂에는 공포와 지붕이 묘사되어 있다. 다른 龍壁과는 다른 이 九龍壁이 지니는 특징은 전면에 影池가 있다는 점이다. 影池 주변은 石柱가 에워싸고 있으며, 그 중앙에는 石橋 하나가 있다. 龍壁의 九龍이 수면에 비친다. 산들바람이 불면 수면에 물결이 생긴다. 이때 수면에 비친 龍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물을 이용한 기막힌 연출수법이다.

大同에는 이 影池를 만들게 된 경위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九龍壁을 건축한 후 어느 날 代王이 端禮門 門樓위에 올라서서 경치를 감상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반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九龍壁을 향해 두 번 내리쳤다. 그러자 龍壁 앞에 커다란 구덩이 하나가 생겼고, 龍壁 뒷쪽 멀지 않은 곳에 깊

은 샘 두 개가 생겼다. 맑은 샘물속에서 누런색과 검은색의 거대한 龍 두마리가 솟아올라 머리를 쳐들고 龍壁 앞에 있는 큰 구덩이로 맑은 물을 뿜어냈다. 멀리서 구덩이 안을 보니 九龍이 춤추며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관이었다.

이에 代王이 물구덩이를 고쳐 影池를 만들도록 하고 샘을 우물로 고쳐 짓도록 하였다. 그 우물의 물은 하나는 달고 하나는 쓰다고 한다. 멋진 설계감각에 어울리는 그럴 듯한 전설이다.

이 九龍壁은 아침 일찍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레아 햇빛의 방향이 적당하여 九龍壁의 멋진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보를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오후에 이곳을 찾았다. 오후에는 역광으로 인해 九龍壁의 제모습을 보기가 힘들 뿐 아니라 사진촬영에도 적합하지 못하다.

大同市에는 이 외에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몇 개의 불거리가 있다. 시내 한복판에는 三層의 鼓樓가 있다. 정확한 창건년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明代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 24). 大同에는 옛 성의 윤곽이 남아있다. 흙을 다져 쌓은 외면에 전돌을 쌓아 마감한 성곽이다. 현재 동남쪽의 성곽이 그나마 잘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동남쪽 성곽위에는 明代 天啓4년(1625년)에 건축된 8각형 평면의 樓閣式 7층전탑이 있다. 제1층 이상의 각 층에는 네 개씩의 창문을 두었으며, 나머지 네 면에는 假窓을 두었다. 각 층에 만들어놓은 네 개의 실제적인 開口는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층마다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각 층의 상부에는 모두 목구조를 모방한 공포를 두었다. 탑의 내부는 수직으로 뚫린 8각형 空心으로 벽면에 뒹고 올라갈 수 있는 을 박아놓았다. 6층과 7층에는 '十' 자형의 목조가구가 있다. 明代에는 여기에 기둥기를 설치하여 상하로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한다. 당시 大同지역에는 전쟁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주변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탑을 많이 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닌 탑을 瞭望塔이라고 부른다.

오늘(95년 10월 4일)은 매우 바쁜 하루였다. 아침에 갑자기 찬 공기를 접한 탓인지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 저녁도 먹지 못하였다. 중국식 사브사브를 맛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음식만 시켜놓고 黃偉 혼자 저녁식사를 하게 하고 먼저 숙소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내일은 渾源縣과 應縣을 답사할 계획이다. 黃偉가 사다 준 약을 먹긴 했지만 중국제 약이 미덥지 않다. 무거운 머리와 오한으로, 나는 몸을 침대에 눕히고 내일의 일을 머리속에 그린다.

旌閭 - 충 · 효 · 열의 상징

정려란 효자나 열녀, 충신 등의 행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집앞이나 마을 입구에 旌門을 세워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 정문을 받는 절차는 그 고을의 관청에서, 또는 대상자의 직계 후손이나 고을의 유림들이 중앙의 예조에 정문을 내려주기를 청하면 왕의 명령에 의하여 命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정을 받는 것은 개인이나 가문의 대단한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울러 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정려를 받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크나큰 은전이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호세면제(復戶), 賦役면제 등의 포상이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벼슬도 주어진다. 예를 들어 동래현의 효자 金待仁은 '將仕郎 豐倉副奉事' 이란 벼슬을 받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23조, 동래현 효자조).

결국 정려는 위정자들에 의한 통치의 한 수단으로도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윤리도덕을 확립하여 인간의 기본도리를 깨닫게 하는 상징성이 강한 기념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려가 주는 가르침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다.

명정의 내용은 나무판에 새겨서 별도의 건물(旌閭)을 짓고 그 안에 보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살던 집의 대문간에 문형식으로 꾸며 현판을 걸어 두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려는 전자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건축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려사실에 대한 기록은 신

한국 유교건축의 제조명(完)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정려건축

김지민 / 목포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Chi-Min

1. 머리말
2. 향교건축
3. 서원건축
4. 재실건축
5. 가묘건축
6. 정려건축

1) 新羅의 孝女 知恩에 대한 포상으로 租 500石과 집 한채를 下賜하고 復戶하며 그 마을을 旌表하여 孝義坊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三國遺事』卷第5 孝善 第9 貧女養母, 『三國史記』卷第48 列傳 第8 孝女 知恩, 참조.)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7권 공주목 고적조에 다음과 같은 정려사실이 있다. 향덕(向德)은 신라 때의 사람이었다. 천성이 효성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주리는 중에 거기에다 여역(전염병)마저 유행하였는데, 부모가 주리고 또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향덕이 밤으로 옷을 풀고 갈 겨를도 없이 정성을 다하여 위안하였으나, 분양할 도리가 없어 종당에는 자기의 넉적다리 살을 베어 공궤하였고, 또 모친이 죽기가 나매, 향덕이 이것을 빨아서 닦게 하였다. 이 사실이 보고되어 왕이 명령을 내려 벼 3백곡과 집 한 구획과 구분전(口分田) 약간을 하사하고, 관원에게 명하여 비석을 세워서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 뒤에 사람들이 그곳을 효가리(孝家里)라 일컬었다.

2) 고려시대의 정려 사실은 조선시대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 지역에 걸쳐 많은 사람이 정표되었다. 특히 세종때부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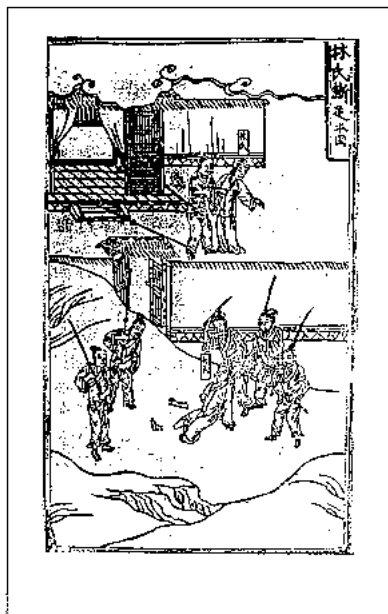
한 효자·절부에 대한 포상은 그후 하나의 전형을 이루게 되어 고려말까지 계속하여 지속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당시의 정려지수는 효자·효녀·열녀 등이 모두 90여명에 이른다. 구체적인 당시의 정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4권, 안동대도호부 효자조)

· 권백종(權伯宗) : 어머니의 무덤을 3년 동안 지키었으니, 지정(至止) 5년(1345)에 정려(旌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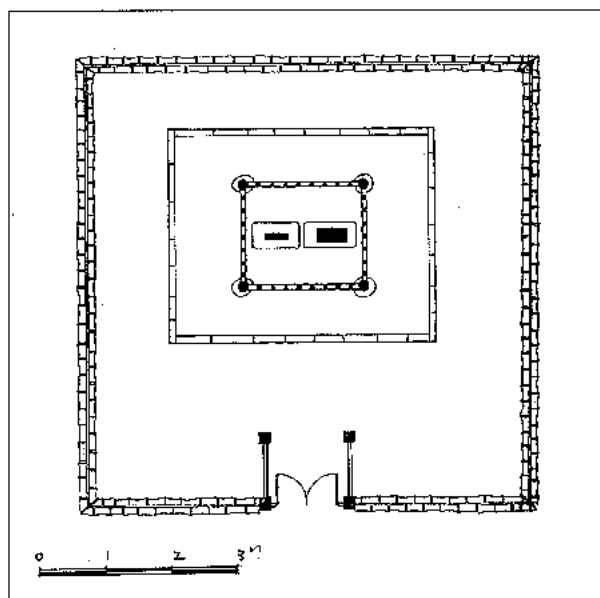
· 김문신(金文信) : 벼슬하여 별장(別將)이 되었으며, 아버지 무덤을 3년동안 지키었으니, 홍무(洪武) 23년(1390)에 정려하였다.

· 김자수(金子粹) : 어머니가 죽으니 3년을 여묘(廬墓)하니,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旌閭)하였다. 과거에 장원으로 뽑히어 벼슬이 도관찰사(道觀察使)에 이르렀다.

· 권여생(權呂生) : 부(府)의 아전이다. 어머니가 죽으니 3년을 여묘(廬墓)하였으니, 홍무(洪武) 계속년(1373)에 정려(旌閭)하였다.



삼강행실도



김치중 의열각 배치도 - 경북 의성군 -

리¹⁾ 때 부터 보이며 고려²⁾에 들어와서는 상당수의 정려 사실이 한반도의 전지역에서 고루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려 역사는 1,000년이 훨씬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왕조에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정려가 세워졌다. 즉, 조선왕조는 유교적인 지배윤리를 위한 도덕규범을 장려하기 위해 孝子·順孫·義夫·節婦들을 매년 뽑아 예조에 보고케 하여 旌門·復戶·賞職·賞物 등으로 旌表하였던 것이다.³⁾

3) 朴 珠, 조선시대의 旌表 정책, 일조각, 1990, p. 3

4) 朴 珠, 조선 中宗朝의 정려에 대한 일고찰, 변태섭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p. 319

조선의 旌閭 정책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유교의 나라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대부분 치국의 도리를 유교적 윤리관에 바탕을 두었고 아울러 사회교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도 펼쳐나갔다. 가령 성종 연간까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邑治에 향교가 설립되어 유교사상이 지방민에게까지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또한 주자가례에 의한 제사제도를 권장하여 효의 근본개념을 깨닫게 하였다. 한편 官차원에서는 客舍를 설치하여 임금과 신하의 위계적 군신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정려는 '忠', '孝', '烈' 을 사회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三綱 즉,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으로서 이러한 삼강윤리의 보급은 조선 초기부터 줄기차게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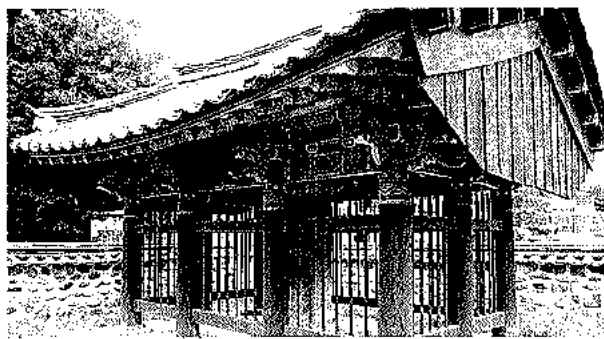
조선의 여러 왕중 특히 세종시대에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효자, 충신, 열녀의 행적을 추리고 그림을 곁들인 '三綱行實圖' 를 간행하여 유교의 실천윤리를 보급하고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종은 연산군시대에 파괴된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표교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중종은 연산군때 폐지된 충신, 효자, 절부들에 대한 포상을 더욱 힘써 행하고 퇴폐해진 정문을 다시 세웠다. 아울러 주자가례의 보급과 실시장려, '삼강행실도' 의 보급과 '속삼강행실도' 의 간행 분포⁴⁾에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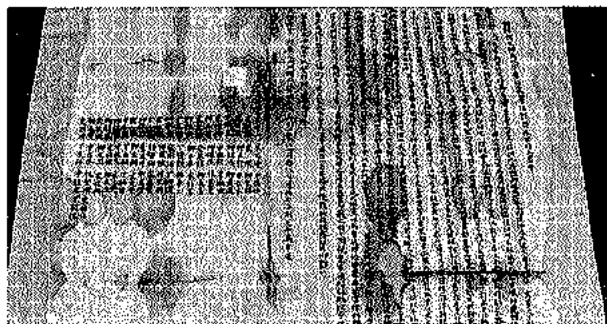
다음 표1은 중종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정려 사실을 지역별로 살펴본 것이다. 고려사람을 포함하여 전 지역에서 고루 약500여명이 정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2년(1481)에 펴낸 '동국여지승람'을 새로 증보한 책으로 여기에는 효자, 열녀조가 크게 강화되어 있다. 이



1



2



3

1. 경남 함양의 河氏 효자각. 元龍, 孟賓, 必明 3명의 효자각 3동이 나란히 있다.
2. 충청공 김덕령 장군과 그의 일가족의 충·효·열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 이 지역 3칸 정려건축의 규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광주 광역시 충효동 소재)
3. 정려 포장 상서(전남 고흥군 안동 김씨 효자정려). 薦狀이라고 하는 이 문서는 유교의 덕목인 三綱을 장려하고 鄉風을 바로 잡기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중앙이나 지방관청에 천거하는 일종의 추천서이다.

는 당시 유교적 예적질서 확립이 위정자들의 큰 관심 대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중종이후의 역대 왕들도 역시 충효의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 많은 정려가 속출하였다. 특히 선조이후로는 임진왜란 등 각종 재난시에 순절한 충신, 열사 등이 많이 정려되었다. 또한 왜군의 만행에 정절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많은 철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많이 정려되었다. 다음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려내용이다.

· 경상도 尙州의 幼學 鄭興世는 형 經世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왜적을 피하였는데, 왜적이 갑자기 달려들어 형이 먼저 화살을 맞아 절벽에 떨어지고 어머니 또한 화살에 맞아 죽으니 크게 부르짖으며 바로 달려나아가 왜적에게 등을 던져 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⁵⁾

· 전라도 鎭安縣의 幼學 南官茂는 임진왜란때 89세된 늙은 아버지를 업고가다 왜적을 만나자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를 덮어 가린 채 함께 살해되었다.⁶⁾

· 서울의 良女 孝還(保人의 妻)은 왜적이 남편을 묶고 효환을 더럽히고자 하니 굳게 거절하고 쫓지 않았으며 우물에 빠져 죽었다. 이때 나이 19세였다.⁷⁾

· 강원도 春川府의 良女 億節(別侍衛의 妻)은 왜적이 쫓아 펄박하자 손자를 업고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다.⁸⁾

17세기 이후의 인조, 현종, 숙종, 순조대에도 많은 정려가 내려졌는데 그 성격은 그 전 시대와 비슷하여 각종 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신, 효자, 열녀들이다. 한편 현종대의 경우에는 前代에 비해 旌表의 포상이 쉽게 주어지는 경향과 후손이 국왕에게 직접 정표를 청하는 상도 보이고 있다. 숙종대에도 그 자신의 왕명과 신하들

표1. 중종조 이전 지역별 정려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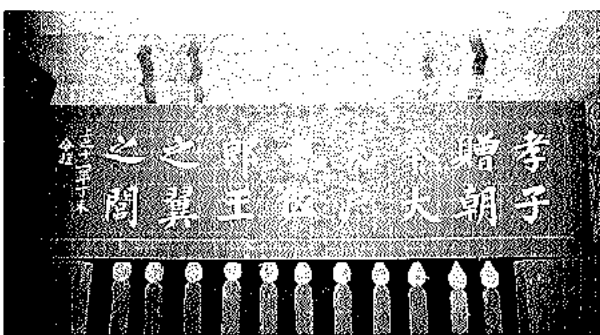
지역	인 물			비고
	효자	열녀	충신	
한성부	홍계산(1) 한계련(1) 이식(1) 김수전(1) 김석련(1) 박귀손(1) 김영강(1) 전 호순(1) 유희(1) 봉이(1) 조어정(2) 소비(3) 숙미(1) 말금(1) 박련(2) 계16명	공신옹주(7) 유씨(7) 박씨(8) 민씨(7) 김씨(8) 동질비(7) 남씨(7) 계7명	심 원 김 동 계2명	한계련-외조모
개성부	김귀손(2) 민백화(2) 강천년(1+2) 계3명			
경기도	한 구(2) 정수명(1) 내은이(4) 정주신(5) 최누백(2) 최세호(1) 한몽송(4) 이원년(2) 하우명(2+3) 이운중(1) 최효순(2) 정빈(1) 계12명	이씨(7) 옥금(6) 기매(8) 봉금(9) 덕수(6) 김씨(7) 삼여(6) 효양비(10) 홍씨(7) 조씨(6) 계10명		고려인-최누백 이원년 정빈 삼여 조씨
충청도	최 환() 인계번(2+3) 말산(2+3) 하숙련(1) 유자하(1) 지중해(4) 지몽구(2) 손 유(4) 정연(2+3) 김석봉(3) 양호(2+3) 김건(2) 정시() 전경생() 봉유지() 서만(2+3) 이우() 최사흥() 김덕수() 막동(4) 채형운(2+3) 매한손(1) 정동(2+3) 향덕() 이복() 이장생 · 강성() 이하() 이렴() 박지() 강웅정(2+3) 서공(1) 전한로(2+3) 복한() 한원발()	최씨(6) 정씨(7) 박씨(7) 양씨(6+7) 말질비(7) 정씨(7) 고씨() 윤씨() 옥배(10) 이씨(7) 민씨(7) 허씨(6) 이씨(9) 치자(6+7)곽씨(7)곽씨(7)매음덕(6+7)		고려인-지중해 지몽구 손류 양호 이복 이씨 서공 이성만 곽씨 신라인-향덕 정동-계모

5) 東國新編三綱行實圖, 孝子圖, 「興世殉賊」

6) 東國新編三綱行實圖, 孝子圖, 「南官而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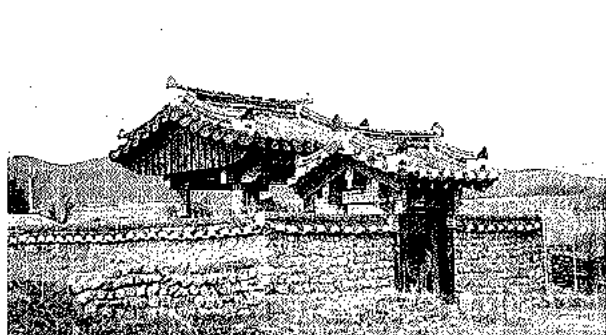
7) 東國新編三綱行實圖, 孝子圖, 「孝還救母」

8) 東國新編三綱行實圖, 孝子圖, 「億節受難」



4

4. 壬氏 三世 忠孝 정려각(3×1칸) 안에 걸려 있는 王之翼(1683~1727)의 命旌 현판(전남 구례군 광의면 소재)
5. 金致中 義烈閣(경북 의성군 점곡면 소재). 임란때 큰 공을 세워 국가에서 1609년에 정려를 내렸다. 전형적인 1칸 정려이다.
6. 전남 화순의 五忠閣. 높은 절벽위에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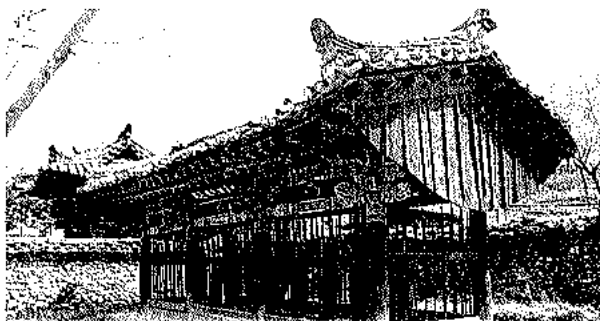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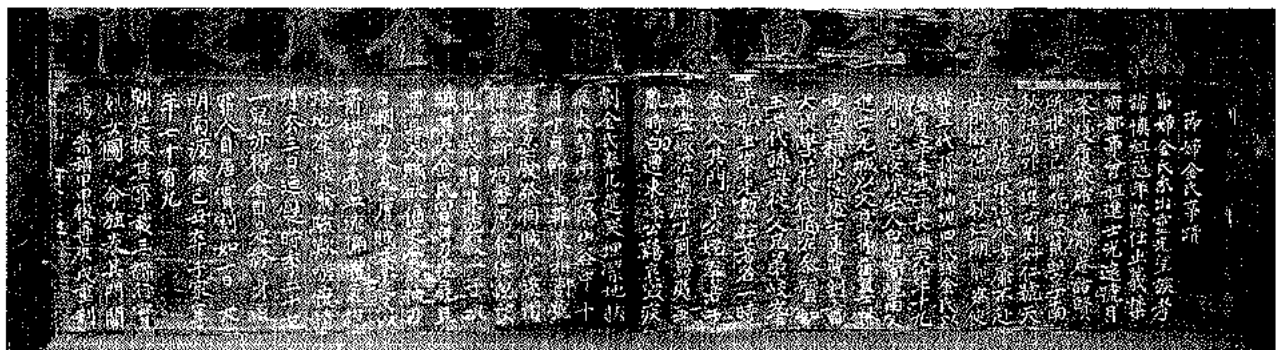
5



6

지역	인 물			비고
	호자	열녀	충신	
충청도	김처온(1) 맹회도(1) 박녕(3) 이성만(3) 김근·이개우(1) 계41명	계 17명		
경상도	손순(3) 지은(3) 허조원(1) 남독온(2) 김운손(4) 박희남 회장 회정(2) 최영라(2+3) 송도(2) 박창(2) 이공미(2) 정승우(2+3) 이감(2) 양배(2) 정조(2) 신득인(2+3) 옥중손(1) 김씨(5) 전희(2) 효자(1) 신재은(2) 정종문(2) 정상인(2) 권백중(2) 김문신(2) 김자수(2) 권여생(2) 권철(2) 박진(2+3) 임즐(2) 김뉴(2) 반유(2) 권철산(2) 윤혈(3) 노순(1) 문재도(4) 김이음(2) 우제(1) 안수철(1) 권득명(2+3) 저연동(1) 도금동(2) 박약지(2) 유모(2) 황재(2) 우석보(2) 권직형(2) 전산호(1) 하광신(2+3) 조희삼(4) 김한(2) 채순(2) 박득춘(2) 이신(2) 김불수(2) 박심(2) 금지(4) 전불산(2) 김극일(2+3) 김관명(4) 박운손(4) 종비(2+3) 손일선(2) 윤인후(2) 허중근(2) 신휴(1+2) 락의(1) 채평(2) 유금(1) 박연수	설씨(6) 이씨(6) 정씨(7) 김씨(10) 김씨(8) 구음방(6) 권씨(7) 서씨(7) 서씨(6) 손씨(6+7) 난비(6) 신씨(4) 신씨(10) 옥금(6) 소사(6) 이씨(6) 연이(10) 성이(6) 돈지(7) 현근(6) 김씨(7) 옥지(6) 연이(6)	신라인-손순 설씨 지은(여) 고려인-박창 아공미 정승우 정조 김씨 신계은 권백중 김문신 김자수 권여생 김씨(10) 문재도 락의 황재 신씨 신재 하광신 조희삼 김한 채순 반전 정유 정술 강안명 하현부 여효재 반전 주경 허계도 송한문 윤씨 신우배씨 나씨 최씨 송씨 함부 최씨 유금-조루종비(여)	

경상도	(4) 안도(2) 박의(1) 반전(4) 박인손(1) 조귀천(1) 성각(1) 장유, 정술(4) 강안명(3) 하현부(2) 여효재(2+3) 모순(1) 군만(4) 득비(1) 박인(2) 주경(2) 나유문(2) 반석절(2) 김효량(1) 박시명(2) 박정견(2) 옥석견(2) 나물(1) 이교(2) 임귀달(2) 이석올대(2) 송한문(1) 강계흠(2+3) 김백산(4) 강음태(1) 박근인(2) 박주(2) 박세연(2) 박운(4) 신우(2) 김문상(2) 김자강(2) 빅구(2) 김승덕(2) 김방계(2) 김신환(2) 배경동(1) 이석(2) 임재(2+3) 전좌명(2+3) 송씨(1) 임비(2) 서문(2) 김유성(2) 윤은보(2) 조형(2) 이요(2) 한충보(2) 정국경(2) 윤안인(2) 정포(2) 남영신(2) 하영정(2) 박안행(1) 박류효(2) 함부(2) 허광(2) 이녹현(1) 김석(1) 최소하(1) 최석간(1) 점동(1) 이은 정원지(1) 정옥량(2) 전효종(2) 최치안(2) 양옥(2) 계145명	계43명	유금(여) 최소하(여)
전라도	박진(2+3) 박유성(2) 복유문(1) 오영로(2) 박세직(2) 김천동(1) 홍간(1) 김맹만(1) 오맹근(1) 최윤손(1) 강극례(1) 우척(2)	임씨(6) 이씨(6) 김씨(7) 구씨(7) 오씨(7) 동질금(7) 박씨(7)	고려인-임씨 안씨 이씨 홍씨 오준공 문씨 긴끼 최



7. 靈光 金氏 旌烈門(전남 영광군 안량면)의 事蹟현판. 정려를 받게된 여러 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8. 경남 함양 정씨 9志閣

지역	인 물			비고
	호자	열녀	충신	
	전극공(4) 전사용(2) 전간(1) 오준(1) 송세정(1+2) 이성간(1+2) 최필성(1+2) 양영운(1+2) 두세준(2) 이보(1) 이계수(3) 이천지(1) 최숙함(1) 유석진(1) 차달(3) 허중민(4) 박윤근(1) 경례손(4) 노준공(2) 고수정(2) 김평(1) 양천룡(2) 손순홍(2) 유익경(1) 조한(2) 임옥산(2) 김기(2) 전근(2) 송시홍(2) 채안택(2) 권복(2) 조유(2) 안정명(2) 박변(2) 양근(1) 장영근(2) 김경곤(2+3) 손순홍(2) 조한(2) 양라가(1)	마비(7) 이씨(6) 금이(7) 삼덕(10) 송씨(7) 안씨(6) 이씨(6) 김씨(7) 홍씨(6) 이씨(7) 임씨(4) 나씨(7) 형제(7) 능금(7) 최씨(7) 문씨(6) 김씨(6) 민씨(7) 박씨(10) 김씨(6) 즉지(7) 차비(9) 서술금(6) 종이(6) 정씨(6) 지리산녀(1) 이씨(6) 김씨(7) 강씨(8) 임씨(7) 우씨(7) 양씨(8) 등질금(6) 지리산녀(1) 임씨(7) 계수(6)		씨 정씨 양천룡 유익경 이씨 김기 전근 유석진 차달 손순홍 백제인-지리산녀 지리산녀 암씨-시어머니
	계52명	계47명		
황해도	김덕연(1) 박선.강녕(1) 최일(2) 김숙손(2) 박선강(2) 유씨(1) 이권(2) 시종(1) 경비(1) 이상동(1) 장수이동(1) 김수원(1) 송세광(1) 김산동(1) 김자	조씨(6) 강씨(6) 황씨(7) 송씨(7) 원씨(7) 신씨(7) 세운(10) 변씨(8) 김덕		고려안-김덕연 최일

	럼(1+2) 이귀진(1) 권거의(2) 안규(4) 양귀진(1) 호계현(1)	(9)		
	계21명	계9명		
강원도	이성무(3) 박수량(2) 최응록(1) 이운(2) 황신정(1) 원종량(2) 조금(3) 신영숙(2) 태성길(3) 고승효(2)	김씨(7) 이씨(9) 조씨(8) 양길자(8) 안씨(6) 권근의(10) 손씨(7)		고려인-원종량 조듬시영숙 안씨 권근의 처 태성길 손씨
	계10명	계7명		
함경도	구질비·구진택(4) 난을동(1) 정득신(1) 강림(1) 길씨(4) 김진(1) 서원기(1)	막장(6) 내은덕(10) 안덕(6)		
	계8명	계3명		
평안도	박광렬(1) 황수(3) 백형(2) 최부삼(1) 김정리(1) 백현(2) 김의광(1) 김만(2) 오국통(2) 박간(2) 김임길달(1) 노사점(2) 오유린(1) 이명지(2) 박택(1) 김원진(1) 충개(1) 김을시(4) 이모지(1) 면사(1) 이동(1) 사월(1) 은시(1) 복태(1) 임석명(4) 은태(1) 안춘만(1) 이자화(2+3) 유산(1) 최상연(2)	한씨(6) 홍씨(7) 막정(7) 벌동이(10) 난공(10) 막씨(7) 양씨(8) 조씨(8) 막덕(8) 김씨(8) 계수(6)		고려인-황수 김원진 충개 은태
	계30명	계11명		
총 계	338명	154명	2명	

· 자료 : 신증동국여지승람
· () 속의 번호는 정려의 내용을 분류한 것 「정려의 구체적 사례」 참조. 공란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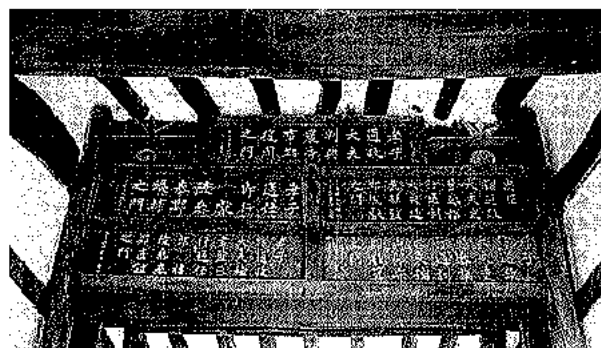


9

9. 9忠閣 내부. 9인의 정려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10. 경남 정여창 고가의 솟을 대문. 중앙칸 상부에 旌門이 있다.
11. 중앙칸 상부의 호자, 충신 命旌 현판



10



11

의 상언을 통하여 당시의 유교적인 풍속 교화를 위해 旌表政策을 활발히 전개하나 후손들이 정표를 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문위주의 정표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포상되었는데 숙종대에 와서 정표를 加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⁹⁾ 당시 정려된 충신 열사의 대부분은 서원·사우에서도 제향되고 있었는데 이는 17·8세기에 크게 서원·사우가 남·증설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표2¹⁰⁾는 조선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정려자 수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 왕조가 끝나고 20세기에 들어서도 효자와 열부 등에 대한 관심이 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남 해남군 지역의 경우, 현존하는 총 25곳의 정려중 11곳만이 조선시대 국가에서 명정된 것이고 나머지 중 8곳은 주로 일제시대에 건립된 것이다. 이는 어쩌면 한국 유교 윤리의 계승을 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중이나 개인의 과시적인 상징의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당시의 정려는 공적인 것이 아니고 향리의 추천이나 후손들에 의하여 건립되어진 것이다. 그 당시 정려의 건립형태는 閤없이 비만 세운 경우도 있다.

정려의 구체적 사례

정려의 성격 구성은 크게 효자, 열녀, 충신으로 나뉘어진다. 각 분야별 효행의 내용은 다소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조선조 유교 윤리의식의 한 척도를 보는 듯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거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9) 朴 珠,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p.160~161

10) 朴 珠, 전제서 p.16

1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4권, 충주목 효자조

표2. 王代別 旌表者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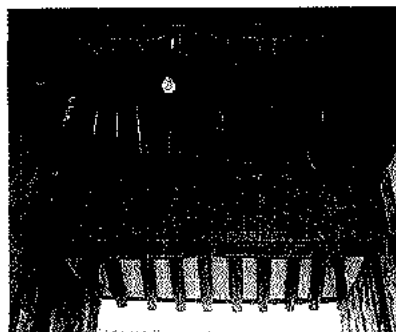
유형별 왕별	효자 (효녀포함)	충신	열녀		계
태조	12		7		19
정종	1		1		2
태종	19		20		39
세종	145	2	67	26	240
문종					
단종	54		22		76
세조	1		1		2
예종	3		1		4
성종	65		27		92
연산군	2		1		3
중종	191	11	87		289
인종					
명종	76	1	19		96
선조	21	30	8		59
광해군	4	9	5		18
인조	292	72	209		573
효종	30	7	8	60	105
현종	119	51	37		207
숙종	59	139	56	519	773
계	1,094	322	576	605	2,597

* 『朝鮮王朝實錄』에 의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 중기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충신에 대한 정려사실이 추가되어질 뿐이다.

(1) 부모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일부를 상해하는 등 그 효성이 매우 뛰어 남. 전체 효자중 과반수 가까이가 이에 해당될 정도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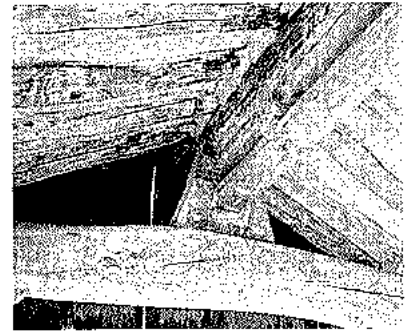
· 河淑倫 : 어머니가 악한 병에 걸리매 다리의 살을 베어 술에 타서 드렸더니 병이 곧 낫았다. 뒤에 어머니의 병이 다시 발하매 또 손가락을 잘라 구어서 드렸더니 그 병이 영구히 낫았다. 순수 23년에 旌門하였다.¹¹⁾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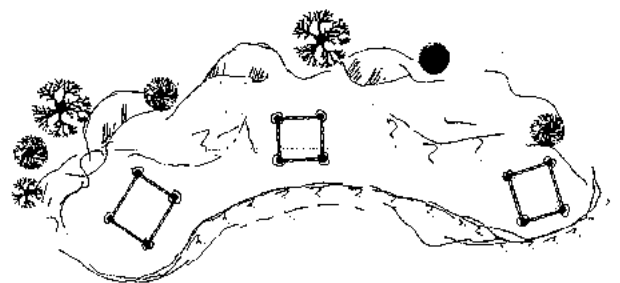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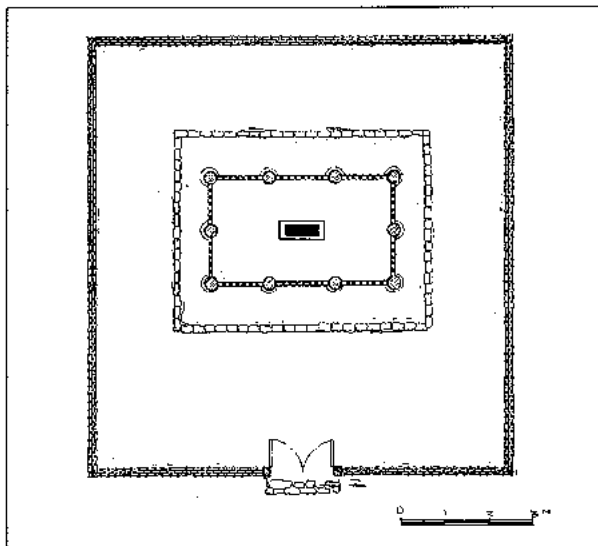
12. 경남 거창의 임견중 가옥 정려문. 이 가옥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이름이 높았던 葛川 林蕙이 거쳐왔던 가옥이며 정려문 역시 갈천 선생의 정려이다.

13. 경북 안동의 潼中— 충효 정려. 원주변씨 종가집 부근의 마을 길목에 있다.

14. 변중일 정려 내부, 판대공을 사용한 간결한 3량구조이다.



5층각 배치도 - 전남 화순군 -



충효각 배치도 - 광주광역시 충효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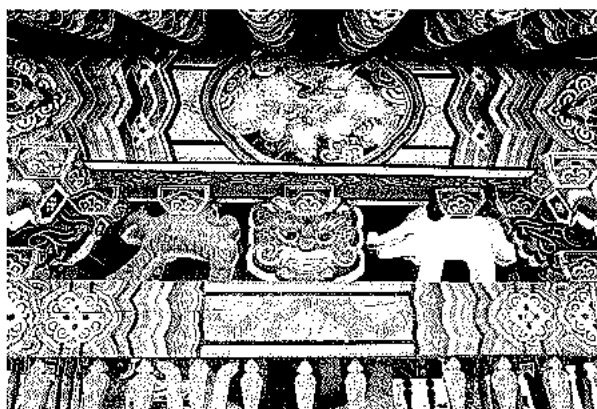
(2) 부모가 돌아가신 후 朱子家禮에 의한 3~6년간의 지극한 시묘생활을 함. 특히 연산군때 상을 단기하는 법이 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켜 중종조에 정려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

· 金淑孫 : 부모 상중에 모두 3년간 시묘하며 살았다. 사당을 묘소 곁에다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上食하기를 그대로 생전처럼 하며, 늙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금상 5년에 정문을 세웠다.¹²⁾

(3) 부모 생전에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고 효도함.

· 金석봉 : 두 아우가 같이 살면서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매 슬퍼하고 사모하여 정성을 다하였고, 배양 초하루 보름에는 반드시 술과 음식을 갖추어 아버지를 대접하니, 사람들이 감

- 1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2권, 신천군 효자조
- 1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5권, 청주목 효자조
- 1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5권, 삼동현 효자조
-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3권, 창성도호부 효자조
- 1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廣州牧 효자조
- 1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廣山縣 열녀조
- 18)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정의현 열녀조



15

- 15. 전남 구례의 손순흥 정려각 화반
- 16. 고종 22년(1885)에 정려를 받은 김해김씨 雙孝정려(전남 고흥군 도덕면 소재). 전형적인 석조 정려각이다.

동하여 옷을 벗어 비용을 도와주는 이도 있었다. 이 사실이 임금께 들리어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¹³⁾

(4) 부모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 생명을 걸고 구하거나 같이 사망함. 호랑이 출몰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그외에 수해, 화재 등의 위기에 부모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 林石明 : 나이 15세에 아버지를 따라 산에 들어가,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리니 석명이 칼을 휘둘러 쫓아 위험을 면하였다. 순상 2년에 旌閭하였다.¹⁴⁾

· 金乙時 : 성 가운데에서 불이 일어나 그 집에 뺨어 오는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을시가 아버지를 업고서 나왔으나 부자가 불에 데어 함께 죽었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서 쌀을 내리고 旌閭하였다.¹⁵⁾

(5) 부모가 돌아가신 후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다가 사망

· 鄭舟臣 : 그 아버지 誠謹이 연산 갑자년의 화를 만나 죽으니 가슴을 두들기며 통곡하며 먹지 않고 죽었다. 순상 초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¹⁶⁾

(6) 남편 생전, 또는 사후에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킴. 특히 고려말 왜적의 침입으로 그 피해가 컸다. 한편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이후 재가 권유를 극구 불리치고 수절하는 경우도 많았다.

· 金氏 : 書雲正 金彦卿의 아내이다. 우왕 때 왜구가 갑자기 쳐들어와 김씨를 붙잡아다 옥을 보이려 하자 김씨는, '차라리 만 번 죽을지언정 옥을 당하지는 않겠다.' 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 적이 죽이고 말았다. 본조 때 旌門을 세웠다.¹⁷⁾

· 鄭氏 : 職員 石那里甫介의 아내이다. 합적의 난에 그의 남편이 죽었는데 정씨는 젊고 아들이 없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安撫使 軍官이 강제로 장가들려 하매 정씨가 죽기로 맹서하여 칼을 끌어 스스로 목찌르려 하므로 마침내 장가들지 못하였다. 늙도록 시집가지 않음에 그 일이 알려져 旌閭하였다.¹⁸⁾

(7) 남편 사후에 3년이상 시묘살이를 하고 그 이후로



16

정성들여 제사를 지냄.

·朴氏: 孫赫의 아내다. 남편이 죽자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3년이 지나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 다시 1년을 더 살다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초하루 보름마다 몸소 제사지내기를 20여년 동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네사람과 친척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이 일이 위에 들려 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다.¹⁹⁾

(8) 남편이 사망한 후 식음을 전폐하여 끝내는 같이 죽음을 맞이한다.

·鄭氏: 校理 權達手의 아내이다. 燕山甲子에 달수가 피살되었는데, 정씨가 그 때 함창 촌 집에 있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입에 넣지 않은지 무릇 60여일에 그 중에 깨 발하기를,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은 남편의 유해가 돌아와 장사하기를 기다려서 뼈를 그 곁에 의탁하려 함이었는데, 기력이 이미 다하였으니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통곡하다가 殞絶하였다. 지금 임금 2년에 정려하였다.²⁰⁾

(9) 남편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도려내는 등 그 정성이 매우 극진한 경우.

·自妃: 縣吏 朴耆의 아내다. 기가 나쁜 병을 얻었는데, 자비가 왼손의 무명지를 잘라서 가루를 만들어 국에 타서 먹었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 성종 8년에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였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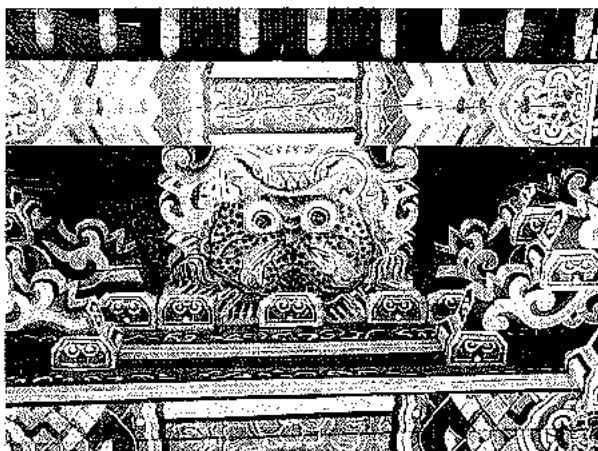
(10) 남편이 위기에 처해 있을때 목숨을 걸고 구하려다 같이 사망.

·朴氏: 學生 徐中元の 아내인데, 지아버가 범에게 잡혀가게 되자 범을 때려 쫓고 지아버를 구했으나 역시 범에게 다쳐서 곧 죽었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져서 旌閭하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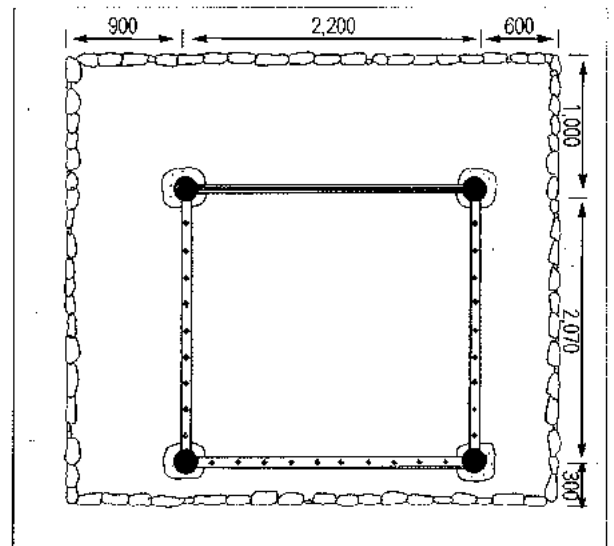
정려의 장소적 의미

조선시대 향촌의 유교적 경관은 일정한 유형을 갖고

- 19)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5권, 문의현 열녀조
2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8권, 상주목 열녀조
2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무안현 열녀조
2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함평현 열녀조



경남 함양하씨 정려각 鬼面形 화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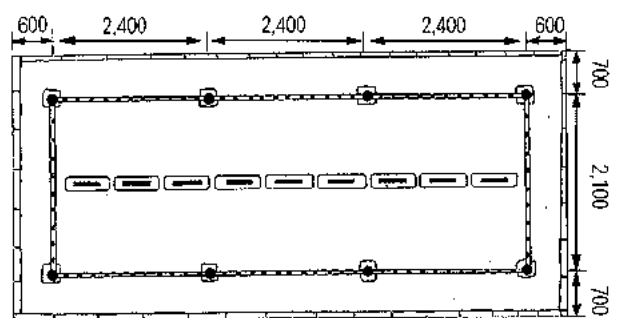


변종일 출효 정려각 평면도 - 경북 안동시 -

등장한다. 즉 입향시조의 묘가 마을 뒷산에 자리하고 그 주변에는 재실이 들어선다. 그리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종가가 주로 마을 중앙의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한편 문중의 중심인물을 배향하는 서원·사우가 거주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또한 경관이 좋은 곳에는 이름 있는 유학자의 정자가 들어선다. 그리고 정려가 있으면 마을 입구에 들어선다.

정려는 단지 개인의 포상이지만 그의 성격은 문중이나 마을의 경사적인 차원으로 이해되었기에 정려의 위치는 대개 마을 입구의 길목에 위치한다. 즉 사람의 시선이 잘 띄는 길목에 세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길목이 아닌 경우에는 양지바른 야트막한 야산 아래에 건립된다. 이러한 장소적 특징은 효도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고 뉘우쳐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마을 입구에 閣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려와는 달리 정려받은 후손의 살림집 대문간에 정려 현판을 걸어 두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이러한 유형은 극히 일부 가옥에서만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함양의 정



하등정씨 9층각 평면도 - 경남 함양군 -

여창 고가, 경남 거창의 임씨 고가, 전남 영광의 신호준·연안 김씨·이규현 가옥 등을 들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형식이 정문으로서 격에 맞을지도 모른다. 영광의 신호준 가옥의 경우는 辛宏圭(1815-1886) 효자문으로 1892년에 향유의 천거로 명정을 받았으며 효자문(숯을 삼문으로 현재 가옥의 정문)은 1907년에 건립하였다. 현재 '孝子贈童蒙敎官 朝奉大夫 辛宏圭之門'이란 命旌板額이 숯을대문 중앙 상부에 걸려있다.

정려가 마을차원으로 기념화 되었기에 마을의 명칭형이 '효'와 관련된 곳도 있다. 이는 향교가 있는 마을을 '교촌' '향교리'라하여 학교가 있는 마을임을 상징하려 했던 것과 같다. 예를 들어, "仁同縣에 사는 中良將 高成彦의 妻 崔氏는 나이 28세에 남편이 죽으니 3년상을 다하였으며 改嫁하지 않았고, 딸 셋이 있는데 두 딸의 남편이 모두 일찍 죽으니, 두 딸이 모두 어머니의 절개와 같으므로 鄉黨이 그 의 사는 곳을 칭하여 '貞婦里'라고 하였으며 그 문에 旌表하고 戶役을 免除 하였다."²³⁾라고 되어 있어 마을이 '貞婦里'로 불리워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 신라때 효성이 지극한 尙德이 살던 곳을 '孝家里'²⁴⁾라 하였고 효녀 知恩이 살던 마을을 '孝養里'²⁵⁾라고 불렀다. 또한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는 효자마을이 있는데 이는 安世龍(1796-1856)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94년에 장흥부사가 세운 '효자 안세룡지비'가 계기가 되어 中洞里에서 '효자리'로 바뀌 부르게 된 마을이다.

정려의 건축구조와 의장

정려건축은 기능성이 배제된 일종의 기념물이기 때문에 다른 유교건축과는 다르게 건물의 구성이 1개동으로 우선 단출하고 건축의 구조나 의장 등도 지역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면이 많다. 즉 어느 지역에 가든지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독특한 외관과,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장소성을 갖고 있다.

정려의 구조적 형태는 크게 목조 정려각과 석조 정려각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다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을 어귀의 독립된 목조 정각과 가옥의 내문간을 旌閣(旌門)으로 하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기에 여기에서는 독립으로 있는 목조 정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려자가 거의 1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命旌 현판 1매와 기타 정려가 정도를 걸어들 수 있는 공간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3효자, 3세충효, 쌍충, 쌍충일열, 구충등 여러명의 정려자가 있을 경우는 2×1칸, 3×1칸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기도 한다. 가령 전남 구례의 왕씨 3세 충효 정려(3×1칸), 경남 거창의 하동 정씨 구충각(3×1칸), 강원도 횡성의 육절각(4×1칸, 1983년 중건), 전남 고흥의 쌍충각(2×1칸) 등 의외로 정면이 2칸 이상된 정각도

많다.

지붕은 맞배와 팔작형태가 주로 보이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그 구성비율이 다소 다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영월지방의 경우 일제시대까지 지어진 20여곳 정려 모두가 맞배집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전남 고흥지방의 경우는 14곳의 명정 정려중 오직 2곳만이 맞배지붕이고 나머지는 모두 팔작집으로 되어 있다. 대체로 단출한 맞배 구조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이나 전남지방의 경우는 반반 정도로 팔작집도 많이 보인다.

가구 구조는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단순한 3樑架를 채택하고 있다. 기둥은 거의가 두리기둥을 썼으며, 그 위로는 주두를 얹고 창방을 걸었다. 창방 위로는 간결하게 소로받침만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곳에 따라서는 鬼面, 각종 동물형상 등의 화반을 배치하기도 한다. 특히 귀면화반이 많은데, 이는 악귀의 침입을 방지하고 죽은이의 염원과 산자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성 의장기법이라 하겠다.

기둥 상부는 민도리 형식과 익공형식으로 꾸미는데 대체로 익공형식을 많이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전남지방의 경우, 필자가 조사한 주요지역(강진군 이외 10개 군)의 정려 138곳 중 약 2/3가 익공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익공식의 경우 쇠서에는 연봉이 조각되어 있는 등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다.

정려각의 4면은 보통 벽체를 두지 않고 하인방 위로 홍살만을 꽂아둔다. 즉, 내부의 현판과 중앙의 碑 등이 잘보일수 있도록 개방시켜 놓는다. 홍살은 일정한 공간을 신성 내지는 경배시 할 때 쓰이는 상징성의 부재로서 향교나 왕능 입구 등에는 반드시 홍살문을 세워 놓는다. 정각 내부 중앙에는 命旌 현판과 함께 碑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碑만 놓여있는 경우도 있다. 碑에는 보통 현판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려의 건축구조는 현존하는 정려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 정려들은 대개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새로 꾸며진 것들로 수차례의 이진, 중수, 복원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편 정려가 지금과 같은 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조선중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즉 중종 37년(1542) 7월에 行副司果魚得江이 상소한 내용중에,

“前朝와 本朝의 忠臣·孝子·孝女·順孫·節婦·烈女에 대해 旌表하는 門閭를 세우거나 혹은 기둥을 세워 이름을 쓰고 혹은 碑石을 세워 이름을 새기는데 있어, 守令들은 으레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글씨도 잘 못쓰는 吏胥들에게 쓰게 해서 불품이 없고 알아 볼 수조차 없습니다. 臣은 다시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闕을 지어 보호하고 丹青까지 하게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²⁶⁾라고 하여 정려각이 있어야 하고 단청까지 해야 된다고 하였다.

목조 정려각 외에 석조로 정려각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즉 석주를 네개 세우고 (또는 2개만)이 위에서가래나 골기와 같은 세부적인 표현없이 형상만 팔각형의 석재에 올리는 형식이다. 목조가 갖는 시기적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후손들의 의지 결과로 여겨진다.

23)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2월 辛卯條

2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7권, 공주목 고적조

2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1권, 경주부 효자조

26) 중종실록 권98, 중종 37년 7월, 乙亥條

1-3-1. JAN VAN DER PLOEG, Rotterdam, 네덜란드

설 계 : EGM Architecten bv Dordrecht
건 축 주 : Stads Vernieuwing Rotterdam
건축년도 : 1988년
건물 개요:

가. 세대 수 : 79

나. 층 수 : 4층과 7층

다. 배경 도시

라. Housing type(거주 형태) : steunpunt project

마. 건물설계기본개념/모양 : 아트
리움

바. 세대 혼합 : 1침실형 67세대, 2
침실형 12세대

사. 가장 일반적 세대 크기(평
균) : 425sq ft (11.94평)

아. 커뮤니티 시설 : 식사 프로그램

자. 공동이 사용할수 있는 식당 있음

차. 개설 연도 : 1988

노인주거의 설계기준(6)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 사례2(국외)

강병근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Byoung-Keun

거주자 개요:

가. 평균 연령 : 77세

나. 거주 인원 : 84명

다. 부부/남자/여자 수 : 5쌍/독신

I.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1. 노인주거의 필요성
2. 무장애 공간계획

남 10명/독신녀 64명

라. Bathing help (%) : 18%

마. Toileting help(%) : NA

바. 휠체어 사용(%) : 2%

사. 인지적 손상(%) : 2%

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1. 주택 출입구
2. 거실
3. 침실

I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1. 욕실 및 화장실
2. 부엌
3. 발코니

I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3

1. 인테리어
2. 조작기기
3. 정원

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1~3 (국외)

V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4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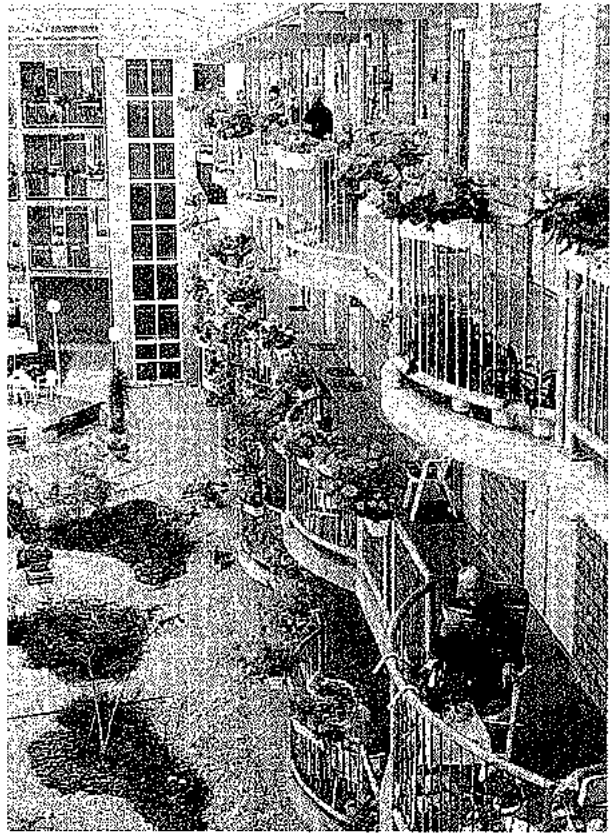
이 79세대 가든 아트리움은 Rotterdam의 한 도시재건지구에 있는 것으로 평범하지 않은 대지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다. 4층건물은 삼각형 모양의 평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 끝에 휘어진 7층 주거블록이 있으며 유리 아트리움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하나의 Steunpunt, 즉 부양목적(Point of Support) 프로젝트인데, 주위 이웃에 사는 노인은 물론 거주자들에게 까지 간호, Home Help, 식사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웃 거주자들로 구성된 지역 위원회의 검

[사진 1]

네덜란드 Rotterdam에 있는 Jan van der Ploeg 프로젝트의 아트리움에는 내부가 조경처리 된 마당이 있다. 입구 근처에 있는 파라솔 달린 테이블과 다목적실은 거주자들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기를 끄는 장소가 되고 있다. 자동온도조절스위치로 조작되는 지붕에 있는 환기 장치는 더운 공기를 빼낼 때는 열리게 되어있다.



토가 있었으며, 그들은 건축적 프로그램에 중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고 세심한 안들을 의논하기 위하여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만났다. 이 프로젝트에서 독지가들은 2층 식료점화점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25명의 이웃주민들에게 제공하는 1층에 있는 런치(Luncheon)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선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을 돕고 있다. 운영방침은 자립과 상호의존을 강조하며, 거주자들로 하여금 서로서로를 돕도록 하고 있다. 대형 아트리움은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세대들을 연결하고 있는 한명이 앉을 수 있는 발코니식 복도는 커브가 쳐 있으며 작은 탁자와 의자를 놓기에 충분한 넓이가 있어 아트리움으로의 각세대 영역을 넓혀주고 있다. 발코니 레일에 달린 플랜터 박스에 꽃을 심어 아트리움을 한층 생기있고 다양한 빛깔의 정원같은 분위기로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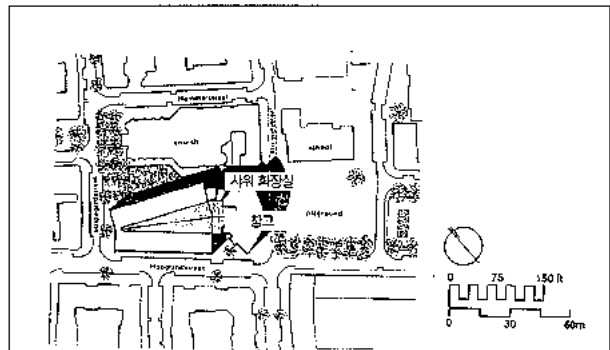
2

[사진 2] 단위 세대에 달린 혼자 앉을 수 있는 발코니식 복도는 각 세대입구에 인접하여 탁자 하나와 의자를 놓을 수 있는 모양으로 계획되었다. 발코니레일에 부착된 화분에 심어놓은 붉은색 제라늄으로 인해 아트리움 발코니난간의 컬러가 더욱 다양해지고 산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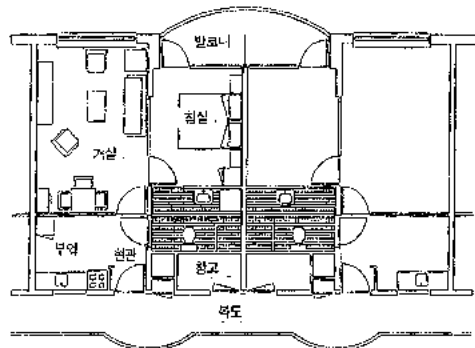
[사례도면 1] 배치도: 평범하지 않게 건물들 배치시킴으로써 교회에 인접한 북서쪽 모서리에 흥미있는 폴리자를 형성시켰다. 최남단에 있는 건물입구엔 움푹들어진 플라자를 두어 그 성격을 한층 강화시켰다. 인근 건물은 높이가 3~4층 규모이다.

[사례도면 2] 기본 유닛: 발코니형 복도의 커브진 부분에 작은 탁자와 의자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침실과 거실 사이에 유리창을 두어 이 두 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유닛에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필요시엔 프라이버시를 위해 커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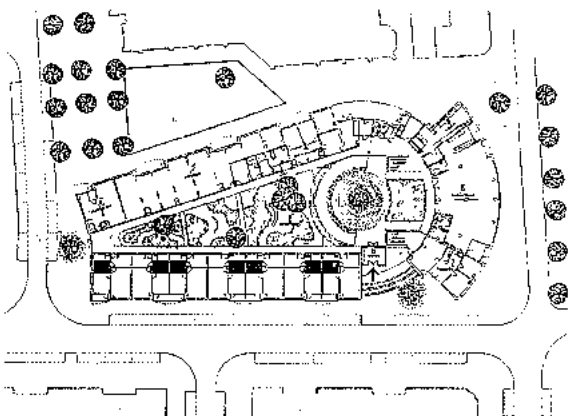
[사례도면 3] 1층 평면도: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7층건물은 도로에 면해 있다. 건물 동쪽을 부분에 다목적실을 두어 거주자들과 이웃주민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아트리움쪽 입구부근에 테이블과 앉을 수 있게 포장된 원형 파티오를 두었다.



[사례도면 1]



[사례도면 2]



[사례도면 3]

- 1.음료치료실
- 2.창고
- 3.관리사무소
- 4.승강기
- 5.부엌
- 6.다목적실
- 7.발손질실(Foot Care)
- 8.배선실

1-3-2. ROSEWOOD ESTATE, Roseville, 미네소타, 미국

설 계 : Arvid Elness Architects, Inc.
Minneapolis, MN
건 축 주 : Liberty Rosewood Limited Partnership
Minneapolis, MN
건축년도 : 1989년
건물개요 :
가. 세대 수 : 68
나. 층 수 : 2층과 3층
다. 배 경 : 도시
라. Housing type(거주 형태) : apt w/services
마. 건물설계기본개념/모양 : 작사각형
바. 세대 혼합 : 스튜디오 20, 1침실형 48세대
사. 가장 일반적 세대 크기
(평균) : 550sq ft (15.46평)
아. 커뮤니티 시설 : 없음
자.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 없음
차. 개설편도 : 1989년
거주자 개요 :
가. 평균연령 : 82.5세
나. 거주인원 : 69명
다. 부부/남자/여자 수 : 4쌍/독신남 12명/독신녀 49명
라. Bathing help (%) : 50%
마. Toileting help (%) : 30%
바. 휠체어 사용 (%) : 41%
사. 인지적 손상 (%)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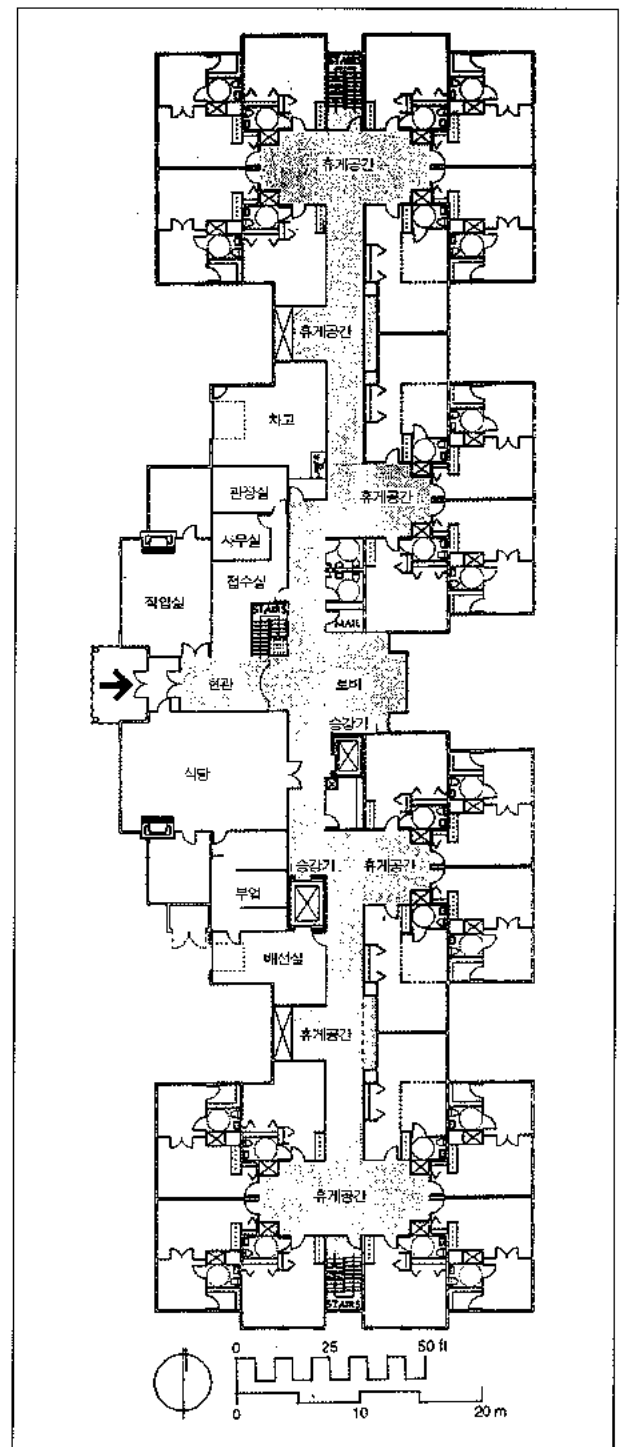
Rosewood Estate는 home care delivery model로 운영되도록 디자인된 68세대형의 인기받지 못한 대안적 Nursing Home이다. Rosewood 거주자의 거의 절반은 Nursing Home 이나 병원으로 부터 옮겨온 사람들이다. 관리운영은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방침을 통하여 비공식적 및 공식적 서비스들을 잘 배합하고 있다. 분산된 클러스터형 단위세대들로 배합된 건물의 거주 규모로 인해서 상호의존과 거주자들 사이의 비형식적 도움이 강조되고 있다. 거주자는 평가를 필요로 함으로, 사회복지 상담원은 가족구성원들이 공식적인 서비스 보조로써 제공하는 도움을 하나로 병합할 관리계획을 수립

[사진 3] 미네소타 Roseville에 있는 Rosewood Estate는 거리에서 보면 구불구불 굽이치는 콜로니얼식(영국 식민지시대 풍의) 대저택으로 보인다. 주 중앙건물은 포커스를 주기 위해 돌출현관을 부착시켰다. 전망을 강조하기 위해 지붕에 지붕창이 있는 돌출 구조부를 덧 붙였는데, 이것들 때문에 건물이 보다 자그마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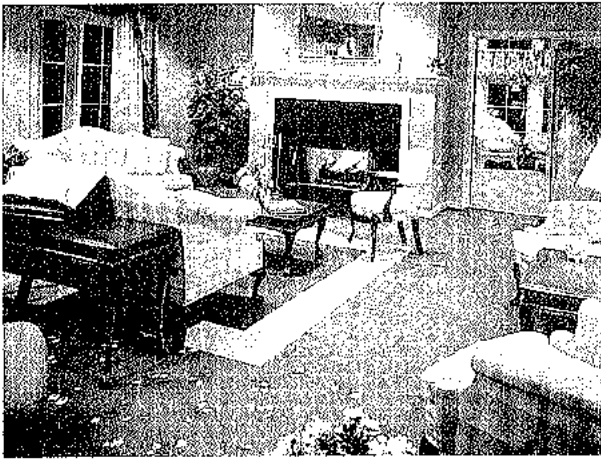
[사례도면 4] 진입층 평면 : 공용공간들이 대형모양의 진입구 주위에 클러스터 모양을 이루고 있다. 북쪽과 남쪽 건물들은 거주공간으로 쓰인다. 복도를 어떻게 상쇄시키고 있는가를 보면, 긴 복도라는 느낌을 피하게하기 위하여 중간라운지를 두었다. 그렇지만, 8피트의 넓은 복도와 다수의 별다른 특성이 없는 라운지들 때문에 건물이 특성이 없고 동시에 방향을 분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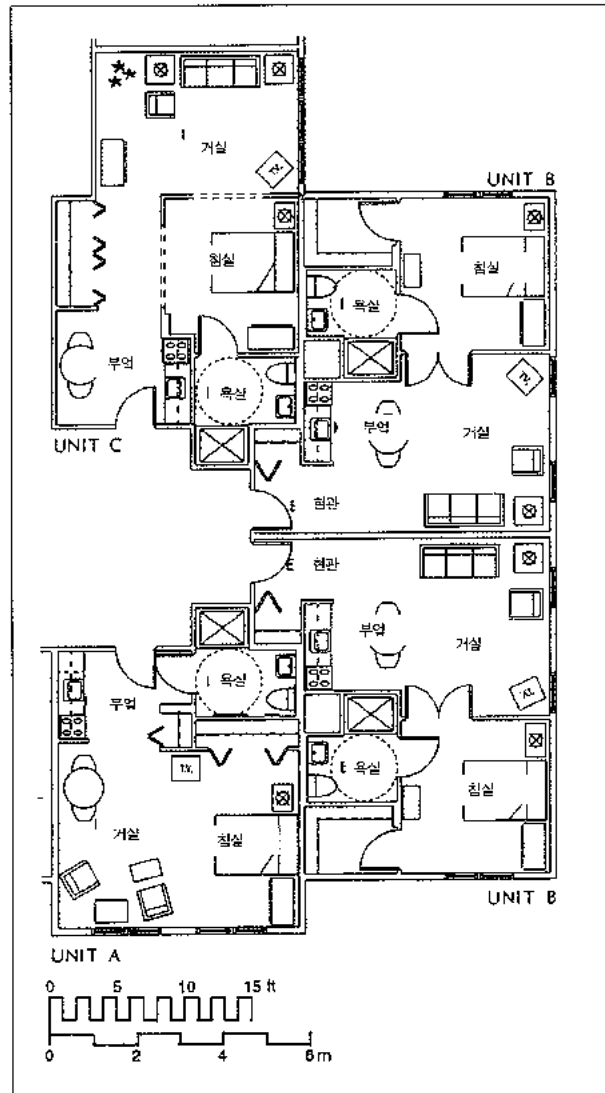


(사례도면 4)



4

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평가를 수행한다. 증가분 5달러에 대하여 15분 간격으로 개인관리지원을 제공하고, 건강관리지원 역시 시분할(時分割)된다. 거주자들은 사전에 미리 도움을 요구하거나 라이프라인 긴급구조 시스템(Lifeline emergency call system)을 통해 필요시엔 언제든지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세대들은 적합한 부엌과 욕실을 가지고 있으며, 3분의 2는 1침실형이다. 대저택과 같이 설계된 이 건물은 경사지붕과, 콜로니얼식 디테일, 그리고 매스가 세부분으로 나뉜 구성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때문에 건물이 크고, 장중한 대 저택으로 보인다. 대지 한쪽에서는 호수를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이 있으며, 다른 편에선 활기넘치는 주요 간선도로를 볼 수 있어, 거주자들이 선택적으로 조망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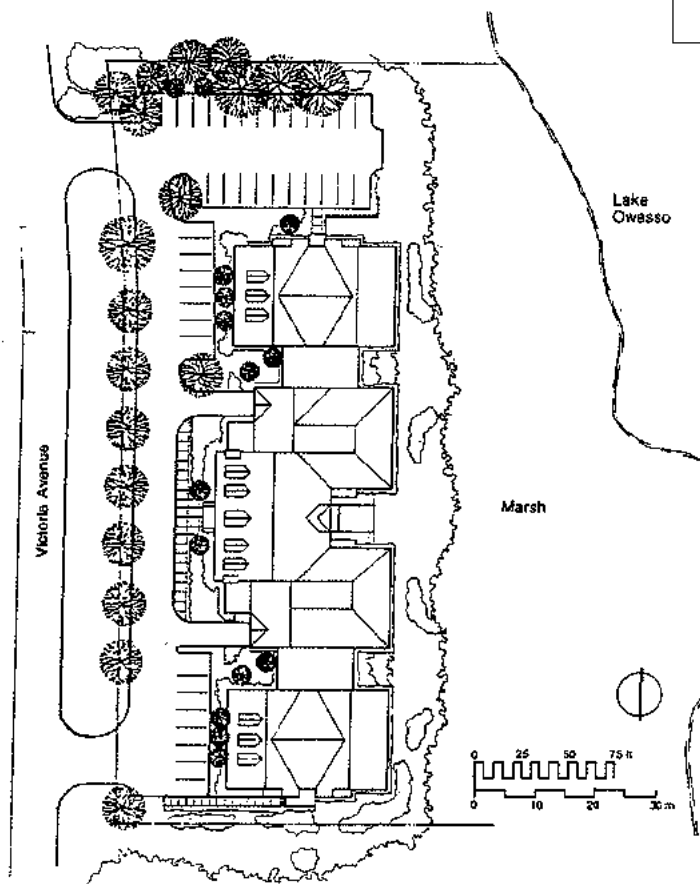


[사례도면 5]

[사진 4] Rosewood의 방은, 세기가 바뀌는 시대에 중서부 주거에서 일반화되었던, 구식의 웅장실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 가구와 벽난로는 딱딱하고 위엄있는 느낌이 들고, 인접한 Three-season Porch는 성격면에서 훨씬 친근감이 있고 크기가 작아 친밀한 가족적 대화와 잘 어울린다.

[사례도면 5] Unit Cluster : 가운데 라운지 주위에 4개의 유닛이 전형적으로 모여있다. 이들 유닛들에는 침실과 거실공간이 주위 불빛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주의깊게 계획되어 있다. C세대는 이 스튜디오 유닛내의 침실 아이덴티티를 보다 크게하기 위하여 침실에서 거실에 이르는 케이스화원 큰 포오텔(portal)식 개구부를 사용하고 있다.

[사례도면 6] 배치도 : Rosewood Estate는 3개로 나뉘어졌지만 서로 연결된 건물로 평면이 이루어져 있다. 주차는 대지의 북쪽 가장자리에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손님주차는 양쪽 끝 건물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다.



[사례도면 6]



5



6

바. 세대 혼합 : 1침실형 32세대, 2침실형 26세대
사. 가장 일반적 세대 크기(평균) : 650sq ft (18.27 평)

아. 커뮤니티 시설 : 다목적실, 회합실
자.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 : 없음
차. 개설 연도 : 1990년

거주자 개요 :

가. 평균 연령 : 70세
나. 거주 인원 : 78명
다. 부부/남자/여자 수 : 20쌍/독신남 10명/독신녀 28명
라. Bathing help (%) : NA
마. Toileting help (%) : NA
바. 휠체어 사용 (%) : 8%
사. 인지적 손상 (%) : 3%

이 프로젝트 역시, Jan van der Ploeg 처럼, Steunpunt, 즉 거주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들에게 제한된 간호와 Home Hel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된 '부양목적(Point of Support)' 주거 시설이다. 이 건물은 거주자들이나 그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다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그리고 오락적 공간들뿐만 아니라 지역간호를 위하여 사무실도 두고 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디자인 요소는 둘러싸인 거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4개층에 이르는 둘러싸인 형태의 갤러리식 아트리움이다. 중앙 공간은 과일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적으

[사진 5] 거리로 둘러싸인 3개층은 브릿지, 발코니, 복도의 3차원적 네트워크로 계획하여 거주자들과 손님들이 보다 쉽게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복도식 거리를 걸어내려가 보면 친근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제공: Sybolt Voeten)

[사진 6] 그 거리(the street) 한쪽에 면해있는 주거세대로 들어가는 소규모의 진입구 발코니에는 그 공간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또다른 길이 만들어져 있다.

[사례도면 7] 배치도: 대지는 Breda 변두리 교외주거용 소규모쇼핑지구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16세대의 'lean-to' 주거가 대지 남단에 있는 그림같은 호수에 인접하여 그 건물 동쪽편에 위치해 있다.

1-3-3. BERGZICHT, Breda, 네덜란드

설 계 : Architectenburo ir Frits Haverman
bv Breda, 네덜란드

건축주 : Woningbouwvereniging Volkshuisvesting Breda Breda, 네덜란드

건축연도 : 1990년

건물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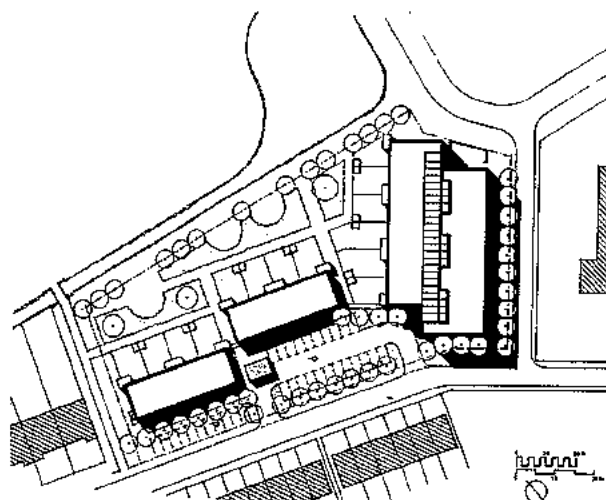
가. 세대 수 : 58

나. 층 수 :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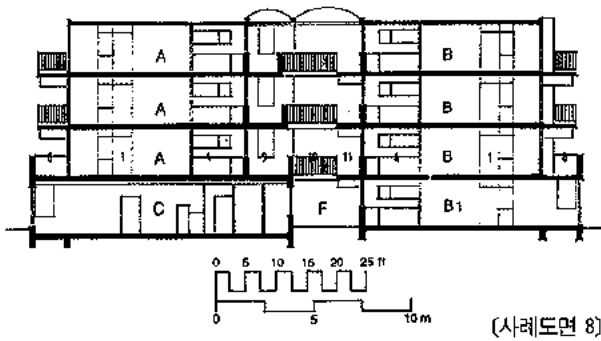
다. 배 경 : 교외

라. Housing type(거주형태) : Steunpunt Housing

마. 건물설계기본개념/모양 : 둘러싸인 거리



(사례도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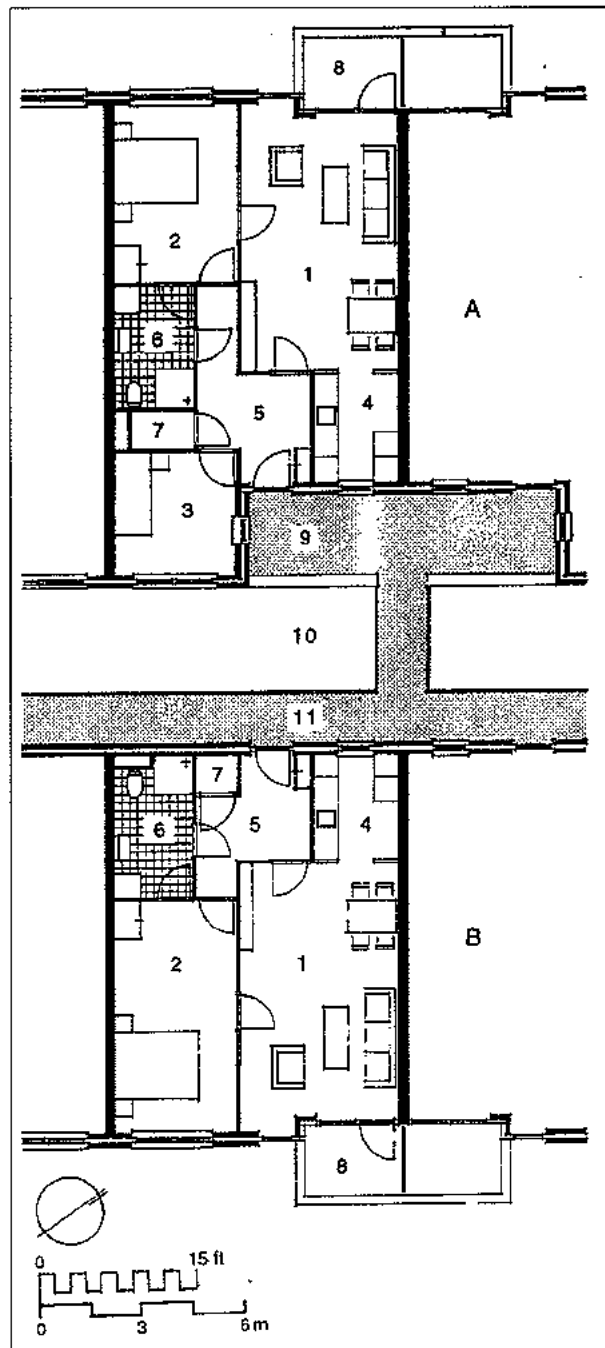
(사례도면 8)

로 열리는 온도조절 환기구멍이 달린 투명하고 반원형의 돔들로 덮여져 있다. 주거세대에는 둘러싸인 거리로 열릴 수 있는 문과 부엌창이 있다. 세대의 절반가량은 아트리움내에 보호된 Entry Patio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엔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식 발코니형 복도를 계획하여 유닛으로의 접근성을 제공했고, 거주자들로 하여금 층과 층사이에서 서로 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건물 블록사이에 있는 아트리움의 넓이는 지면까지 빛을 좀더 많이 받도록 2층에서는 10.5피트, 3층과 4층에서는 11.5피트와 12.5피트로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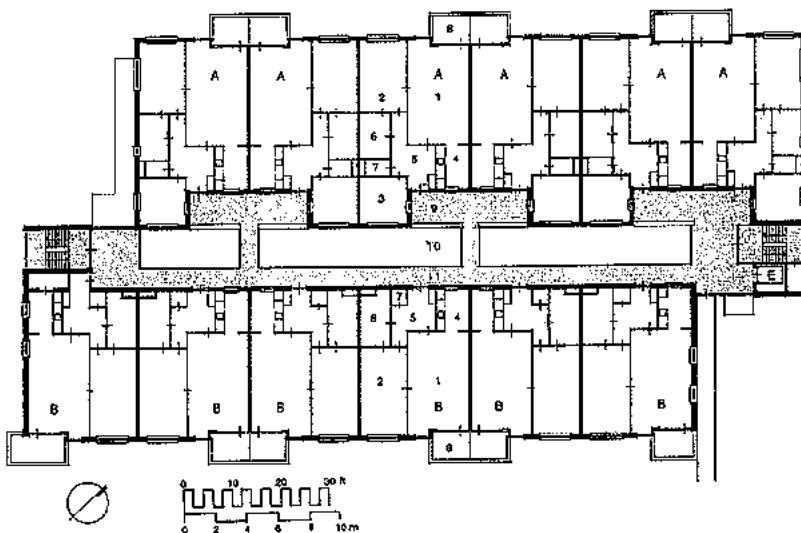
[사례도면 8] 건물 단면: 둘러싸인 거리는 건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폭도 점점 증가한다. 1층 북쪽면에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있는데, 건물 거주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까지 개방되어 있다.

[사례도면 9] 단위세대 평면: 하나의 단위세대는 Entry Porch와 발코니 둘다 있으며, 1층에 있는 6단위세대들은 꽃과 채소를 기를 수 있는 넓은 외부공간을 가지고 있다. A단위세대의 제2침실이 어떤식으로 그 둘러싸인 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주의깊게 볼것.

[사례도면10] 2층 평면: 각 기준층에서 보면, 둘러싸인 거리 한쪽 측면에 6개의 2침실형세대가 위치해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6개의 1침실형세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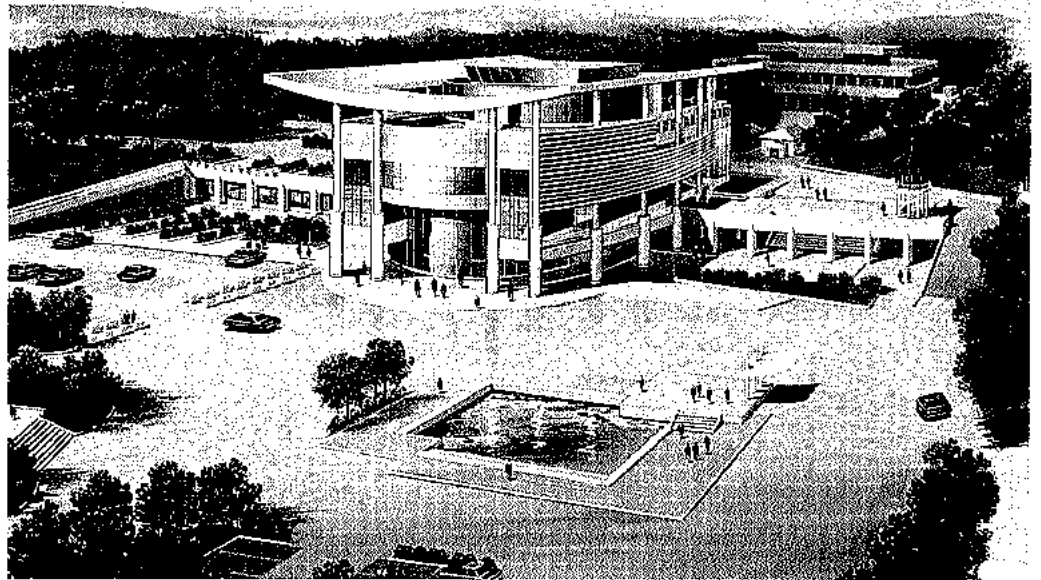
(사례도면 9)



A=2인 침실
B=1인 침실
C=공용실

1.지실
2.안방
3.침실
4.부엌
5.현관
6.욕실
7.창고
8.발코니
9.복도
10.아트리움
11.복도

(사례도면 10)



조감도

판문점 '자유의 집'

The P'anmunjŏm 'House of Freedom'

판문점 '자유의 집' 설계경기 결과가 지난 6월 20일 공식 발표되었다. 조달청이 통일원의 '자유의 집' 개축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설계를 공모하고 3월 29일까지 총 12개의 작품을 접수받은 결과 주. 담건축(오평국)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주. 모양건축(곽동희), 한메건축(이충기)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는 정명현(홍익대, 심사위원장), 이선구(숭실대), 조대성(성균관대), 이호진(건국대)교수와 이준구(남북회담 사무국 실장)씨 등 5명이 맡았다. 당선된 주.담건축의 안은 자유의 집이라는 건물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통일을 소망하는 의미로 두 손을 합장한 형태로 하였으며, 지붕은 강토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방패연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1층에는 남북출입구와 이산가족 면회실이, 2층에는 남북통로 및 회의실, 3층에는 남북연락사무소와 다목적 예비실, 4층에는 90층 규모의 전망대가 위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97년쯤이면 판문점 자유의 집이 통일의 소망을 안고, 단아하고도 힘있는 모습으로 자리할 것이다.

당선작

담건축(오평국)

대지위치/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불문리 판문점 내

건축면적/2,957.94㎡

연면적/5,185.78㎡

규모/지상 4층

주차장면적/2,4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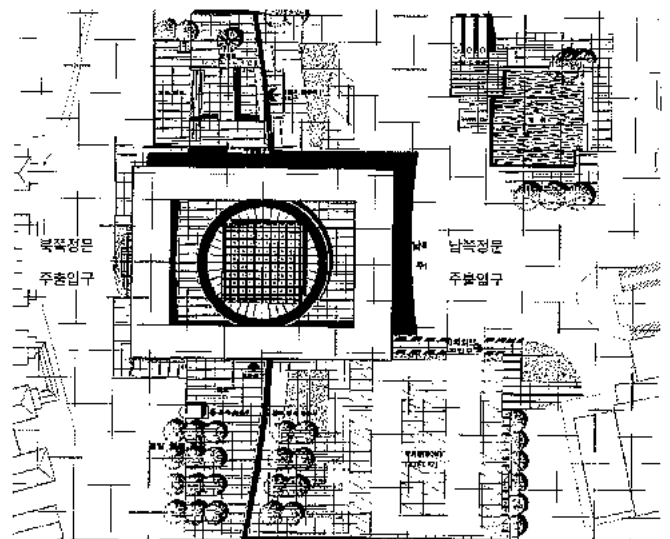
주차대수/93대

구조/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해발 32.8m

승강기/17인승 2대

설계담당/김정태, 이병환, 고명화, 이병찬, 전유진, 배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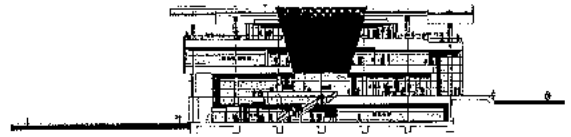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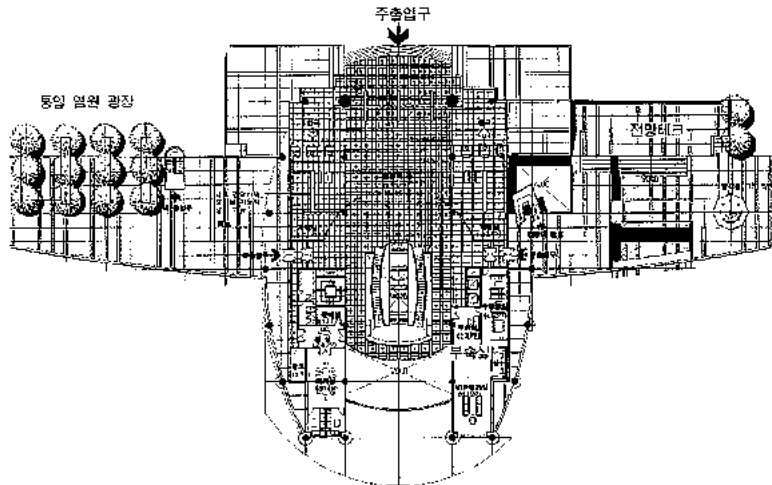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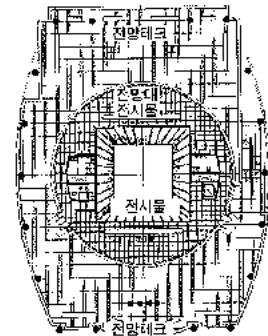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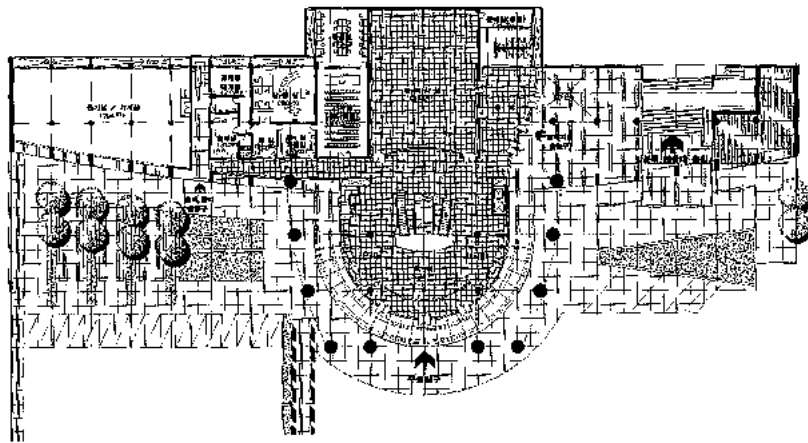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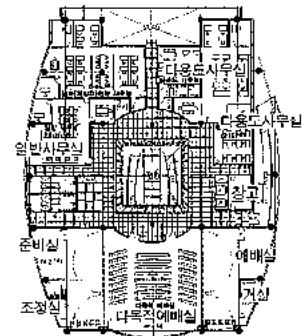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우리 이처럼 아픔이 없다.(분단)
우리 이처럼 고민이 없다.(건축)
우리 이처럼 소망이 없다.(통일)

역사와 현실과 미래가 존재하는 건축으로

남쪽으로 보여지는 지층부(1층)는 북을 향해 포옹하듯 회랑으로 둘러쳐 경건한 간장감으로 우리의 민족사, 역사성을 상징하는 단을 깔고 있다.

이 건물 볼륨은 통일을 기원하는 두손을 합장하듯 소중히 모아진 형태로 양측면에 통일을 기원하는 작은 소망들(이산가족 재회, 서신 왕래,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국민적 의지를 건축물 외피에 작은 띠로 형상화시켰다.

공간은 한민족 하나임을 의미하는 상징적 원형공간이 1층에서 지붕까지 자리한다.

평온으로 드리워진 평화의 지붕

은 전통 팔작지붕 처마선을 따라 비상하고 지붕평면은 방패연 모습의 구성미가, 지붕위로는 내나라 내강토를 수호하는 의미와 지붕 밑으로는 환화와 기쁨이 열린 공간이 본 건물에 질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우리 거울에 내일이 되는 미래의 창은, 공간의 극적인 연출을 위해 역피라미드형태로 하늘을 향해 열려 남북통과 교통시 하늘빛으로 몸을 씻긴다.

소망의 문(남쪽)은 전통건축물류의 건축적 점지성으로 한국적 건축 어휘속에 띄워진 공간밀도로 통과시 통일의 짐이 느껴도록 하고, 평화의 문(북쪽)은 안정된 기단위로 풍요하게 나눠진 유리구성과 전통문양의 민족적 신뢰감 속에 넓고 깊은 문의 흡입력을 통해 자유민주 사회로의 진입을 느끼도록 하여 소망의 문과 평화의 문은 동시에 열린다.

우수작

모양건축(곽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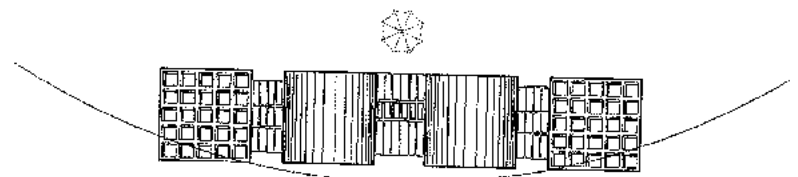
건축면적/1,790.9㎡

연면적/5,1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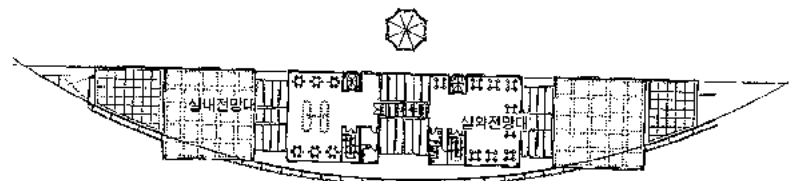
규모/지하1층, 지상4층

구조/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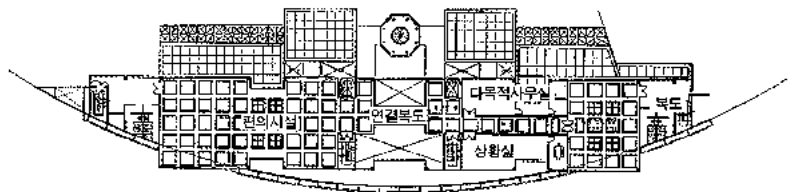
외장재/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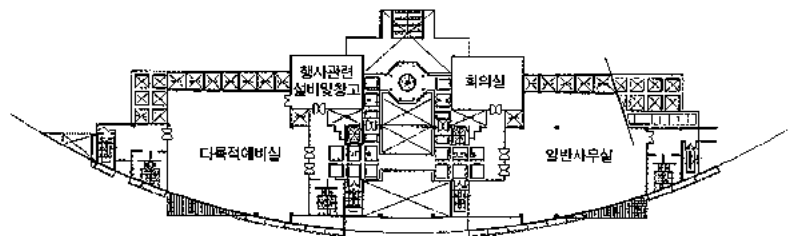
지하층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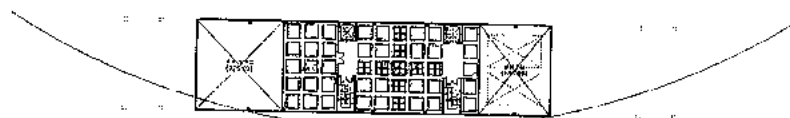
3층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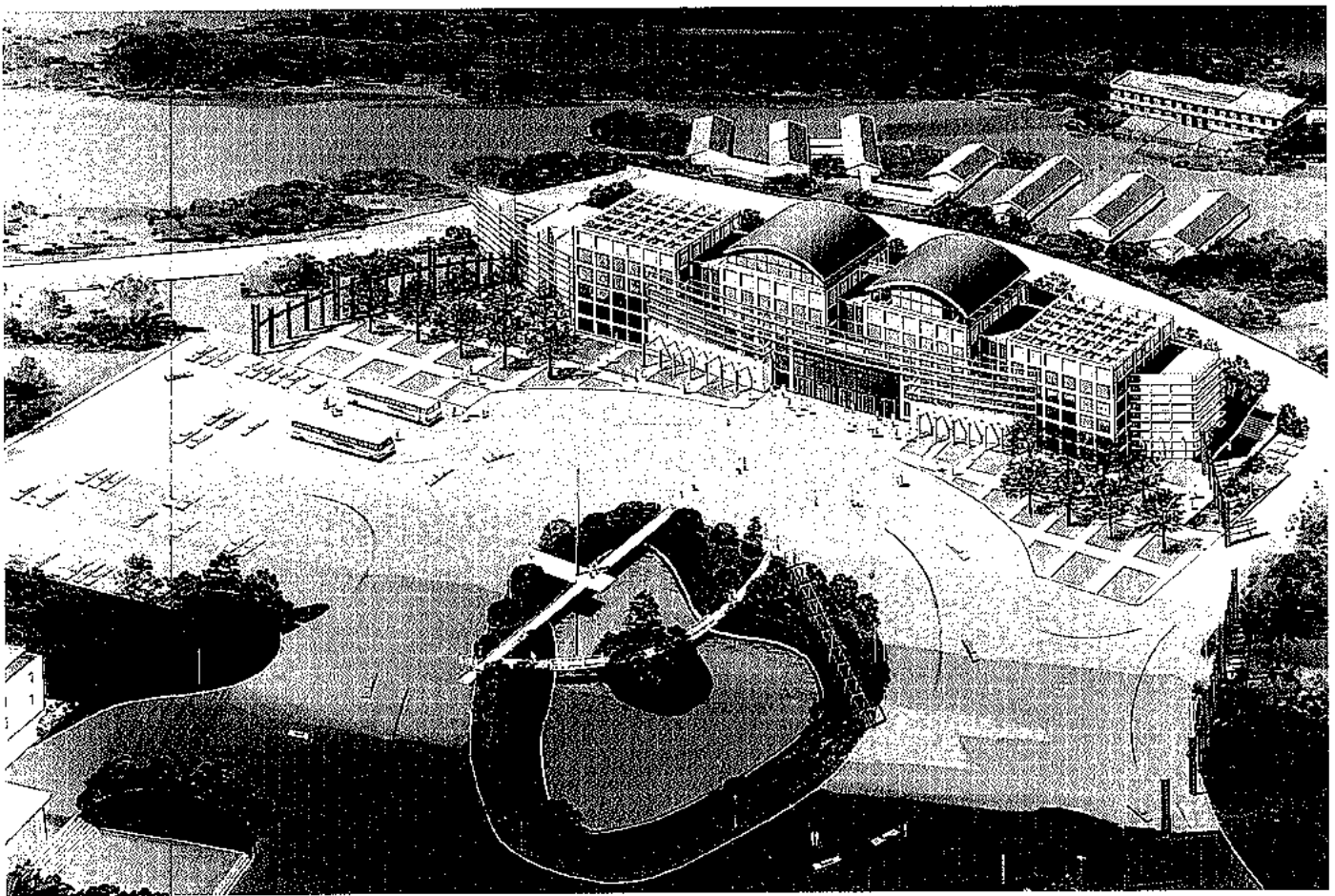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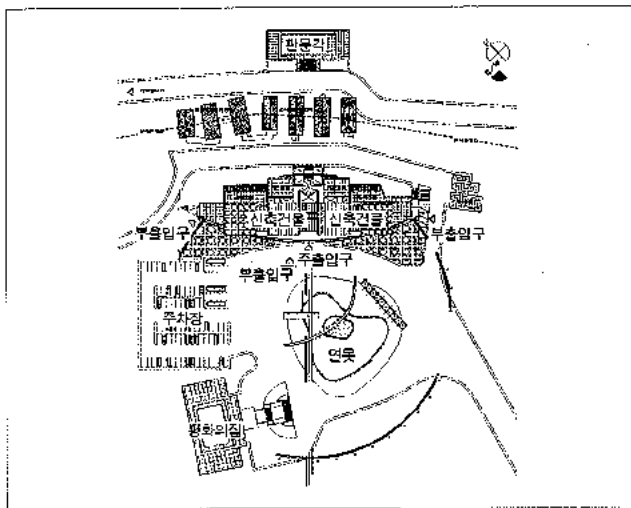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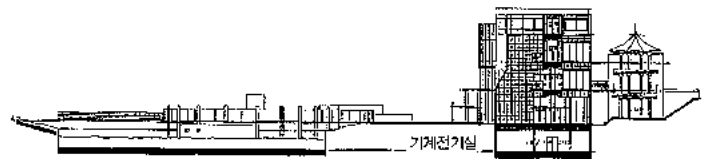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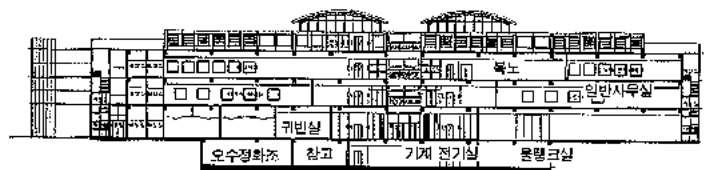
조감도



배치도



주단면도-1



주단면도-2

이 계획(안)은 '시간의 흐름속에서 이 시대의 자유의 집'이라는 단순한 명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남과 북의 분단,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단절, 우리의 이것을 속도감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방향성을 씌움으로써 극복하고자 한다. 현존 자유의 집은 이 땅, 이 시대에 대한 커다란 상징물로 기억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다음세대에 이 시대의 상황을 인식 시킬 수 있는 상징물이기에 최대한의 보존을 전제로

하고, 기능과 변화의 규모에 대해서는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공사기간, 건축공간의 한정으로 임시 사무실은 별도의 설치없이 현존 자유의 집을 이용하고, 덧붙여지는 공간의 완료이후 개·보수를 통하여 기존의 형태입면을 살리면서 기능은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였다.

통일광장시대에 중추이나 광장의 지원시설 배후공간의 설정, 이 일대의 새로운 성격규정 등 추후 상황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건물의 위치를 중심으로 덧붙여 나가고 전면의 광장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광장은 건물의 흐름과 어울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30분 간격의 열주분을 형성하고 판문각, 정전위 사무실, 자유의 집, 연못 등의 일련의 시설은 최대한 공간을 열어주면서 끝나지 않는 공간을 형성하였다.

기능의 수용에 있어서는 현존 자유의 집 양날개를 중심으로, 임시 사

용공간, 향시 시용공간으로 분리함과 아울러 정·동의 동선을 분리 별개의 수직동선으로 확보하였다.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간은 출구로부터 가능한 먼 곳으로 위치시켰다.

통일 광장시대를 맞이할 때 덧붙여진 이 계획안은 현존 자유의 집 배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수작

한메건축(이승가+전인호+박명협)

건물면적 / 1,795.34㎡

연면적 / 5,11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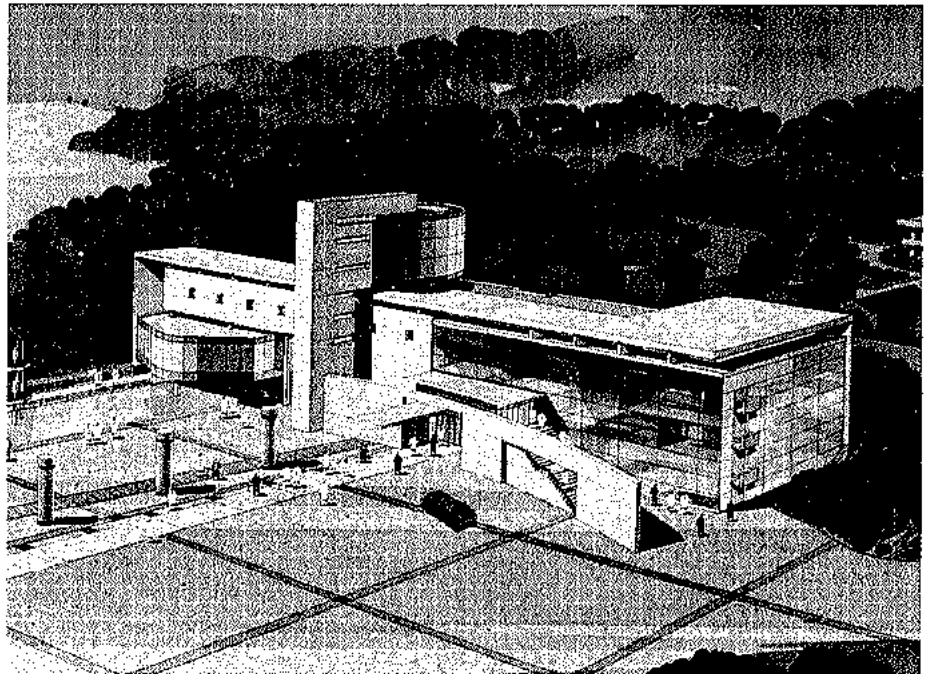
규모 / 지상5층

구조 / 철골조, 일부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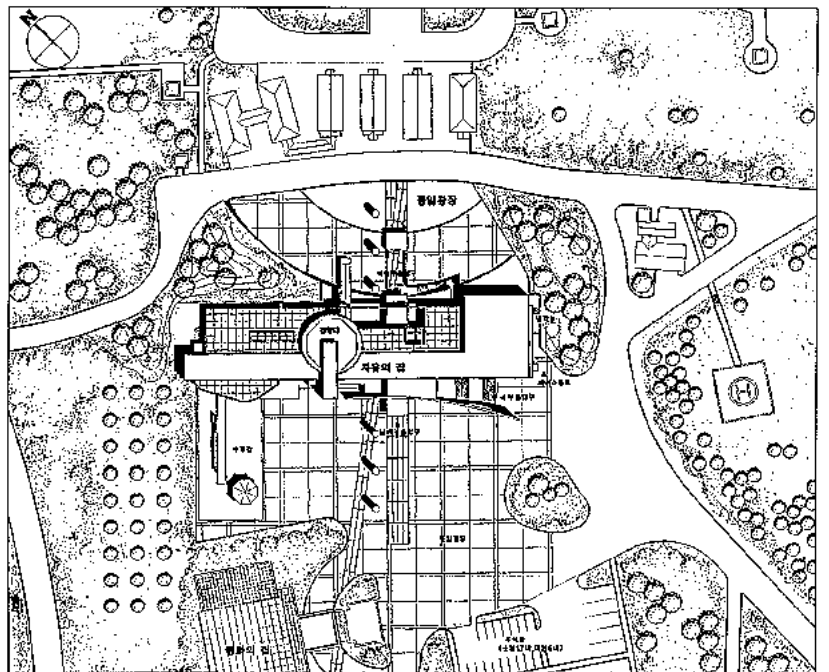
외장재 / 화강석, 복층유리

저 청청한 하늘
저 흰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김지하 "새" 중에서—

무려 60개회사가 참여했던 임진각에서의 현장설명회.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질문과 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창밖 저 멀리에서 무리지어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자유의 새"들을 보았다. 이어서 판문점 "자유의 집" 현장, 100m도 채 안떨어진 거리에서 경직된 북한군 병사의 얼굴을 보았다.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이 솟았고 형용하지 못할 그 무엇은 이산의 아픔과 함께 내 가슴에 각인되어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한 시인이 들려준 노래는 "새"였다.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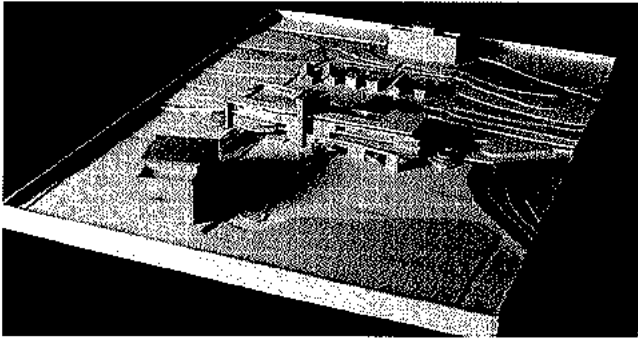
배치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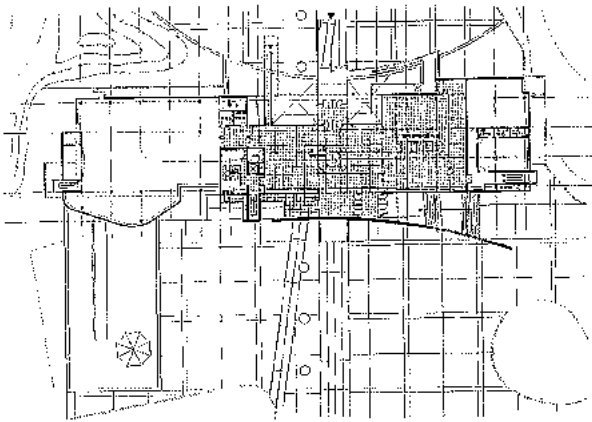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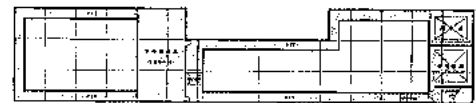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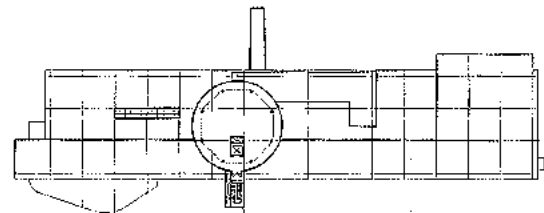
단면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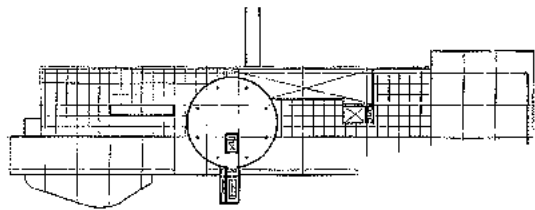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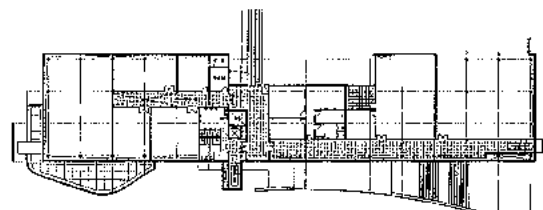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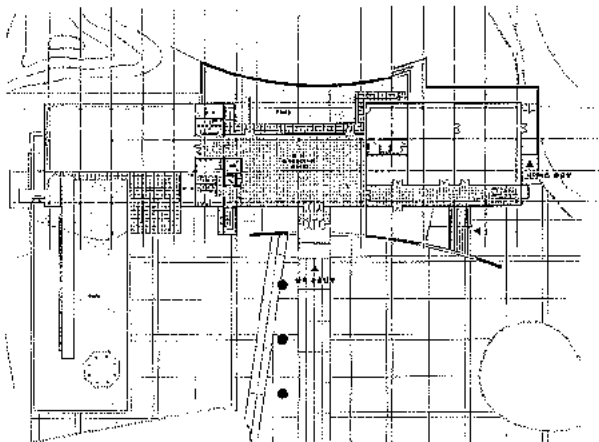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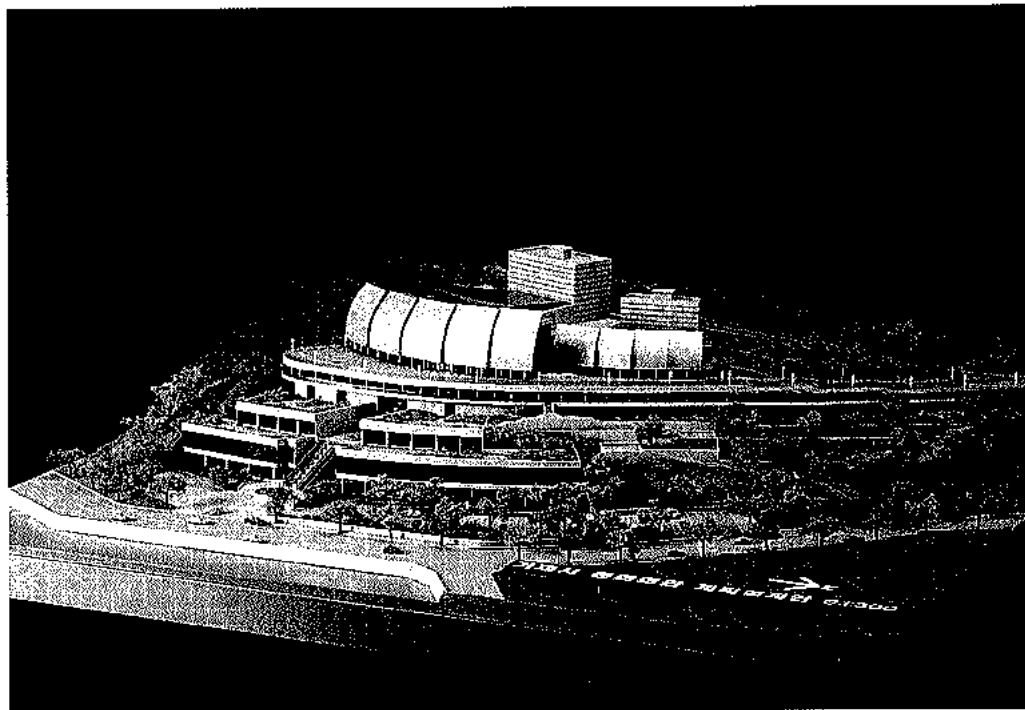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북측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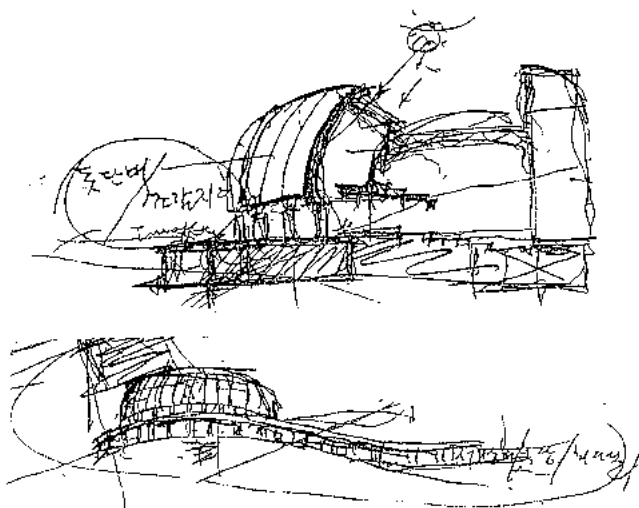


조감도

거제문화예술회관

Keoje Culture & Art Center

지난 5월 21일 발표된 거제문화예술회관 설계경기에서 (주)아도무건축(장석웅)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거제문화의 특색을 최대한 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타 지역과 비교해 보다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조형미와 공간 구성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현상설계에는 총 4개팀이 작품을 제출, 대건건축(곽은영), 라인건축(송이호)의 안이 각각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거제문화예술회관은 올 12월에 착공하여 98년 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가작 중 대건건축의 안을 게재한다.



이미지 스케치

당선작

아도무건축(장석웅)

대지위치/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29-33번지 일원

지역/일반주거지역

용도/관람집회시설

대지면적/21,325.5㎡

건축면적/5,9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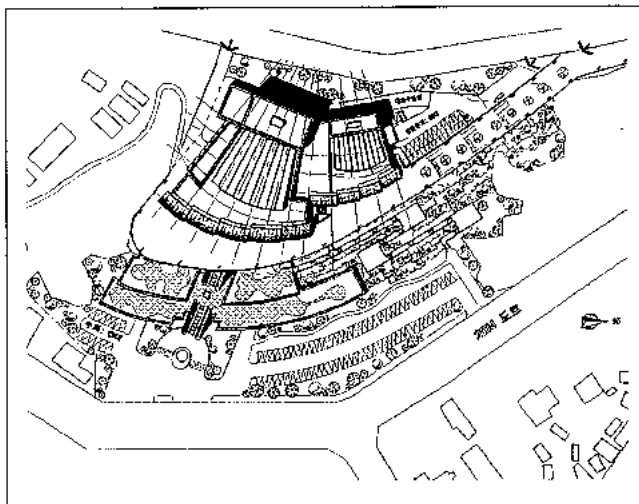
연면적/15,494.7㎡

건폐율/28.1%

용적률/73.6%

규모/지하2층, 지상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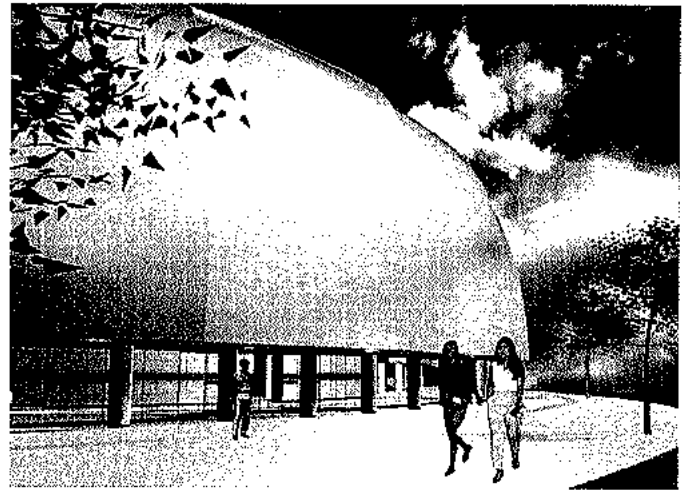
주차대수/6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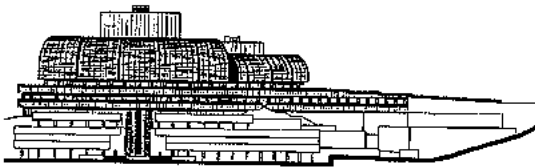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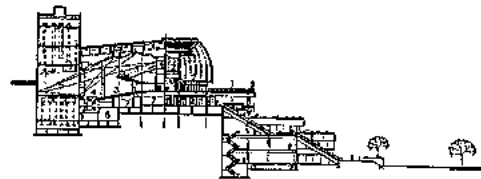
CAD 모델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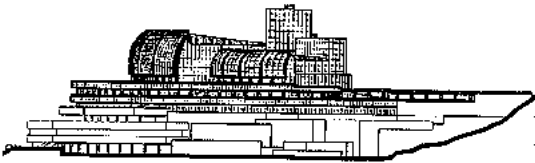
CAD 모델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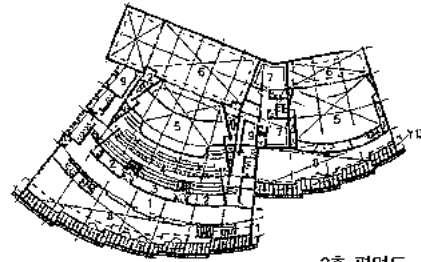
정면도



대극장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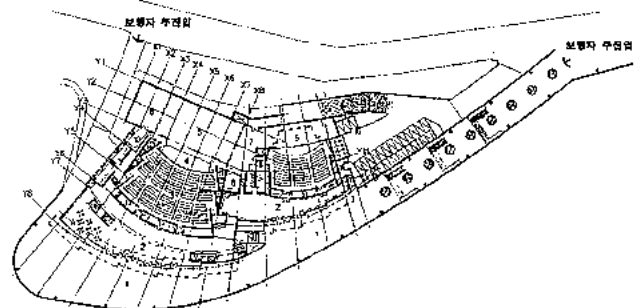
우측면도



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순풍에 항진하는 “돛단배의 형상”!

이것이 거제시가 가지는 조형적 의미이다.

이러한 조형적 요소를 장승포 항구언덕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갖춘 거제시의 랜드마크를 조형화 하려고 한다.

남해 바닷가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보고, 조선공업의 메카이며 해양산업의 전진기지인 거제도에 또하

나의 의미를 부여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

도시와 농촌간에 문화수혜의 격차가 심한 산업사회의 현실 속에서 거제시민에게 또다른 자긍심을 부여하고 묻혀있는 향토예술을 발굴, 육성하고 세계적 문화행사를 유치한다.

배움과 연구, 휴식과 즐거움의 문화적 장소로 설립될 이곳은 대·소 공연장, 전시장, 집회시설 및 휴

게시설을 비롯하여 실내수영장, 볼링장 등의 종합체육시설과 수익성 높은 유통판매시설이 갖추어진다.

이러한 시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제시민의 생활의 멋과 즐거움을 줄 멋스러운 공간이 될것이다.

배치계획

-대지 서측면에 위치한 산과, 남측면의 장승포항이 지나는 조망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전면부 설정

에 의한 정면성 부여

-배면의 막한공간과 전면의 트인공간이 조화되는 방사형 배치

-협소한 대지여건상 전체기능을 포함한 매스와 2단계 계획대지에서 연계되는 두 진입동선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선형적 요소인 텍크도입

-텍크를 매개로 1단계계획인 문화시설 존과 2단계계획인 레포츠 및 수익성시설 존을 연결

가작

대건건축(곽은영)

대지위치/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429-33번

지 일원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9,900㎡

건축면적/3,290.40㎡

연면적/8,967.19㎡

건폐율/3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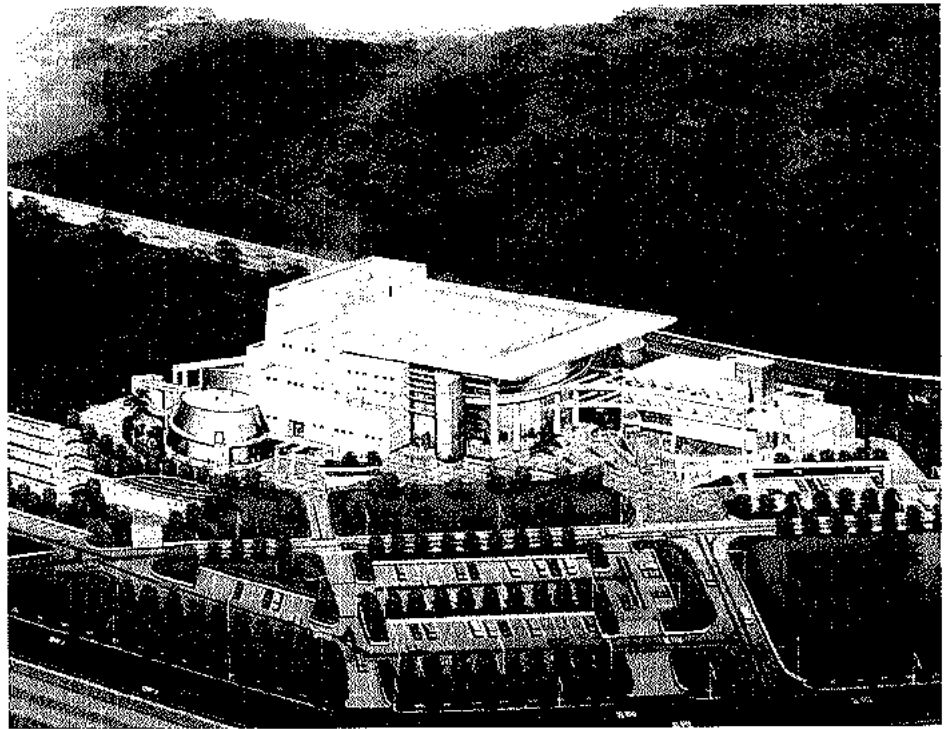
용적률/55.82%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트러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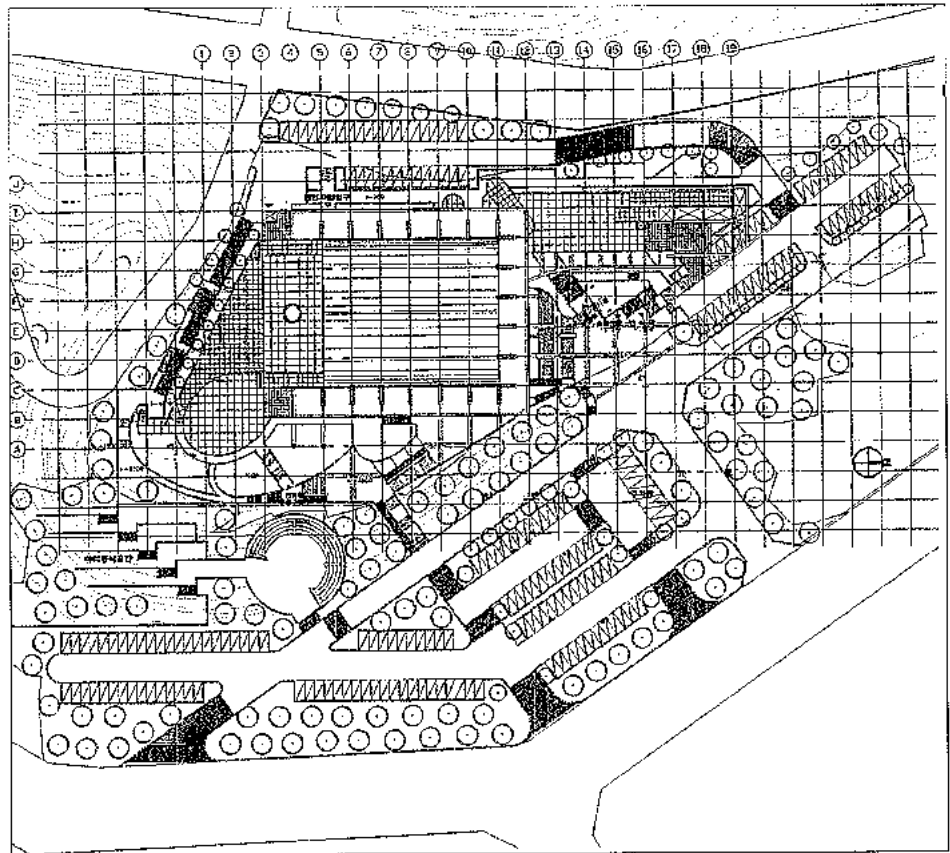
규모/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화강석, 버너구이+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패널



조감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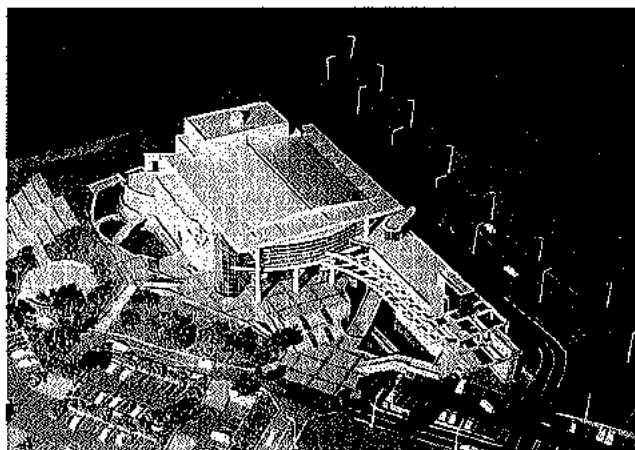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기본설계는 지역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계획의 기본개념으로는 기본적 공간대를 형성하는 우리의 장소와 시민의 삶의 연장선에 있는 거제시 그 자체의 장소를 만드는데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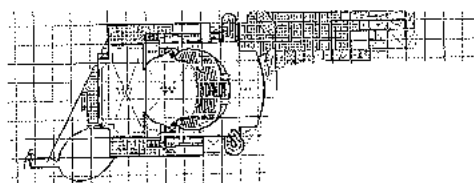
또한 거제문화의 특색이 부각될 수 있는 이미

지표현을 하고자 하였으며 공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구분계획 및 상호연계성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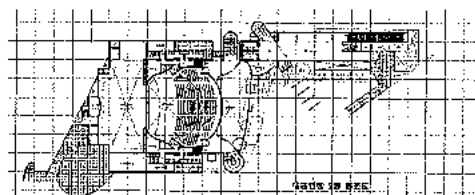
전체적인 대지형태가 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어 토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였다. 토지의 Zone은 문화예술회관 공간, 전시 공간, 옥외공간, 후생공간 등 6개의 Zone으로 토지를 구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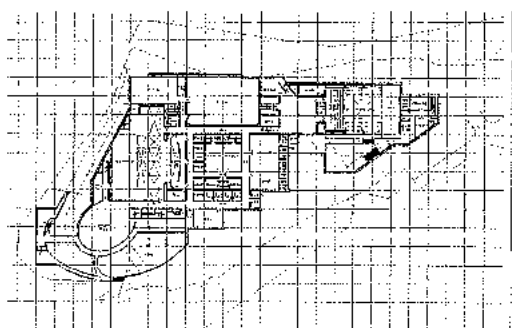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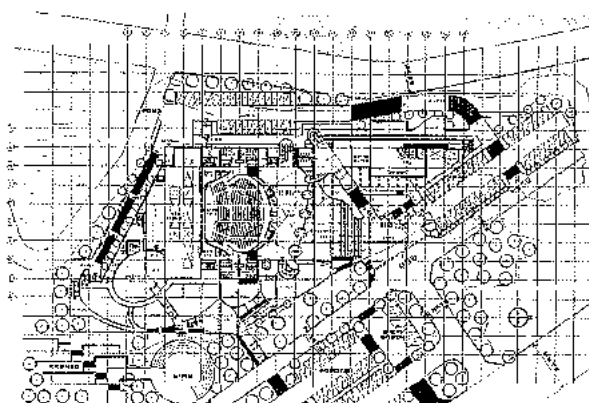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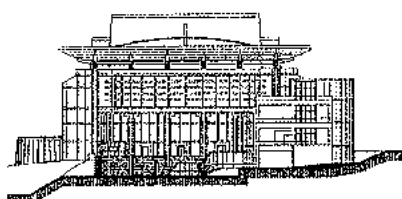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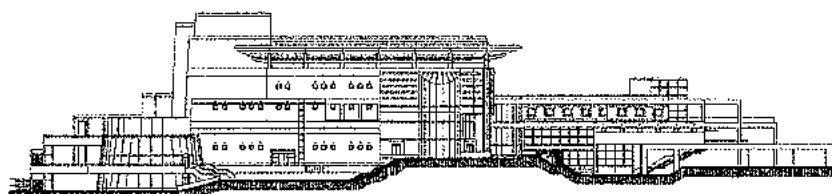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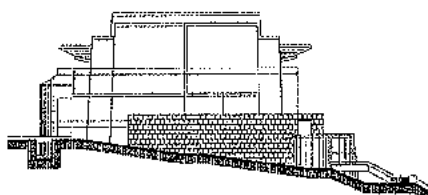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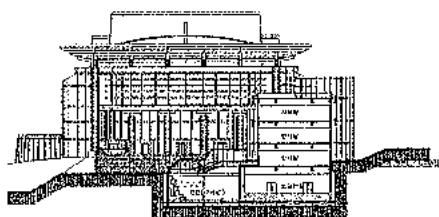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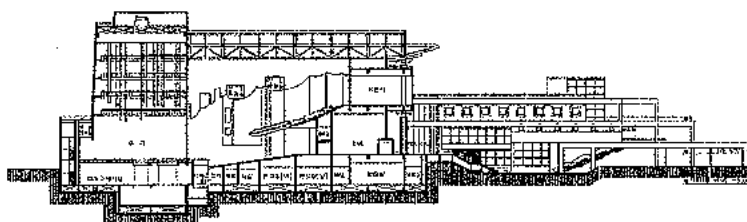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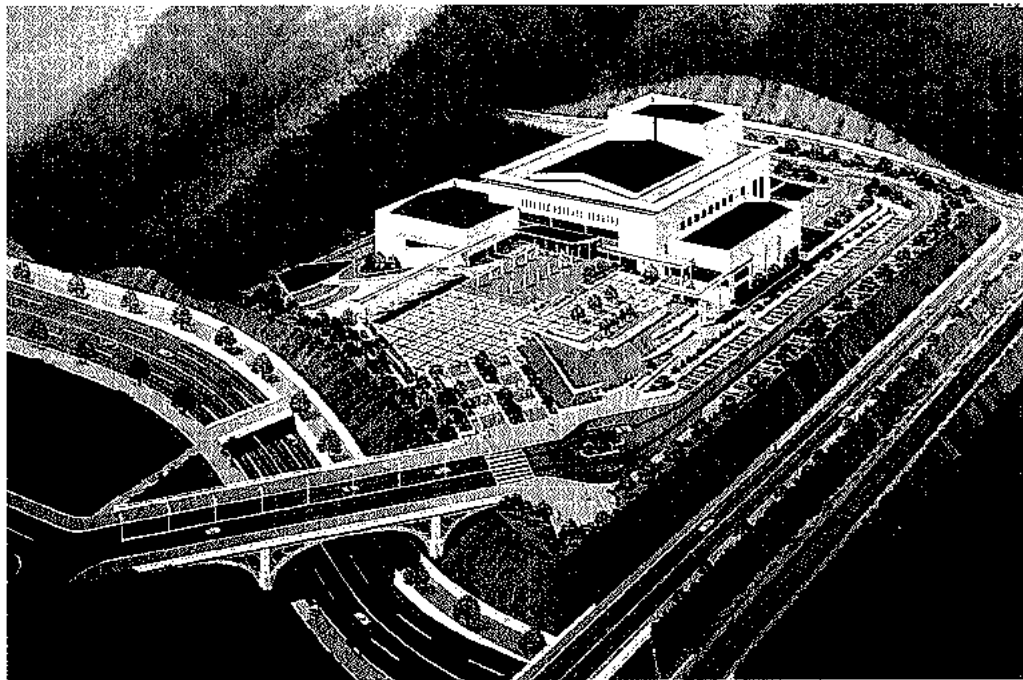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조감도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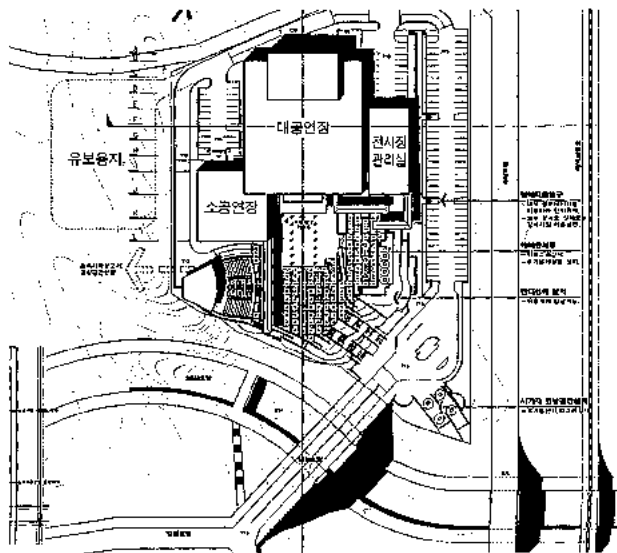
Taebak Culture & Art Center

지난 6월 13일 태백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설계경기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당선작은 (주)에가람건축(구정회)의 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이일건축(박광범), 이송건축(이영우)의 안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태백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사회공동체意識의 함양을 기하며, 시민화합의 전당으로서 다목적 종합시설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설계경기는 4월 15일 현장설명회 있었고 5월 31일 접수마감으로 총 7개 사무소가 작품을 제출했다. 당선된 (주)에가람건축은 20m의 대지차로 인한 진입시의 어려움을 진입교량을 설치함으로써 용이하게 유도한 것이 당선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2층의 규모로 지어질 이 문화회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관리, 사무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는 98년을 원공목표로 하고 있다.



우측면도



배치도

당선작

에가람건축

(구정회+이창우+김호경)

대지위치/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9-225외 9필지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15,539.22㎡

사실내용/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옥외

공연장 등

규모/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3,626.03㎡

연면적/5,933.53㎡

건폐율/23.33%

용적률/25.59%

조경면적/2,500㎡

구조/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철골트러스

최고높이/24.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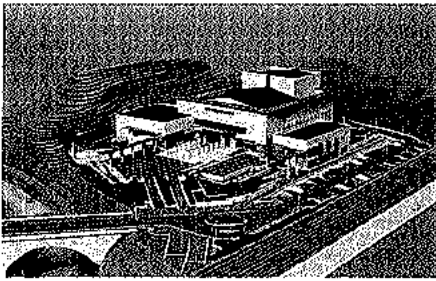
주차대수/옥외 118대(별정: 40대)

외부마감/벽-회강석베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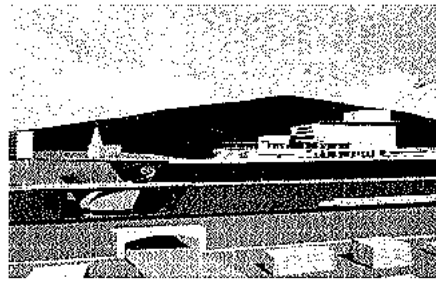
창호-16mm목층유리

지붕-복합단열패널+에틸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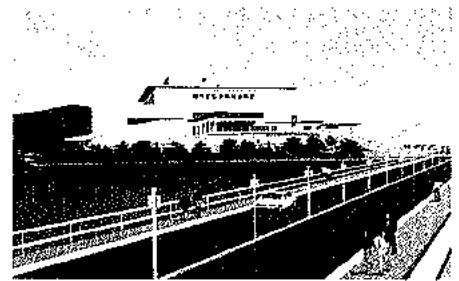
캐노피-알루미늄이노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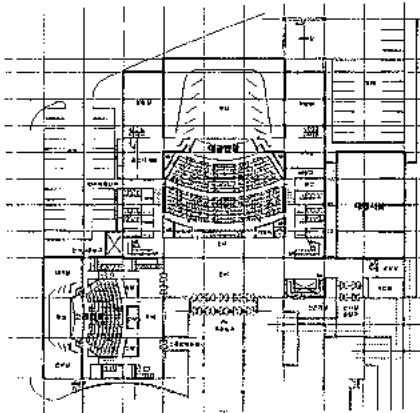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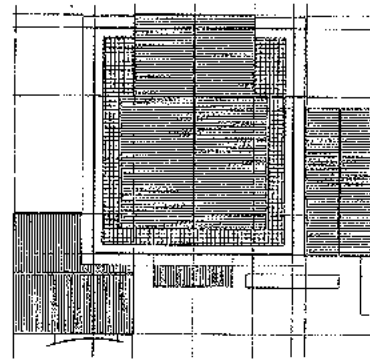
CAD 모델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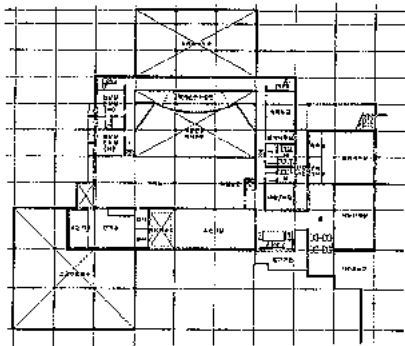
CAD 모델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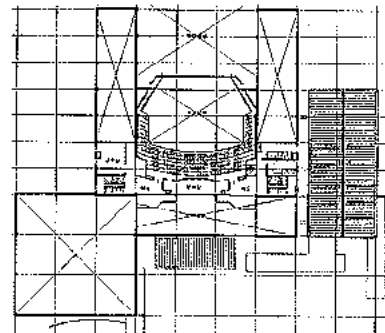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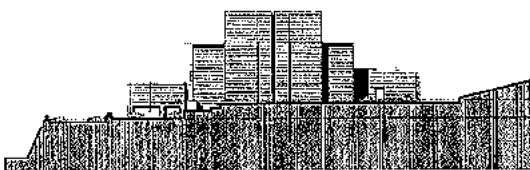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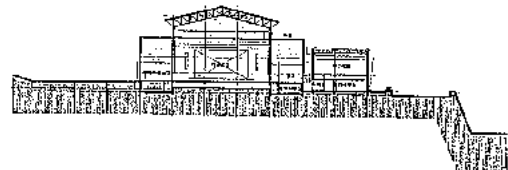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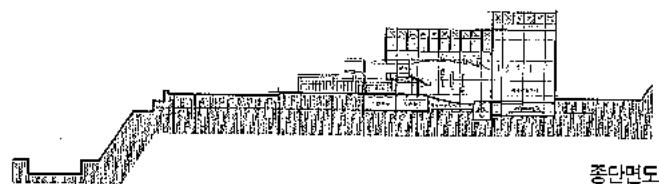
배면도



횡단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택시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상징성을 표현하고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지내의 높아차가 20m 이상 되는 경사지이기 때문에 시가지와

남측 25m도로 동측의 우회도로, 태백선 철도로 분리되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남측 25m도로면은 대지의 낮은 부분이, 도로보다 10~20m높은 위치에 있어 차량의 직접접근이 불가능했다. 또한 동측의 우회도로

는 8m의 폭으로 좁고, 속도가 빠른 도로이며 대지보다 10m높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인 설계계획의 방향은 경사지의 특성을 살린 자연스러운 배치계획, 토사의 절취를 최소화하여 공사비절약 및 자연훼손 방지,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에 부합되는 안전한 진입로 확보, 장애자와 노약자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동선 체계화립으로 잡았다.

우수작

이승건축(이영우)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9-225외
9필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36,821㎡

건축면적 / 4,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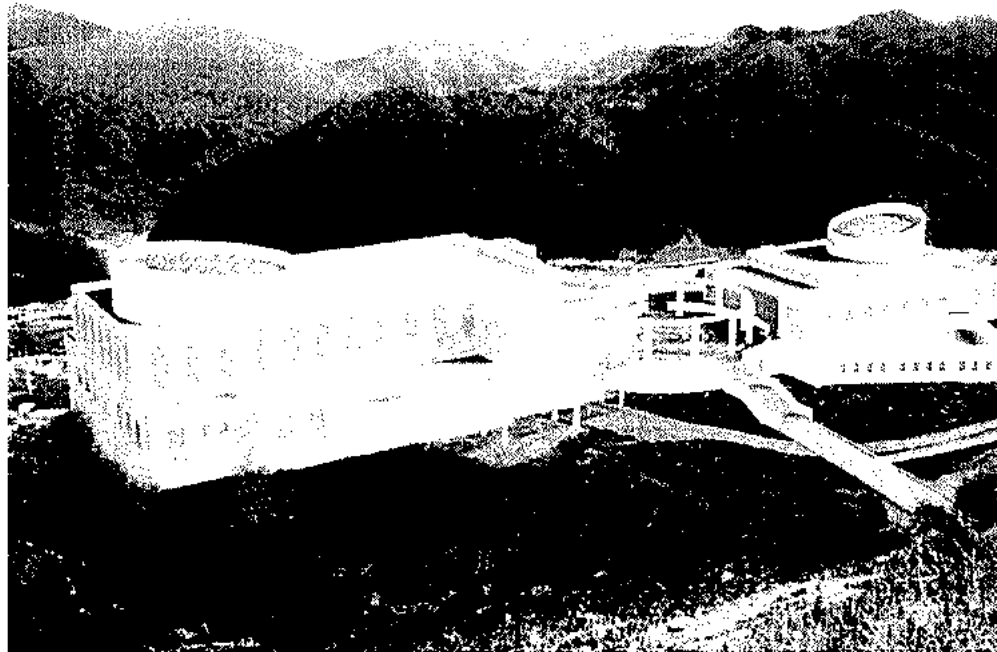
연면적 / 5,899㎡

건폐율 / 1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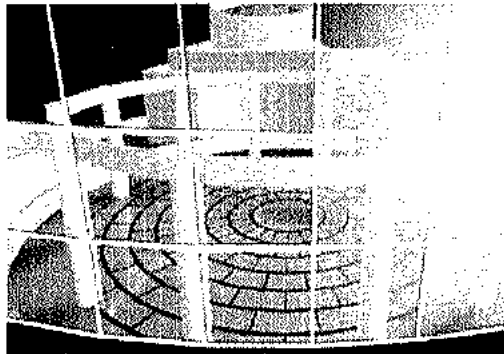
용적률 / 16.02%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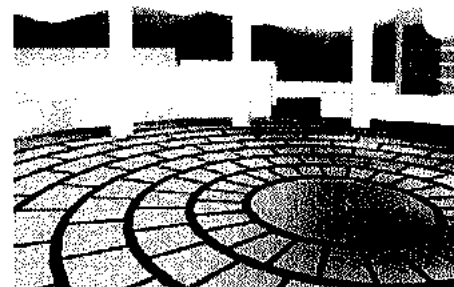
외부마감 / 화강석 베너구이, 알미늄 복합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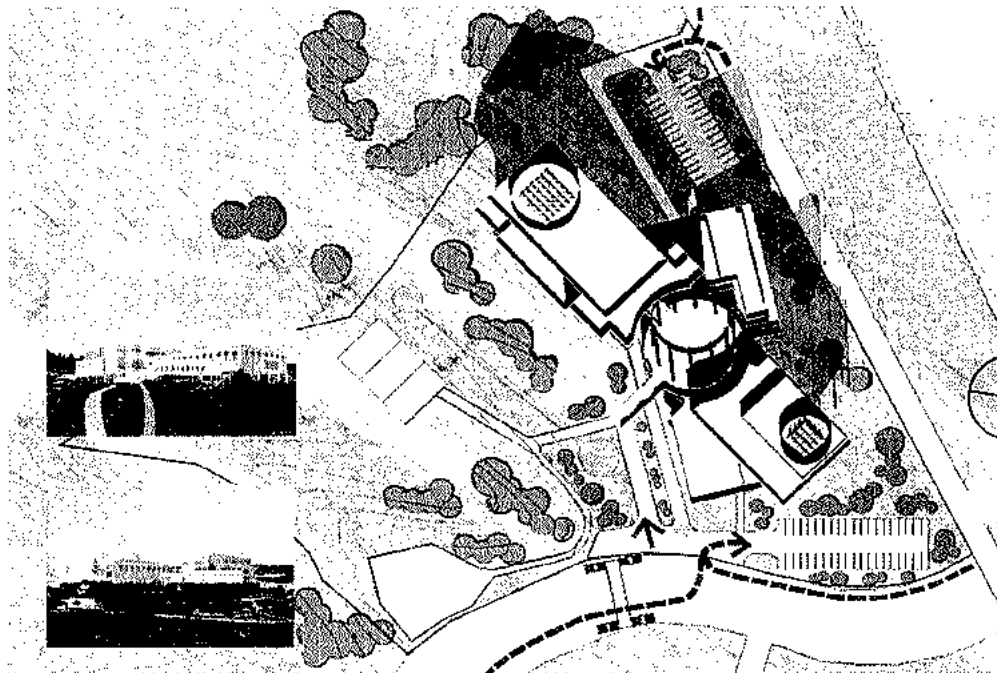
조감도



CAD모델링(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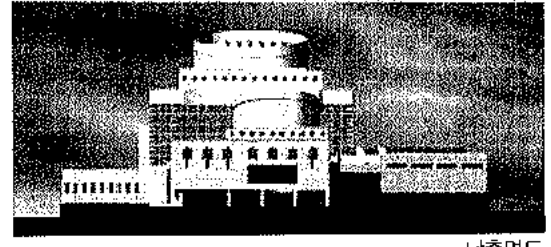
CAD모델링(중정에서 본 태백시가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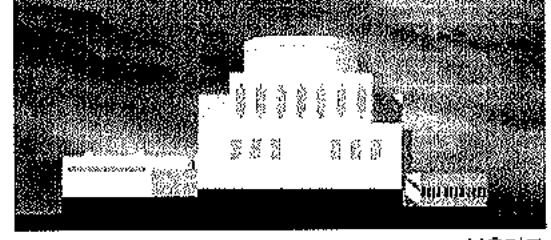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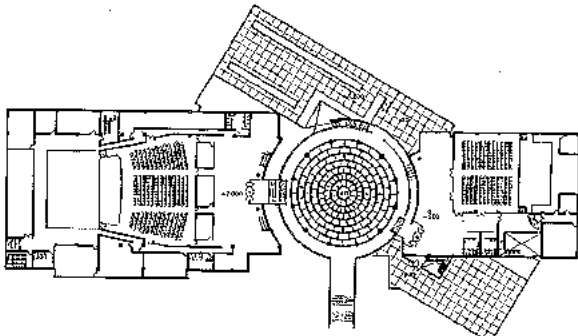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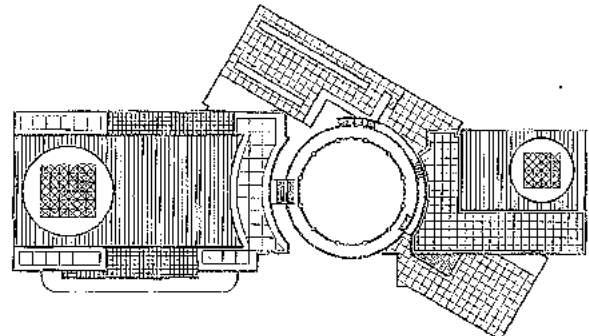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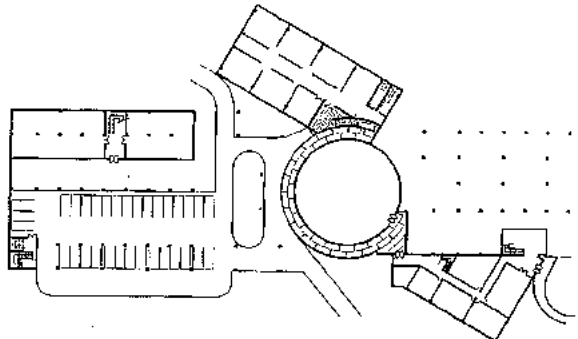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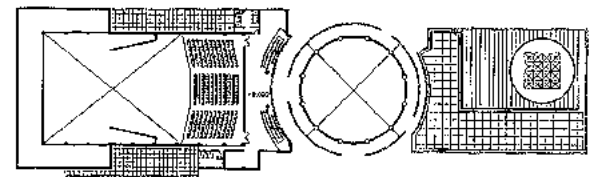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계획개념

-기능성

- 태백의 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미래지향적 배치 및 평면 구성
- 지형과 인식의 거리 및 각도를 고려한 다양한 외관구성
- 인간적인 척도를 고려한 공간구성 및 입면계획

-상징성

- 외부공간에 중정을 형성하여 태백 및 황지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
- 위계적 질서를 부여한 공간 구성으로 Monumental Image 강조

-환경성

-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토지의 효율적 이용

- 물의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과의 친화, 생동감 연출
-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외부공간의 다양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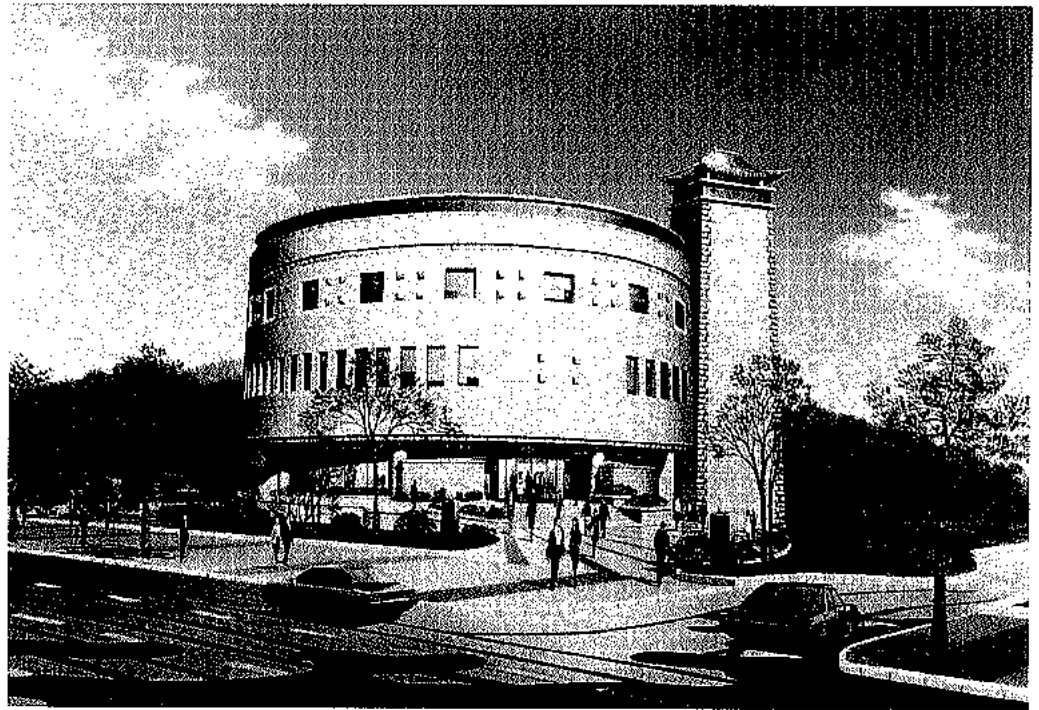
-전통 및 지역성

- 황지의 지리적 의미를 배치개념에 도입

• 가승전결의 전통적 공간체계 순응

-장래성

- 문화의 수용지에서 창조자 역할 부여
- 장래 확장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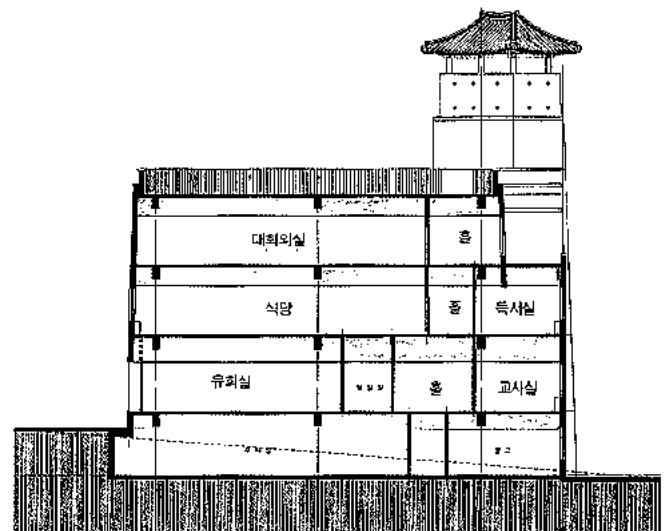


조감도

과천동 다목적 회관

Kwachon Multi-Purpose Hall

과천시는 과천동에 다목적 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6월 20일 우림건축(홍순전+홍강표+최기환)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13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현상설계는 과천지역의 전원도시로서의 특수성과 지역의 전통성을 살리고 주변 동사무소, 등기소와의 효율적 배치로 관문으로 상징될 수 있는 창조적 이미지 표현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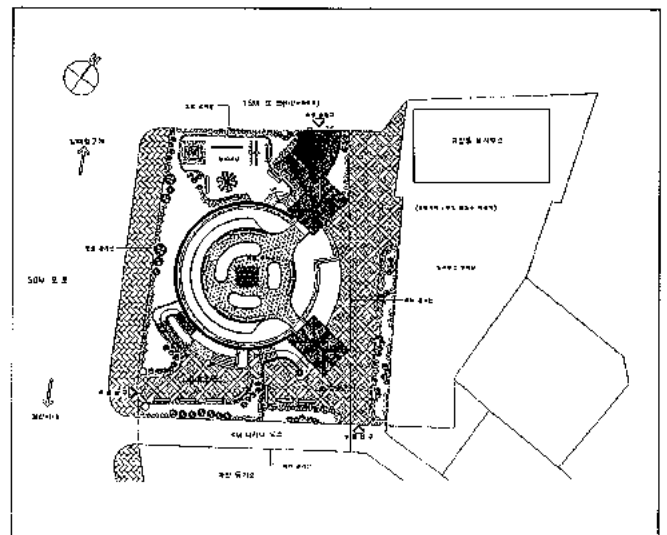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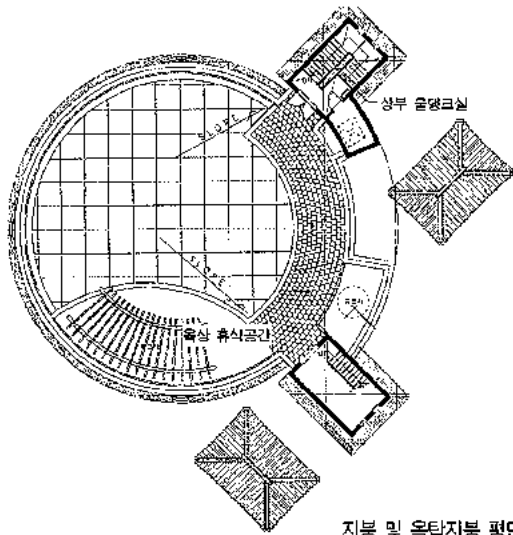
당선작

우림건축
(홍순전+홍강표+최기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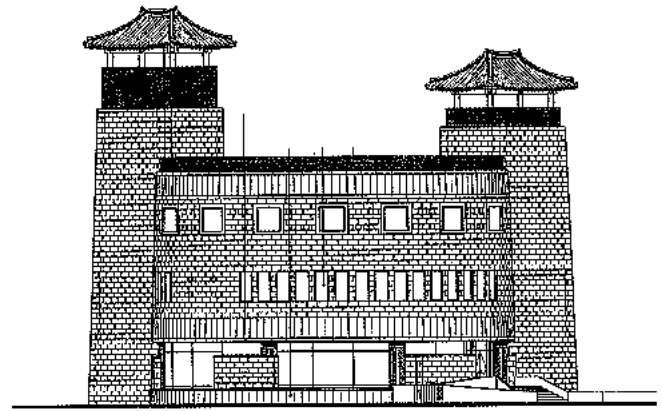
대지위치/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38-9
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1,443.00㎡
건축면적/443.96㎡
연면적/1,996.14㎡
건폐율/30.77%
용적률/87.40%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외장재/화강석, 컬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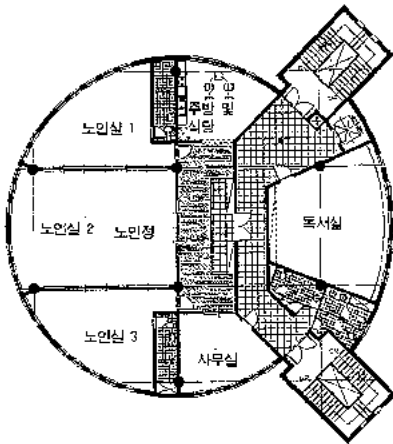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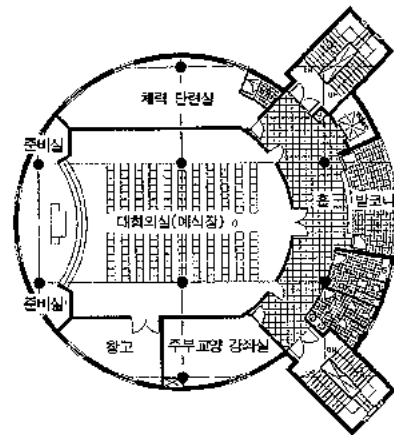
지붕 및 옥탑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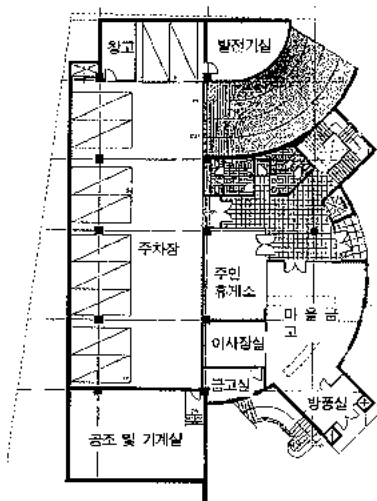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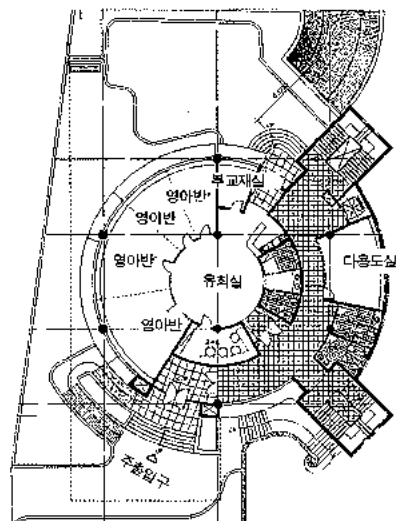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개념

-주변과의 조화
건물을 원형으로 계획하여 북서남
측 3방향의 동시적인 전면성의 부

여로 과천의 관문으로서의 인지성
을 높였으며 주변 공공건물과의 기
능적이고 간결한 동선체계 구축

-동선 및 교통체계

•보행자 동선

서측 50m 주도로에서 출입과 동
사무소에서의 출입으로 계획되었으
며 대지의 고지차를 이용한 원활한
보행자 동선체계 구축

•차량동선

복축복개된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
지하주차장을 형성하였으며 운전자
는 동사무소쪽으로 진입가능케 함.

96년도 6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 1천7십4만1천8백56㎡ 보다 8.7%(9십2만9천8백81㎡) 감소한 9백8십8만1천9백75㎡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6월누계 6천6백9십8만9천9백91㎡ 보다 14.2%(9백

5십2만2천6백28㎡) 감소한 5천7백4십6만7천3백63㎡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5월분 1천8십9만9천7백94㎡보다 10.0%(1백8만7천8백19㎡) 감소한 9백8십1만1천9백75㎡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1,833,272	4,345,825	2,512,553	137.1
부 산	281,263	570,273	289,010	102.8
대 전	168,311	456,912	288,601	171.5
감소지역				
대 구	1,094,263	453,658	(640,605)	-58.5
인 천	428,258	277,001	(151,257)	-35.3
광 주	453,914	278,921	(174,993)	-38.6
경 기	2,547,993	1,233,492	(1,314,501)	-51.6
강 원	459,097	204,770	(254,327)	-55.4
충 북	445,850	257,138	(188,712)	-42.3
충 남	462,383	298,035	(164,348)	-35.5
전 북	506,364	152,031	(354,333)	-70.0
전 남	254,079	192,551	(61,528)	-24.2
경 북	656,701	293,555	(363,146)	-55.3
경 남	966,832	706,391	(260,441)	-26.9
제 주	183,276	91,422	(91,854)	-50.1
합 계	10,741,856	9,811,975	(929,881)	-8.7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5월분	6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1,131,017	1,605,861	474,844	42.0
다 세 대 주 택	650,527	613,698	(36,829)	-5.7
연 립 주 택	178,944	180,814	1,870	1.0
아 파 트	3,468,121	2,560,853	(907,268)	-26.2
근린생활시설	1,710,526	1,982,546	272,020	15.9
종 교 시 설	111,444	81,160	(30,284)	-27.2
의 료 시 설	46,664	233,502	186,838	400.4
교육연구시설	316,488	221,701	(94,787)	-29.9
업 무 시 설	788,552	254,835	(533,717)	-67.7
숙 박 시 설	145,533	220,151	74,618	51.3
공 장	1,217,411	806,832	(410,579)	-33.7
기 타	1,134,567	1,050,022	(84,545)	-7.5
계	10,899,794	9,811,975	(1,087,819)	-10.0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 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863	3,942	951,738	4,823	4,922	1,605,861	960	980	654,123	68.7	
다 세 대 주 택	848	889	377,605	1,050	1,123	613,698	202	224	236,093	62.5	
연 립 주 택	125	126	189,359	133	136	180,814	8	10	(8,545)	-4.5	
아 파 트	185	617	3,892,484	95	162	2,560,853	(90)	(455)	(1,331,631)	-34.2	
근 립 생 활 시 설	3,383	3,516	1,488,872	4,158	4,323	1,982,546	775	807	493,674	33.2	
종 교 시 설	127	157	113,324	116	139	81,160	(11)	(18)	(32,164)	-28.4	
의 료 시 설	17	21	89,427	32	46	233,502	15	25	144,075	161.1	
교 육 연 구 시 설	164	202	459,053	92	98	221,701	(72)	(104)	(237,352)	-51.7	
업 무 시 설	157	172	632,890	98	102	254,835	(59)	(70)	(378,055)	-59.7	
숙 박 시 설	140	156	155,183	138	147	220,151	(2)	(9)	64,968	41.9	
공 장	970	1,305	1,117,093	706	902	806,832	(264)	(403)	(310,261)	-27.8	
기 타	1,159	1,394	1,274,828	985	1,140	1,050,022	(174)	(254)	(224,806)	-17.6	
합 계	11,138	12,507	10,741,856	12,426	13,240	9,811,975	1,288	733	(929,881)	-8.7	()=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6월분)

구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4,645	25,058	6,315,944	21,404	21,916	6,293,549	(3,241)	(3,142)	(22,395)	-0.4	
다 세 대 주 택	4,652	5,441	2,352,032	4,135	4,403	2,563,740	(517)	(1,038)	211,708	9.0	
연 립 주 택	696	741	979,192	597	625	823,161	(99)	(116)	(156,031)	-15.9	
아 파 트	1,029	3,704	23,572,899	626	1,283	19,852,138	(403)	(2,421)	(3,720,761)	-15.8	
근린생활시설	22,111	22,775	10,279,218	19,707	20,586	9,489,393	(2,404)	(2,189)	(789,825)	-7.7	
종 교 시 설	703	813	541,576	612	707	591,129	(91)	(106)	49,553	9.1	
외 료 시 설	143	155	500,089	142	168	510,639	(1)	13	10,550	2.1	
교육연구시설	723	848	2,045,078	515	589	1,655,912	(208)	(259)	(389,166)	-19.0	
업 무 시 설	726	750	3,649,310	489	509	2,293,500	(237)	(241)	(1,355,810)	-37.2	
숙 박 시 설	767	839	1,081,897	757	815	786,408	(10)	(24)	(295,489)	-27.3	
공 장	5,168	7,224	7,706,603	3,909	5,179	5,709,114	(1,259)	(2,045)	(1,997,489)	-25.9	
기 타	6,146	7,493	7,966,153	5,431	6,443	6,898,680	(715)	(1,050)	(1,067,473)	-13.4	
합 계	67,509	75,841	66,989,991	58,324	63,223	57,467,363	(9,185)	(12,618)	(9,522,628)	-14.2	()=미아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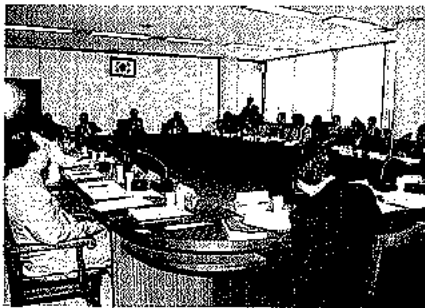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731	1,741	1,833,272	3,177	3,180	4,345,825	1,446	1,439	2,512,553	137.1	
부 산	912	995	281,263	838	1,065	570,273	(74)	70	289,010	102.8	
대 구	1,348	1,450	1,094,263	904	905	453,658	(44)	(545)	(640,605)	-58.5	
인 천	333	344	428,258	428	434	277,001	95	90	(151,257)	-35.3	
광 주	228	315	453,914	308	369	278,921	80	54	(174,993)	-38.6	
대 전	260	263	168,311	910	935	456,912	650	672	288,601	171.5	
경 기	1,851	2,131	2,547,993	2,199	2,384	1,233,492	348	253	(1,314,501)	-51.6	
강 원	596	703	459,097	507	549	204,770	(89)	(154)	(254,327)	-55.4	
충 북	607	671	445,850	432	479	257,138	(175)	(192)	(188,712)	-42.3	
충 남	537	555	462,383	321	285	298,035	(216)	(270)	(164,348)	-35.5	
전 북	327	434	506,364	248	248	152,031	(79)	(186)	(354,333)	-70.0	
전 남	447	535	254,079	410	455	192,551	(37)	(80)	(61,528)	-24.2	
경 북	602	805	656,701	478	548	293,555	(124)	(257)	(363,146)	-55.3	
경 남	908	1,084	966,832	1,062	1,195	706,391	154	111	(260,441)	-26.9	
제 주	451	481	183,276	204	209	91,422	(247)	(272)	(91,854)	-50.1	
합 계	11,138	12,507	10,741,856	12,426	13,240	9,811,975	1,288	733	(929,881)	-8.7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6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비율(%)	
서울	10,411	10,475	10,329,225	13,308	13,336	26,632,121	2,897	2,861	16,302,896	157.8	
부산	5,366	6,469	4,567,984	4,324	5,704	5,362,734	(1,042)	(765)	794,750	17.4	
대구	7,506	7,944	4,929,795	5,322	5,366	3,507,801	(2,184)	(2,578)	(1,421,994)	-28.8	
인천	2,534	2,676	3,634,277	2,092	2,114	2,253,040	(442)	(562)	(1,381,237)	-38.0	
광주	1,754	2,345	2,731,463	1,811	2,155	1,328,122	57	(190)	(1,403,341)	-51.4	
대전	1,712	1,879	2,091,308	2,003	2,038	1,151,635	291	159	(939,673)	-44.9	
경기	12,699	14,350	14,593,570	10,166	11,170	6,306,311	(2,533)	(3,180)	(8,287,259)	-56.8	
강원	3,599	4,316	2,972,087	2,564	2,786	1,052,593	(1,035)	(1,530)	(1,919,494)	-64.6	
충북	3,190	3,567	2,196,665	2,288	2,549	1,227,123	(902)	(1,018)	(969,542)	-44.1	
충남	2,764	2,997	4,605,582	1,761	1,594	1,143,686	(1,003)	(1,403)	(3,461,896)	-75.2	
전북	1,662	1,877	2,239,492	1,347	1,349	1,024,639	(315)	(528)	(1,214,853)	-54.2	
전남	2,470	2,904	1,596,561	1,923	2,125	953,234	(547)	(779)	(643,327)	-40.3	
경북	4,189	5,375	3,945,802	2,652	3,251	1,456,266	(1,537)	(2,124)	(2,489,536)	-63.1	
경남	6,185	7,135	5,973,580	5,810	6,654	3,603,367	(375)	(481)	(2,370,213)	-39.7	
제주	1,468	1,532	582,600	953	1,032	464,691	(515)	(500)	(117,909)	-20.2	
합계	67,509	75,841	66,989,991	58,324	63,223	57,467,363	(9,185)	(12,618)	(9,522,628)	-14.2	()=미아너스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9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7월 9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9회

· 제1호의 안 : 일본 및 몽고방문 대표단 구성 승인의 건

- 대표단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2호의 안 : 잡지 수익사업 활성화 기본 계획(안) 승인의 건

- 잡지 수익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협의키로 하고 유보함

· 제3호의 안 : 97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97년도 예산편성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결의함

위원장-류근열 부회장, 부위원장-이의구 서울건축사회 회장, 위원 - 김광옥 이사, 이관영 이사, 이종관 이사, 임인혁 이사

· 제4호의 안 : 부산건축사회 직원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우리협회 대표단 몽골건축사회 방문

우리협회 몽골방문대표단이 8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몽골건축사회를 방문한다. 박경환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광옥 김동준 송인창 이사, 김영석 감사, 김지덕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가한 몽골방문대표단은 방문기간중 환영식과 간담회를 통해 몽골건축사회 협회 대표자들과 양국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북트란 궁전 등 몽골내 주

요건축물과 명승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지난 91년에 ARCASIA회원국에 가입한 몽골은 우리 협회와는 94년 12월 한·몽교류 가협정 체결이후 상호방문을 통해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다져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한·몽간 우호증진과 건축기술정보 교류를 위해 양국 건축사회가 상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몽골건축사회측 대표단이 우리협회를 방문, 양국사업계획서를 체결하고 창립3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96건축사자격시험 총 3,344명 원서접수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특별전형 응시자 12명을 포함해 총 3,344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6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22일에 시행되며 시험장소 및 시간은 9월 12일에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이번 시험에서 일반전형 응시자는 건축법규(객관식 선택형)와 건축설계(실기) 등 2개 과목을, 특별전형 응시자는 건축계획(객관식선택형)과 건축구조(객관식 선택형) 2개 과목을 시험보게 된다.

'건물하자에방대책'안내책자 발행

우리 협회는 부실건축물 추방의지와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기대를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구조진단을 통해 본 건물하자에방대책」이란 안내책자를 발행, 회원과 관련단체, 대학 등에 배포하였다. 이 책은 건축구조물 안전진단업무 내용을 수집, 조사·분석하여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설계·시공상 잘못 제시된 하자의 보수보강 방법을 분류하고, 설계·시공·감리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들을 지적, 열거함으로써 특히 회원들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꾸몄다.

'에너지절약형 핸드북-공동주택편' 발간

『에너지절약형 핸드북 제4권 - 공동주택편』이 발행되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 협회 건축설비위원회가 발간한 이 연구서는 공동주택의 설계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에 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설계방법과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난 90년 이후 제1권「주택편」을 시작으로 제4편「판매시설편」이 발간되는 동안 본서는 건축설계에 따르는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에 대한 인식 및 실무능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특히, 금년에 발간된「공동주택편」은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주거용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기술과 설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 세계건축가연맹 이사국 진출

우리나라가 지난 75년 이후 만21년만에 UIA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지난달 21일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는 지난 7월 1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20차 UIA(세계건축가연맹)총회에서 제4지역(아시아 태평양)이사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 한국이 속해있는 제4지역에서는 일본인건축가 렌 스즈키(Ren Suzuki)씨가 부회장에, 우리나라의 조재원(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가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의 국제건축가연맹 이사국은 모두 20개국이며 제4지역이사국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이다. 이번 이사국 진출은 세계무대에서의 한국건축의 위상신장은 물론 우리건축이 세계무대 한 가운데서 더욱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UN 등 세계기구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UIA는 세계 건축가들의 통합단체로 현재 150개국의 회원을 두고 회원국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외에 국제 설계표준화·교육제도의 설정 작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또 세계 각지역의 건축 및 도시발전 계획과 관련해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서울도심 주상복합건물 「높이제한」 완화

앞으로 서울도심 재개발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최고용적률이 현행 1천%에서 1천2백2십%까지 늘어나며, 늘어난 용적률 범위내에서 층고제한이 30층내외이던 지역은 추가로 20층까지, 20층제한지구는 13층안팎까지, 10층제한지구는 7층내외씩을 각각 더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 7월25일자 47면기사 참조)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8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주거복합형태로 짓는 건물에 대해 용적률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추가로 허용되는 층수의 높이가 50m를 초과할 수 없고 건물전체 높이로는 30층제한지역의 경우 50층까지라도 그 높이가 1백60m를 초과할 수 없다. 또 20층 제한지구는 전체건물높이가 1백50십m, 10층지구는 1백m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늘어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한편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 주변지역은 도심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층고제한규정이 30층에서 20층으로 강화됐다.

〈주상복합건물 높이규정〉

높이제한	지 역
160m이하 (50층 내외)	서린 무교다동 을지로 1, 2가 소공 소공4 명동 서소문 광화문
150m이하 (33층 내외)	도림 적선 세종로 신문로 신문로 2 청진 공평 장교 세운상가 세운상가 2,3 회현 남대문 북창 양동동자 서울역~서대문
100m이하 (17층 내외)	내수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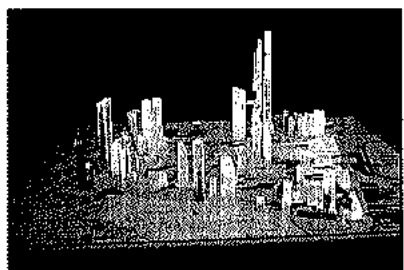
건설분야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지난 7월 10일 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대강당에서는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 등 6개 관련단체가 후원한「건설분야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건설분야의 표준화된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 설계, 자재나 부품 상호간에 치수나 성능, 방법, 순서 등에 관한 공통된 약속이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분야에서 표준화

가 정착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 및 이익과 편리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설분야의 공업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총 4부로 나누어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우리나라 표준화 실태 및 장단기 추진전략, 제3부 해외 표준화추진 선진사례 및 제언, 제4부 종합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건설기술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2부에서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실 김수암 실장, 대한주택공사부설 주택연구소 박준영 팀장의 발표와, 3부에서의 Jan Delrue(ISO TC 59 SCI의장, Katholieke Leuven대학 교수, 벨기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수와 임원들의 토론회로 이어진 4부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계의 문제점들을 다시 인식해 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4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를 마감했다.

(주)공간, 방콕 출라롱콘대학 마스터플랜 수주

(주)공간건축사사무소가 태국의 출라롱콘왕립대학 주변 30만평 재개발계획을 수주받았다. 지난 7월3일 (주)공간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미국의 SOM과 KPF 그리고 일본의 Nikken Sekkei 등 세계 유수의 설계회사들과 경쟁을 벌인 결과, 지난 5월말 출라롱콘대학측이 최우수 설계회사로 공간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건축주인 출라롱콘왕립대학은 태국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라마 5세왕에 의해 개교되었는데, 역사적·문화적 중심대학으로서 21세기 방콕의 얼굴을 재구성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40ha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태국문화연구센터, 병원, 과학테마공원, 사무실, 백화점,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되며 그중에서도 불교의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층 높이의 초고층 복합문화건물은 공간이 주도하는 작업중 주요부분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공간은 앞



마스터플랜 모형도

으로 프랑스의 GIE-VNF사, 태국의 TESCO사와 컨서시움 형태로 도시설계와 건축설계를 맡게되었다.

서울시신청사 동대문운동장 등 4곳으로 압축

서울시 신청사 부지가 동대문운동장, 독성, 보라매공원, 용산 등 4곳으로 압축됐다. 서울시는 9일 시민의 접근성이 높고 주변지역의 부수적인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들 4곳을 후보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8월중 신청사건립자문위의 1차 검토와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10월 신청사건립자문위의 2차 검토를 거쳐 11월 청사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97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고 98년 기본 실시설계를 마친 뒤 99년 착공해 2003년 완공할 예정이다. 청사부지가 확정되면 인근지역은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추가개발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들 후보지들이 부지면적 2만5천평 이상에 연면적 4만~6만평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국·공유지로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고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대 건축대학원, '96 건축설계교육 포럼 개최

경기대 건축대학원에서는 오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양평 대명콘도에서 '한국 현실에서의 건축설계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96 전국 건축설계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행사가 전반적인 설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던 데 비해 특히 올해의 포럼에서는 현재 각 대학에서 설계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 건축사와 건축관련학과 대학교수들이 초빙되어 설계스튜디오 교육프로그램에 담긴 철학과 방법론, 진행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담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계교육 포럼에는 건축사나 교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 /
전화 390-5245~6

제5회 건축가미술전 개최

건축가미술동호회(회장 한창진)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대치동 플러스사옥내 화랑에서 회원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등 여러 작품들이 선보일 이번 전시회를 위해 동호회 측은 현재 회원 및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중에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미술동호인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1인 3점 이내에서 작품 슬라이드 1매와 출품자 사진, 약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집 제작비를 포함해 1인당 참가비는 정회원이 15만원, 신입회원 3만원(가입비 별도)이다.

문의 : 562-4414, 542-9708

한국 인테리어디자인대전 작품상 수상작 발표

가인디자인그룹 / 월간 '인테리어'가 국내 인테리어디자인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주최한 제9회 한국 인테리어디자인대전 작품상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총 217점이 응모한 이번 대전에서는 안유경, 조경구(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실내환경디자인전공 4학년)의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대전은 민영백(민 인터내셔널대표, 위원장)씨등 총 5명의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맡아 주제, 계획, 독창성, 실현성, 표현방법 등 5개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심사를 벌였다.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바탕으로 한 복식 미술관」으로 이용자의 형태에 따른 디자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였으며 특별히 전통복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대상작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은 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 받았으며 수상작들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전시되었다.

제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화적 가치가 우수

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건축문화를 창출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는 「제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 건축물부문과 대학 건축전공 학생 및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의 계획설계작품을 대상으로 한 계획작품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과 10월 부분별로 작품을 접수한 후 10월 30일에 시상식을 갖고 이후 12월 14일까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 5개지역에서 순회전시회를 열게 된다. 이번 공모전의 일정 및 응모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응모부문 및 대상

- 준공건축물부문('95. 1~'96. 8. 30 준공된 도내 건축물)

·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장의 추천작품

· 문화상 제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의 추천작품

·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개별 접수된 작품

- 계획작품부문(이전 국내외 공모전에서 입상된 작품은 제외)

· 도내 소재 대학(대학원·전문대 포함) 건축전공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작품

·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로서 관계건축사의 추천작품

●응모방법

- 준공건축물부문

· 1차접수 :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8"×10"사진 10매 및 기본도면 수록)2부와 출품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간이소개서

· 2차접수 : 1차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패널 제출(해당작에 한해 추후 통보)

- 계획작품부문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100cm×100cm) 1점

· 작품설명서 1부 제출

· 공동작품의 경우 작가명의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작품접수 및 문의

- 준공건축물부문

· 접수기간(1차) : '96. 9. 9 ~ 9. 14
·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수원 장안구 파장동 556-1, 전화 47-6129~31)

- 계획작품부문

· 접수일 : '96. 10. 23(수) 09:00~18:00

· 접수처 :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3-12, 전화 32-3632)

· 작품응모신청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

● 수상작 발표 및 시상 : '96. 10. 30(수)

● 시상

- 준공건축물부문(설계자)

· 대상 1점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금상 1점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은상 1점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동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각 입상작의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건축주에게는 상패 및 기념동판 수여)

- 계획건축물부문

· 대상 1점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금상 1점 : 상패 및 상금 150만원

· 은상 1점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동상 1점 : 상패 및 상금 50만원

제3회 건축CAD학생작품 공모전

제3회 건축CAD학생작품공모전이 (주)전캐드, 건축CAD기술연구소의 주최로 열린다. 학생들의 CAD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적인 기술습득으로, 미래 국내 건축CAD분야 기술발전에 큰 토대를 마련코자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94, 95년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CAD/C.G를 이용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주제로 정하였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건축과 학생으로 팀당 인원제한 없이 단독 혹은 공동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작품마감은 9월 16일까지이며, 대상 1팀과 렌더링(판별)부문 4팀, 애니메이션(비디오)부문 4팀을 각각 선정,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문의 : 캐드클럽 598-2226~7

「세계투시도展」 첫 서울개최

한국투시도작가협회(회장 강병선)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중구 정동 문화일보사 갤러리에서 「건축투시도 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작가전과 국내작가전으로 나뉘어 열리는 데 세계전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내작가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각각 열린다. 특히 그동안 미국에서만 열려왔던 세계전이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어 건축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세계전에는 16개국 투시도 작가들의 작품 6백여점중 엄선된 52점이 전시되며 국내전에서는 우리 작가들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건축시간 안내

● 몽드리앙의 조형공간 교육론

근대건축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De Stijl와 함께 미술과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몽드리앙의 조형공간론에 관한 저서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교육이 이미 틀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고들을 제한하는 형태위주의 창작이라는 데에 문제를 두고 있다. 이 글에서 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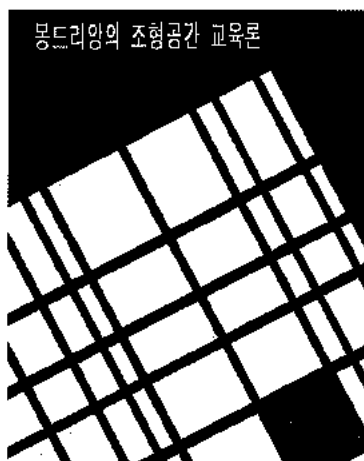
● 포커스 / 지금 북한에선...



북한 함경북도 나진시내 중심가 복합건물의 아파트 일부분 — 건물내에는 상점, 목욕탕, 미장원, 유아원,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다. ('96. 6. 27촬영 / Minolta 700SI 24~85mm)

사진제공 : 한중인 화원(중합건축사사무소 금성 대표)

몽드리앙의 조형공간 교육론



드리앙은 그간의 조형교육이 형태론적 관점에 서있음을 비판하고 새로운 조형방법론을 펴 보인다. 또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현대의 일반원칙하에 구성가능한 요소들의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미적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책은 또 몽드리앙이 끝내 실현시키지 못한 조형교육론의 보충이자 그의 조형사상과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충실한 해설서이기도 하다.

김현철 지음 / 국판번형/103쪽/9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